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 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y Measures for Provision of the Han-Style Public Buildings

이강민 Lee, Kang-Min
옥채원 Ok, Chae-Won

(a u r i

AURI-한옥-2011-4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y Measures for Provision of the Han-Style Public Buildings

지은이: 이강민, 옥채원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05호

인쇄: 2011년 12월 28일, 발행: 2011년 12월 30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20,000원, ISBN: 978-89-97468-03-4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Ⅰ 연구책임 이강민 부연구위원

Ⅰ 연구진 옥채원 연구원

Ⅰ 연구보조원 김국화, 김세윤

Ⅰ 연구심의위원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성호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장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Ⅰ 연구자문위원 김수현 문화관광체육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김세미 KAVO 운영 및 홍보담당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희곤 전남개발공사 시설사업팀 팀장
남충민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주무관
박정길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팀장
서인석 완도수목원 산림박물관 학예연구사
심동섭 전라남도 행정과 주무관
유나경 코레스엔지니어링 소장
윤대길 조선건축사사무소 소장
이봉수 삼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임기옥 전남개발공사 시설사업팀 대리
정현아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소장
조영귀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팀장
조정구 구가도시건축 대표
차종호 구가도시건축 실장
최주오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 관리담당
한진수 토방건축사사무소 대표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이 연구는 한옥 건축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공공건축물의 한옥화에 주목하여 보급방안과 관리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용도의 건물을 한옥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체계화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다양한 양상을 살핌으로서 공공 한옥 건축물의 한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의 사업 지원방식 및 지원금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보급 절차를 제도적으로 체계화하고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법적 분류기준 및 범주별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며,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2장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개념과 범주

연구의 제목으로 쓰인 한스타일은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고 있으나 자생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우리 고유문화를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하여 세계적인 문화명품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지원대상인 한옥의 정의는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서 매우 한정된 범위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은 현대건축물 내부의 인테리어를 한옥식으로 꾸미거나 외부 마당을 조성하는 등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필요하였기에 그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로 한스타일 건축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을 ‘현대적 편의성’과 ‘전통에

의 충실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한옥풍 건축, 신한옥, 정통한옥, 문화재한옥으로 구분하였다. 전근대한옥과 근대한옥을 포함하는 정통한옥은 유지 및 관리의 대상으로 보존을 위한 정책대상이 된다. 현대의 신공법을 적용한 신한옥은 적극적인 육성의 대상으로 이 연구의 주요대상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한국 고유의 건축요소 혹은 모티브를 반영한 현대건축인 한옥풍 건축은 직접적인 지원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옥문화의 진흥을 위해 참조할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스타일 건축으로 이어지는 공공건축 중 공공(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 주관이 되어 발주하고 공공의 예산으로 이어지는 시설 및 공간 환경으로 공공건축물의 범위를 한정하며, 시민대중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가진 시설을 연구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제3장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조성현황

신문과 뉴스상에 보도된 한스타일 건축물 중 사업 추진 주체가 공공이며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준공을 앞둔 60건의 건축물 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들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전체 60건 중 55%인 33건이 전라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지역만으로는 26건으로,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조성률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조성률을 보이는 지역은 전라북도(12%)와 서울(12%)이고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6건(10%)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시기별 조성현황의 특성을 보면, 한스타일 육성정책이 발표된 2007년 이후로 진행된 사업이 전체 60건중 49건으로 전체 사업 건수의 82%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사업은 재외공관을 제외하면 모두 지자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지원금과 보조금의 형태로 지방 정부의 사업 일부를 지원하고 권장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68%에 해당하는 41건이 신한옥이며, 그 다음은 한옥풍 건축으로 15%에 해당한다. 한실과 정통한옥은 각각 5건으로 낮은 조성률을 보인다.

이어서 정통한옥, 신한옥, 한실 등 건축유형에 따라 대표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정통한옥의 사례는 해화동 주민센터 리노베이션 사업을 살펴보았다. 해화동 주민센터는 1940년에 건축된 한옥을 사들여 주민센터로 리노베이션한 사례이다. 그러나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창호 및 내부 마감을 전통에 충실하게 고치고, 보다 주민들이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제2차 리노베이션이 진행 중이다.

신한옥은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축유형으로서 총 7개의 사례를 검토했다. 국회 한옥 사랑채는 그 상징적 의미에 걸맞게 크고 당당하게 지어졌다. 비싼 건축비가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지만, 목조공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무주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 안동 군자마을 회관은 지역 한옥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특별한 신기술 없이도 세련되고 합리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 훌륭하다. 구로구 어린이도서관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지어진 건물로서 2층 한옥을 실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시도가 성공적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남산국악당은 현대건축과 신한옥을 결합해서 미학적 정취와 현대적 용도를 해결했다. 커다란 공연장을 지하로 내려보내고 지상에는 단정한 한옥을 지어 주변 남산 한옥마을의 경관에 일조했다. 지하의 채광을 위해 정원을 썩크으로 구성하고 전통 화계를 조성한 점도 새롭다.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은 ㄷ자 한옥의 마당을 아트리움으로 구성하고 지하공간을 만들어 마당의 공간감을 키운 것이 새로운 시도이다. 한옥의 정취를 간직하면서 부분적으로 현대적 기술과 공간을 삽입시킨 기법이 뛰어나다. F1 한식육교는 자동차 경주장의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으로 지어졌다. 장스팬을 해결하기 위해 집성목을 사용하고 목재의 결합에 볼트를 이용하는 등 현대 목조의 기술을 적극 활용했지만 전통한옥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평가된다. 완도 삼림 박물관은 15세기 주심포 양식을 적극 채용하는 등 문화재급 한옥의 위용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전시설비 등 현대적 기능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옥풍 건축은 현대 구조로 건축되었지만 한옥의 외형으로 꾸민 건물로서 전남축산기술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연구실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철골조로 건물을 조성한 다음 목재로 철골을 감싸 한옥의 모습을 만들었다. 2층 구조의 어색함을 감쇄시키기 위해 아래층은 성벽의 이미지로 꾸몄고, 2층을 마치 누각처럼 보이게 했다. 기타 차고 등을 행랑의 모습으로 조성하고, 철제 난간을 목조 계자각 난간처럼 만드는 등 세부적인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 한실의 사례로는 산본도서관 한옥공간 리모델링과 안산 관산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리모델링을 들었다. 두 곳 모두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 자료실을 한옥풍 인테리어로 꾸민 곳이다.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좋은 평가와는 달리 한옥부

재의 마감이 미흡하고 내부에 들인 가구의 재질과 형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이와 같은 한옥들은 모두 주민들이 쉽게 방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어진 사례들로서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 널리 소개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다.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은 이들 건축물의 사업추진과정을 살펴 한옥 공공건축물의 활발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삼고, 아울러 미흡한 부분을 참고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제4장 한스타일 공공건축 관련 정책 및 산업 현황

지금까지의 한스타일 공공건축 관련 정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스타일 육성종합계획(2007~2011),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2000~2010)과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한옥건축 육성정책(2009)과 한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009), 외교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 추진계획(2009) 등이 대표적이다. 또 서울시의 한옥선언(2008)과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참고할만하다.

이들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한스타일 공공건축 조성사업은 일반적인 공공건축사업의 진행단계와 마찬가지로 기획단계, 계획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한스타일의 특징을 살리고 디자인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가 특히 중요하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 북촌테스크포스팀을 시발로 2009년 한옥문화과가 창설되는 등 지속적으로 한옥건축에 관한 전담조직을 운영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기획이 가능하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한옥주택을 담당하는 행복마을과와는 별도로 공공사업의 경우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어서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이다. 한옥문화진흥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옥건축 시범사업은 대체로 공공건축물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들 수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사업공모, 평가·예산지원 등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한옥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사업결과 보고를 담당하며, 심사위원이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계획, 사업시행, 운영·관리, 예산집행으로 나누어 서면평가를 진행하여 선정한다. 유사한 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부의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을 지원했

다.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시공에 영향을 주는 산업현황에는 자재와 재료비, 인력과 인건비, 공사진행과정에서 담당자들 간의 역할분담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들은 한스타일 건축 산업기반 미비, 한스타일 건축 기술기반 미비, 한스타일 공공건축 추진체계의 전문성 미비의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제5장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지원 및 관리 방안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지원 및 관리방안은 크게 촉진방안, 지원방안, 품질관리방안,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방안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후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들만을 추출했으며, 이에 대한 개괄적인 실천로드맵까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촉진방안은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이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준설계도서 및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이를 촉진시키며 각종 교육기회와 포상기회를 만들어 한옥문화를 장려하는 방안이다.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선 주민생활 지원시설을 선택하였으며, 이 시설들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민참여형 한옥정자는 계획·시공으로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옥의 장점을 체험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으며, 한옥 시공실습 교육매뉴얼을 통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한스타일 체험시설은 이미 몇몇 곳에서 효용이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정에 한스타일 건축기획 및 관리과정을 추가하여 건축담당 공무원의 한옥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기적인 한옥포럼 및 포상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것도 필요한 사안이다.

지원방안은 크게 예산지원, 자재지원, 기술지원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예산지원 부분은 가장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이지만 투입할 수 있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는 특히 2012년 국토해양부의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액을 산정하는 공식을 도출했다. 부족한 예산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연계가능한

프로그램의 복합화를 통해 여러 부처의 예산을 받는 방법과 한 가지 프로그램이지만 여러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산재 이용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한옥 공공건축물에 국산 목재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특히, 간벌재 등 지금까지 한옥 건축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목재를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점도 주목해볼 수 있다. 이 밖에 민간업체의 기술개발비 지원이나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한옥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한옥 공공건축물을 신기술 개발의 테스트베드로 이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

품질관리방안은 한옥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보장하고 사회적 모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운영방안이 된다. 사업진행과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한옥에 맞게 보완하며, 시공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본적인 체계정비뿐만 아니라 발주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또 한옥의 특성상 일반건축에 비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비 항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도 제시하였다.

법제도 개선부분은 한옥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며, 장기적으로 한옥 공공건축물을 장려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는 부분이다.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안은 한스타일 건축의 표준품셈 개발이다. 현재 한옥기술개발에서 진행 중인 표준시방서 개발 연구는 국내외 현대건축·목조건축·전통목조건축 조사분석, 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 적용 연구 등의 문헌조사 분석과 타 세부 연구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표준시방서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표준품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이밖에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기준이라든지 대규모 한옥건물 신축시 건축선 조항 등이 한옥 건축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을 원칙적으로 목조로 건축하는 것을 법령화한 일본의 사례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건축물에 한옥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일도 중요하다.

제6장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기획단계, 준공단계, 유지관리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가이드라인의 기본목표는 한옥 특유의 건

축적, 공간적 요소의 현대화 방향에 대한 공통의 이해기반 마련, 한스타일 건축의 최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디자인 지침 마련,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한옥 품질관리 지침 제공으로 요약된다.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한옥공간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품격과 최소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신한옥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실과 한식경관의 조성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한스타일 공공건축 설계 공모를 위한 설계지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설계사 선정 이후 기본설계 진행시 자문회의 안건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침이다.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은 전통 구법에 준하여 신축되거나 개보수된 한스타일 건축물의 완성도와 품질상태를 검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침으로서, 신한옥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통한옥과, 한실, 한식경관의 조성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은 활용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준공 가이드라인은 한옥 시공중 주요 공정이 끝날 때마다 책임 감리자 혹은 감독관이 시공 완성도를 검사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관리 가이드라인은 사후 한옥의 품질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한스타일 공공건축은 독립적으로 활성화될 수 없다. 현재 한옥 산업이 지닌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으며, 이에 더해 공공건축의 사업체계가 갖는 불합리한 단점들도 더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문화의 진흥을 선도하고 바람직한 공공건축물의 모범으로서 제시될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다.

주제어 :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공한옥, 신한옥, 한옥풍건축, 가이드라인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4. 선행연구 검토	8
1) 한옥 정책관련 연구	8
2) 공공건축 개선방안 관련 연구	9
제2장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개념과 범주	11
1. 국가브랜드로서 한스타일의 개념	11
2. 한스타일 건축의 개념과 범주	14
1) 한스타일 건축의 정의	14
2) 기존 한옥 유형분류 기준 검토	14
3) 한스타일 건축의 유형 분류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19
4) 한스타일 건축의 유형분류 체계	20
3.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의미	25
1) 한스타일에 적합한 공공건축의 범주	25
2) 한스타일 공공건축 인식 조사	29
3) 한스타일 공공건축 보급의 기대효과	34
4. 소결	35

제3장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조성현황37

1.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조성 현황	37
1) 지역별 및 시기별 조성현황	38
2) 사업 주체별 조성현황	40
3) 한스타일 건축 유형별 조성현황	40
2.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국내 사례	42
1) 사례 선정	42
2) 정통한옥 사례	46
3) 신한옥 사례	51
4) 한옥풍건축	84
5) 한실	90
3.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해외 사례	103
1) 북한의 사례	103
2) 국외의 유사사례	112
4. 소결	114

제4장 한스타일 공공건축 관련 정책 및 산업 현황117

1. 한스타일 공공건축 관련 정책 현황	117
1) 중앙정부의 한옥관련 정책	118
2) 지방자치단체의 한옥관련 정책	125
2. 한스타일 공공건축 조성사업 분석	128
1) 공공건축 사업의 기본 추진 체계	128
2) 서울시의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131
3) 전라남도의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136
3. 한스타일 공공건축 시범사업	139
1) 공공건축 시범사업의 추진체계	139
2) 국토해양부 한옥건축 지원사업	141
3) 문화관광체육부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143
4. 한스타일 공공건축 관련 산업현황	149
1) 자재공급 및 표준화 현황	149

2) 한옥 공사 직종 및 노임 현황	154
3) 공사진행 주체간의 역할분담	159
5. 한스타일 공공건축 사업의 문제점 진단	164
1) 한스타일 건축 산업기반 미비	164
2) 한스타일 건축 기술기반 미비	165
3) 한스타일 공공건축 추진체계의 전문성 미비	166
6. 소결	167

제5장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지원 및 관리 방안169

1. 촉진방안	169
1)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169
2) 표준설계안의 개발	177
3) 홍보 및 포상	182
2. 지원방안	186
1) 예산지원	186
2) 자재지원	193
3) 기술지원	199
3. 품질관리 방안	200
1) 사업진행과정의 전문성 강화	200
2) 발주방식의 개선	204
3) 유지관리비 책정 합리화	208
4. 법제도 개선	210
1) 한스타일 건축 표준품셈 개발	210
2) 방화지구내 내화구조 완화기준 마련	212
3) 대규모 한옥건물 건축시 건축선 조향 검토	213
4)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검토	216
5. 소결	219

제6장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221

1.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	221
1) 한스타일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의 목표 및 종류	221

2) 기존 공공건축 및 한옥관련 가이드라인 사례	224
3) 기존 공공건축 및 한옥관련 가이드라인 분석	232
2.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234
1)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체계	234
2) 디자인 기본원칙과 적용예시	235
3)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체크리스트	252
3.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255
1)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의 체계	255
2) 품질관리 검토사항과 검토후 조치사항 예시	256
3)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준공)	259
4)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관리)	262
제7장 결론	265
 참고문헌	 273
Summary	277
부록 1. 일본 공공건축 목재이용에 관련 법률 및 방침	283
부록 2. 설문조사 댓글토론 내용	297
부록 3.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보급을 위한 공무원 대상 수요조사	335

표차례

[표 2-1] 6대 분야 선정기준	12
[표 2-2] 국내 법령상 한옥의 정의	14
[표 2-3] 지자체 조례상 한옥의 정의	15
[표 2-4] 국내 법령 및 조례에 정의된 한옥의 기준 비교	16
[표 2-5] 한옥의 다양한 양상	18
[표 2-6] 한스타일 건축의 유형분류 기준에 관한 실무 전문가 설문조사	19
[표 2-7] 정통한옥 사례	21
[표 2-8] 신한옥 사례	22
[표 2-9] 한옥풍 건축 사례	23
[표 2-10] 한실 사례	24
[표 2-11] 공공건축의 정의	25
[표 2-12] 법적 기준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분류	26
[표 2-13] 정부건축/공용건축/공공화된 건축의 분류	27
[표 2-14] 공공건축 분류체계 분석 및 연구범위`	28
[표 2-15]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범주 및 사례	28
[표 2-16] 질문 1 설문조사 결과	30
[표 2-17] 질문 2 설문조사 결과	31
[표 3-1] 지역별 및 시기별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조성현황	38
[표 3-2] 주체별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조성현황	40
[표 3-3] 한스타일 건축 유형별 조성현황	41
[표 3-4] 유형별 국내사례	42
[표 3-5] 사례별 지상/지하 연면적 및 평당 순공사비 분포	43

[표 3-6] 해화동 주민센터 2차 리노베이션 사업 SWOT 분석 및 추진전략	48
[표 3-7] 해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내용 비교	49
[표 3-8] 2004년도 문화관광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56
[표 3-9] 축산기술연구소 본소 설계의 기본개념	86
[표 3-10] 평면 모듈 비교	88
[표 4-1] 공공건축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한옥 정책	118
[표 4-2]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중 한옥부문의 구성	119
[표 4-3] 국토해양부 한옥지원사업	120
[표 4-4] 지역별 사업 개수 및 지원금액	121
[표 4-5]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122
[표 4-6] '재외공관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의 주요 내용	123
[표 4-7]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유형별 사업개수	124
[표 4-8] 서울시 한옥선언 주요내용	125
[표 4-9]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 개요	127
[표 4-10]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	128
[표 4-11] 공공건축의 시설별 관리주체(예시)	130
[표 4-12] 한옥문화과 구성	131
[표 4-13] 서울시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132
[표 4-14] 2007년 세출예산(3,564억원 - 일반회계 11조 3,585억원의 3.1%)	133
[표 4-15] 2차 리모델링 세부추진 사항	134
[표 4-16] 담당부서 업무분담	135
[표 4-17] 해화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추진일정	135
[표 4-18]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137
[표 4-19] 전라남도 발간 한옥관련 도서	138
[표 4-20] 사례 _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체계	140
[표 4-21] 한옥건축사업 평가기준(국토해양부 내부자료)	143
[표 4-22]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일정(문화체육관광부)	145
[표 4-23] 산본도서관 한옥공간 조성사업 추진 일정	146
[표 4-24] 구로구 어린이도서관 한옥공간 조성사업 추진 일정 계획	146

[표 4-25] 안산 관산도서관 한옥공간 조성사업 추진 일정 계획(146
[표 4-26] 목재가격(a.비건조재, b.건조재)	151
[표 4-27] 목공사 비용 비교표	152
[표 4-28] 문화재 직종 구분 및 해설	154
[표 4-29] 평균임금현황	155
[표 4-30] 건축부문 직종별 노임 단가	156
[표 4-31] 교육기관별 프로그램 현황	158
[표 4-32] 단계별 협업구도	161
[표 5-1]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적정프로그램 예시	170
[표 5-2] 전국 주민생활시설의 수	170
[표 5-3] 주민참여형 한옥정자 건립사업의 체계	172
[표 5-4] 한옥 시공실습 교육매뉴얼 내용	173
[표 5-5] 사업단계별 주민참여 및 연계 방안	174
[표 5-6] 분야별 투자 비중(2010년)	176
[표 5-7] 각 용도별 표준설계도서의 활용현황	177
[표 5-8] 각 용도별 건물설계지침의 평면계획 관련 주요 내용	178
[표 5-9] 표준설계도서 연구개발 유형	178
[표 5-10] 한스타일 건축기획과정 교육계획안	183
[표 5-11] 교과목 편성(안)	183
[표 5-12]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건축비 비교	187
[표 5-13] 일반건축과 한스타일 건축비 비교	188
[표 5-14] 금산다락원 유관기관 지원 및 협조 현황	189
[표 5-15] 복합화 대상시설 종류 및 관련부처	190
[표 5-16] 프로그램별 정부부처 지원사업	191
[표 5-17] 한옥을 구성하는 목재 부재 예시(1고주 5량일 경우)	193
[표 5-18] 직접비 상세 - 재료비	196
[표 5-19] 민간업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안)	199
[표 5-20] 국가한옥센터 지원 내용	202
[표 5-21] 기존 감리업무와 사후설계관리업무 비교	206

[표 5-22] 건설사업관리 단계별 업무내용	207
[표 5-23] CM 방식의 관리요소별 비교	208
[표 5-24] 한옥 유지관리 비용	209
[표 5-25] 표준품셈 개발시 고려해야 할 사항	212
[표 5-26]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목재이용의 촉진계획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	217
[표 6-1]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활용	222
[표 6-2]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의 활용	223
[표 6-3] 한옥공간 디자인의 고려요소	224
[표 6-4] 한옥시범마을 계획요소 분류	226
[표 6-5]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지표(안)	227
[표 6-6] 전라남도 한옥시공 매뉴얼 연구흐름도	228
[표 6-7] 금성건축 시공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분류기준	229
[표 6-8] 금성건축 시공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분류기준	230
[표 6-9] 한옥의 구축 단위와 단위별 항목	231
[표 6-10] 성능개선을 필요로 하는 한옥의 기술단위와 단위별 항목	231
[표 6-11] 한옥의 주요 공정	231
[표 6-12] 기존 한옥/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비교 및 분석	232
[표 6-13] 기존 한옥 시공(기술)기준 비교표	233
[표 6-14]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계	234
[표 6-15] 목재의 종류	241
[표 6-16]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체계	255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	7
[그림 2-1] 한스타일 구성도	11
[그림 2-2] 한국전통문화를 통합하는 메타컨셉으로서의 ‘한의 의미, 문화관광부(2006)	12
[그림 2-3] 현대적 편의성에 전통에의 충실도에 따른 한옥의 분포양상 (전봉희, 2006)	18
[그림 2-4] 전통에의 충실도에 따른	20
[그림 2-5] 현대적 편의성과 전통에의 충실도에 따른 한스타일 건물의 분포 양상	21
[그림 2-6] 한국 동경문화원 외부 마당 <출처: 조선건축>	24
[그림 2-7] 설문조사 사이트	29
[그림 2-8]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보급을 위한 공무원 대상 수요조사 설문 문항	32
[그림 3-1] 1차 리노베이션 이후 혜화동 민원실	47
[그림 3-2] 혜화동 동사무소 정면부 (위치1)	50
[그림 3-3] 자치회관 사이길 (위치3)	50
[그림 3-4] 동사무소 후면부 (위치2)	50
[그림 3-5] 한강을 조망하는 북측 전경	53
[그림 3-6] 누마루 내부	53
[그림 3-7] 중앙홀	54
[그림 3-8] 접견실 (온돌방)	54
[그림 3-9] (상) 남측입면도, (하) 평면도	57
[그림 3-10] 사랑채와 안채 연결마루	58

[그림 3-11] 사랑채 강의실	58
[그림 3-12] 구로구 한옥 도서관 향측 전경	60
[그림 3-13] (상)1층평면. (하)2층평면	61
[그림 3-14] 도서관 부분 단면도 (누다락, 서가, 아트리움공간)	62
[그림 3-15] 도서관 서가	63
[그림 3-16] 한옥 체험시설	63
[그림 3-17] 동판지붕의 회랑	63
[그림 3-18] 중앙 마당	63
[그림 3-19] 아트리움 공간의 이용	64
[그림 3-20] 다락 열람실 공간의 이용,	64
[그림 3-21] 1층 평면도 〈출처: 금성건축〉	66
[그림 3-22] 측 마당과 화물용 승강기 입구	67
[그림 3-23] 행랑채에서 바라본 안마당	67
[그림 3-24] 남측 입면도 〈 출처: 금성건축 〉	67
[그림 3-25] 지하층 국악 공연장	68
[그림 3-26] 서측 단면도 〈 출처: 금성건축 〉	68
[그림 3-27] 녹우당과 윤선도 유물전시관	70
[그림 3-28] 전시동	70
[그림 3-29] 지하1층 평면도 〈도면출처: 금성건축〉	71
[그림 3-30] 전시동 아트리움 단면도 〈출처:금성건축〉	72
[그림 3-31] 악성 김창조 기념관 친환경 에너지 계획	72
[그림 3-32] 집성목구조 입면 처리	73
[그림 3-33] 전시동 입면	74
[그림 3-34] 입면도 〈출처: 삼진 건축〉	76
[그림 3-35]양시도 〈출처: 삼진 건축〉	76
[그림 3-36] F1 한식육교 내부	77
[그림 3-37] 불소코팅 알루미늄 기와	77
[그림 3-38] 육교 창호 입면	77
[그림 3-39] 누각 내부사진	78

[그림 3-40] 누각 단면도	78
[그림 3-41] 지상1층 평면도	80
[그림 3-42] 단면도	80
[그림 3-43] 북측 정면 입면도	81
[그림 3-44] 창살과 공포의 디테일	81
[그림 3-45] 부재의 구조미를 고려하지 않은 인테리어 마감	82
[그림 3-46] 전시장 내부	82
[그림 3-47] 옷칠 보수공사중 (2011.09.)	82
[그림 3-49] 휴게공간(좌)상설전시동 휴게실.	83
[그림 3-50] 시스템 목재를 사용한 시공	85
[그림 3-51] 시스템 목재의 결합부 디테일	88
[그림 3-52] 띠살창 방충망	88
[그림 3-53] 2층 인테리어 마감	88
[그림 3-54] 2층 전면의 누각	88
[그림 3-55] 2층 옥상정원	88
[그림 3-56] 본소 건물과 실험동의 서측 전경	89
[그림 3-58] 1층부 알루미늄 장식 홈통	89
[그림 3-59] 교자각 형식의 알루미늄 난간	89
[그림 3-60] (좌) 산본 도서관 1층 평면도, (우) 어린이 자료실 평면,	92
[그림 3-61] 어린이 자료실 입구	92
[그림 3-62] 낮은 천장높이의 진입부 대출카운터	92
[그림 3-63] 아동실	93
[그림 3-64] 내부 한식 창호	93
[그림 3-65] 서고	93
[그림 3-66] 아동실	93
[그림 3-67] 열람실 <출처: 구가도시 홈페이지>	94
[그림 3-68] 테라스	94
[그림 3-69] 수유실 <출처: 구가도시 홈페이지>	94
[그림 3-70] 유아실 <출처: 구가도시 홈페이지>	94

[그림 3-71] 도서관 내부 전경 <출처: http://ggholic.tistory.com/1077 >	96
[그림 3-72] 어린이 열람실 평면도	97
[그림 3-73] 어린이용 서가	97
[그림 3-74] 좌식 열람공간 (좌)방, (우)정자	97
[그림 3-75] 유아용 열람실/서가 <우측 사진 출처: cafe.daum.net/4911292 >	98
[그림 3-76] 평면 및 입면도 (상) 평면도, (하) 마당측 입면도	100
[그림 3-77] 단면도 <출 처:조선건축사사무소>	101
[그림 3-78] 대청마루 천장	102
[그림 3-79] 문을 들어올린 후 내부공간	102
[그림 3-80]인민대학습당 단면도	104
[그림 3-81]인민 문화궁전 2층 평면도	105
[그림 3-83]인민대학습당 단면도	106
[그림 3-84] 옥류관 1층 평면도	108
[그림 3-85]평양 송어국집 배치도	109
[그림 3-86]개성 민속여관 수변	109
[그림 3-87]모란각 평면도	110
[그림 3-88]안주 칠성각 평면도	111
[그림 4-1] 전남개발공사 건축 업무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163
[그림 4-2] 한옥 BIM 모델링 연구	164
[그림 4-3] 내화구조 인증을 받은 타니 클럽하우스	165
[그림 5-1] 한옥파출소와 주민센터 예시	171
[그림 5-2] 한옥정자 건립 사례	174
[그림 5-3] 한스타일 체험관 예시	175
[그림 5-4] 표준설계안 제안 예시	179
[그림 5-5] 시스템 목재 개발 및 시공과정	181
[그림 5-6] AURI 정책포럼 포스터 및 사진	184
[그림 5-7] 한옥공모전 패널전시 및 시상식	185
[그림 5-8] 한옥 공종별 투입 공사비 비율	194
[그림 5-9] 간벌재로 지은 한옥분위기의 황토집	197

[그림 5-10] 간벌재를 사용한 건축물 - 국립수목원 목재체험관	198
[그림 5-11]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구성(안) 예시	201
[그림 5-12] 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202
[그림 5-13] 한옥 표준시방서 연구진행계획도	211
[그림 5-14] 남악신도시 비즈니스센터 - 어색한 건물비례 및 목재손상	214
[그림 6-1] 한옥 표준시공 work flow	229
[그림 6-2] 전라남도 한옥시공매뉴얼 'v3.한옥 유지/관리/보수 매뉴얼' 항목	229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배경

□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

“한옥에 살고 싶다”라는 명제가 사회를 풍미한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매스컴에 한옥이 소개되고 그것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체험담이 블로그를 통해 재생산되었으며, “한옥이 돌아왔다”, “한옥에 살어리랏다” 등 세련되게 정리된 한옥에 관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옥 붐은 절정에 달한 것 같다. 2008년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42%의 국민이 한옥에 살고 싶다는 응답을 했다고 하니 과히 열풍이라 할만하다.

한옥은 글로벌 시대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한국 드라마와 가요가 아시아로 수출되면서 평가받기 시작한 한국문화 열풍은 2002년 월드컵 신화를 계기로 증폭되었고 놀라운 성과의 본질을 찾아내려는 시도들은 전통문화로 눈을 돌렸다. 한글의 우수함, 한복의 우아함, 한식의 정갈함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서 한옥의 가치가 상승했다. 한옥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은 한국문화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같은 시기 서울시는 청계천을 복원했다. 지난 건축·토목사업이 경제적 합리성, 산업과 유통의 효율성에 입각한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면, 청계천 복원

은 도시경관의 혁신과 문화적 상징의 개발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도시조직을 파괴하는 전면적인 재개발도 아니었다. 수십 년 전의 경관을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역사의 흔적을 드러내는 일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되었다.

이보다 조금 앞서 서울시는 북촌가꾸기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우연한 조건 아래서 한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던 북촌을 정비해서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사업이었다. 북촌의 한옥은 대단한 작품성을 지닌 건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촌가꾸기 사업의 성공은 근대기 부동산 자본에 의해 개발된 경사지의 평범한 기와집과 좁은 골목의 매력을 단숨에 한국 주거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부상시켰다. 더구나 한옥에 오피스, 애플리에, 병원 등 새로운 기능을 접목하려는 시도는 신선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사실 한옥은 오랜 기간 주거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었다. 20세기 근대화의 기치 아래, 주거문화의 개선은 한옥을 탈피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불편하고 낡았으며 전근대의 상징인 한옥은 낙후된 한국문화의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아파트가 한옥을 대체하면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농촌에서는 새마을 주택이 한옥을 대체하면서 경관을 일신했다. 아무도 한옥과 거주 문제를 연결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한옥이 사회적·문화적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면서 당면한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한옥의 낭만적 흥취와 정서적 포근함은 아파트 중심의 갑갑하고 획일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한옥을 상점이나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 이용된 것이 기존 한옥에 준 활력이라면,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낀 귀농인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신한옥의 수요를 촉발시켰다. 다만 문제는 여전히 한옥의 단점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옥 수요는 매우 낭만적이다. 즉, 산업이라고 할 만한 공급체계가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한옥의 건축을 고려한 법체계가 정비된 것도 아니며, 현대식 설비와의 접점을 해결한 것도 아니다. 고급 한옥은 창의적인 건축가의 아이디어와 솜씨 좋은 장인의 기술로 멋진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서민들이 엄두를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한옥에 살고 싶다는 명제는 아직은 꿈에 더 가깝다.

그러나 어떤 지역들에서는 그 꿈이 실현되고 있기도 하다. 대개의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의 일정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비를 지원하고, 세제를 감해주는 일을 포함해서, 건축 단가를 낮추고, 성능을 개선하고, 장점을 홍보하는 역할을 다분히 국가기관에서 떠맡고 있다. 즉, 한옥문화 진흥의 초기단계에서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한옥 공공건축물에 관한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대두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토부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 2008년부터 지자체 한옥조성사업 지원 (※ 2010년 2개소, 총 5억 원 지원)

문체부 ‘한옥공간활성화 시범사업’

: 현대건축물 내 일부공간을 한옥화사업 진행 (※ 2009년 4개소, 총 8억 원 지원)

(도서관 한옥화사업)

□ 한옥 건축 개념의 모호함

2010년 2월 18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다. 대통령령의 개정에 불과한 일이긴 하지만 한옥의 입장에서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만한데, 이 때 처음으로 건축법령에 한옥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은 근대식의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그리고 철골조를 주된 고려 사항으로 두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통 목조 구조인 한옥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요소가 많았다. 새롭게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특별하게 한옥에 대해 불리한 몇몇의 조항에 대하여 완화 규정을 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 법령과 조례는 한옥에 대한 특례 조항 즉, 다른 구조의 건축물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한옥의 정의는 공공재로서 보호·진흥해야할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기준으로 몇 가지 어휘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거의 모든 정의에서 제시된 한옥여부 판단의 기준은 ‘한식기와’와 ‘목구조’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한식 지

붕틀이라고 하는, 이미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규정을 되살려 내기도 했다. 다음으로 ‘전통미’와 ‘자연재료’가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전통미 혹은 전통양식이라는 다소 애매하고 개방적 규정을 사용한 것은 이 시대에 한옥을 짓는 건축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수용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연재료의 사용을 규정한 것은 친환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건축계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인지 공공건축물인지 등 용도의 측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새로운 조형이나 기술이 도입될 가능성이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문화재한옥은 보존과 관리, 정통한옥은 보전과 활용, 현대한옥은 보급과 육성의 대상이 된다. 문화재한옥은 다른 모든 한옥의 모범으로서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현대적 용도에 맞추어 형태와 구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식기와’, ‘목구조’, ‘전통미’, ‘자연재료’ 등 한옥의 현행 제도적 정의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공비의 절감, 단열·기밀성의 확보, 대규모 공간의 실현을 위해서 일부 재료와 구조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신한옥은 이처럼 한옥의 현대화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서 정의된 현대한옥보다 더욱 개방된 정의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한옥의 가치를 계승하되 기술과 재료면에서 자유도를 높여 다양한 건축실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준들이 다듬어지고 있다. 신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 방식과 외관을 기본으로 하되, 복합적인 구조방식과 혁신적인 시공방식, 성능 향상된 재료 등으로 구축된 건물로 정의되는 것이 보통이다¹⁾. 다만 아직 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일단락되지 못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할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시공비 절감을 위해 보와 도리로 이루어지는 지붕틀구조를 트러스구조로 교체하는 것을 용납할 것인지, 또는 철골 등을 사용해서 구조를 만들고 바깥을 목재로 감쌌을 경우도 한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난감한 문제가 많다. 특히, 국가에서 신한옥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신한옥의 정의는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한옥의 모양만을 본뜨거나 일부 모티브를 차용한 건물도 있다. 예를 들

1) 국토해양부(2009),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 1」, 국토해양부.

면, 경주의 보문단지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의 한옥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의사 한옥의 경우,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근거가 미약한 형편이다. 특히, 대체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옥 공공건축물의 건축 상황을 고려할 때 분명히 검토해야할 지점이 된다. 더구나 한옥의 체험이 쉽지 않은 도심에서 현대건축의 일부 실내를 한실로 조성하거나, 정원을 한스타일로 꾸미는 일이 이미 장려되고 있는 바 한옥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범위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한옥 공공 건축물의 선도적 기능과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기대감 급증

2000년도 이후 정부(국토해양부,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한옥의 장점을 홍보하고 한스타일 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여러 한옥 공공건축물이 주민들의 만족을 토대로 언론에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스타일 공공 건축물의 보급 절차를 제도적 체계화하고, 한스타일 공공 건축물의 법적 분류기준 및 범주별 정부 지원책 마련하며, 한스타일 공공 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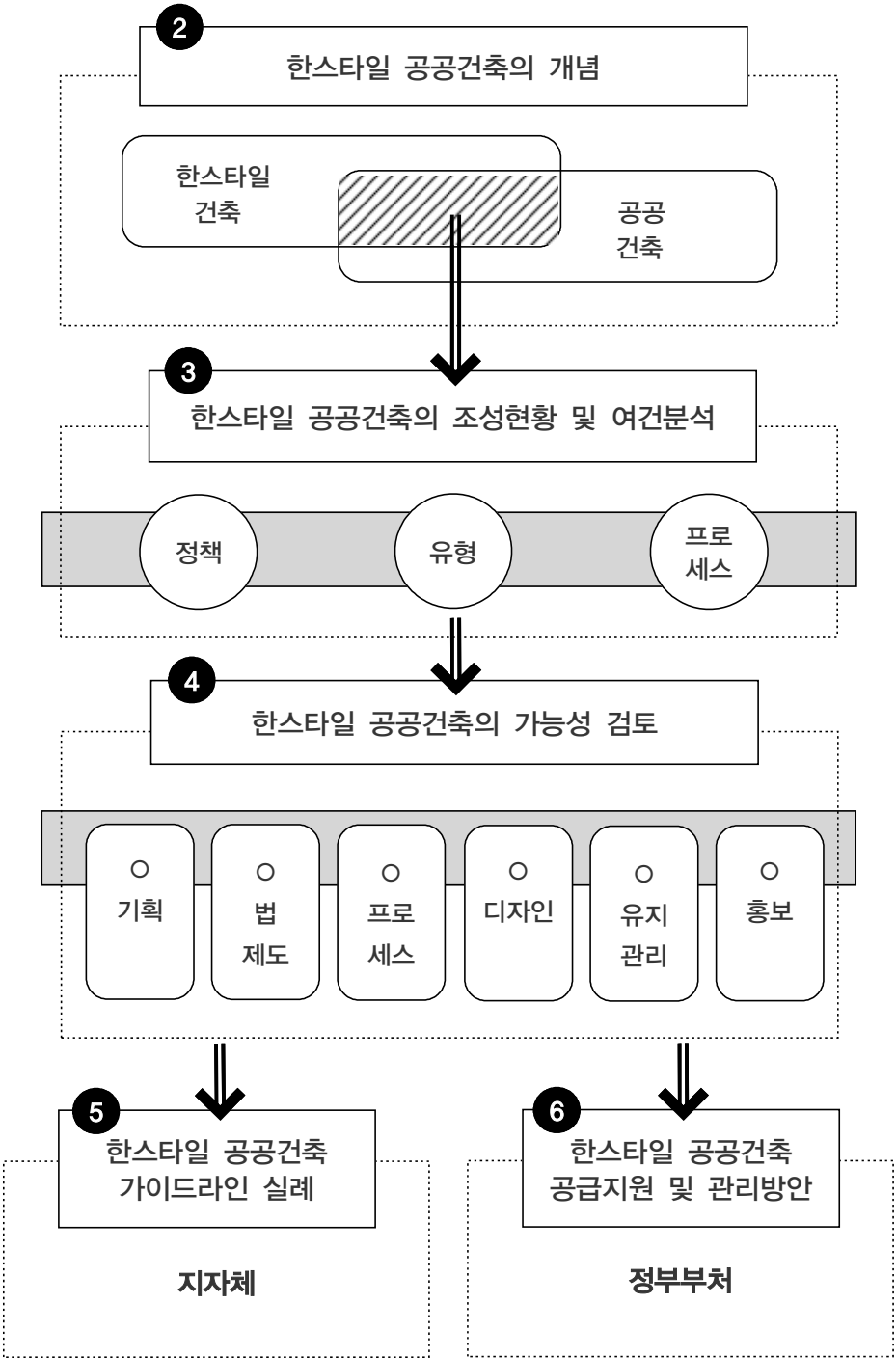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공공 한옥 건축물의 한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사업 지원방식 및 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기 위하여, 한스타일 공공건축에 대한 정의와 범주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대 건축물과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기획에서부터 시공후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사업 과정에 대한 단계별 추진 방식 및 품질 관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현재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한스타일 양식을 채용하는 공공건축물을 주된 연구범위로 하고, 효율적 조성 및 보급을 위한 예산, 기술, 제도 지원 등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에 준공된 한스타일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례조사 및 경향 분석하고, 현행 정부 및 지자체의 한스타일 공공 건축물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공공 한옥건축물 보급을 위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사업 단계별 지원책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지원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한스타일 공공건축 관련사업 및 정책을 분석하고 한옥 설계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수행하여 연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일반인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식과 필요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한스타일 보급에 있어 적절한 프로그램과 예산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정부의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지원 및 관리방안 도출 및 지자체의 사업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1) 연구 흐름도



[그림 1-1] 연구의 흐름

4. 선행연구 검토

1) 한옥 정책관련 연구

□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연구 (국토해양부, 2008.07)

한옥건축의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한 분석과, 한옥의 정의 및 개념을 분석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상위법에서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 한옥관련 도시건축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하여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법률의 위상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거용 한옥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 한옥건축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기획 연구 (국토해양부, 2008.07)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단위공간의 설계지침을 제시하였으며 건축구조, 건축재료, 건축시공, 건축설비 등 기존 한옥건축에서 현대화되지 못한 요소기술들의 현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옥건축 관련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대중화 기반구축 및 전문가의 저변확대, 일반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지원방안 로드맵 제시 등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

한옥의 특성 및 기존의 한옥 관련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한옥활성화의 기본적 전략을 제시하며 ‘한옥공간’의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사례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내 한옥공간 구현을 위한 시범계획안을 제시하고 검토하여 향후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한실 적용의 효용성을 확인해준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 (국토해양부, 2009.10)

신한옥 성능기준 연구, 한옥건축 부자재 규격기준과 모듈, 보급형 한옥 설계과정과 시범설계안, 한옥건축 아카이브의 체계 마련, 한옥마을 계획기준 마련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 한옥 환경성 평가 및 한옥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0.02)

한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한옥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 한옥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전략의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한옥 활성화를 위하여 제시한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2) 공공건축 개선방안 관련 연구

공공건축 관련 연구로는,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7),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 개발 연구(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공공건축 설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자인 행정 지원방안(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0) 등의 연구가 있으며, 기존 공공건축의 프로세스 및 품질 관리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주로 제시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공건축의 문제점은 한스타일 공공건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참고할 만한 선행연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한옥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공공건축의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제2장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개념과 범주

1. 국가브랜드로서 한스타일의 개념
2. 한스타일 건축의 개념과 범주
3.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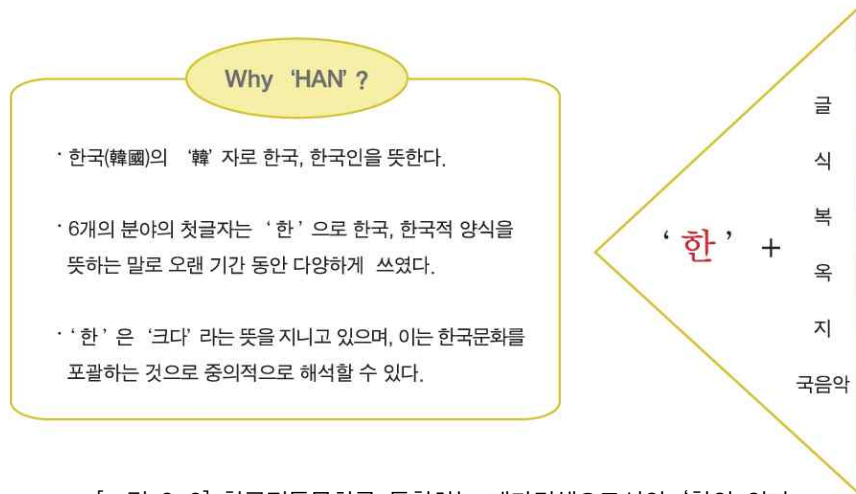
1. 국가브랜드로서 한스타일의 개념



[그림 2-1] 한스타일 구성도

한옥의 상품성에 대한 검토는 문화관광부 주도의 한브랜드화 사업에서 활성화되었다. 2005년 5월에 수립된 ‘한브랜드 지원전략’은 경제발전과 한류열풍 등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진단하고 브랜드화하기 위

한 기획이었다. 같은 해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신일본양식·브랜드 추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네오 제패네스크(Neo Japaneseque)’를 국가 브랜드의 명칭으로 정했다. 이처럼 21세기 초 자국 전통 문화의 브랜드화는 하나의 세계적 트렌드로도 볼 수 있다.



[그림 2-2] 한국전통문화를 통합하는 메타컨셉으로서의 ‘한의 의미, 문화관광부(2006)

한스타일의 대상은 6개 분야, 즉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이 선정되었다.

[표 2-1] 6대 분야 선정기준

구 분	전통문화의 핵심이면서도 자생력이 부족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
일상성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의·식·주 분야
상징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분야
산업화 가능성	세계무대에서 소비될 수 있는 상품가치를 지닌 분야
정책화 필요성	미지원 분야로 시장기능에 의존이 어려운 분야

한스타일 사업은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고 있으나 자생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우리 고유문화를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하여 세계적인 문화명품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7년 2월 15일에 발표된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에 그 구체적인 방안이 수록되었다.

한(韓)스타일이란 우리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띄며, 생활화·산업화·세계화가 가능한 한글,한식,한복,한지,한옥,한국음악(국악) 등의 전통문화를 브랜드화 한 것을 말한다. 2)

‘세계문화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 개척’이라는 정책비전에 따라 추진된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은 모두 40개의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한옥에 5개의 과제가 할당되었다. ①전통 한옥건축의 보전·관리 및 활용 ②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③한옥건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④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 ⑤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이 그것이다.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한옥관련 사업은 국어민족문화과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 중이다. 국어민족문화과에서는 2007년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한옥건축 활성화 시범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옥건축 활성화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한옥 공공건축물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리모델링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에 20개소가 접수되었고, 이중 서울시 구로구 청소년 도서관, 안산시 관산도서관, 군포시 산본도서관, 여주시 현암도서관이 선정되어, 각각 2억 원씩 지원되었다.

공공시설을 한옥으로 짓거나, 실내에 한옥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은 한스타일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국가브랜드 위원회와 외교통상부는 글로벌 코리아 추진계획에서 재외공관의 국가브랜드 거점화 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총 156개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의 주요 응접 공간을 전통 한옥, 한지 등 한국의 전통을 살린 품격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이에 더해 무형문화재 가구와 우수 미술품 및 전통 공예작품을 전시하여 한국적 공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07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저의 게스트룸과 유엔 한국대표부 건물이 전주한지 등으로 새단장된 바 있으며, 최근 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 사랑방이 한옥으로 지어져 찬사를 받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스타일의 확산을 위한 또 하나의 축은 기존의 한옥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일이다. 이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에서 주도하고 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2000~2010), 고택·종택 관광자원화 사업(2004),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2007), 3대 문화권 개발사업(2010~2019)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기존 한옥에 숙박시설이나 체험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현대식 설비를 지원해주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한스타일」, <http://www.han-style.com>.

2. 한스타일 건축의 개념과 범주

1) 한스타일 건축의 정의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한스타일 건축이란, 한옥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한옥 및 한옥 부속물과, 한옥 고유의 공간적, 의장적 특징을 갖춘 건축 일체를 말한다.

전통적인 ‘한옥’과는 차별화된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한옥’에 해당하는 일체의 건물 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다양한 유형의 ‘신한옥’과 및 건물 내부에 구축된 한식 인테리어 공간과 외부 경관 요소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한다.

2) 기존 한옥 유형분류 기준 검토

① 법제도상에 명시된 한옥의 범의와 정의

[표 2-2] 국내 법령상 한옥의 정의

법령 및 조례명	소관 부처	소관 부서	내용	제정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국토 해양부	건축 기획과	16.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벚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시행 2010.2.18]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6. 관광편의시설업의종류 차.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대통령령 제22058호, 2010. 2. 24

* 출처: 국토해양부 (2010), 「한옥활성화 실천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p.16.

가장 최근의 국내 법령에 명시된 한옥에 관한 정의를 보면, 공통적으로 ‘한식기와’와 ‘목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통양식’ 혹은 ‘고유의 전통미’라는 주관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한옥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표 2-2]

[표 2-3] 지자체 조례상 한옥의 정의

지자체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한옥의 정의	해당 지자체	제정일
“전통도시한옥”이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전북 전주시	2002.02.15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2002.05.20
	경기도 수원시	2009.06.19
	전남 분청	2005.12.29
	전남 강진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2007 ~ 2009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남 여수시	2007.05.31
“한옥”이라 함은 기둥 및 지붕틀이 목재, 지붕 마감재는 한식기와이며, 벽체는 흙, 황토벽돌 등 친환경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남 영암군	2008.01.31
	전남 고흥군	2009.01.09
	전남 함평군	2009.01.20
	전남 장성군	2009.06.23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인 기둥 및 지붕틀이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남 무안군	2008.10.27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흙, 황토벽돌(블럭), 한식기와 등의 친환경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남 담양군	2009.04.20
“한옥”이라 함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 중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한 건축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경북 고령군	2009.12.24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경남 도청	2009.12.31
“전통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 또는 초가를 사용한 건축물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경북 경주시	2010.05.1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라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벚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전북 완주군	2010.10.07

* 국토해양부 (2010), 「한옥활성화 실천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p.11의 표에 항목 추가

관광 진흥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 한옥이 정의되기 이전까지 한옥에 대한 정의는 지자체 조례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2002년도에 전주시와 서울시에서 제일먼저 한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라남도의 여러 도시와 군들도 그 뒤를 이어 2005년도에서 2009년도의 시기동안 해당 지역의 조례에 한옥 관련 조항을 넣기 시작했다. [표 2-3]

국내 법령 및 조례에 정의된 한옥의 세부내용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2-4]³⁾와 같이 공통적으로 ‘한식기와’와 ‘목구조’를 충분조건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전통양식’혹은 ‘전통미’를 그 다음으로 한옥을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명시하였다. ‘자연재료’ 역시 4건의 조례에서 언급되어 있다.

전주시(2002) 조례의 경우에는 단독 건물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건물 외의 지역경관요소인 대문, 담장을 명시하였다.

[표 2-4] 국내 법령 및 조례에 정의된 한옥의 기준 비교

법령 및 조례명	한식기와	목구조	전통양식	자연재료	기타 명기된 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	○	○	한식지붕틀, 볏짚, 목재, 흙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	○	○		
서울, 수원	○	○	○		
고령	○		○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기준
경주 *‘전통한옥’의 정의	○	○	○		초가
전주 *‘전통도시한옥’의 정의	○	○	○		대문·담장
완주	○	○	○	○	건축법 시행령에 따름
여수	○	○			기와
무안	○	○			
담양	○	○		○	벽체: 흙, 황토벽돌 등 친환경자재
고흥,영암,장성,함평	○	○		○	
전라남도 본청, 강진,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목포, 보성, 순천, 신안, 영광, 완도, 장흥, 진도, 해남, 화순	○	○			
경상남도 본청	○	○			

* 국토해양부 (2010), 「한옥활성화 실천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p.17의 표에 항목 및 내용 추가

3) 위의 연구를 토대로 추가 작성.

② 한옥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검토

□ 신한옥과 한옥에 관한 분류 기준 제안⁴⁾, (2008, 국토해양부)

2008년도에 발표된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연구에서 제안한 신한옥과 한옥을 분류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옥은 주요 구조부가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목구조방식'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한식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전통적인 외관'을 갖춘 건축물 및 부속시설을 말함.

신한옥은 주요구조부가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목구조방식'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대적인 기술과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을 말함.

신한옥을 한옥과 구분함에 있어, 건축법상 '한옥'에 대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 방식이되, 건축성능과 관련하여 '현대적인 기술과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이라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옥의 단점으로 논의되는 사항이 재료 자체가 지니는 한계나 기술과 공법의 한계라는 점⁵⁾에서 볼 때, 제안된 분류 기준은 신한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현대 한옥의 다양한 양상에 따른 계층적 분류⁶⁾, (2008, 문화체육관광부/한국건축역사학회)

문화관광부와 한국건축 역사학회에서 함께 수행한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에서 제안한 분류 기준으로서, '현대적 편의성'과 '전통에의 충실도'라는 두 가지 틀을 기준에 따라 한옥의 다양한 양상을 각기 분석한 후에 두 가지 분류의 틀을 하나의 큰 체계로 통합하여 한옥의 종류와 범주를 구분하였다.

먼저 '현대적 편의성'과 관련하여 한옥이 현대인의 삶 안에 자리 매김하면서 나타나는 현대한옥의 7가지 양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의 항목별로 현대적 활용 가치 및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표 2-5]

4) 국토해양부(2008),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연구」, 국토해양부.

5) 단열기밀기능의 한계, 구조적 한계로 인한 대규모 현대 공간 구현의 어려움,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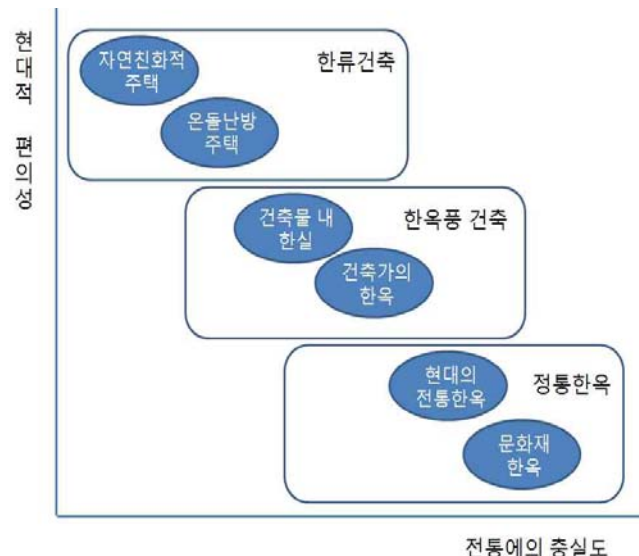
6) 문화체육관광부·한국건축역사학회(2008), 「한옥건축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p.23~28.

[표 2-5] 한옥의 다양한 양상

한옥의 다양한 양상	내용
문화재 한옥	전통시대에 건축된 것 중, 학술적,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며,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함. 한옥의 현대적 계승을 논할 때, 참조의 원점이 됨
현대의 전통한옥	통적인 기법을 전수한 장인, 혹은 목수에 의해 지어지는 현대의 고급 전통한옥을 말함
건축가에 의한 한옥	현대건축 교육을 받은 건축가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어 신축되거나 리노베이션 된 한옥을 말함. 건물 용도에서부터, 내부 설비, 형태와 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한옥임.
한옥의 조형적 요소를 차용한 건축물	상품개발이나 자재의 표준화를 통해 양질의 디자인을 쉽게 보급할 수 있음... 한국성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기호로서의 한옥이 필요한 곳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임.
현대 건축물 내의 한실	고층화, 고밀화된 현대도시, 건축의 현실에서 효율적으로 한옥을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도입한 것임.. 실내 디자인(인테리어)을 위주로 도입되고 있음. 취침의 기능을 위해 온돌을 도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함.
온돌난방방식을 가진 집	좌식 생활방식 적용, 딱딱한 바닥표면.
자연친화적 건축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연친화적·생태적 주택도 한옥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음. 흙벽이나 황토방 등 전통적 자연 마감 재료.

한편, ‘한옥’의 의미를 다단계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한옥의 보급과 관련한 실천단위 혹은 상품의 대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또 다른 기준인 ‘전통에의 충실도’에 따라 한옥을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재한옥)⊂정통한옥⊂한옥풍건축⊂한류건축이라는 계층적인 분류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각기 마련된 두 가지의 틀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결과물은 [그림 2-4]와 같다. 제안된 한옥의 분류체계는, 현대 한옥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한옥 및 한옥 공간의 보급과 관련하여 그 실효성이 높은 기준이라 판단된다.



[그림 2-3] 현대적 편의성에 전통에의 충실도에 따른 한옥의 분포양상 (전봉희, 2006)

3) 한스타일 건축의 유형 분류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형 분류 기준 설정에 앞서, 서울과 전남에 소재하는 설계 및 시공관련 전문가 5인과 전남개발공사 관계자 2인을 대상으로 한스타일 건축의 범주 및 유형분류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2-5]와 같이 도식화 된다.

[표 2-6] 한스타일 건축의 유형분류 기준에 관한 실무 전문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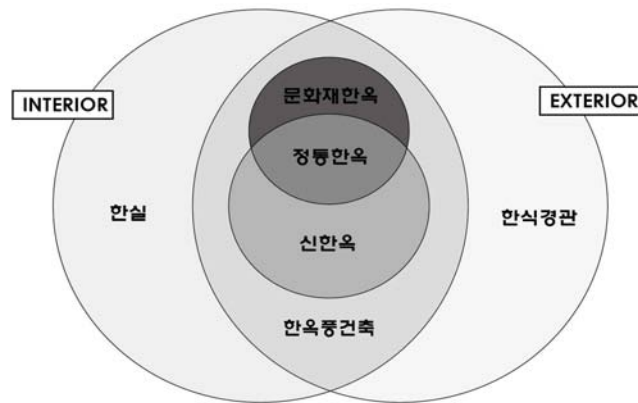
	설문용 샘플	구가 건축	삼진 건축
한스타일 건물유형분류	<p>정통한옥</p> <p>문화재 한옥</p> <p>문화재 외 근대이전 한옥</p> <p>신한옥</p> <p>현대의 전통한옥</p> <p>신공법(기술)한옥</p> <p>한옥풍건축</p> <p>한옥풍 현대건축</p>	<p>정통한옥</p> <p>문화재 한옥</p> <p>문화재 외 근대이전 한옥</p> <p>신한옥</p> <p>현대의 전통한옥</p> <p>신공법(기술)한옥</p> <p>한옥풍건축</p> <p>한옥풍 현대건축</p>	<p>문화재한옥(보존)</p> <p>문화재 한옥</p> <p>순수 정통한옥</p> <p>현대의 전통한옥</p> <p>진화된 정통한옥</p> <p>신한옥</p> <p>신공법(기술)한옥</p> <p>한옥풍건축</p> <p>한옥풍 현대건축</p>
비고	제시된 설문용 유형분류표는 실무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례로서, 기존 한옥 및 신한옥의 정의와 분류기준을 참고함	신한옥을 정책적인 지원대상의 범주로, 한옥풍건축을 가이드라인 규제대상의 범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차정호 실장]	거주성 유무와 사용되는 재료 및 평면구성 방식에 따라 정통한옥을 세분하는 분류법을 제안함. [이봉수대표]
한스타일 건물유형분류	<p>전통한옥</p> <p>문화재 한옥</p> <p>문화재 외 근대이전 한옥</p> <p>신한옥</p> <p>현대의 전통한옥</p> <p>신공법(기술)한옥</p> <p>한옥형건축</p> <p>한옥풍 현대건축</p>	<p>정통한옥</p> <p>문화재 한옥</p> <p>문화재 외 근대이전 한옥</p> <p>현대의 전통한옥</p> <p>신한옥</p> <p>신공법(기술)한옥</p> <p>한옥풍건축</p> <p>한옥풍 현대건축</p>	<p>전통한옥</p> <p>문화재 한옥</p> <p>60년대근대한옥</p> <p>신한옥</p> <p>현대의 전통한옥 = 한옥</p> <p>신공법(기술)한옥 = 한옥형건축</p> <p>한옥풍건축</p> <p>한옥풍 현대건축</p>
비고	유형별 용어 수정을 제안함 : 정통한옥→전통한옥, : 한옥풍건축 → 한옥형건축 [김희곤 팀장]	의장적인 부분(목조 기능보와 기둥의 노출, 기와지붕)에 초점을 맞추어 신한옥의 범주를 구분할 것을 제안함. [조영귀팀장]	시대적으로 3분한 이후 현대에 지어진 모든 한옥의 유형을 신한옥의 범주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한진수이사, 정현아소장]

4) 한스타일 건축의 유형분류 체계

① 내/외부 개념과 보급 지원방식에 따른 분류체계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유형 분류 체계는 앞서 검토된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에 제안된 한옥 분류 체계가 한옥 및 한옥 공간의 보급과 관련하여 그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통에의 충실도’와 ‘현대적 편의성’에 따라 유형과 유형별 범주를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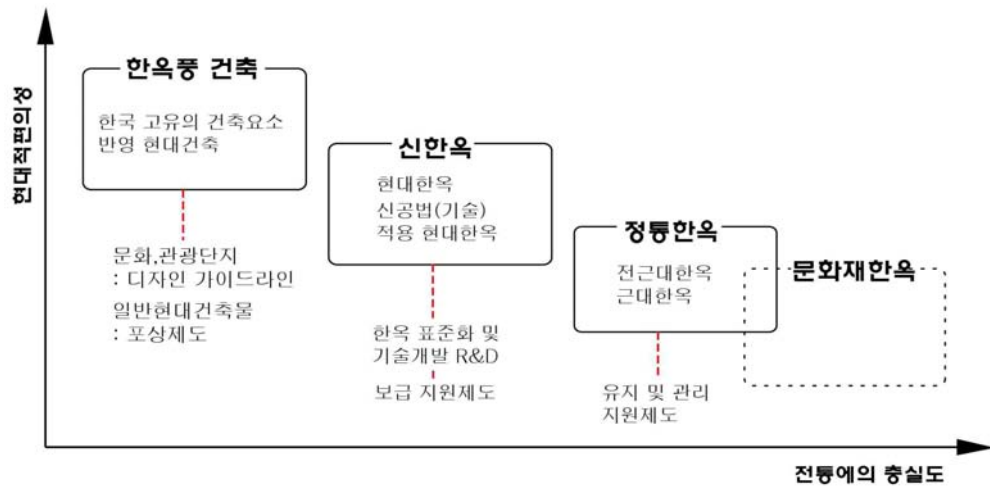
먼저, ‘전통에의 충실도’에 따라 문화재한옥, 정통한옥, 신한옥, 한옥풍 건축으로 분류되며 ‘내/외부 공간’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다음 [그림 2-5]와 같은 한스타일 건축의 유형별 분류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림 2-4] 전통에의 충실도에 따른
한스타일 건축의 유형별 분류 체계

한스타일 건축은, 현대인의 삶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 고유의 건축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만든 개념이기에, 그 대상 범주에 일반적인 독립 건물로서의 한옥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물 내부에 자주 구현되는 한실 인테리어 및 외부공간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의 경관요소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한편, 문화재, 정통한옥, 신한옥, 한옥형 건축의 유형 분류체계와 유형별 범주 구분은 ‘현대적 편의성’과 ‘전통에의 충실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그림 2-5]와 같이 분류되며, 유형별로 보급 및 지원 방식에 차별화를 두고 있다. 단, 보존 정책 위주의 문화재는 한스타일 건축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2-5] 현대적 편의성과 전통에의 충실도에 따른 한스타일 건물의 분포 양상

② 한스타일 건축 유형별 특징

□ 정통한옥

정통 한옥은 문화재 한옥의 구축원리와 공간질서에 충실하게 구축된 한옥으로서, 문화재를 제외한 전근대한옥⁷⁾과, 근대한옥, 현대에 복원한 한옥 (문화재 제외)을 그 대상에 포함한다. 건물 내/외부에 보이는 모든 의장적 요소들을 전통의 형식에 맞게 유지하되, 설비, 전기 및 위생시설을 편의에 맞게 일부 현대화한 것이 특징이며 건물 유지와 관리 및 시설운동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한 유형이다.

[표 2-7] 정통한옥 사례

전근대한옥 리노베이션(내부)	근대한옥 리노베이션(내부)	복원한옥
		
부여 체험관	해화동사무소	이화 학당 〈출처: 금성건축 홈페이지〉

7) 2011년 9월 23일 국가한옥센터에서 개최한 ‘한옥의 정의와 범의’에 관한 포럼에서 전봉희 교수는 문화재 한옥을 ‘이미 지은 지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며 그 유일성과 완전성으로 인하여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 정의하였음. 본 연구는 보존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문화재 한옥’을 별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한스타일 건축의 범주 중 ‘전근대한옥’과는 다른 범주로 구분함.

□ 신한옥

신한옥은 오늘날 디자인되고 지어진 거주성을 전제로 한 한옥⁸⁾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예의 구법에 충실하게 지은 현대한옥에서부터, 신기술과 신공법을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수용한 한옥, 개보수 작업을 통해 현대 건축물과의 결합을 시도한 한옥 등 다양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오늘날의 한옥 모두를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현대의 리노베이션 작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조직 및 외관을 갖게 된 한옥은 신한옥 범주에 포함되는 반면, 현대에 지어졌지만 과거의 원형 그대로 되살린 복원한옥은 대상 범주에서 제외된다.

한옥의 현대적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조와 소방, 설비 등 한옥의 본질적인 단점들을 보완하고, 한옥 시공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옥 기술개발 R&D 사업 및 한옥 표준화 R&D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한 유형이다.

[표 2-8] 신한옥 사례

전통 한식 목구조	RC + 전통 한식 목구조	RC + 집성목구조
		
구가 마을회관 〈출처 :구가 도시건축〉	한샘 디자인센터 〈출처 : 김석철 홈페이지〉	타니 클럽하우스 〈출처: 삼부토건 홈페이지〉
RC + 집성목 구조	집성목구조	(내/외부) 증축 리노베이션
		
윤선도 유물전시관	F1 한식육교	학교재 갤러리 〈출처: 학교재 홈페이지〉

8)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한옥’에 준함. 한옥이 진화하고 신한옥의 경향이 더욱 다양해질수록, 건축법상의 한옥에 대한 정의 역시 변화되어 감을 전제로 함.

□ 한옥풍 건축

한옥의 의장적인 특징이나 요소 일부를 차용하거나 재해석하여 건물 디자인에 반영한 현대 건축물을 한옥풍 건축이라 한다. 신한옥이 한옥이 현대화된 결과라면, 한옥풍 건축은 반대로 현대 건축물이 한옥화된 결과라 볼 수 있다.⁹⁾

한옥풍 건축은 그 보급방식이 용이하고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단순한 키치적 결과물로 이어지기 쉽고, 정책적인 보급대상이 될 경우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한옥마을, 민속마을과 같은 문화, 관광단지 내 계획시, 계획 단계에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유형에 해당한다.

한옥형 현대건축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보다는 한국 특유의 건축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구현한,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 다양한 현대 건축물에 대한 포상제도가 필요하다.

[표 2-9] 한옥풍 건축 사례

철골조: 의장요소 전면 차용	철골조 : 의장요소 부분차용	RC구조: 의장요소 부분차용
 <p>전남 축산기술연구소</p>	 <p>롯데 부여 리조트 〈출처: 네이버블로그_김재경건축사진〉</p>	 <p>병영면 사무소</p>
RC구조: 의장적 특징 재해석	RC구조: 의장적 특징 재해석	RC구조: 공간적 특징 재해석
 <p>부여 박물관 〈출처: 네이버블로그_이용재의 궁극의 문화기행〉</p>	 <p>남악 도립 도서관</p>	 <p>수졸당 〈출처: http://blog.daum.net/inarch79/54〉</p>

9) 2011.10. 김용미 소장과의 자문

□ 한실

한실은 현대 건축물 내부에 구현된 한옥 고유의 공간 혹은 소규모 한옥을 말한다. 마당-마루-방-부엌으로 구성된 전통 한옥의 공간 조직 방식 혹은 내부 공간의 의장적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구현한 인테리어와 공간뿐만 아니라, ‘건물 내의 건물’ 방식으로 축조된 소규모 한옥도 그 대상에 포함한다.

[표 2-10] 한실 사례

실내 한옥 축조	공간 및 의장적 특징 구현	공간 및 의장적 특징 구현
		
안산 도서관 〈출처:안산시〉	산본 도서관 〈출처:구가건축 홈페이지〉	한옥 아파트 〈출처: 금성건축〉

□ 한식경관

한국 고유의 정원 내 구조물(정자, 회랑 등) 및 조경 요소들(담, 화계, 수공간, 식재 공간, 석상, 장독대 등)을 차용 혹은 재해석하여 구현한 한국적 외부 공간 일체를 말한다.



[그림 2-6] 한국 동경문화원 외부 마당 〈출처: 조선건축〉

3.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의미

1) 한스타일에 적합한 공공건축의 범주

① 공공건축의 정의

현재의 공공건축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발주하고 공공의 예산으로 지어지는 건축과 공간 환경으로서 현재 관련법 규정에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공공히 조성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정도이다.¹⁰⁾

김성홍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2004)에서 공공건축물을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업무와 관련 된 용도의 건물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문화 및 서비스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건물의 성격을 지니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였다.

공공건축의 정의 중, [표 2-7]의 공공건축의 공급자적인 주체를 강조한 문화관광부(2008)의 정의와 사용자의 참여와 소통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조명래(2007)의 정의는 ‘공공성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기존의 용도 위주의 정의와는 차별화된다.

[표 2-11] 공공건축의 정의

문광부 2008	“공공건축은 공공에서 발주하여 공공의 예산으로 지어지는 공공적 성격의 건축이다. 공공건축은 공공적 기념성과 상징성을 가지며 도시의 공공적 환경을 형성하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시의 집합적 환경의 수준과 질을 결정한다. 한 나라의 건축문화의 수준은 공공건축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¹¹⁾
조명래 2007	“공공건축은 도시란 공간 환경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집합적 삶의 차원(공공행정, 교육, 복지, 문화 등)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는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개별화된 도시적 삶을 소통적 공동체적 민주적인 것으로 이끄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물)이다.” ¹²⁾

10) 서수정외(2008),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1.

11) 「문화관광부」, <http://www.mcst.go.kr/main.jsp>.

12) 조명래(2007), “우리의 공공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건축포럼 발제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9.

② 공공건축의 분류

공공건축의 분류는 법적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 (김성홍, 2004)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분류한 방식(조명래, 2007)이 있다. 먼저, 법적 기준에 의한 분류방식은 공공이 소유하고, 공공업무와 관련된 시설과 공공업무(국가 기관청사,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타공공건축물)와 직접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문화 및 서비스)로 분류한다. 여기서는 공공건축의 소유 주체별(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준과 다양한 공공의 소유 내에서 공공성 증진을 위한 개방정도로 구분한다.

[표 2-12] 법적 기준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분류

분 류	시 설
국가기관청사	1. 행정부 청사 - 종합청사 2. 사법부 청사 - 법원 청사 3. 입법부 - 국회의사당
지방자치단체청사	1. 시청사, 구청사, 지방자치단체, 의회청사 2. 군청사, 동사무소
기타 공공건축물	1. 경찰청, 헌법재판소, 국가산하기관, 국가연구소, 중앙은행,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복지관 2. 국·공립학교 3. 대사관저
문화 및 서비스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콘서트홀, 회의장, 문화회관

* 출처 : 김성홍(2004),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복합도시건설추진단, p4.

한편, 공공성에 근거한 분류는 모든 건축의 본질을 공공성으로 인식하고 확대하여, 공공건축의 소유보다는 시민 대중의 직접 이용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며, 즉 수요자 입장을 반영한 정부건축/공용건축/공공화된 건축(민간 건축 일부 포함)으로 나누면서 정부건축과 공용건축을 공공건축으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공공건축의 분류는 소유의 주체보다 공공성의 개방정도를 중요시한다.

[표 2-13] 정부건축/공용건축/공공화된 건축의 분류

구분	정의	분류
정부건축 (governmental architecture)	정부의 고유한 권력적·제도적 성질을 가지며 공공성을 구비하는 공공건축	-시청사, 정부청사, 국회, 법원, 의회 등
공용건축 (public-use architecture)	소유에 관계없이 시민대중이 개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통의 특징인 공공건축	-공공소유 : 동사무소, 마을회관, 문화회관, 공리병원, 하수종말 처리장, 화장장, 컨벤션센터, 박물관, 운동장 등 -민간소유 : 사립미술관, 사립병원, 교회, 절, 사립대학, 정류장 등
공공화된 건축 (pseudo-public architecture)	사적영역에 있는 건축으로 도시정체성을 표방하는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또는 시민대중에게 열려있는 공공건축	-상가, 백화점, 기업본사건물, 랜드마크형 건물, 대단위 아파트

* 출처 : 조명래(2007), “우리의 공공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건축포럼 발제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4.

2개의 분류체계를 분석해보면, 김성홍의 분류는 법적기준에 따라 단순히 기능적 분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공소유이면서 대중이 이용가능한 성격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주지 못한다. 반면, 조명래의 분류는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이 공공건축의 주체와 사용자의 성격에 따른 분류로써 연구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명래의 분류기준에서 공공소유의 공용건축을 연구대상 1순위로 삼으며, 정부건축을 2순위로 한다.

③ 한스타일 적용을 위한 공공건축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한옥으로 된 공공건축물의 보급을 위한 정책을 도출해내기 위해 공공(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 주관이 되어 발주하고 공공의 예산으로 지어지는 시설 및 공간 환경으로 공공건축물의 범위를 한정하며, 시민대중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가진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한옥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대상으로서 공공건축을 다루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로 한정했다. 즉, 조명래의 분류에서 정부건축, 공공소유의 공용건축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였다.

[표 2-14] 공공건축 분류체계 분석 및 연구범위

김성홍의 분류체계	시설의 종류	조명래의 분류체계
국가기관청사	시군청사, 정부청사, 국회, 법원 의회, 동사무소, 대사관저	정부건축
지방자치단체청사	경찰청, 헌법재판소, 국가산하기 관, 국가연구소, 경찰청, 소방서	공공건축
기타 공공건축물	우체국, 보건소, 복지관, 국공립학 교,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도서 관, 극장, 콘서트홀, 회의장, 문화 회관	공공소유
문화 및 서비스	상가, 백화점, 기업본사건물, 랜드 마크형 건물 대단위 아파트	민간소유
		공공화된 건축

④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범주 및 사례

앞서 서술한 한스타일 건축의 분류와 공공건축의 범위에 기존한옥의 사례를 넣어보 면 다음과 같다. 단, 공용건축 중 민간소유의 건축은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 2-15]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범주 및 사례

구분	정부건축	공용건축	
		공공소유	민간소유
정통한옥	전라남도 공관 국회의사당 사랑채	혜화동 주민센터, 북촌문화센터, 김해 한옥체험관, 선암사 차체험관, 순천 한옥글방	한국가구 박물관 국민대 명원민속관 취옹예술관 한옥치과, 한의원
신한옥	-	구로구 어린이 도서관 고양 문화원사 영암 김창조 기념관 해남 윤선도 유물전시관 남산 국악당	라궁 동량박물관 궁중음식연구원 안동 군자마을 회관
한옥풍건축	동경 한국문화원 미대사관저 청와대	독립기념관	한샘 DBEW 센터 한옥 성당 및 교회 인제미명제
한실	-	군포 산본, 여수 현암, 안산 관산 어린이 도서관	-
한식경관	경북도청사	-	롯데부여리조트 여주도자세상

2) 한스타일 공공건축 인식 조사

한스타일 공공건축은 공공의 예산으로 지어지고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건축도시연구 정보센터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2011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① 한스타일 공공건축 선호도 대국민 설문조사

The screenshot shows the AURIC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연구문헌', '연구동향', '자료실', '행사', '오픈아우릭', 'e-MUSEUM', 'NEWSLETTER', 'MY LOG', 'RANK', and '클럽'. Below this, there's a search bar and a '검색' (Search) button.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On the left, there's a '포인트 적립 TOP 10 (주간)' (Point Accumulation TOP 10 (Weekly)) list. In the center, there's a '연구문헌' (Research Literature) section featuring a survey titled '한스타일 공공건축 선호도 대국민 설문조사' (Han Style Public Architecture Preference National Survey). The survey is for the '2011-04' issue of the '한국도시설계학회' (Korean Society of Urban Design) journal. The survey questions are: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ow do you feel about building public buildings in Hanok style?) and '한옥과 가장 어울리는 공공건축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ich public building do you think fits Hanok style best?). The survey is open from 11.05.09 to 11.05.22. Below the survey, there's a '건축사진-Today's Best' (Architecture Photo-Today's Best) section. On the right, there's a '문헌검색서비스' (Literature Search Service) section, an '온라인 세미나' (Online Seminar) section, and a '연구동향' (Research Trends) section. At the bottom, there's a '클럽' (Club) section with links to various resources like '발행시절 학술지', '연구동향', '자료실', '행사', '오픈아우릭', 'e-MUSEUM', and '기타' (Other).





[그림 2-7] 설문조사 사이트

먼저,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9일부터 22일까지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공공 한옥 건축물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들과 한옥에 적합한 공공건축물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수행된 설문조사였음에도 각각의 항목에 대해 700~800명이 참여하였으며, 동일 사이트의 다른 설문에 대한 참여자 수가 500명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설문 참여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질문 1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는 것에 대해 설문대상의 91%(729명)가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그 중 전체의 67%가 한옥과 현대 건축물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답하였다.

[표 2-16] 질문 1 설문조사 결과

질문1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801명 참여	
		댓글 토론 299개	
설문 조사 결과	1) 한옥으로 지어 한국적 미를 살리는 것이 좋다.		135명 (17%)
	2) 한옥과 현대 건축물을 조합하여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좋다.		535명 (67%)
	3) 현대건축물 내에 한식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한옥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59명 (7%)
	4)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2명 (9%)

토론내용으로는 “한스타일과 현대건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한옥을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업체가 제한적인 상황 해결 필요하다”, “설계교육이 필요하다”, “조화에 대한 폭넓은 연구 필요(이론 및 실증적 연구로 용도, 특수성, 사용자 등에 대한 연구)”, “대규모건축에 한옥은 어울리지 않는다.”, “신규조성보다 기존 한옥 보존이 우선해야 한다”, “형태적 답습은 경계해야한다”, “꼭 한옥이기 보다 한국적 건축이 필요하다”, “모든 공공건축물이 아닌 적절한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는 것이 좋다”, “경제성과 편리성 고려해야한다”, “수직확장, 용적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한옥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 1에 대해 나온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중 91%가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한옥과 현대 건축물을 조합하여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키는 것에 대한 호응도가 전체 응답자 중67%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전통 방식으로 축조하는 것에 대해 선호하는 응답자 수는 17%, 현대 건축물 내에 실만을 한옥 느낌으로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선호하는 응답자가 7%이다.

□ 질문 2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옥과 가장 어울리는 공공건축물을 묻는 문항에서 문화 및 전시시설,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대사관 및 외교 공관 순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문화 및 전시시설과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은 대중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사관 및 외교공관은 한옥의 우수성 및 아름다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반면, 대규모 청사 및 교육시설에 있어서는 저조한 투표율이 나타났는데, 이는 한옥은 소규모 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2-17] 질문 2 설문조사 결과

질문2	한옥과 가장 어울리는 공공건축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 722명 참여	
		댓글 토론 256개	
설문조사 결과	1) 문화 및 전시시설(박물관, 공연장, 전시관 등)	=====	253명 (35%)
	2)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어린이집, 노인정 등)	=====	225명 (31%)
	3)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 등)	=====	50명 (7%)
	4) 대사관 및 외교 공관	=====	156명 (22%)
	5) 대규모 청사(도·시·군·구청 등)	=====	38명 (5%)

토론 내용으로는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시설부터 해야 한다”, “대외홍보 및 외교 활동도 중요하다”, “소규모 건축에 적합할 듯하다”, “공공건축의 경우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한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 “잘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어울릴 것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② 한스타일 공공건축 수요에 관한 공무원 설문조사

다음 [그림2-8]은 국가 한옥센터에서 작성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문항지이다.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보급을 위한 공무원 대상 수요조사

2011. 07. 2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입니다.
 현재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옥 공공건축물
 에 대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국토해양부 한옥지원사업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3문항 정도로 1-2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조사이오니 협
 조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자체에서는 한옥으로 공공건축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아니오
한옥으로 지을 의향이 있는 공공건축물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2-3개 가능) <hr/> 예시) 박물관, 공연장, 전시관, 홍보관, 체험관, 주민센터, 어린이집, 노인정, 마을회관, 어린이 도서관 등	한옥으로 공공건축물을 짓기에 꺼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hr/> 예시) 높은 건축비로 인한 사업비 확보의 부담 한옥관련 정보의 부족 비효율적 공간 사용 등
↓	↓
정부에서 한옥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까? <hr/> 예시) 표준품셈의 제공 디자인 품질 체크리스트 프로그램별 한옥 수용 여부 등	국가에서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한다면 사업진행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hr/> 네(다음으로) 아니오(끝)
↓	↓
	사업지원비의 적정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hr/> 예시) 일반건축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더 드는 비용을 지원

[그림 2-8]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보급을 위한 공무원 대상 수요조사 설문 문항

5월에 선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한스타일 공공건축에 국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확인한 이후, 이와 같은 수요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1년 7월28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1주일간 280개 전국 지자체건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 방법은 공문 발송후 전화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전체 280개 지자체 공무원 중 225명이 답변을 완료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지을 계획이나 의향과 관련하여 39%만이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한옥으로 짓기에 적합한 시설로는 전시관, 박물관 체험관 등의 문화시설 과 주민 센터, 마을회관 등의 주민관련시설이 제안되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설문조사 결과, 한스타일을 공공건축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91%인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견해차이가 확인되었다.

반면, 한옥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해 추진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중, 73.3%는 정부가 50~80%정도의 건축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한옥사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예산지원여부가 한스타일 공공건축 보급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추진자 입장에서 한옥 공공건축물 사업 진행시에, 디자인 가이드라인, 표준품셈, 표준설계도, 품질 체크리스트와 같은 한옥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 한스타일 공공건축 보급의 기대효과

□ 공공건축 차원에서의 기대효과

기존의 권위적인 근,현대식 공공건축물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 전통의 미를 살린 친근한 느낌의 공공 건축물을 보급할 수 있으며, 한옥의 재료 자체가 지니는 특성상 친환경 건축물의 보급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좌식 공간 도입이 가능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 역시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F1 경기장 한식육교

□ 한국문화 진흥 차원에서의 기대효과

정부의 지원하에 한옥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고품격 한옥의 보급을 통해 한옥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일상 속 한옥체험기회 확대로, 한옥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고 한옥의 건축적 미와 실용적 장점을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아카이브 체계를 구축할 경우, 한옥의 현대화 및 진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구로구 한옥 어린이도서관

출처 : 뉴시스 2010. 4.22 기사 [서울 구로구에 한옥도서관 생긴다]

4. 소결

한브랜드의 명칭으로 결정된 한스타일은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고 있으나 자생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우리 고유문화를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하여 세계적인 문화명품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중 한옥 공공건축물에 관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한옥건축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리모델링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그런데 지원대상인 한옥의 정의는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벚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서 매우 한정된 범위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은 현대건축물 내부의 인테리어를 한옥식으로 꾸미거나 외부 마당을 조성하는 등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현대적 편의성’과 ‘전통에의 충실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그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로 한스타일 건축을 채택했다. 그 결과 한옥풍 건축, 신한옥, 정통한옥, 문화재한옥으로 구분하였다. 전근대한옥과 근대한옥을 포함하는 정통한옥은 유지 및 관리의 대상으로 보존을 위한 정책대상이 된다. 현대의 신공법을 적용한 신한옥은 적극적인 육성의 대상으로 이 연구의 주요대상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한국 고유의 건축요소 혹은 모티브를 반영한 현대건축인 한옥풍 건축은 직접적인 지원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옥문화의 진흥을 위해 참조할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스타일 건축으로 이어지는 공공건축 중 공공(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 주관이 되어 발주하고 공공의 예산으로 이어지는 시설 및 공간 환경으로 공공건축물의 범위를 한정하며, 시민대중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가진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공공건축물에 한스타일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91%로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사한 설문을 건축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행한 결과, 39%만이 추진의사를 밝혀 상당한 온도차를 확인하였다.

한스타일을 공공건축에 도입하게 되면 공공건축물의 입장에서 친환경 건축의 이미지, 한국 전통의 미를 살린 건축, 탈권위,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한옥에 맞는 새로

운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이 증대된다. 마찬가지로 한옥문화 진흥의 입장에서 보면 한옥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고품격 한옥의 보급에 역할을 담당하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한옥 체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한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3장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조성현황

1.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조성 현황
2.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국내사례
3.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해외사례
4. 소결

1.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조성 현황

2000년대 이후 한옥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대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 호텔, 오피스 사옥 등 거주용 건물과 관광, 레저용 건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한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2007년에 정부에서 한스타일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적으로도 기존의 한옥 건물을 보전하고 새로운 한옥 육성을 위한 지원을 시작하자, 다양한 한옥 혹은 유사 한옥들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게 되었다.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보급방안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지금까지의 조성현황을 살펴 필요가 있는데, 기획단계의 사업들보다는 실제로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사업들을 대상으로 살펴야만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신문과 뉴스상에 보도된 한스타일 건축물 중, 사업 추진 주체가 공공이며,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준공을 앞둔 60건의 건축물 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 사업 대상 건축물이 문화재인 경우¹³⁾는 한옥 보급 활성화에 앞서 건물의 보존을 전제한 것이기에 때문에 현황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3) 북촌 한옥 문화센터 이전사업 (백인제 가옥 ; 서울특별시민속자료 제22호로)
부여 생활 체험관 사업 (민칠식 가옥 ;중요민속자료 제192호)

1) 지역별 및 시기별 조성현황

다음의 [표 3-1]은 지역별로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조성현황과 착공년도와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한 조성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적 분포를 보면, 전체 60건 중 55%인 33건이 전라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지역만으로는 26건으로,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조성률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조성률을 보이는 지역은 전라북도(12%)와 서울(각각 12%)이고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6건(10%)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시기별 조성현황의 특성을 보면, 한스타일 육성정책이 발표된 2007년 이후로 착공된 사업이 전체 60건 중 49건으로 전체 사업 건수의 82%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표 3-1] 지역별 및 시기별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조성현황

지역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물(사업)명
서울 (7)	종로구												혜화동사무소 1차 리노베이션
	중구												남산국악당
	구로구												개봉도서관
	종로구												혜화동사무소 2차 리노베이션
	영등포구												국회 한옥 '사랑재'
	마포구												용강 제2구역 전통 한옥공원
	은평구												은평뉴타운 한옥박물관
경기 (6)	군포시												산본도서관
	안산시												관산도서관
	고양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여주시												여주도자세상
	이천시												이천도자예술촌 한옥체험조성사업
	부천시												무형문화재공방거리 조성사업(1단계)
강원(1)	춘천시												강원관광정보센터
	시												전통차체험관
충남 (3)	공주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당진군												죽동2리 마을회관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충북(1)	담양시												죽향 문화체험마을
경남 (3)	김해시												김해 한옥체험관
	거창군												갈계숲 전통 문화마을 마을회관
	하동시												장흥 한치 마을회관

지역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물(사업)명
경북 (6)	안동시												군자마을회관
	영양군												두들마을 전통한옥 체험관
	상주시												함창읍사무소
	대구시												사육신기념관
	경주시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안동시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전북 (7)	전주시												전주공예품 전시관
	전주시												전주 전통문화 센터
	전주시												전주 한옥생활 체험관
	완주군												전주시 문화관사업 (3개관)
	전주시												대송한지마을
	전주시												어진박물관
	전주시												전통한옥체험홍보관
전남 (26)	무안군												남악 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수리채
	강진군												병영면 사무소
	영암군												영암 도기박물관
	순천시												선암사 전통야생차 체험관
	무안군												남악신도시 관광정보센터: 남악마루
	순천시												순천 한옥글방 도서관
	무안군												전남 공관 어진누리
	완도군												전남 완도 산림 박물관
	해남군												윤선도 유물전시관
	여수시												현암도서관 한옥 어린이자료실
	장성군												장성군 한옥호텔 '청백한옥'
	영암군												한옥 음식문화센터
	영암군												전남 축산기술연구소 본소
	영암군												F1 자동차경주장 한식육교
	영암군												영산재 호텔
	광주시												광주 전통문화관
	광주시												전통한옥 기능성 체험관
	무안군												전라남도 도립도서관
	장성군												황룡행복마을 한옥도서관
	나주시												전남 도로안전관리 사업소
	여수시												2012 여수엑스포타운 한옥단지 1차
	영암군												쌀문화 테마공원
	영암군												영암 김창조선생 기념관
	여수시												2012 여수엑스포타운 한옥단지 1차
	광주시												광주 환경산업 지원센터
	장흥군												장흥 원목생활가구단지 게스트하우스

2) 사업 주체별 조성현황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중 중앙정부 주도형 사업은 재외공관에 국한되어 있다. 즉, 국내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사업은 모두 지자체 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지원금과 보조금의 형태로 지방 정부의 사업 일부를 지원하고 권장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문화 관광 체육부나 국토 해양부에서 한옥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사업 공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수행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된다.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공공건축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와 같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지방정부 주도로 수행되었다.

[표 3-2] 주체별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조성현황

구분	부서	사업명	사 례
중앙정부 주도형	외교부	재외공관건축	동경한국문화원
중앙정부 지원형	국토 해양부	한옥건축 지원사업	(2008) 영암한옥음식문화센터, 충남 공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2009) 순라길 한옥문화관, 부여 한옥생활체험관, 이천 도자예술촌, 장흥 원목생활 가구단지
			(2010)구로구 어린이도서관, 전주 전통한옥체험 홍보교육장
			(2011)은평 박물관내 한옥전시장, 강릉 전통차체험관, 광주 전통한옥 기능성 체험관 등
	문화 관광 체육부	한옥공간 활성화사업	여수 현암 어린이도서관, 군포 산본 어린이 도서관, 구로구 어린이 도서관, 안산 관산 어린이 도서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영암 두들마을 전통한옥체험관

3) 한스타일 건축 유형별 조성현황

앞서 2장에서 논한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유형별 조성현황은 다음의 [표3-3]과 같다. 전체 60건 중 68%에 해당하는 41건이 신한옥이며, 그 다음은 한옥풍 건축으로 15%에 해당한다. 한실과 정통한옥은 각각 5건으로 낮은 조성률을 보인다.

한편, 유형별로 조성된 건축물의 연면적과 총공사 면적에 대한 설계단가를 비교하면 유형과 구조방식 그리고 연면적과 설계단가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표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연면적의 경우 한옥풍건축> RC 혼합 목구조 신한옥> 전통목구조 신한옥> 한실> 정통한옥(리노베이션) 의 양상을 보이며, 설계 단가의 경우 전통목구조 신한옥> RC 혼합 목구조 신한옥> 한실> 정통한옥 리노베이션=한옥풍건축의 양상을 보인다.

[표 3-3] 한스타일 건축 유형별 조성현황

유형	구조	건물(사업)명	평당단가	연면적 (M2)					
				1000	2000	3000	3500	10000	
전통한옥 (5)	전통	강릉 전통차(茶) 체험관 조성 사업		80					
		용강 제2구역		218					
		해화동사무소 1차 리노베이션	약 5.백만원	233					
		해화동사무소 2차 리노베이션	약 7.8백만원	233					
		순천 한옥글방 도서관		112					
신한옥 (41)	전통	전통한옥 기능성 체험관 조성 사업		120					
		죽동2리 마을회관		192					
	전통	남악신도시 관광정보센터: 남악마루		264					
	목구조	장흥군 원목생활가구단지		265					
	전통	군자 마을회관		288					
		두들마을 전통한옥 체험관		290					
		한옥음식문화센터		330					
	목구조	옥산서원 전시관		367					
	전통	전남 공관 어진누리	약 12.백만원	419					
	전통	구로구 도서관 (개봉도서관)	약 9.1백만원	441					
	전통	강원 관광정보센터	약 12.5백만원	500					
	전통+목구조+RC	F1 자동차경주장 한식육교	약 16.9백만원	510					
	목구조	황룡행복마을 한옥도서관	약 4.백만원	600					
	전통	선암사 전통아생차 체험관	약 13.6백만원	803					
	전통	국회 한옥 '사랑재'	약 14.4백만원	817					
	전통	김해 한옥체험관	약 16.7백만원	927					
	전통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약 11.5백만원	1119					
	전통	외암 민속마을 저잣거리	약 10.7백만원	1153					
		어진 박물관	약 11.1백만원	1193					
	목구조+RC	윤선도 유물전시관	약 8.8백만원	1831					
		*이천도자예술촌		2000					
	전통 + RC	완도 산림 박물관	약 14.1백만원	2060					
	전통+목구조+RC	영암 김창조선생 기념관	약 8.8백만원	2293					
	목구조+RC	고양시 전통 문화예술 공연장	약 6.6백만원	2315					
	전통 + RC	남산국악당	약 10.2백만원	2935					
	전통 + RC	영산재 호텔	약 7.9백만원					3231	
	전통	2012 여수엑스포타운 내 한옥단지	약 12.백만원					3440	
	기타 14 사례								
한식 (5)	한옥축조	합창읍 사무소		40					
		현암도서관	약 8.6백만원	150					
		인테리어+한옥축조	관산도서관	324					
		인테리어	산본도서관	509					
한옥 현대건축 (9)		은평구 한옥박물관				2900			
	RC	병영면사무소		1253					
	철골 +RC	광주 전통문화관	약 8.4백만원			2735			
	RC	영암 도기박물관	약 5.1백만원			3027			
	철골 +RC	전남 도로안전관리 사업소	약 5.6백만원					3126	
	철골 +RC	전남 축산기술 연구소 본소	약 5.2백만원					3300	
	철골 +RC	광주 환경산업 지원센터	약 4.3백만원					8233	
	철골 +RC	전라남도립도서관	약 4.백만원						12250
	RC + 목조회랑	여주도자세상							15156
	RC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	약 6.4백만원						125416

2.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국내 사례

1) 사례 선정

국내사례는 2장에서 구분한 5개의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유형 중, 외부 공간만을 다루는 한식 경관을 제외한 정통한옥, 신한옥, 한옥풍 건축, 한실로 분류되는 건축물 중 2000년 이후에 완공된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옥 전문 디자이너에 의해 설계되고 완공된 건축물들 중, 시설 유형 면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① 유형별 사례선정

[표 3-4] 유형별 국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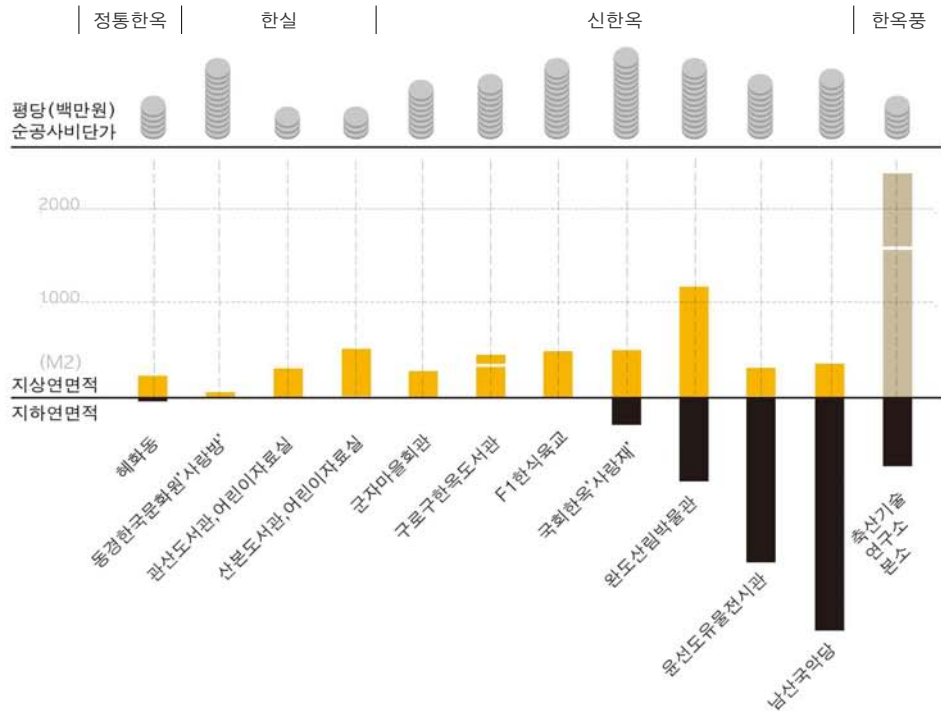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시설유형	준공	규모	설계자
정통 한옥	혜화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2006/2011 리노베이션	지상1층 1채	한겨레 건축사사무소
신 한옥	국회한옥 '사랑재'	공공청사	2011.05. 신축	지상1층, 지하1층,1채	한인 건축사사무소
	안동 군자마을 회관(*)	체험, 숙박시설	2007. 08. 신축	지상1층	구가 도시건축
	구로구 어린이 한옥 도서관	주민 공공시설	2011. 04. 신축	지상2층 2채	구가 도시건축
	남산 국악당	문화, 관광시설	2007.11. 신축	지상1층, 지하2층. xx채	금성건축
	윤선도 유물 전시관	문화, 관광시설	2010.10. 신축	지상1층, 지하1층, 3채	금성건축
	산림 박물관, 완도	문화, 관광시설	2009. 11. 신축	지상1층, 지하1층,1채	삼진건축
	F1 자동차경주장 한식육교	문화, 관광시설	2011.03 신축	지상3층, (누각2동+육교)	삼진건축
한옥풍 건축	전남 축산기술 연구소 본소	공공청사	2010.10. 신축	지상2층, 지하1층, 3채	유탕 엔지니어링
한실	산본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주민 공공시설	2010.03 인테리어	도서관건물 내 어린이자료실	구가 도시건축
	관산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주민 공공시설	2010.01 인테리어	도서관건물 내 어린이자료실	금성건축
	동경한국문화원 '사랑방' 14)	재외공관	2008.12. 신축	8층 건물 내 4층 일부	조선건축

14) 동경한국문화원은 재외공관으로서 국내사례는 아닌 관계로 3.1장에서의 사례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한국 설계사에 의해 설계된 재외공관이라는 특수성과 신축건물에 초기 설계단계부터 계획된 한실이란 점에서 시설유형상 대표성을 지닌다 판단되어 3.2장의 사례분석 대상에는 포함하였다.

② 연면적 및 평당 공사비 비교

각 사례별로 지상층과 지하 연면적 구성 및 평당 순공사비의 단가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여기서 순공사비란 발주처에서 발주한 초기 공사비인 건축, 구조, 토목(건축토목),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에 평균 입찰률 87%를 적용한 공사비를 말한다. ¹⁵⁾

[표 3-5] 사례별 지상/지하 연면적 및 평당 순공사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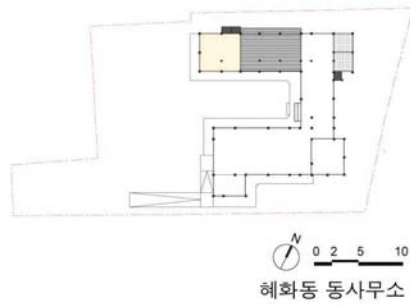


③ 평면 구성 비교

대부분의 공공 건축물이 현대적 프로그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좌식 생활에 근거한 방과 마루의 공간조직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공공건축물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외관은 한옥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평면상으로는 일반 현대적인 프로그램의 실 구성에 부분적으로 마루와 방의 특성을 재해석한 공간을 구현하는 사례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의 그림은 선정된 사례들의 한옥 부분의 평면을 동일한 축적으로 비교한 것으로서, 입식공간인 일반 실과, 좌식 공간인 마루와 방, 그리고 현대적 기능공간인 설비 및 수납공간과 화장실로 평면 구성 요소를 분류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15) 실제 순공사비는 입찰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 표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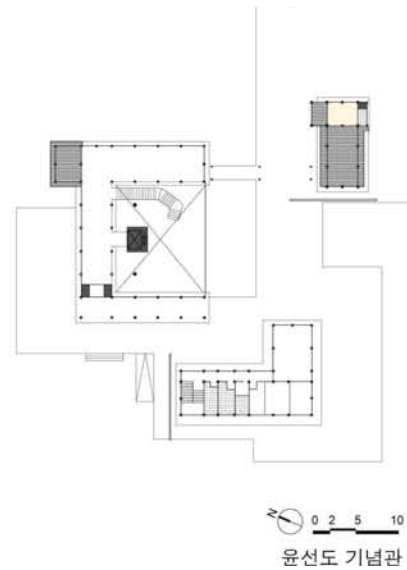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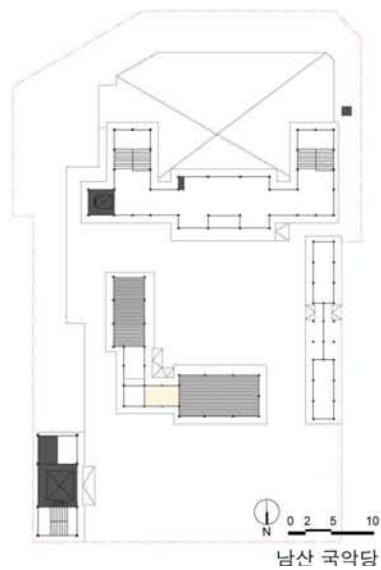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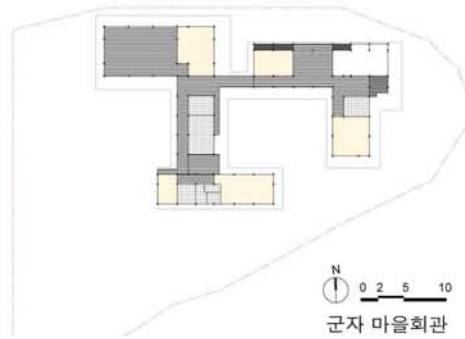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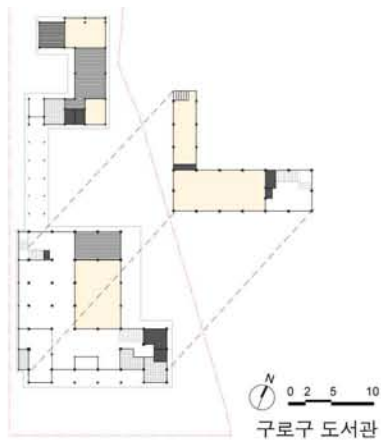
정통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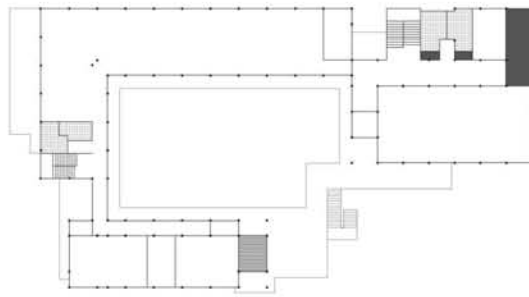
한 실



신 한옥 1 (여러 채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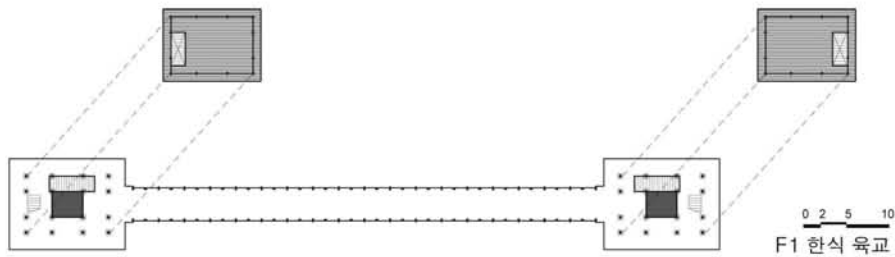
한옥풍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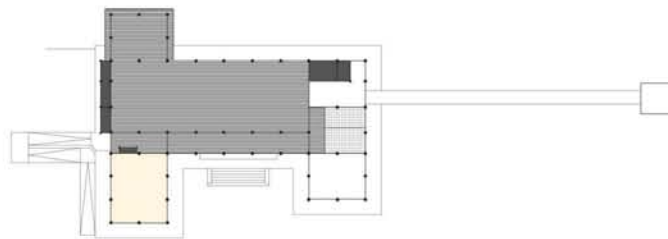
0 2 5 10
축산기술연구소

- 실(입식)
- 방(좌식)
- 마루(좌식)
- 현대식설비
-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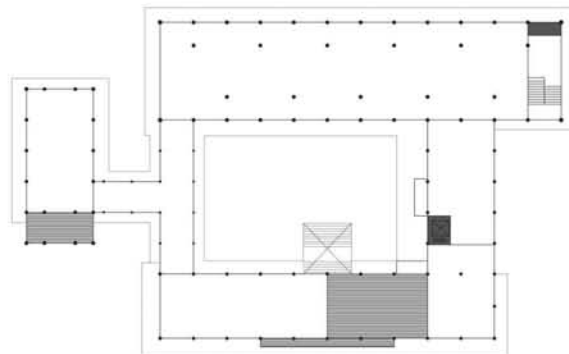
신한옥 2 (한개동으로 구성)



0 2 5 10
F1 한식 육교



N 0 2 5 10
국회 한옥 '사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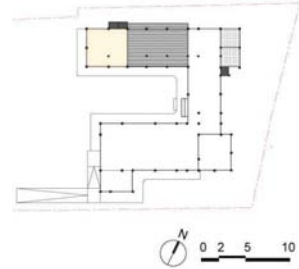


N 0 2 5 10
삼림 박물관

2) 정통한옥 사례

① 혜화동 동사무소

2011. 11 준공예정



* 사진
: 1차 리노베이션 이후 중정부분

● 시설 개요

위 치	서울 종로구 혜화동74-30	구 조	전통한식목구조
설 계	한겨레 건축사 사무소	프로그램	1차: 민원실, 사무공간 2차: 민원실, 사랑방
규 모	지상 1층, 지하 1층, ㄱ자형 건물 1채	마감재료	1차: 회벽, 적벽돌 / 전면 유리창 2차: 미장면 위 회벽바르기, 적벽돌/ 전통 한식 창호
면 적	대지면적: 808㎡ 연 면 적: 233㎡ (지상층 218㎡)		

● 사업 개요

사업주체	종로구청	사업기간	1차: 2005~2006 2차: 2010.07 ~ 2011.11
운영주체	혜화동 동사무소	설계기간	2차: 2010.10 ~ 2010.12
예산확보	종로구청	시공기간	2차: 2011.02 ~ 2011.10
총사업비	1차:7.3억원/ 2차:4.4억원	준공일자	1차: 2006.11 2차: 2011. 11 예정
총공사비	1차: 7억원/ 2차: 4억원		

● 사업 특징

- 체계적인 사업성 분석 및 기획.
- 전문가 자문회의
- 청사 시설 내, 현대건축물과 전통 건축물의 기능과 성격 차별화

□ 사업경과

- 2004. 한옥 매입 : 1940년에 건축된 한옥¹⁶⁾을 종로구에서 31억에 사들인 뒤, 7억 3000여만원을 들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완성함.
- 2005~2006.10 설계 및 시공: 설계와 시공 각각 개별적으로 공개 입찰과정을 통해 수행업체로 선정됨.
- 2006. 11. 최초의 한옥청사 준공 : 전통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지역적 특색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됨.
- 2009~2010. 주민자치회관(현대건축물) 사업추진 :한옥 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옆 부지에 4층 규모의 현대식 신축건물을 건립한 후, 한옥 청사내 사무공간(서고, 문고포함)을 신축 자치회관 건물로 이전함.
- 2010. 07 ~2010. 09 한옥전문가 자문회의 5회 수행 : 자치회관(현대 건축물)이 신축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민센터(한옥청사)와 신축건물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한옥건축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함. 3개월에 걸쳐 논의된 자문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한옥 리모델링의 설계지침을 수립함.
- 2010. 10~2010. 12 : 한옥청사를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이전의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창호 및 내부 마감을 전통방식에 충실하게 변경하는 설계를 진행함.
- 2011. 02. 현대건축물(주민자치회관) 준공
- 2011. 02~2011. 12(예정) 2차리모델링 시공 및 준공



[그림 3-1] 1차 리노베이션 이후 혜화동 민원실

16) 이 집은 원래 대한민국 최초의 여의사 한소제(1899-1997)가 1940년대에 만든 한옥. 1923년 도쿄여자 의과 대학을 졸업한 한소제는 1946년 한국 걸 스카우트를 창설하면서 이름 석 자를 역사에 남기지만 1961년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이 한옥은 대한민국 최고의 빵집 나폴레옹제과점 사장에게 넘어가고, 한옥 관리가 힘들어 매물로 나온다. 이용재

□ 2차 리노베이션 예산안 및 예산확보

2차 리노베이션 소요 예산은 약 4.4억 (설계용역비 4천 2백 만원, 공사비 4억)으로
서, 이 중 설계용역비 4천 2백 만원은 2010년에 확보되었으며, 공사비 4억은 2011년 중
로구 예산에서 충당되었다. 이와 같은 예산확보 및 사업절차는 타 사업에 비해 순조로이
진행된 편인데, 이는 2차 리모델링 사업이 구청장의 지시로 시작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 추진전략 (SWOT기반)

정통건축의 리노베이션 비용은, 동일면적 일반 건축물의 신축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통건축의 리노베이션 사업은 수행 이전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필요로 한다. 혜화동 주민센터 리노베이션 사업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선
례로서, 철저한 SWOT분석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 가치 창출 면에서 강한 파급력을 발
휘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표 3-6] 혜화동 주민센터 2차 리노베이션 사업 SWOT 분석 및 추진전략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최초 유일 한옥 동청사 ✓ 종로(혜화동)의 브랜드파워 ✓ 교육문화공간(대학교,성균관 등)인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몰비용 발생(개청 4년경과) ✓ 장소협소(청사, 주차장) ✓ 제한된 예산 W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청사의 상징성, 희소성 ✓ 우리 전통에 대한 관심증가 ✓ 자치회관과의 연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방객 편의시설 한계 ✓ 공사여건 열악(도로, 인접건물) ✓ 민원발생 소지(공사소음, 차량 등) T
S O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최초 유일 한옥 동청사 브랜드 활용 • 도심 속 전통의 향취를 느끼고, 체험하는 소통의 장소 구현 • 인근대학교 및 성균관, 북촌 등 관광자원 연계 명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관과 연계하여 전통문화 전시 및 체험, 편안한 휴식의 공간(사랑방, 쉼터 등)으로 꾸며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 • 투입비용대비 편익제고 마련 W O 전략
S 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방객 편의시설 및 편리한 동선 설계 • 협소한 주차시설 등 대안마련 • 고객위주의 알찬 서비스 개발 • 주민스스로의 프로그램 운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청사 개보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적극적 홍보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세밀한 계획 및 시공 실시 W T 전략

* 출처 :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제공 (2010)

□ 2차 리노베이션 주요 설계내용

1차 리노베이션이 개방감 있는 사무공간을 구현했다면, 2차 리노베이션은 대부분의 사무공간이 현대식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한옥 청사를 다시 전통에 충실한 한옥 공간으로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청사 내, 외부로 한옥 분위기에 어울리게 디자인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마루, 천장, 벽체, 창호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설비시설의 처리방안 및 외부공간 조성 방향을 수립하였다. 위치별 상세 내용은 다음의 [표 3-7]과 같다.

[표 3-7] 해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내용 비교

위치	1차 리노베이션	2차 리노베이션	
도면			해 당 위 치
한옥	서까래 보수, 기와 전면 교체	-	4, 5
	뒷마당의 사랑채 철거, 화장실 덧담.	대청마루 복원: 화장실, 창고 철거,	
	직원사무실 설치	사랑방, 대청마루 조성 : 다도 등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예정	
	내부칸막이 벽체 철거후 천장면 석고보드 마감. 구조체는 노출	석고 보드 천장을 연등 천장 및 우물 반자로 복원	
	바닥재: 모노룸 타일	바닥: 액세스 플로어 위 우물마루 추가	
정원	마당에 면하는 3면 모두 전면 유리창으로 변경. → 개방적인 사무공간 구현	사랑방과 다실, 주민센터의 창호를 각기 달리하여 개방감 조정. -다실: 안마당측 창은 쌍창, 연영창설치 -사랑방정면: 세살청판분합문(이중창) -사랑방과 다실사잇문: : 들어올릴 수 있는 한식창호 -주민센터: 채광고려한 유리창호	2 3 2 1 1
	뒷마당	후면 콘크리트 담장	
	사이길	자치회관과 사이길 (2m)	
	벽돌담	휴게공간으로 조성	
	마당: 강돌박석 포장	한식돌담 + 대나무 식재	
정원	마당: 장대석 포장, 마사토 (반사광유입)	마당: 장대석 포장, 마사토 (반사광유입)	1
	ㄷ자 끝부분에 입구 및 램프 설치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강화,	입구를 건물 정 중앙으로 변경 (복원) 민원실앞 국기게양대 담장쪽으로 이전	

* 2차 리노베이션 내용 및 그림 출처 :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제공 (2010)



[그림 3-2] 해화동 동사무소 정면부 (위치1)



[그림 3-3] 자치회관 사이길 (위치3)



[그림 3-4] 동사무소 후면부 (위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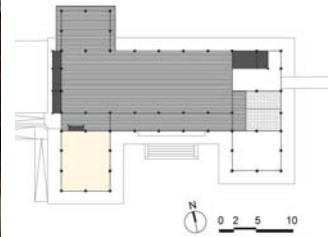
한편, 자문 회의시 논의되었으나 설비시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부공간을 전통 방식으로 되살리는 과정에서, 한옥 공간의 의장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의 기능적 차원에서 설계시 전기, 소방, 기계, 통신 설비 및 보안설비 등의 여러 가지 현대적인 설비 시설들을 한옥과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민원실 외의 모든 시설들은 신축된 현대 건축물인 자치회관으로 이전되고, 사무공간의 성격이 강했던 해화동 주민센터는 주로 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현대건축물과 전통건축물은 공공 시설로서 그 기능을 달리 하게 되었다. 한편, 리모델링 기간 동안은 주민들의 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민원실 역시 임시로 자치회관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중이다. 정통한옥을 현대건축물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향후 유사 시설들의 활용시 참고할 가치가 있다.

3) 신한옥 사례

① 국회 한옥 사랑재

2011.05 준공



* 사진 : 남측 정면부

● 시설 개요

위 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동산 내	구 조	전통 한식목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설 계	(주)한인건축사사무소	용 도	업무시설 (외빈 접견공간)
시 공	(주)토형산업 (대목장 신응수)		: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활동
규 모	지상 1층, 지하 1층, 10.5M높이		: 원내대표 회담, 기자 회견,
면 적	대지면적: 330,597 m ² 건축면적: 534.52 m ²	프로그램	대회의실(80~100여명 수용), 누마루, 접견실, 화장실, 설비실
	연 면 적: 849.65 m ² (지상 515.12 m ²)		

● 사업 개요

사업주체	국회사무처	사업기간	2010.02 ~ 2011.05
운영주체	국회사무처		(상량식:2010.09.29)
총사업비	41억원	시공기간	2010.02~2011.04
총공사비	36.6억원(평당 약 14.4백만원)		

● 사업 특징

- 영빈관 기능에 어울리는 상징적인 대형 무주 공간
- 자연지형을 활용한 주변 경관계획
- 한옥의 공간을 해치지 않는 설비시설
- 서비스 동선과 시설 이용자 동선의 입체적 분리

□ 사업 경과

- 2009. 9. :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한옥건립 승인
- 2010. 1. 12.(화) 설계안 서울시 심의 통과
- 2010. 2. 국회사무총장 외 6인과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 전통한옥 이름 선정위원 구성, 한옥과 실별 이름 선정.
- 2010. 2. 19. 착공 / 2010. 9. 29. 상량식 / 2011. 4. 완공 / 2011. 5. 16. 준공

□ 사업 목적

국회한옥 ‘사랑제’는 의원 동산에 건립된 현대 한옥으로서, 매년 150회 이상 국회를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외빈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진 한국 최고의 명품 한옥을 선보이고, 한옥의 우수성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외빈들의 접견 및 연회시에, 한옥에 어울리는 한식까지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전통 한옥 공간의 체험에서 더 나아가 한스타일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효과를 거두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의원동산 내에 부족했던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개수를 늘리기 위하여, 화장실 및 한옥 주변의 벤치, 공중전화 등의 공공시설물이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술 자문 위원회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관련전문가 7인 (권오춘, 김동현, 김봉건, 박찬수, 윤홍로, 장경호, 장헌덕)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의¹⁷⁾를 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수차례의 자문 회의를 통해 국회 한옥의 건축양식이 결정되고, 시공 총감독으로 신응수 대목장이 임명되었다. 또한, 현대 최고의 전통한옥을 만들겠다는 기획 의도에 따라, 공종별로 동시대 최고의 한옥 기술인들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 목공사: 신응수 (중요무형문화제 제 74호 대목장)
- 옷칠공사: 김인섭 (한국옷칠문화연구원 원장)
- 창호공사: 조찬형 (충남 무형문화제 제 17호 소목장)
- 석공사: 양동조 (대한민국 석공예 명장)

17)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2010.3.18), ‘한옥 세계화에 앞장서는 국회’, 「국회사무처포털」, www.assembly.go.kr.

□ 주요 설계내용

국회의사당 의원 동산 고지대에 위치하는 사랑재는, 남측 정면으로 다양한 행사가 있는 녹지공간과 이어지고, 배면으로는 한강과 북한산을 조망하는 자리에 위치한다. 북측 한강 방향으로는 윤중로와 이어지는 경사지가 있는데, 경사면의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화계를 설치하고, 북측 한옥의 일부를 돌출된 누마루로 계획하였다. 한편, 정면인 남향으로는 접견실과 준비실을 배치하고 넓은 앞마당 공간과 확보하여, 접견 및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선 계획에서, 회의 및 연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접근 동선과, 서비스 동선이라는 상이한 성격의 두 종류의 동선을 분리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상의 요구를 경사지와 회랑을 활용하여 지하층과 이어지는 서비스 동선을 동측의 이격된 곳에 위치하는 기존 청사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동선은 한옥 이용자 동선과 분리되고, 주차동선 역시 기존 청사부분으로 이어져, 한옥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



[그림 3-5] 한강을 조망하는 북측 전경
출처: 국토해양부, 한옥공모전 자료



[그림 3-6] 누마루 내부

단독 건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1층의 면적만 160평에 달하는 ‘사랑재’는 국내, 외 대규모 행사를 수용해야 하는 건물의 상징적인 역할에 맞게 일반 한옥 건축물에 비해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일 수 있도록 대규모로 계획되었다. 옛 궁궐 건축과 같이 채의 규모 뿐만 아니라 각 부재 사이즈 역시 거대하다. 용마루 상부 높이가 9.4M, 기둥간격이 8M에 달하는 장스팬의 대형 무주공간은 오랜 궁궐 한옥 축조 경험을 통해 큰 사이즈의 부재를 다룬 경험이 많은 신응수 대목장에 의해 품격 있게 구현되었다.

국회한옥의 건축양식은¹⁸⁾ 기술 자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국식의 영향을 받은 주심포(柱心包)형태가 아닌, 전통 한국식 한옥건립 기법인 이익공(二翼工)양식을 채택하였다. 사용된 목재는 90년 이상 된 강원도 소나무이다. 목자재의 빛깔이 강하지 않고 아름다워, 나무의 빛깔과 무늬를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방부효과가 강한 옷칠을 하였다.

건물의 품격에 맞게 수공에 의해 구현된 창호부는 한식 창호와 유리창을 혼용한 이중창으로 계획되었다. 광과 조망 및 건물의 단열 기밀 성능을 고려하여, 외부에는 목재 창살이 부착된 유리창을 설치하고, 누각을 제외한 나머지 실 내부에는 접이식 한식 창호를 이중으로 설치하여 기능적으로는 한옥의 성능을 향상시키되, 의장적으로는 한옥의 전통적 문양에 충실하게 계획되었다.



[그림 3-7] 중앙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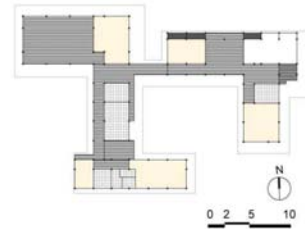


[그림 3-8] 접견실 (온돌방)

□ 조명 및 설비기구

국회한옥은 중앙 공조방식을 취하는 몇 안되는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중의 하나로서, 전기기구와 더불어 디퓨저 등의 설비 기구들이 한옥의 공간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한 것이 특징적이다. 서까래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보와 도리 상단에 세장형 조명기구를 매입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가리고, 우물천장인 경우에는 패턴을 활용하여 디퓨저와 전기기구를 설치하였다.

18) op.cit.,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 (2010.3.18)



* 사진 : 안채부분 마당
〈출처 : 구가도시건축〉

● 시 설 개 요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8-1번지	구 조	전통한식목구조
설계,감리	(주)구가도시건축사무소	프로그램	마을공회당, 다목적 강당,식당 교육공간, 편의시설, 숙박시설
구 조	윤구조	외장마감	한식목창호, 개량 한식회벽, 전통 한식기와
시 공	승지토건 (주)	내장마감	개량한식회벽/벽지/창호지
규 모	지상 1층/ 2개동(안채, 사랑채)	설 비	전열 히팅패널 / 실별 에어 컨디셔닝
면 적	대지면적: 1,758.75㎡ 건축면적: 287.91㎡ 연 면 적: 287.91㎡		

● 사 업 개 요

사업주체	안동시	총공사비	15억원
운영주체	안동문화원 (비영리사단법인)		(평당 총공사비 약 800만원)
예산확보	관광진흥개발기금10억원. 지방비 5억원	사업기간	2005.4 ~ 2007.2
총사업비	41억원	설계기간	2005.4 ~ 2007.2

● 사 업 특 징

- 문화,역사마을 내 한옥공공건축물
- 지역 한옥 특성의 재해석을 통한 현대적 한옥공간의 조직
- 한옥의 내부동선 통합을 통한 거주 편의성 제공

□ 2004년도 문화관광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농어촌 마을을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각 마을의 우수한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로 가꾸어 나가는 사업이다.¹⁹⁾

2002년과 2003년에 총 20개 마을에 각 1억 원씩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다수의 마을에 소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2004년 하반기부터는 소수의 마을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안동 군자마을 회관은 2004년도에 선정된 3개의 마을 중 하나로서, 전체 15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다.

[표 3-8] 2004년도 문화관광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선정연도	시,도	시,군,구	마을명	총사업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체조달
2004	경상남도	안동시	군자마을	15억원	10억원	5억원
	전라남도	영광군	효동마을	30억원	20억원	10억원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마을	30억원	20억원	10억원

*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구가도시건축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구가도시건축사무소는 도시 한옥에서 시작하여, 현대한옥을 주로 설계하는 설계사로서, 초기 디자인 과정상의 사이트와 프로그램을 중시한다. 따라서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대상지와 주변 지역을 답사하고 실측하여 지역 특유의 도시 조직 및 지역 정통 한옥의 공간구조 및 공간적 분위기 등을 참조하여 설계를 시작하는 프로세스를 따른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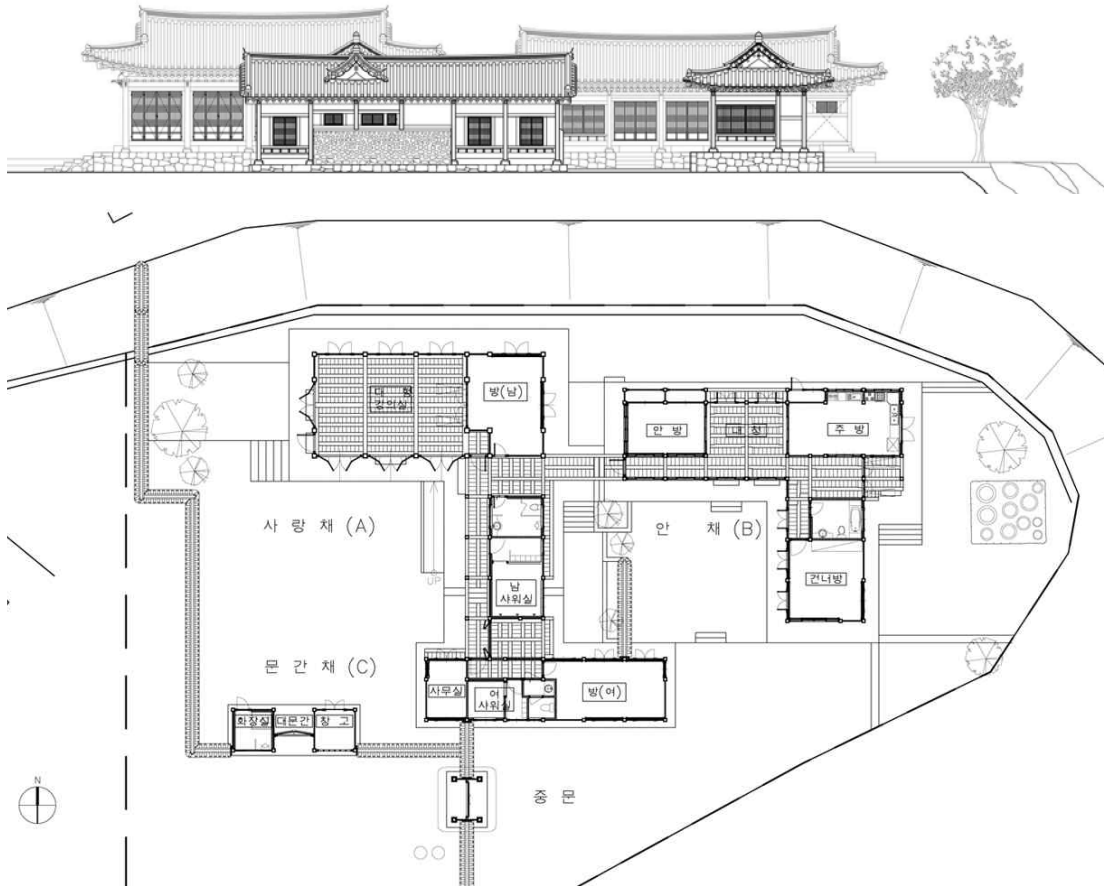
또한, 오늘날의 한옥을 설계함에 있어, 한옥에 새로운 기술과 재료를 적용하기보다는, 한옥 고유의 공간요소 및 가구 구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프로그램에 맞게 재조직함으로써 한옥의 공간이 지니는 가치를 재발견하고 현대의 삶 속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옥을 새로이 디자인한다. 안동군자마을은 한옥에서 뒷마루 공간을 재해석하여, 분리된 채들을 연결하는 통합된 내부 동선으로 활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역사마을가꾸기',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

20) 2011.09. 구가건축과의 인터뷰.

□ 군자 마을회관 대상지의 특성

계획 초기단계에서, 구가도시건축사무소는 경북 안동과 오천 유적지라는 지역과 건축의 특성을 지닌 전범들을 실측한 후, 공간적 느낌을 참조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필요한 프로그램의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와 형상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후조당과 탁청정으로 대표되는 오천유적지의 한옥 건축군들이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지면서, 550년 이상 유지된 마을의 구조와 가옥별 채의 구성이 변하였다. 즉, 정자와 사랑채, 제각 등 남성중심의 공적인 공간들이 대부분 옮겨진 반면, 일상의 삶을 담았던 안채는 탁청정 외에는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²¹⁾



[그림 3-9] (상) 남측입면도, (하) 평면도
출처 : 구가도시건축사무소

21) 조정구(2007) '안동 군자마을 회관', 『건축문화』, 9월호

□ 주요 설계내용

건축가는 경북 안동지역과 영주 순흥지역의 한옥, 조당과 그 안채, 탁청정 정자와 안채, 전주 한옥 생활채관 등 참고하여 마을회관을 설계하였다. 배치계획은 다목적 한옥 공간과 살림채가 일체화된 의인마을 변남덕을 주로 참고한 것이며, 채와 채를 연결하는 연결마루는 의성김씨 종택을 참고하여 재해석한 것이다.²²⁾

동측의 안채는 주방, 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측의 사랑채는 대형 강의실과 숙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치상으로 안채와 사랑채는 분리되어 개별적인 마당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연결 마루를 통해 내부 동선을 통합함으로써, 거주자의 편의성을 제고²³⁾하였으며, 사랑채와 안채 곳곳의 한 칸 마루를 통해, 안채와 사랑채간의 시각적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안채의 한 칸 마루는 쓰임에 따라 닫히거나 열리기도 하는 독립적인 공간이 된다. 군자 마을회관에서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조직은 전통적인 분리 방식과는 차별화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방식이다. 한편, 사이 담장과 문간채는 공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본 설계안에서는 계획된 부분이나 [그림 3-9], 예산상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요컨대, 군자 마을회관은 건물의 형태가 전통 한옥의 양식을 따르더라도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체험되는 공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그림 3-10] 사랑채와 안채 연결마루
〈출처:구가도시〉



[그림 3-11] 사랑채 강의실
출처 : 구가도시건축사무소

22) "연결마루와 채의 연결 배치에서 부분적인 조형언어까지 크고 작은 단위에서 지역 건축의 다양한 언어를 끌어 들일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한옥이 오랜 세월동안 구축해온 집합과 구성력 덕분이다." (op.cit., 조정구(2007))

23) op.cit., 조정구(2007).



* 사진: 도서관 주변현황
<출처 :국토해양부>

● 시설 개요

위 치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105-24	구 조	전통 한식목구조
설계,감리	(주)구가도시건축사무소	프로그램	도서관, 열람실, 전통 한옥체험관
시 공	(주)에이치디토건 (대목:방은철)	외장마감	한식목창호, 개량한식회벽 / 전통기와/ 동판/ 사고석
규 모	지상 2층, 'ㄷ'자 건축물 2채	내장마감	개량한식회벽/ 벽지/ 창호지
면 적	대지면적: 880㎡ 건축면적: 341.46㎡ 연 면 적: 441.09㎡ (1층: 341.46㎡)	설 비	온수바닥난방, 개별 냉/난방

● 사업 개요

사업주체	구로구	총사업비	약 18.8억원
운영주체	구로구 교육시설팀	총공사비	약 14억원
예산확보	문화관광부 2억, 국토해양부 3억 / 공항공사 소음피해지역 지원금 8.8억 / 구로구: 4억		(평당 순공사비: 약 9백만원)
		설계기간	2009.10~2010.03
		시공기간	2010.06~2011.04

● 사업 특징 <한옥공모전 준공부분 수상>

-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에 의한 시설건립 및 운영 예산의 확보
- 도서관 프로그램과 한옥체험 프로그램의 연계 및 격식의 구분
- 한식목구조의 입체적인 공간구성

□ 사업 과정

구로구 한옥도서관은 2009년도에 수행된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중 하나이다. 개봉 청소년 독서실의 노후화되자, 구로구에서 시설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에 신청을 하였고, 최종 4개의 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설계자에 의해 제안된 구로구 한옥 도서관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²⁴⁾

- 어린이도서관 및 한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시설의 제공을 통한 지역 문화의 활성화
- 인접한 여자중학교와 연계된 교육문화시설로서의 거점효과
- 근처 김치공장을 매입해 한옥도서관의 부속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한옥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채택된 타지역 3개 도서관들의 경우, 문광부의 지원금액과 구비만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그친 반면, 구로구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로 국토부와 공항공사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14억이라는 사업자금을 확보함으로써, 한옥 도서관 신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은 교육 시설팀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건축과, 전기과, 공원 녹지과 등 해당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²⁵⁾.



[그림 3-12] 구로구 한옥 도서관 향측 전경

출처: 국토해양부 한옥공모전 자료

24) 구가건축도시사무소(2011), '구로구립 글마루 어린이 한옥도서관 작품 설명서', 「제1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준공부문 자료」, 국토해양부.

25) [주관부서] 교육시설팀 : 사업기획, 사업진행 등 업무, 유지관리

[협조부서] 건축과 : 건축설계 감독 및 자문 / 전기과, 공원녹지과 : 통신, 조경공사 등 협조

그러나, 한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행정 공무원이 기획을 담당 하면서, 기획부터 시공까지 1년이라는 무리한 사업일정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업수행 일정을 맞추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한다. 이에 대해, 사업에 참여하였던 구가건축 관계자는 ‘한옥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옥에 대한 매뉴얼 제공과 충분한 사업기획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²⁶⁾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시공자 선정은 일반 공공건축물 사업과 마찬가지로, 설계가 완료된 이후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일반 건축 시공자와 한옥 전문 설계자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설계자 입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²⁷⁾

□ 주요 설계내용²⁸⁾

설계자는 오류중학교와 접하는 세장한 대상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두 채의 ‘ㄷ’자형 한옥을 배치하였다. 도로와 접한 부분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도서관을, 대지 깊숙한 곳에는 한옥체험관을 각각의 독립된 한옥으로 배치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격식을 구분하였으며, 회랑과 마당을 통해 통합 연결된다.



[그림 3-13] (상)1층평면. (하)2층평면
출처: 국토해양부 한옥공모전 자료

26) 2011.9. 구가건축 조영귀 실장과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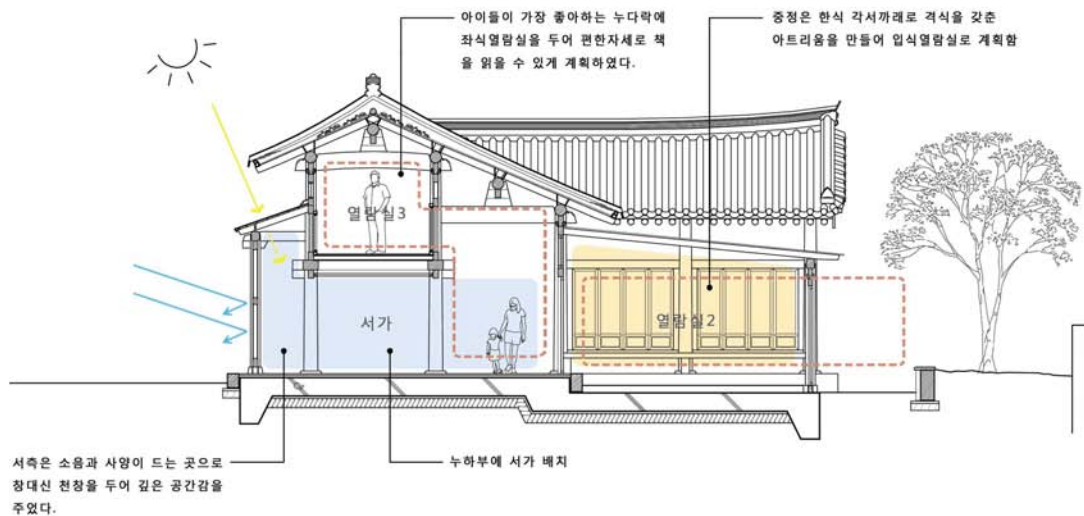
27) 2011.5. 구가건축 조정구 소장과의 인터뷰.

28) Ibid., 구가건축도시사무소 (2011).

전면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은 공공시설의 상징성을 갖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도 충실하도록 이중으로 계획되었다. 겹쳐마 지붕과 전면의 되는 주변 가로에 대한 건물의 정면성을 강화한다.

도서관에 필요한 기능은 입체적이고 단순한 한식 목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ㄷ자 평면 내에 다락과 마루 등의 다양한 열람공간을 구성하고, 마당에 해당하는 중앙의 공간은 채광 가득한 좌식 아트리움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방임과 동시에 마당인 아트리움 공간은, 열람실 및 서가가 연장된 영역으로서, 내부와 연계된 활동을 담는 마당이 지니는 공간적 특성을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에 맞게 효율적으로 번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층 부분의 실내 공간 계획에 있어, 다락, 누하부, 마루 등 한옥 고유의 다양한 공간들은 공간의 규모와 부재 사이즈를 달리하여 입체적으로 계획되었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다양하게 한옥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림 3-14]



[그림 3-14] 도서관 부분 단면도 (누다락, 서가, 아트리움공간)
출처: 국토해양부 한옥공모전 자료

후면에 위치한 한옥 체험시설 역시 ㄷ자 형태로서, 민가의 평면구성을 기본형으로 보다 전통에 충실하게 구현되었다. 도서관 건물이 현대적으로 번안된 한옥공간이라면, 한옥 체험시설은 전통에 보다 충실하게 구현된 한옥 공간이다. 아이들은 대청, 방, 누마루, 마당 등을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며 한옥의 공간구성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 현재 주민들

의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한지공부, 전통문화 교실, 한옥체험 프로그램, 한옥 영어가이드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중이며, 도서관 관장이 직접 옛 서당 훈장의 복장을 하고, 도서관 운영시간동안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돕고 있기도 하다.



[그림 3-15] 도서관 서가
출처: 국토해양부 한옥공모전 자료



[그림 3-16] 한옥 체험시설
출처: 국토해양부 한옥공모전 자료

□ 외부 공간

구로구 한옥 도서관은 좁고 긴 대지를 따라 구획된 5개의 마당을 갖는다. 주차공간이 되기도 하는 전면 진입마당을 지나, 도서관의 마당인 아트리움, 회랑이 있는 안마당을 지나면 한옥 체험관의 마당이 있고 그 뒤로는 장독대와 식재공간이 있는 텃마당이 있다. 도서관과 체험관 사이의 마당은 다양한 야외활동을 담기 위해 만든 이벤트 공간으로서, 담장과 동판지붕의 회랑이 마당의 경계를 설정하고 공간의 위요감을 강화한다.



[그림 3-17] 동판지붕의 회랑



[그림 3-18] 중앙 마당

□ 가구와 소품.

한옥은 준공이후의 관리가 중요하다. 목가구구조의 특성상 지속적인 변형으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옥다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 역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관 후의 도서관 이용 현황을 보면, 편의성 위주의, 한옥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려한 어린이 가구 및 소품들이 공간을 채워감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의 한옥다운 공간 유지를 위해, 설계자는 시설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테리어까지 설계하는 종합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시설 관리자는 소품과 가구 및 전기기구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 변경할 때, 기능성과 동시에 한옥과의 조화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림 3-19] 아트리움 공간의 이용
(좌) 준공직후 <출처: 국토해양부 한옥공모전 자료>. (우) 현황



[그림 3-20] 다락 열람실 공간의 이용.
(좌) 준공직후 <출처: 국토해양부 한옥공모전 자료>. (우) 현황



* 사진: 남산국악당 전경
〈출처: 금성건축 홈페이지〉

● 시설 개요

위 치	서울시 중구 필동2가 84-1번지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역사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설 계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시 공	삼부토건
규 모	지상1층, 지하2층, 4개동
면 적	대지면적: 4,220㎡ 건축면적: 380,28㎡ 연면적: 2,935,35㎡

구 조	전통한식목구조 (지상)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프로그램	전통국악공연장/300석,분장실 국악체험실, 교육강좌실, 다실
외장마감	화강석판석, 투명복층유리 ,회벽마감, 전통한식기와
내장마감	회벽마감, 비닐수성페인트
설 비	중앙 공기조화방식

● 사업 개요

사업주체	서울특별시
운영주체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위탁)
총공사비	약104억 (조경3억 제외) [평당총공사비: 약10.2백만원]

사업기간	2005.1 ~ 2007.11
설계기간	2005.9 ~ 2005.11
시공기간	2005.11 ~ 2007.11

● 사업 특징 〈2009 건축문화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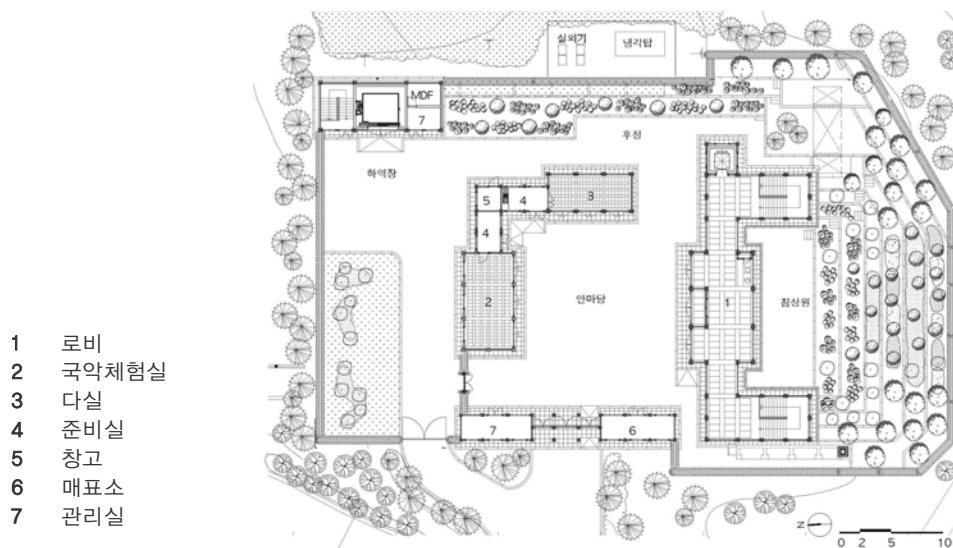
- 남산 한옥마을의 집합적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적 한옥 공간의 구현.
- 지하층의 대형 콘크리트 구조와 지상층의 전통 한식 목구조를 결합한 최초의 신한옥
- 승강기 시설들을 중층형 한옥으로 계획하여 중첩된 지붕선의 리듬감 제고
- 마당의 크기, 마당에 면하는 창호의 성격을 달리하여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

□ 사업의 배경

2005년, 서울시는 서울의 상징적 문화 인프라 확충방안으로서 노들섬 문화예술센터와 남산 전통국악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악예술의 계승발전과 시민들의 전통 국악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국악당 건립 사업은 2005년부터 실시설계와 건축공사를 동시에 추진했으며 2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공사 진행 중이던 2006년 2월에 국악 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는 공연장 운영을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에 위탁했다.

□ 주요 설계내용

남산국악당은 남산 한옥마을 내에 조성된 전통국악 공연장으로 상대적으로 볼륨이 큰 공연관련 시설 대부분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층에는 최소한의 기능만(전체연면적의 13%)을 남겨서 주변 남산 한옥마을의 공간적 스케일 및 집합적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상층 건물은 전통 한식목구조로서, ㄷ자의 본채와 ㄴ자의 바깥채, 一자의 행랑채가 ㄱ자로 배치되어 아늑한 안마당을 형성한다. 북측의 마당은 화계가 놓인 뒷마당과 연결된 마당이면서 동시에 극장용 화물 승강기와 연계된 서비스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승강기 부분은 중층형 혹은 고층형 한옥의 형식을 취하는데, 행랑채-바깥채-본채 순서로 높아지는 지붕선과 더불어 리듬감 있는 중첩된 집합적 경관을 형성한다.



[그림 3-21] 1층 평면도 <출처: 금성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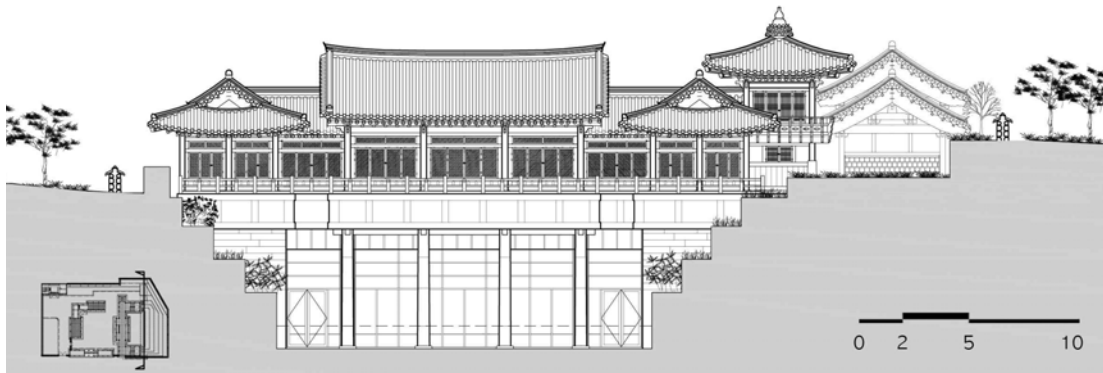
건물의 입면 및 창호는 면하고 있는 마당에 따라 성격을 달리한다. 충분한 자연채광과 화계에의 조망이 중요한 지하층의 창호는 목재와 유사한 색상의 현대식 시스템 창호로 계획되었으며, 안마당 및 화계에 면한 지상층 한옥의 입면은 목재 창살을 덧댄 투명한 유리창호이다. 한편, 서비스 공간인 북측 마당에 면하는 입면은 전면 창호가 아닌 벽체로 구성하여 실내 공간이 반대편 안마당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창살의 종류 역시 건물에 따라 다른데, 바깥채는 띠살창으로, 본채는 교살창으로 계획되었다.



[그림 3-22] 측 마당과 화물용 승강기 입구



[그림 3-23] 행랑채에서 바라본 안마당



[그림 3-24] 남측 입면도 < 출처: 금성건축 >

자연채광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지하 쉼터 정원은 이후 윤선도 유물전시관에 서도 반복 적용된다. 지하에 계획된 대규모 공연장은 자연음향을 고려한 최적의 무대음향 설계와 전통 국악기 연주에 적합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국악의 섬세한 음감을 잘 전달한다. 공연장의 무대와 좌석간 거리는 최대 10m정도로, 객석 어디서나 관객이 공연자의 표정이나 세세한 움직임 느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무대와 객석이 함께 어울리는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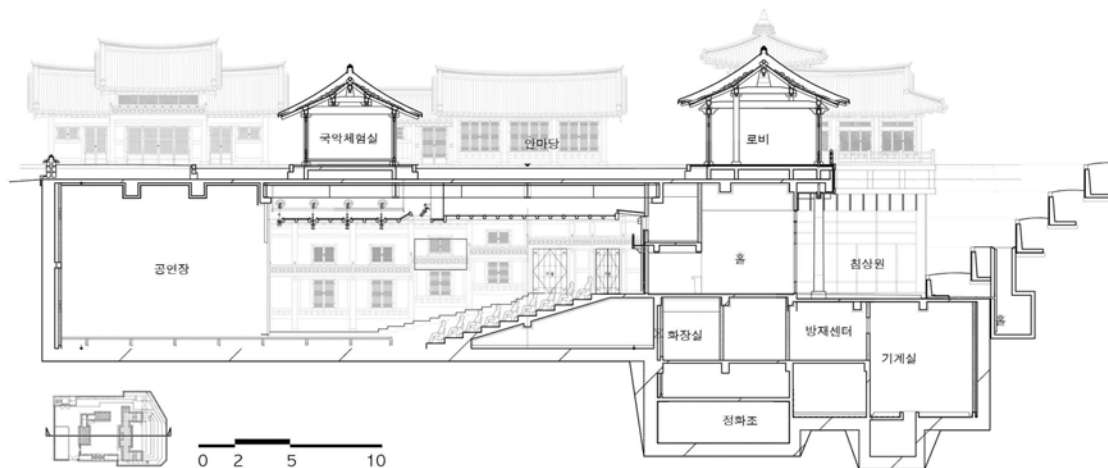
악 공연에 적합한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창호지로 마감된 내부 벽면과 우물 천장은 전통적 미를 살리면서도 음의 난반사에 유리하여 공연장으로써 손색없는 디자인이다.



[그림 3-25] 지하층 국악 공연장
출처: 건축세계 2009년 1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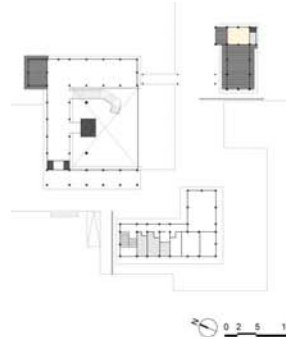
□ 콘크리트 구조와 전통 한식 목구조의 결합.

남산국악당은 지하층의 현대 건축물과 지상층의 한옥양식이 결합된 최초의 건축물로서 방수층 시공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신한옥의 새로운 유형 개발을 위한 기술 수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옥에는 수용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대공간 프로그램을 지하화하여 한옥의 형식에 담기 시작한 첫 신한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9)



[그림 3-26] 서측 단면도 < 출처: 금성건축 >

29) “이 전통 공연장의 경우 대규모 공간을 지하에 두고 지상에는 한옥만 두어 본격적인 현대건축물과 한옥을 결합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옥으로 거대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김용미(2009), “현대건축과 한옥의 결합가능성”,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53, p.30



*사진: 지하 전시실에서 녹우당
으로 이어지는 복동측 전경

● 시설 개요

위 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102-1	구 조	집성목/전통한식목구조(지상)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설 계	금성건축	프로그램	전시관(1667㎡), 교육관(61㎡) ,사무동(102㎡)
시 공	(주)유심종합건설	외장마감	자연석쌓기, 화강석붙이기, ,투명복층유리, 회벽마감
규 모	지상1층, 지하1층, 3개동	내장마감	회벽마감, 친환경수성페인트
면 적	대지면적: 8,612㎡ 건축면적: 1,386.82㎡ 연 면 적: 1,830.66㎡ (지상연면적:297.51㎡)	설 비	공조방식 + 개별 냉난방 방식

● 사업 개요

사업주체	해남군	총공사비	약 56억(조경 4억제외)
운영주체	해남군 문화관광과		[평당총공사비: 약 8.8백만원]
총사업비	약 80억	설계기간	2008.9 ~ 2009.1
		시공기간	2009.5 ~ 2010.10

● 사업 특징 〈2011년 한국 건축문화대상을 수상〉

- 집성목을 사용한 지상층의 전통 한식 목구조 + 지하층의 대형 콘크리트 구조
- 아트리움과 쉼터가든 및 지형차를 활용하여 외부와 직접 대응하는 지하 대공간 구현.
- 친환경 저에너지 한옥의 전범
- 한옥에 어울리는 현대적 재료와 색채의 통합적 구현

□ 주요 설계내용

윤선도 유물 전시관은 ㄷ자형의 전시관과, 교육관, 사무동 그리고 후면의 정자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가는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역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녹우당의 ㄷ자형 평면 구성 및 배치 방식을 먼저 분석하였으며, 그 공간 구성 원리를 윤선도 유물전시관에 적용하여, 유사한 공간감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실제로, ‘ㄷ’자의 전시동과 ‘ㄷ’자의 사무동, 그리고 ‘ㅡ’자의 교육동 3채의 건물이 구획하는 각기 마당공간의 느낌과 연결 관계가 녹우당과 많이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7]



[그림 3-27] 녹우당과 윤선도 유물전시관
(좌) 녹우당 모형 <출처 :윤선도 유물전시관> (우) 윤선도 유물전시관 조감도 <출처 :금성건축>

다만, 녹우당이 수평적인 동선으로 조직되었다면, 윤선도 유물전시관은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수직, 수평적인 동선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하겠다. 윤선도 미술관의 남서측 입구로 들어서면 진입마당이 나타나고 동선은 자연스럽게 전시동으로 연결된다. 전시동에서 외부로 나오는 동선은 지상 층에서는 교육동과 사무동 사이의 남동측 마당으로 이어지고, 지하층에서는 건물 후면의 경사진 녹음공간을 지나 유물전시관의 전범인 녹우당으로 이어진다.



[그림 3-28] 전시동
(좌) 진입마당에서의 뷰, (우) 사무동 앞 남동측 마당에서의 뷰

윤선도 유물전시관은 남산 국악당과 마찬가지로, 지하층은 콘크리트 구조로, 지상층은 목구조로 계획되었다. 남산국악당 지하공간의 경우, 지하층 썬큰 가든에만 자연 채광이 닿을 수 있었던 반면, 윤선도 유물전시관의 경우, 지형을 활용하여, 동측과 북측면 양측으로 썬큰가든을 조성하고 전시동의 중정부분을 아트리움 공간으로 변형하여 지하층으로 연장함으로써, 지하공간에 충분한 자연 채광을 가능케 했다. 이와 같은, 지형 및 아트리움을 통한 새로운 한옥의 공간 조직 방식은, 지상층으로 드러나는 한옥의 외관과 입면 비례는 전통의 방식에 맞게 구현하면서도 건물 내부에 기존의 한옥이 담아내지 못했던 외부환경과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한 대 공간을 구현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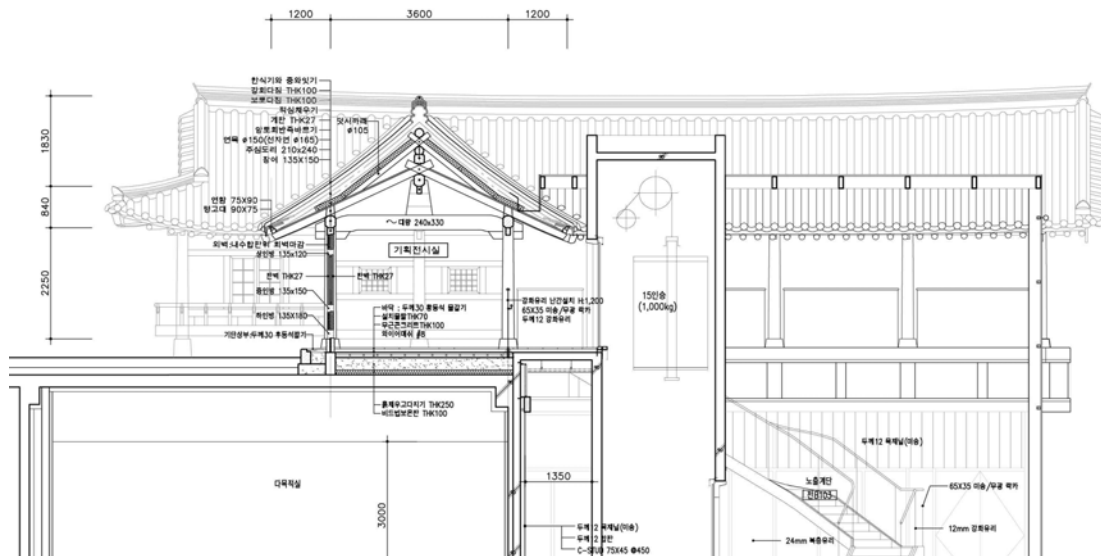


[그림 3-29] 지하1층 평면도 <도면출처: 금성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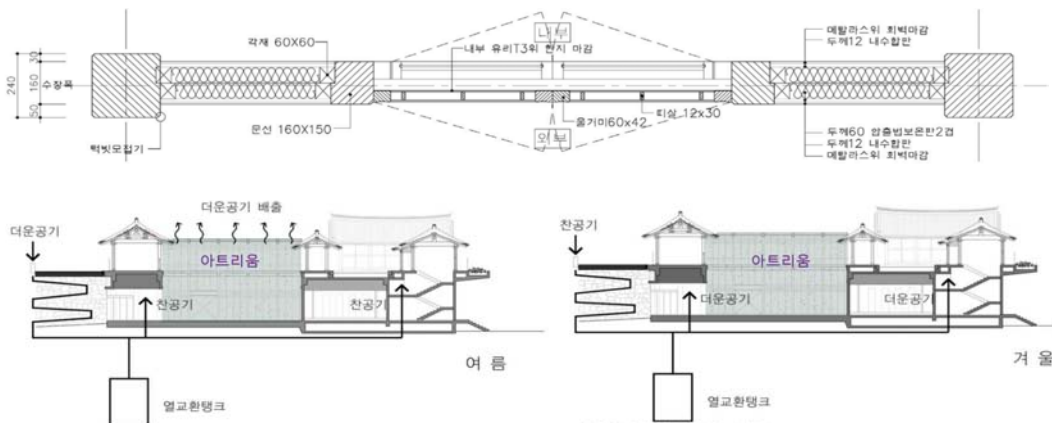
30) op.cit., 김용미(2009), p.32.

□ 친환경 저에너지 한옥

윤선도 미술관의 외부 벽체에는 한옥의 취약점인 단열 기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2중 단열재 벽체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아트리움 상부에 설치한 태양열 집열판은 한옥건물의 능동적인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시스템 창호 및 열 완충 공간으로서의 아트리움과 태양열 에너지 생산 시스템은 이후 김창조 선생 기념관설계(2010년 완공)에도 적용된다. 김창조 기념관의 경우, 여기에 지열에너지 활용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3-30] 전시동 아트리움 단면도 <출처:금성건축>



[그림 3-31] 악성 김창조 기념관 친환경 에너지 계획

(상), 외부단열재 벽체 상세도 (하) 지열에너지 활용 개념도 <출처: op.cit., 김용미(2009), “p.35>

□ 재료와 색채

윤선도 유물전시관은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동판 기와를 사용한 회랑 등의 일부에서 볼트 접합 방식의 현대식 목구조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주요 건물인 3개동은 전통 한식 목구조 방식으로 시공되었다. 재료의 특성에 맞게 프리컷 가공률을 높이고 목수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공기를 크게 단축하였으며 건축 총 공사비용의 시공 단가 역시 1000만원대에서 800만원대로 낮출 수 있었다.

건물의 전체적인 의장적 표현들을 살펴보면, 집성목에 맞게 한옥의 입면 구성 및 부재의 형상과 결구 형태를 현대적으로 변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건물의 품격과 느낌은 예의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전통 한옥의 공간감을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한옥의 현대화 차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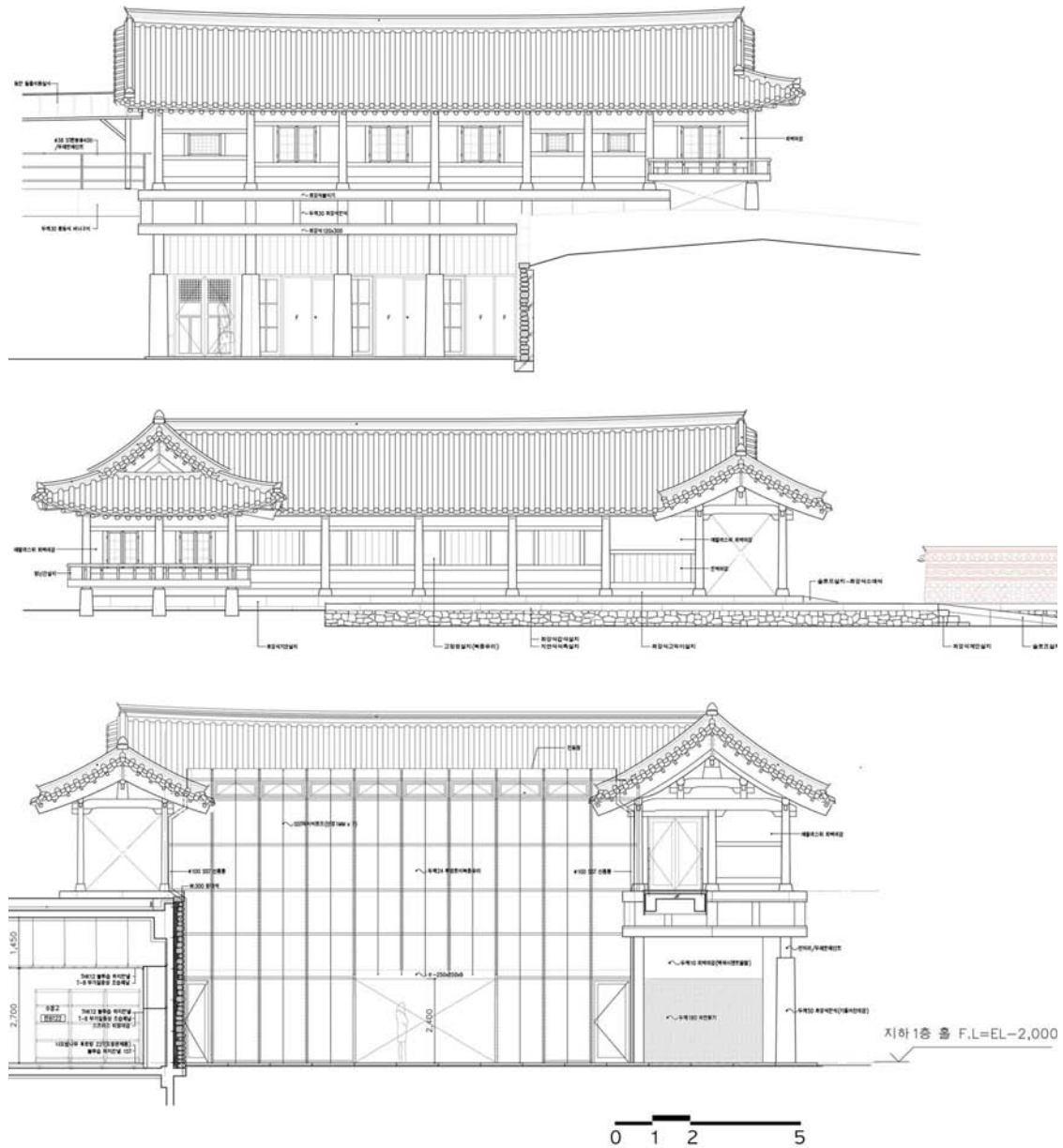


[그림 3-32] 집성목구조 입면 처리
(좌) 북측입면 (중) 남측입면 & 남측 진입부 회랑 (우) 동측 아트리움 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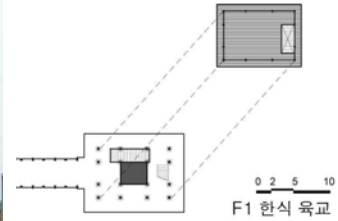
한편, 설비시설 및 가구와 소품의 재료/색채 계획 역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전시동 내부 공조관 및 전기선, 전시 패널은 목가구의 규칙적인 구조미를 해치지 않도록 도리 상단에 배치되었으며, 마감 재료의 색상은 무채색으로 통일하여, 목가구 구조의 색감을 해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부 공공시설물 중, 벤치는 한옥의 가구구성 느낌이 나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목재로 통일성 있게 계획되었다. 난간은 얇은 스틸에 우레탄 페인트로 마감하였으며, 가로등은 한옥과 유사한 색감의 것으로 계획되었다. 설계 초기에 설치된 공조관련 시설 및 환기구들은 굴뚝과 같은 이미지로 마감되어 외부공간에 배치되어 한옥과 조화를 이룬다. 추가로 설치된 개별 냉방기의 실외기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참고 도면



[그림 3-33] 전시동 입면
(상)동측 입면, (중)북측 입면, (하)남측 입면
출처: 금성건축



*사진: F1한식육교 전경

● 시설 개요

위 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F1자동차 경주장 내	구 조	기초: 철근 콘크리트조 누각: 전통 한식목구조 육교: 트러스 집성목구조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프로그램	인도교 (육교부분) ,VVIP F1 관람대 (누각부분)
설 계	(주)삼진건축사사무소	외장마감	화강석 판석, 한식벽체 마감
감 리	총괄: SK건설		
시 공	경민산업주식회사		
규 모	지상 3층		
면 적	건축면적: 255.42m ² 연면적: 508.86 m ² (한식육교 면적:203.04m ²)		

● 사업 개요

사업주체	전라남도	시공기간	육교: 60일 (2010.08 ~2010.10.)
운영주체	KAVO		
예산확보	전라남도		누각: 4개월 (2010.11 ~2011.02.)
총공사비	30억 (석재 기단부 제외) 평당 총공사비: 16.9백만원 (석재기단부 포함시 약 12백만원)		

● 사업 특징

- 국내 최대 집성목 구조물 육교: 42M 장스팬
- 현대적 목구조물을 이용한 전통적
- F1경기 기간 외, 새로운 공공 프로그램의 도입방안 모색.



먼저, F1 한식 육교는 두 지점간 간격이 42M이고 전체 길이가 57미터, 폭 3.6미터, 높이 6미터의 집성목구조 육교이다. 설계자는 설계 초기에 철골조에 목재로 마감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그럴 경우 한옥스러움이 구현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집성목구조를 선택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목구조 트러스의 하현교인 F1 한식육교에 사용된 집성목 및 자재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구조재 규격: 15M×800(mm)×250(mm)
- 기둥재 규격: 3M ×320(mm)×250(mm)
- 가새규격: 3.1M×270(mm)×250(mm)
- 연결철물: 28TON · 볼트류 : 7TON
- 한식창호: 총120짝 (홍송)



[그림 3-36] F1 한식육교 내부

지붕의 경우, 누각에는 전통 한식기와를 사용하였으나, 육교의 지붕에는 F1 경기시기와와 낙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한와를 올릴 수 없어, 불소코팅 알루미늄 기와를 사용하여 조립하였다. 또한, 육교부분의 한식 창호 역시, 가벼우면서 한지의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아크릴 위에 한지 문양의 필름지로 마감하였다. 전면의 접이식 세살창이 리듬감을 형성하며 육교 공간의 한옥 느낌을 강화하고 있으나, 창을 여닫기가 용이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마감되어 창을 닫았을 경우에 경기장 밖을 내다볼 수 없는 점은, 공공시설로서 아쉬움이 있다.



[그림 3-37] 불소코팅 알루미늄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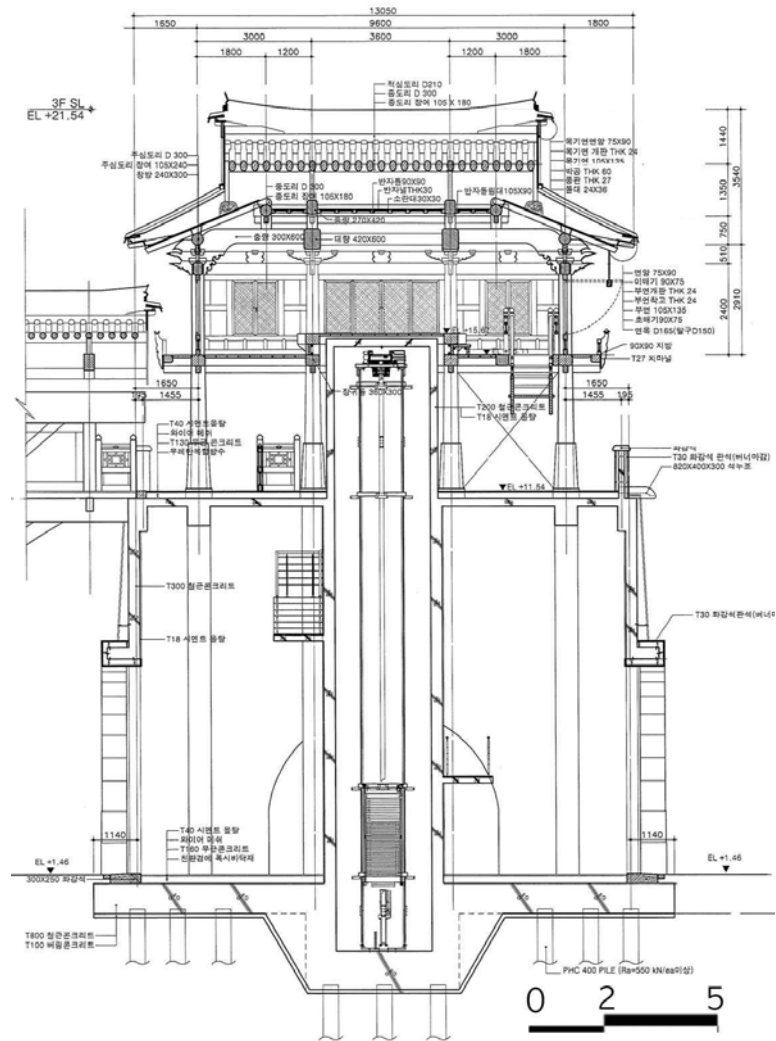
[그림3-38] 육교 창호 입면

양단의 누각은 경기 기간 중 VVIP용 관람실이나 영빈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통방식대로 품격있게 축조되었으며, 창호역시 한지 창호로 마감되었다. 중앙에는 대청마루와 같이 단차를 둔 좌식 공간이 있는데, 이는 승강기 상부를 활용한 것으로서, 현대적 설비 시설이 전통 누각 공간과 접목하면서 생겨난 제한조건을 활용한 결과라 하겠다.

경기 기간동안 F1 한식육교 누각은 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³¹⁾ 한옥호텔 영산재와 연계하여 운영된 한식육교 VVIP실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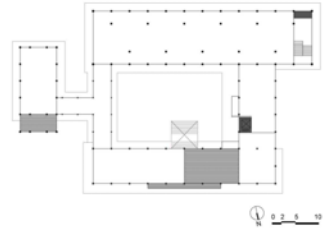


[그림3-39] 누각 내부사진
: 한식육교와 누각 공간은 F1 경기기간 동안은 경기 관계자와 누각 대관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나, 경기 이외의 기간 동안에는 공공시설로서 활용될 계획이다. 1년에 1회인 F1경기의 빈도를 고려할 때, 공공시설로서의 활용방안은 시설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그림 3-40] 누각 단면도 <출처: 삼진건축사사무소 >

31) “F1경기를 위해 관람석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대관예약이 종료되자, 외국인들은 더 많은 대관료를 지불하고자라도 VVIP실인 누각부분 예약을 시도하였다.”011.08., KAVO 김세미씨와의 인터뷰



*사진: 계곡 맞은편에서 바라본 전경 <출처: 완도산림박물관>

● 시설 개요

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 109-1 수목원 내.	지역,지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설 계	(주)삼진 건축사사무소	구 조	전통한식목구조 (지상) + 철근콘크리트조(지하)
시 공	(주)건양 (대목공 김창호)	프로그램	전시실, 사무실, 휴게실, 수장고
규 모	지하1층, 지상1층 (높이 15M)	외장마감	황토벽돌/ 회벽미장, 화강석 쌓기
면 적	대지면적: 3,238㎡ 건축면적: 1,311㎡ 연 면 적: 2,059㎡ (지 상 연 면 적:1216.80㎡)	설 비	지상층 개별 냉난방식

● 사업 개요

사업주체	전라남도	예산확보	국비50% : 도비 50%
운영주체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사업기간	2005~2009년
총사업비	약 101억	설계기간	2006.03~2006.09
순공사비	약 57억	시공기간	2007.05~2009.04
[평당순공사비: 약 12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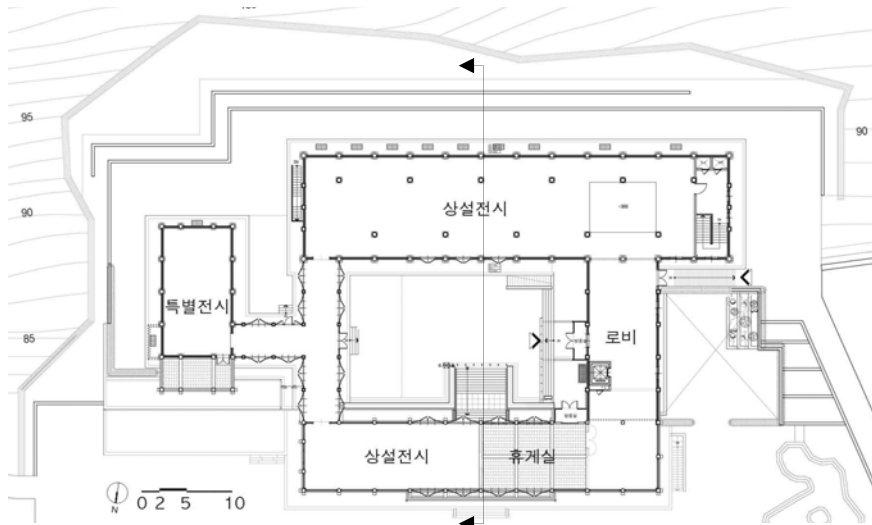
● 사업 특징

- 문화재 지정율 목표에 충족된 품격있는 한옥 전시시설
- 한옥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테리어 계획 및 전시기획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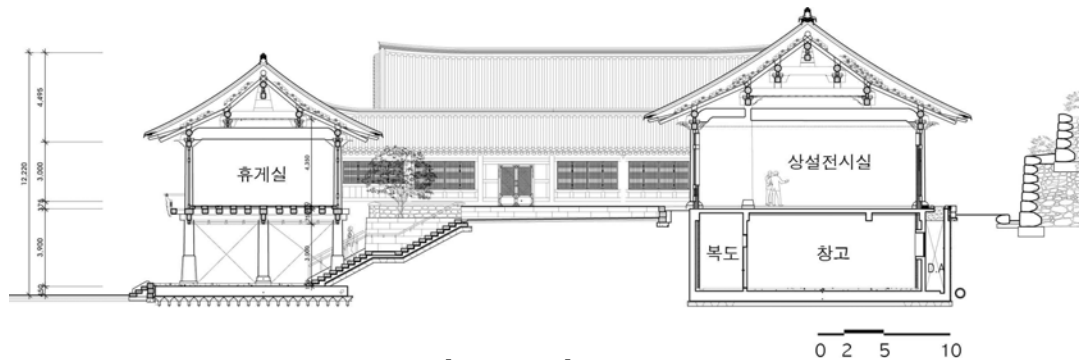
□ 주요 설계내용

완도 산림 박물관은 공궐 건축을 제외하고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물로서, 훗날 문화재 지정을 목표로 전통방식에 맞춰 축조된 건축물이며, 국내 문화재 수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 한옥 전문 기술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북향으로 배치된 ㄷ자형 평면은, 좁고 경사진 대지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면서, 대규모의 장스팬 공간을 필요로 하는 전시공간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다.³²⁾ 경사진 대지를 활용하여, 전면부를 누마루 공간으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관람자의 동선은 누하 진입으로 시작된다.



[그림 3-41] 지상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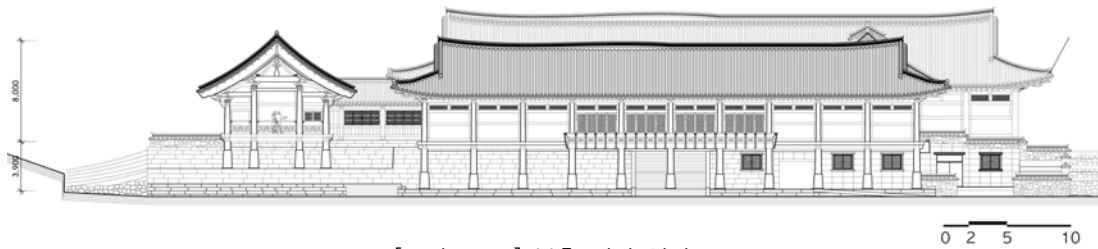


[그림 3-42] 단면도

32) “한 방향으로만 확장이 가능한 한식 목구조의 특징을 고려하여 폐쇄적인 ㄷ자형으로 실을 구성하였다.”- 2011. 09. 삼진건축 이봉수 소장과의 인터뷰

2층의 전통 한식 목조물은 문화재급 한옥의 위용을 표현하기 위해 최대한 전통 방식에 맞게 축조되었다. 전체 평면은 口자형 평면인 상설전시동과 동측에 날개처럼 붙어있는 특별전시동으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양식으로 취하고 있다. 상설 전시동은 익공양식으로, 특별 전시동은 고려시대 전통양식인 주심포양식으로 계획 및 축조되었다.

주요 구조부 재료로는 북미산 더글러스파(미송)를 사용하였으며, 서까래 등에는 강원도산 육송을 사용하였다. 목재의 가공에 있어, 부편수·편수 등 25명이 나무를 깎고 맞추는 데에만 9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만큼 오랜 시공기간 끝에 완성도 높은 현대의 문화재급 한옥이 탄생하였다.



[그림 3-43] 북측 정면 입면도



[그림 3-44] 창살과 공포의 디테일

□ 한옥에 어울리는 전시공간 구현의 실패

한옥 자체는 완성도 높게 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시 공간은 전시를 담당한 학예사에게 뿐만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한옥으로서는 이례적인 8.7M의 장스팬 공간을 구현하였음에도, 전시공간으로서 불합리한 한계점이 많고, 전시실 인테리어 공사시 한옥의 품격 유지를 위한 주의를 세심히 기울이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³³⁾이 주요 원인이다.



[그림 3-45] 부재의 구조미를 고려하지 않은 인테리어 마감

이 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인테리어 설계와 건축 설계의 부조화로 인한 문제 사항들인데, 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에 차질이 생겨, 전시 공간 인테리어 설계자를 제3의 법체로 변경하게 되었기 때문³⁴⁾이라고 한다. 그 결과, [그림 3-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테리어 마감재면이 한옥 구조부재와 맞물리는 부분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아, 전시실 내부공간에서 한옥의 구조미를 구현하는 데 실패하였다. 특히, 격자의 철재물로 마감된 천장면 [그림 3-45(좌)]은 문화재급으로 지어진 한옥의 수려한 천장구조물을 시각적으로 차폐할 뿐만 아니라, 전시장 내부의 냉, 난방 부하를 감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림 3-46] 전시장 내부



[그림 3-47] 옷칠 보수공사중 (2011.09.)

두 번째 문제로 제기된 것은 유지관리의 어려움이다. 박물관이 수목원에 입지한 관계로, 등산객들의 출입이 잦고 지붕의 부재들로부터 목구조물의 특성상 목재 입자들이 떨어지게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장 바닥면 재료를 검정색 유광 타일로 선택하여, 작은 이물에도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부 실의 청결상태를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건물이 한옥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칠공사와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

33) 2011. 08. 완도산림박물관 서인석 학예사와의 인터뷰

34) 2011. 09. 삼진건축 이봉수 소장과의 인터뷰

되고 있다. 건축비용만 100억에 달하는 대형 규모의 시설인 만큼, 목재 변색 시 건물 전체에 칠을 하게 될 경우 유지관리비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향후 한옥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전시 기획 시기의 문제이다. 한옥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인테리어 공사 이전에 전시 기획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 배치 및 동선계획상 문제점이 생겨 전시 기획에 어려움이 많다. 완도 산림박물관의 기획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에 시작됐으며, 그 결과 전시 기획에 맞는 공간 활용이 어렵고, 사용되지 않는 과잉 설계된 공간이 많아 냉난방 부하가 크다. 정면의 휴게실 및 특별전시실 누각의 경우, 그 규모와 미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시동선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

□ 외부공간 연계 계획의 부재.

한옥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간의 체험이 완성됨에도 불구하고, 완도 산림박물관의 반 외부 공간은 활용도가 낮아 공간 경험이 단조롭다. 복도 부분은 중정을 면하고 있음에도 단순한 통로로 사용되며, 특별전시실의 누각 공간은 건축물 자체가 지니는 공간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시 동선과 연관성 없이 구획되어 지나치기 쉽다. 전면의 대청 휴게공간은 전시 로비 공간과 분리되어 관람 동선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외부 공간 계획에서는, 사용성 뿐만 아니라 의장적 차원에서 공공 시설물 및 그래픽 디자인이 미흡한 점이 아쉽다. 외부공간과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동선 계획 및 공간 활용의 문제점들은, 시설 운영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선되어, 전시시설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람객이 문화재급 한옥을 잘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림 3-48] 복도 공간
: 단순한 통로로만 사용됨, 냉난방 부하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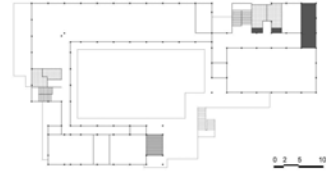


[그림 3-49] 휴게공간(좌)상설전시동 휴게실.
(우) 특별전시동 누각

4) 한옥풍건축

① 전남 축산기술 연구소

2009. 11. 준공



*그림: 공모전 조감도
<출처: 토방 하우스>

● 시설 개요

위 치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군자리	지역,지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역,지구	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설 계	(주)유탕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1층 (검역소, 실험실, 주차장)
시 공	(주)한국건설, (주)화성건설		2층 (사무소, 중정, 세미나실)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4개동	외장마감	흑벽돌마감 (저층부 벽체), 구조부재 목재마감
면 적	대지면적: 15,000㎡ 건축면적: 2,000㎡ 연 면 적: 3,300㎡ (지상 2층: 898㎡)	설 비	(토방하우스 시스템목재 사용) 태양열 에너지 생산

● 사업 개요

사업주체	전라남도청	예산확보	도비 100%
운영주체	전남 축산기술 연구소	설계기간	2008.10~2009.07
총사업비	약 101억	시공기간	2009.12~2010.12
순공사비	약 60억 [평당순공사비: 약 6백만원]		

● 사업 특징

- 시스템 목재를 사용한 시공 : 목구조의 진화 혹은 현대건축의 한옥화
- 한옥 고유의 비례 및 의장적 특징을 현대적으로 변안
- 공공 그래픽 디자인 매뉴얼 제공

□ 사업의 특징

전라도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광주에 있던 관공서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축산기술연구소는 (본소, 축산시험장 부지, 서부지소)세 개의 신축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 신축되는 본소는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 전남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한스타일로 짓기로 결정된 후, 공모전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가 선정되었다.

축산기술연구소 전체 사업비용은 300억이며 본소 총공사비만 약 60억으로서, 국비의 보조 없이 순수한 도비만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별하다. 예산은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직접 제한하였으며, 전남도에서 이를 승인한 후 도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보되었다.

시공시 관리 감독은 축산기술연구소 본소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관리 감독자가 건축직/토목직 감독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중 발생하는 기술적으로 미비한 사항들은 하자, 보수기간에 보충하고 있다. 하자 기간내의 보수작업은 관련업체에서 책임을 지며, 이후의 보수작업은 도비로 충당한다.

□ 시스템 목재³⁵⁾

외관상으로 한옥인 축산기술연구소 본소는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현재 (주) 토방 하우스에서 특허를 득한 ‘시스템 목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물이다. [그림 3-48]



[그림 3-50] 시스템 목재를 사용한 시공 (출처 : 토방하우스 브로셔)

35) 개발자인 (주) 토방하우스에서 붙인 명칭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부재는 철골부재에 가깝기 때문에 목재라 칭할 수는 없으나, 정보 전달 차원에서 본 절에서는 개발자가 정한 용어 그대로를 사용하기로 한다.

앞선 시공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부를 노출하지 않는 1층 부분은 일반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로 시공하였으나, 의장적으로 한옥의 형식을 취하는 부분은 ‘시스템 목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고, 지붕의 서까래는 일반 목재로 시공하였다. 축산기술연구소 본소의 설계 설명서 중 계획개념에는 이와 관련한 설계안의 장점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표 3-9] 축산기술연구소 본소 설계의 기본개념

▷ 전통건축	▷ 현대건축	▶ 진화된 한옥
구조미 : 노출된 부재자체의 아름다움	내구성 : 재료의 발달로 내구성 증대	기능적 해결 : 장스판가능 = 자유로운 기능설계
역동성 : 형태적/철학적 역동성	기능성 : 기능에 따른 다양한 실 계획 가능	구조적 해결 : 철골 + 목구조 = 장스판가능
상징성 :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요소	가변성 : 다양한 형태구성이 가능	형태적 해결 : 노출된 부재에 의한 구조미
유기성 : 자연과의 조화, 비대칭 균형	경제성 : RC조의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경제성 해결 : 철골 + 목구조 = 시공비 절감

* 출처 : 축산기술연구소 본소 설계설명서

이 부재는 철골에 목재를 붙여 만든 것으로서, 한옥의 산업화, 보급화를 목적으로 목재 자체가 한옥에서 지니는 근본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자재이다. 의장적으로 목재의 형식을 취하는 ‘시스템 목재’는 구조적으로 철골조이기 때문에 장스팬의 대공간 구현이 가능하며, 부재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 관리가 용이하고, 건물에 목재 변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부재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일반 철골 구조에서와 같은 볼트 접합 방식이기 때문에, 구조 계산이 가능하고³⁶⁾, 조립, 해체, 재활용이 가능하며, 공장생산을 전제로 반복생산 가능하다. 규모가 큰 건물을 제외하고는 지붕 역시 공장생산을 전제로 하는데, 추녀부분을 내부에서 스틸로 잡아주고 서까래, 부연을 공장에서 조립, 접합하여 현장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3-51] 시스템 목재의 결합부 디테일

36) “토방하우징의 합성목구조의 구조계산은 그동안의 경험과 부재 실험을 바탕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2011년 9월 26일, 토방하우징 한진수 이사와의 인터뷰중.

축산기술연구소 본소 건물이 철골 구조에 가까운 현대 건축물임에도 한옥과 유사하게 인지되는 이유는 성벽과 같은 기단부와, 기둥간격이 3M인 벽체부, 그리고 지붕이 이루는 전체적인 입면 비례와 더불어 세심하게 반영된 한옥의 의장적 요소들에 있다. 앞서 언급된 [그림 3-51] 의 시스템 목재 결구부와 지붕의 형식, 교자각 형식의 난간, 띠살창 문양의 방충망 등은 ‘한옥’ 고유의 의장적 특징이 현대 건축물의 기능에 맞게 변안되고 세심하게 적용된 결과이다. 한편, 내부 공간 계획은 실 구성 및 공간 조직상 현대 건축물의 일반적 사무공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의장상 노출된 목재와 어울리는 색상의 바닥재 및 벽재를 선택하고 목구조와 어울리는 설비 및 전기구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3-52] 띠살창 방충망



[그림3-53] 2층 인테리어 마감
(좌)대회의실.(우) 복도



2층 외부공간 계획에 있어, 마당과 실내공간이 유기적 관계를 맺는 한옥 고유의 공간적 특징이 축산기술연구소 설계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마당의 은유인 옥상정원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유일한 한옥 공간은 누각부분에 불과한데, 이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청사시설의 프로그램상 한계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3-54] 2층 전면의 누각



[그림3-55] 2층 옥상정원

□ 색채와 재료의 통일

축산 기술 연구소 본소 건물의 부속 건물인 주차장과 그에 연결된 2개 실험동은 행랑채와 같은 모습으로 계획되었다. 재료와 색채를 통일하여 연구소 본소 건물과, 부속건물, 야외공간을 포함한 단지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로 인지된다. 전라남도의 ‘공공디자인과’에서 마련한 공공 그래픽 디자인 매뉴얼을 최초로 적용하여 그래픽과 간판을 통일한 것도 특징적이다. [그림 3-57] 한편, 성벽의 이미지인 1층 외벽에 부착된 철물 설치하는 건물 전체의 전통적 이미지를 해치지 않도록 계획되었다. [그림 3-58, 59]



[그림3-56] 본소 건물과 실험동의 서측 전경



[그림3-57] 차고 지붕



[그림3-58] 1층부 알루미늄 장식 홈통



[그림3-59] 교차각 형식의 알루미늄 난간

□ 현대건축의 한옥화

한옥의 지니는 고유의 특성들이 목구조를 충분조건으로 하는 만큼, 목구조는 한옥과 유사한옥을 나누는 제 1의 조건이 된다. [2장] 따라서, 시스템 목구조라는 변형된 철골구조로 지어진 축산기술연구소는 전체적인 비례에서부터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의장적으로 전통적인 한옥의 특징을 잘 살렸음에도, 현대건축이 한옥화된 한옥풍 건축으로 분류된다.

5) 한실

① 산본도서관 한옥공간 리모델링

2010. 03. 준공



도서관 내부 전경 <출처 :구가도시건축>

● 시설 개요

위 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2	구 조	전통한식목구조
설 계	(주)구가도시건축사무소	프로그램	아동실, 유아실, 수유실
시 공	플러스종합건설(주)		도서대출카운터
	박석규 대목장	외장마감	한식목창호, 개량한식회벽,
규 모	도서관 1개층 리노베이션	내장마감	개량한식회벽/ 벽지/ 창호지
면 적	509 m ²		육송목

● 사업 개요

사업주체	군포시 산본도서관	총공사비	약 5억원
운영주체	군포시 산본도서관		(평당 순공사비 약 250만원)
예산확보	문광부2억, 경기도1억, 군포시2억	사업기간	2009. 04 ~ 2010. 03
총사업비	약 5억원	설계기간	2009. 00 ~ 2009. 07
		시공기간	2009. 08 ~ 2010. 02

● 사업 특징

- 해인사 장경판고를 모티브로 한 도서관 공간 설계
- 다양한 층고와 다락, 마루 등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공간 구성
- 어린이를 위한 한옥 공간의 높은 지역 파급력 시사

□ 사업 배경

구로구 어린이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문화관광 체육부의 한옥 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중 하나로서, 일반 공공 건축물 내의 어린이 자료실을 한옥 식으로 리모델링한 사례이다. 개관한 지 15년이 다된 산본 도서관은 낡은 시설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차에 문광부의 시범사업을 알고 시범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 사업 경과³⁷⁾

- 2008.4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추진방침결정
- 2008.7 ~ 2008.9 한옥공간 도입시설 벤치마킹 실시 (2회)
- 2008.10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심의
- 2009.6. 한옥공간 조성 국비 보조금 확보(2억)
- 2009.8. 한옥공간 조성 시,도비 보조금 확보(2.73억)
- 2009.4~7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 2009.8. 공사착공 / 2010.3.17. 공사준공 및 재 개관

□ 주요 설계내용.

구가 도시건축은 앞선 사례(구로구 한옥도서관, 군자 마을회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산본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을 계획할 때에도 대상지 주변의 지역성, 대상지 자체의 감흥 혹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전범을 찾고 이를 모티브로 삼아 작업을 시작하였다. 산본 도서관의 경우, 프로그램상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해인사 장경 판고가 모티브가 되었다. 설계자는, 실내 공간에 조성되는 한실을 구현함에 있어, 한옥의 조형 요소를 부분적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하나의 커다란 공간적, 조형적 모티브를 해당 공간 전체에 적용하여 어린이 자료실 전체를 ‘하나의 느낌’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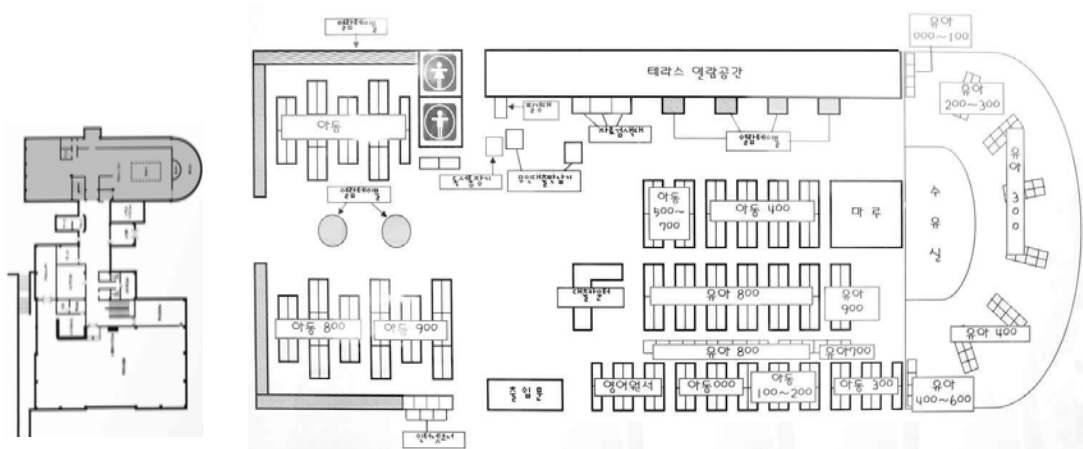
기존의 어린이 자료실 면적(227.28m²)을 두 배로 확장하면서, 건물 내 다른 실들과의 관계, 출입구 위치, 전기, 설비, 통신 등을 고려하여 리노베이션 작업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이용자 파악에 있어서도 아동과 유아로 나누어 필요한 기능들을 분석한 후에 각각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조직하였다.

37) 산본도서관(2011), 「산본도서관 한옥공간 조성」. (사업개요 부분 참고)

38) 구가도시건축(2009), 「산본도서관 설계설명서」

□ 프로그램별 공간구성

산본 어린이 자료실은 평면상으로 크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넓지 않은 면적이었음에도, 천장 높이에 다양한 변화 (2.4M, 3M, 3.9M)를 주고 전통 공간인 마루, 방, 누마루, 퇴 등의 전통 공간요소를 도입하여, 프로그램별로 다양한 공간을 구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옥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60] (좌) 산본 도서관 1층 평면도, (우) 어린이 자료실 평면,
출처: 산본 도서관

• 영역1. 주출입구 공간

주출입구는 해인사 장경판고의 출입문을 참고한 것이며, 진입부의 천장을 2.4M로 낮게 하여 극적인 진입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61] 어린이 자료실 입구



[그림 3-62] 낮은 천장높이의 진입부 대출카운터

- 영역2. 아동실

진입후 좌측에 위치하는 아동실은, 테이블이 있는 3.9M의 중앙 공간과 서가가 들어선 3M의 주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장고가 변하는 부분을 따라 배흘림 기둥이 위치하여 공간에 위요감을 부여한다. 테이블이 한옥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그림 3-63] 아동실



[그림 3-64] 내부 한식 창호

- 영역3. 서고와 다락방

2.2M의 낮은 천장고로 계획된 공간으로서, 1m 간격으로 서가가 배열되었다. 목조로 드리워진 천장 반자들은 의장적인 면에서 해인사 장경판고와 같은 둔중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었다. 한편, 반자들 상부에는 다락방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현재 이 다락방은 어린이들에게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림 3-65] 서고 <출처: 구가도시 홈페이지>



[그림 3-66] 아동실

- 영역4. 열람실과 테라스

열람실은 서고공간과 대조를 이루도록 밝은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테라스 부분은 처음에 외기에 면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운영상의 이유로 외부에 창을 두게 되었다.



[그림 3-67] 열람실 <출처: 구가도시 홈페이지>



[그림 3-68] 테라스

- 영역5. 수유실과 유아실

유아와 영아를 위한 반원형의 공간으로 좌식을 도입하였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놓인 툇마루와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3-69] 수유실 <출처: 구가도시 홈페이지>



[그림 3-70] 유아실 <출처: 구가도시 홈페이지>

□ 한옥 공간 도입의 성과

한옥 도서관을 도입한 이후 이용자수는 전년대비 3.6배로서 현재 1일 평균 이용자수는 1285명이다.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의 증가로 가족단위 이용자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견학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사진: 한옥 열람실 전경

● 시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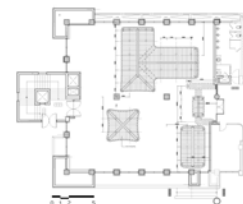
위 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도서관길27	구 조	전통한식 목구조
설 계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프로그램	어린이열람실
규 모	지상1층 (내부)	내부마감	전통한식기와, 석고보드위페인트
면 적	324 m ²		석고플라스터위 외편,강화마루
		설 비	난방필름

● 사업 개요

사업주체	안산시 관산도서관	예산확보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
운영주체	안산시 관산도서관	사업기간	2009.3~2010.01
총사업비	약 4억원	설계기간	2009.7~2009.8
순공사비	약 3.6억원	시공기간	2009.11~2010.1
	[평당 순공사비: 약 3.5백만원]		

● 사업 특징

- 건물 내 건물 방식의 한실
- 대문, 담, 마당과 같은 외부공간 요소의 실내화
- 한옥의 효율적 배치에 의한 공간 성격 차별화



지붕평면키맵

□ 사업의 배경

산본 도서관의 경우와 같이, 도서관 전체의 리노베이션 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문화관광체육부의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도서관 내 어린이 자료실을 한옥식으로 리모델링한 사례이다. 사업 공모시 관산도서관에서 제출했던 사업신청서 내용을 보면, ‘공공도서관을 통한 한국적인 다문화 서비스 실현’에 관한 내용이 있다. 즉, 도서관이 소재하는 원곡동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관계로, 한옥 도서관을 다문화 가정 아이들 및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효율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설 계안이 요구되었다.

□ 주요 설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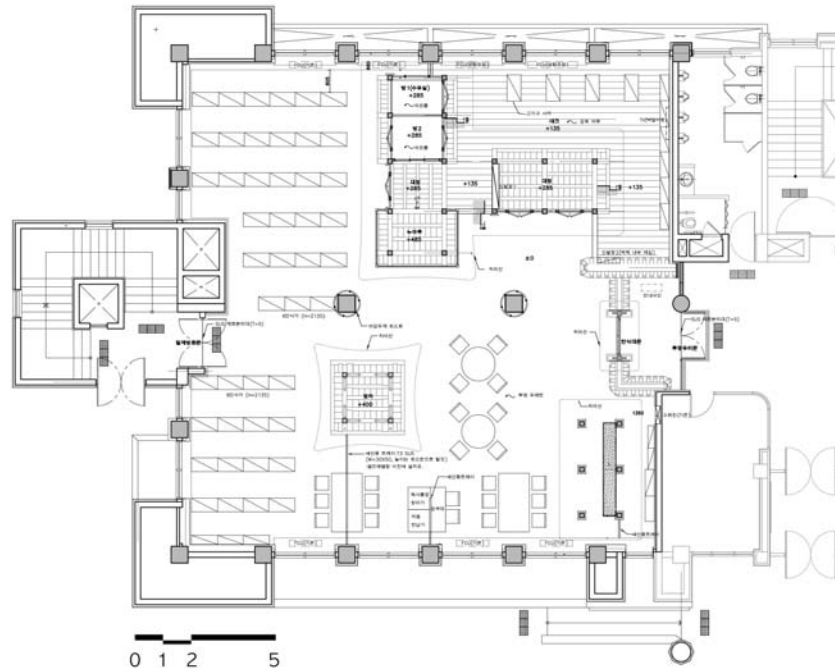
현대 건축물 내에 한옥 공간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 산본 도서관이 어린이 자료실이 한옥 공간의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공간적 느낌’을 구현하였다면, 관산도서관의 어린이 자료실은 ‘건물 내의 건물’ 형식으로 어린이의 신장에 맞는 작은 규모의 전통 한옥을 지은 것이 특징이다. 자료실 입구역시 한식 대문으로 계획되었으며, 돌담 이미지의 벽체로 둘러싸인 실내에는 1한옥 1채와 정자 1채, 대출/반납대가 전통 한식 목구조로 축조되었다.

또한, 대문과 연결된 낮은 담과 정자, 한옥으로 둘러싸인 ‘마당’과 같은 실내 공간은 평소에는 입식 열람실이 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직접적인 체험이 가능한 전통 한옥과, 여러 가지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마당과 같은 실내 공간은 도서관측에서 다문화 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림 3-71] 도서관 내부 전경 <출처: <http://ggholic.tistory.com/1077> >

도서관 바닥면은 검정 에폭시 페인트로 마감되었으며, 천장면 역시 검정색으로 도포되었다. 전체적으로 공간을 어둡게 함으로써, 어린이실로 진입시 다른 공간과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할 뿐만 아니라, 밝은 원목으로 지어진 한옥 공간은 더욱 부각된다. 한편, 실내 벽면은 흰색 페인트로 마감되었는데, 하단부를 안쪽으로 돌출시키고, 석고 플라스터에 파벽돌 장식으로 마감함으로써 전체 공간이 담장으로 에워 쌓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림 3-72] 어린이 열람실 평면도



[그림 3-73] 어린이용 서가



[그림 3-74] 좌식 열람공간 (좌)방, (우)정자



누각과 한옥 뒷면의 건물 외벽면은 서가로 구획되었다. 서가에서 책을 가져온 어린이들은 입식 열람실, 누각, 마루, 방 등 원하는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 또한, 한옥이 배치된 영역은 난방 필름 위에 나무 문양의 강화 마루로 마감된 좌식공간으로서, 유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단차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계획되었다. 기단부가 생략되고 어린이의 신장에 맞춘 소규모의 한옥은 모유 수유를 위한 방과 독서를 위한 방, 방과, 대청마루, 그리고 좌식 서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아들은 서가-대청-방-누각 사이를 안전하게 오가며 공간을 체험하고 원하는 곳에서 선택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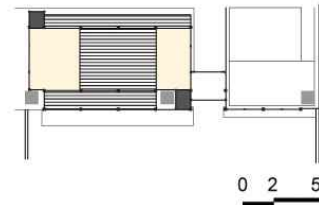


[그림 3-75] 유아용 열람실/서가 <우측 사진 출처:cafe.daum.net/4911292>

□ 시설의 유지와 관리

관산도서관 어린이실의 상당수는 조명기구는 사용자에게 의해 교체되었다. 초기에 설치되었던 매립형 조명이 목재의 변형으로 이완되어 탈락했거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도가 충분치 않아, 형광등으로 교체해 가는 상황이다. 그 결과, 기존의 조명이 매립되었던 구멍이 있는 채로 형광등이 설치되어, 전선이 노출되고, 공간의 품격이 떨어진다. 한옥과 어울리는 전기기구를 선정할 때, 목재의 변형과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및 적절한 설치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부재 곳곳에서 다양한 수위의 갈림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목재의 함수율이 높았던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는 보수기간 중이라 시설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으나, 시공사가 서울 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관계로 보수기간 이후에는 해당 업체가 지속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향후 시설운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스타일 공공시설이 활성화되고 지속력 있게 보급되기 위해서,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사진:마당에서 본 전경
<출처:조선 건축>

● 시설 개요

위 치	日本國 東京都 新宿區 四谷四丁目 4-10, 新宿區 大京町 20-1	구 조	한식목구조 인테리어
설계,감리	조선건축사사무소	프로그램	한국 문화 체험시설
구 조	(본 건물: 삼우설계)	외장마감	화방벽 쌓기
규 모	8층짜리 건물 내 4층 일부	내장마감	종이반자, 장판지,
면 적	54.15㎡	설 비	전기 온돌 판넬

● 사업 개요

사업주체	주일 한국대사관	총공사비	약 2.4 억
운영주체	동경 문화원		(평당 약 12백만원)
		설계기간	2005.03 ~ 2006.04
		시공기간	2008.01 ~ 2008.12

● 사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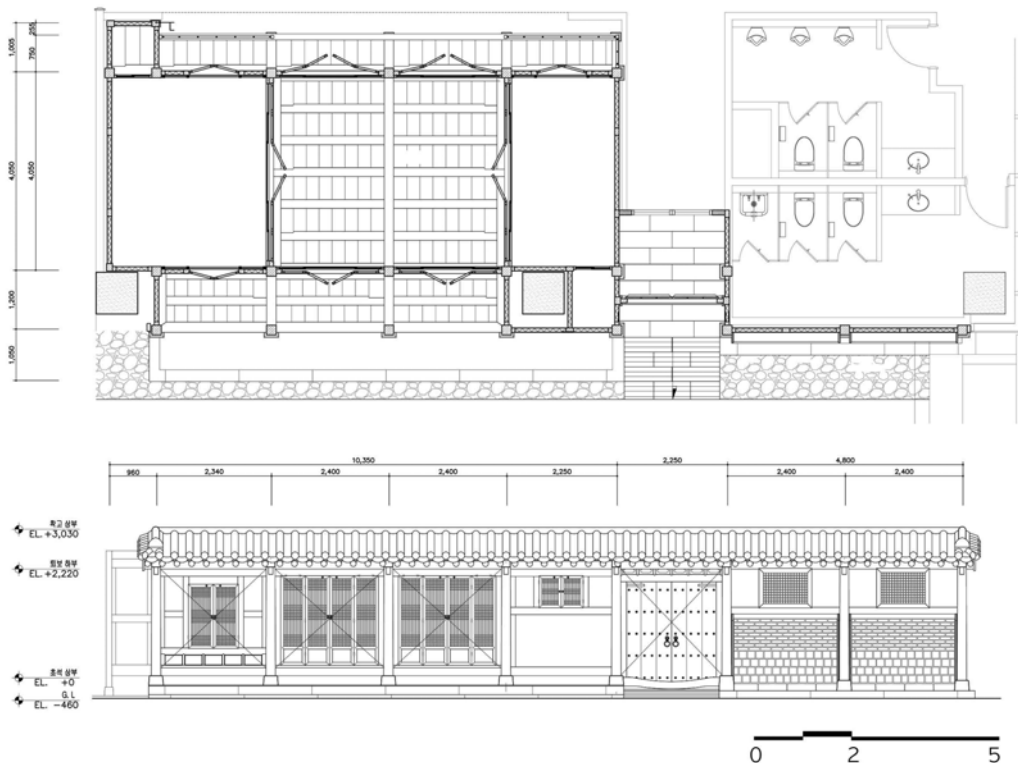
- 건물의 초기 디자인 단계부터 한실의 영역을 구획하여 설계함.
- 한국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재외 문화시설로서, 고가의 건축비를 들여 전통방식으로 축조함.
- 현대건축물의 외피부분 일부에 한옥의 입면형식을 적용함

□ 사업 배경

1979 년에 일본 동경에 개원한 한국문화원은, 개원한 지 30년이 되는 2009년에 주 일 대사관과 함께 신축된 단독 신청사 건물로 이전하였다. 대사관이 위치하는 청사이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시설로서, 기획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대식 건물 내에 한옥 공간을 기획한 것이 다른 한실 사례들과 차별화된다. 한실로 구획된 공간 자체는 16 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지만, 연결된 실의 외부 입면 및 건물 중간층의 옥상정원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형식을 갖춘 한옥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 주요 설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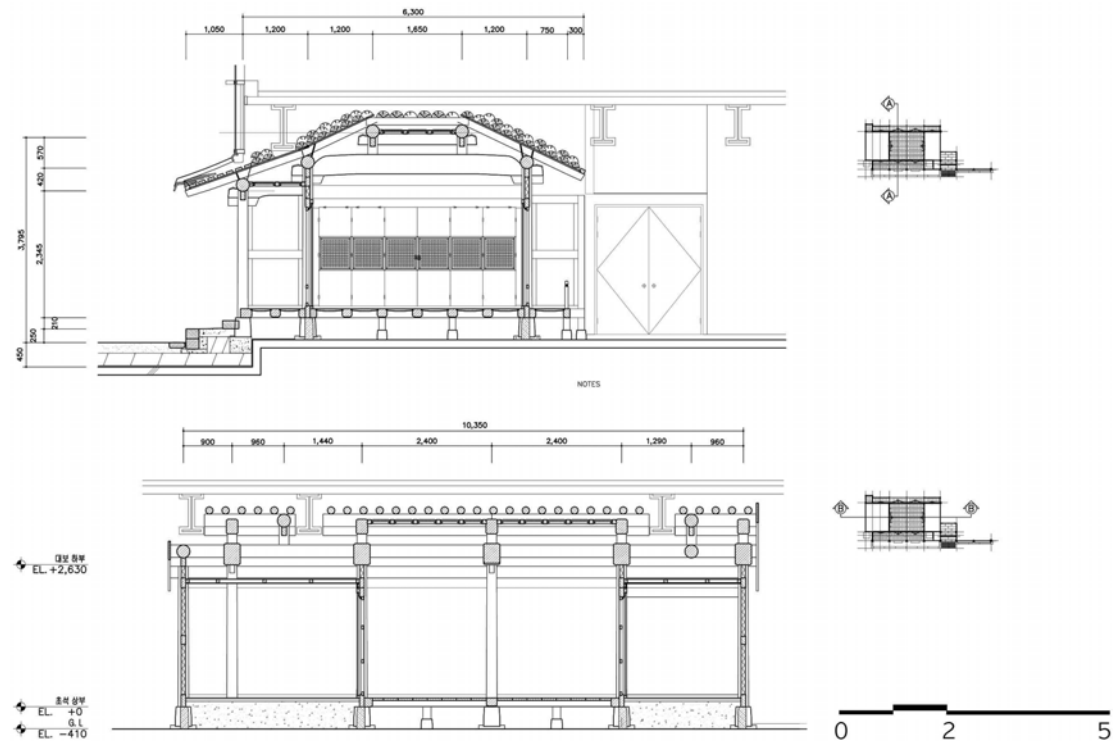
사랑방이라 이름 붙여진 이 한옥은 문화원 4층에 구획된 일부 실에 불과하나, 건물의 입면 구성으로 보면 마당을 전면에 두고, 2칸 대청에 좌우 온돌방을 갖춘 한옥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기 온돌 패널을 활용하여 바닥 난방을 취하고 있어, 한국문화원 한실을 찾은 사람들은 방이나 마루에 앉아, 한국의 전통 생활 공간의 일면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림 3-76] 평면 및 입면도 (상) 평면도, (하) 마당측 입면도
 <출처: 조선건축사사무소>

한편, 한실 부분만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건물이나, 마당에서 보면 4층 한실 부분의 전체적인 건물 외관이, 대문을 중심으로 4칸 한옥과 2칸 한옥이 놓인 전체 7칸 구성으로 인지된다. 이는 한실 우측에 위치하는 화장실의 외벽 부분을 한옥과 같이 보이도록 디자인하였기 때문인데, 1칸의 대문칸은 건물 내부공간과 마당공간을 연결하는 문이며, 나머지 2칸은 4층 화장실의 외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화방벽으로 모양을 내었다. 1m 깊이로 처마를 내민 지붕은 전체 7칸을 하나의 건물로 인식되게 하는 주요 의장적 요소이다.

초기에 한옥이 위치하는 층의 층고는 지붕설치를 고려하여 높게 계획되었다가, 현재의 층고인 (~~M)로 변경되면서 철골보로 인하여 지붕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설계자는, 지붕을 한옥에 있어서 조형적 의미와 상징성을 내포하는 중요한 건축적 요소로 해석하고,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설계안에 반영하였다. 지붕 철골보 사이로 서까래를 설치하여 기와를 얹었으며, 바람이 심한 일본의 기후를 고려하여 기와들을 철물로 엮어 고정하였다. 또한, 착고 기와가 외벽 유리면의 알루미늄바와 만나는 사이 공간은 코킹으로 방수 마감하였다.



[그림 3-77] 단면도 <출 처:조선건축사사무소>

1m 처마 깊이의 지붕을 설치한 결과, 아늑한 뒹마루의 공간감을 살리고, 지붕-벽체-기단과 기초로 구성된 한옥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으며, 층고상 한계로 종도리를 설치할 수 없어 지붕 일부에 반자를 댄 결과, 대청의 천장에 우물반자와 연등천장 모두가 설치되었다. 층고 극복을 위한 디자인이 새로운 유형의 현대식 한옥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창호 계획은 이는 한국의 문화를 접하러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고려하여 최대한 다양한 창호를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대청 좌, 우의 온돌방에 연창의 불발기문을 달고 연창 불발기를 사각과 팔각으로 다르게 설치하였다. 들어올릴 수 있는 문을 설치한 이유는, 하나의 대공간을 만들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온돌방의 정면 문은 머름위에 쌍창을 설치하고 안쪽에 용자살의 영창을 두었다. 대청의 정면은 세살청판문으로 구성하고, 배면은 만살청판문으로 설치하였다. 한편 화장실 앞의 화방벽 위에는 교살의 고창을 고정하여 설치하였다.



[그림 3-78] 대청마루 천장



[그림 3-79] 문을 들어올린 후 내부공간

예로부터 한옥과 마당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설계되었는데, 동경 한국 문화원 한옥 앞의 마당 설계는 건축가가 아닌 조경 설계자에 의해 별도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한옥과 마당과의 조화가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당공간이 한옥의 마루공간과 연계된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3.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해외 사례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해외사례는 북한의 사례 9건과 해외 사례 2건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 건축의 경우, 남한의 경우와 달리,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한옥풍 건축 및 신한옥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규모 한스타일 공공 건축물을 발전시켜 왔다. 오랜 시간에 걸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옥의 의장적 특징을 초대형 현대 건축물로 구현한 북한의 공공건축의 사례는, 한옥의 대형화, 현대화 차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해외 사례 두 건중 하나는 중국의 소주에 위치하는 박물관으로서, 전통적 공간 및 의장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이며, 또 다른 사례인 교토의 영빈관은 전통 원리에 충실하게 현대적인 공간을 구현한 사례에 해당한다.

1) 북한의 사례³⁹⁾

① 인민 대 학습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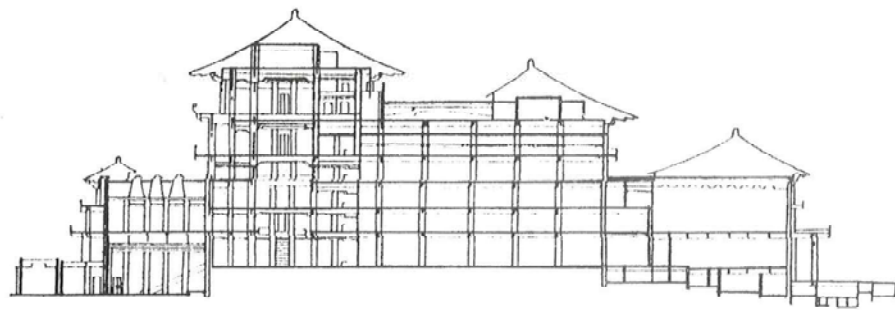
사진: 인민대학습당 전경
(출처: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1999), 「전국 건축 문화 자산」, vol. 북한, p169)

위 치: 평양시 중구역
김일성광장
준 공: 1982년
규 모: 지상 10층
설 계: 함의연, 김병옥
연면적: 약 100,000m²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1979년 12월 2일 착공하여 김일성의 70세 생일에 맞춰 1982년 4월 1일 개관된 인민대 학습당은 일종의 종합도서관으로서 본관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10여개의 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일성 광장의 후면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광장 좌우로 승리 거리가 가로질러 지나가며, 광장의 건너편은 대동강에 면해 있어 대 학습당의 시야가 넓게 확보된다.

39) 주요 참고자료 :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1999), 「전국 건축 문화자산」, vol. 북한, p142~p188

63개의 열람실과 14개의 강의실 및 통보실·문답실·음악 감상실 등 크고 작은 600여 개의 실로 구성된 이 건물은 하루에 1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3천만 권의 서적을 소장할 수 있는 대규모 건축물이다. 2개 층의 단일체인 기단부 위에 10여개의 동을 올려 매스를 분절하고 34개의 지붕을 높이가 다르게 올림으로써, 하나의 건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군집체 이미지를 형성하고 리듬감 있게 중첩된 지붕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건물 내 최상층 기둥 위 공포는 화려한 다포식으로 올리고, 용마루 끝에는 치미를 달고, 내림마루 끝에는 용두를 설치하여, 건물의 상징성을 강화하였다.



[그림 3-80]인민대학습당 단면도
〈 출처: Ibid,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1999), p169 〉

기단이 되는 2층까지의 저층부 역시 4면 모두 열주를 두어, 상징적인 건물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의장적으로 저층부와 상층부를 구분하기 위하여, 3층부 바닥은 캔틸레버로 내밀고 난간을 설치하였다. 또한, 3, 4층 건물의 전, 후면은 열주식 입면으로, 좌, 후면은 벽면으로 처리하여 건물의 정면성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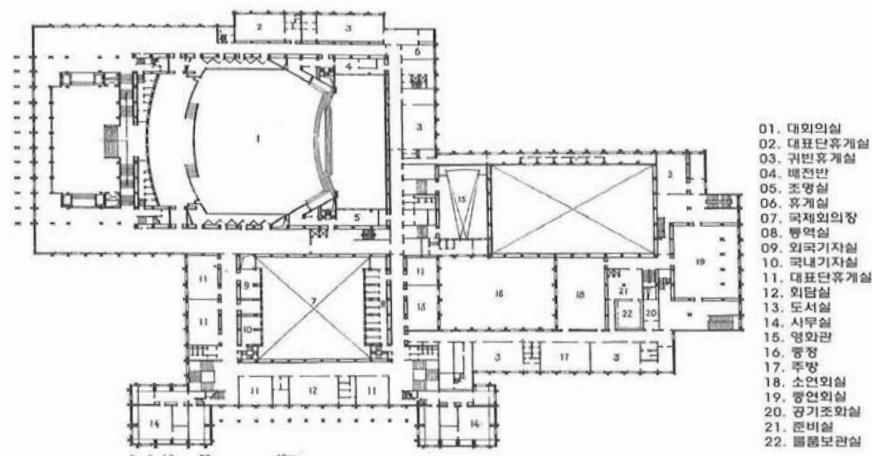
② 인민문화궁전



[그림 3-75] 인민문화궁전 전경
〈 사진출처: <http://cafe.daum.net/samsan529> 〉

위 치: 평양시 중구역 서창동
착 공: 1972년
준 공: 1974년
규 모: 지상 3층, 지하1층
설 계: 백시하, 김병옥, 리형
대지면적 : 약 80,000m²
건축면적 : 약 15,000m²
연면적: 약 53,000m²
구 조: 철근 철골콘크리트조

인민 문화궁전은 노동자의 사상, 문화, 교육활동을 위한 대 전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한 건축물로서, 김일성이 직접 위치 선정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관여하였다. 건물 내에 공연시설, 회의시설 및 연회시설을 갖추고 있어 1990년 남북 고위회담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건물은 2개 층의 기단부로 연결된 3개동(가,나,다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의 규모는 주변 건물 스케일에 맞춰 큰 스케일로 계획되었다, 여러 동의 한옥군이 군집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규모와 높이를 다른 여러 개의 지붕을 중첩하였으며, 개별 지붕의 형상은 되도록 복잡하게 계획하였다. 입면의 중요한 부분인 창호는 전통적인 문양을 채용하여 계획되었다.



[그림 3-81]인민 문화궁전 2층 평면도
출처: Ibid.,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1999), p177

중심부에 위치한 '가'동은 약 700석 규모의 회의실을 중심으로 휴게실, 면담실,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 정면에는 2층 높이의 방형 기둥으로 열주를 만들어 정면성을 부여하고, 3,4층을 팔작지붕을 얹은 하나의 건물로 인지되도록 계획하였다. 4층 배흘림기둥 상부에 하앙을 주심포식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남쪽의 평양 체육관쪽에 위치하는 '나'동은 3000석 규모의 대회의실과 전시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구부분은 3개 층으로서, 현판이 있는 중앙부분은 2개 층으로 낮게 두고, 양측을 3개 층으로 높이 올리고 팔작지붕을 올렸다. 맞은편인 북쪽에 위치하는 '다'동은 800석 규모의 대연회장과 여러 개의 소연회장 및 영화관을 갖추고 있다.

③ 평양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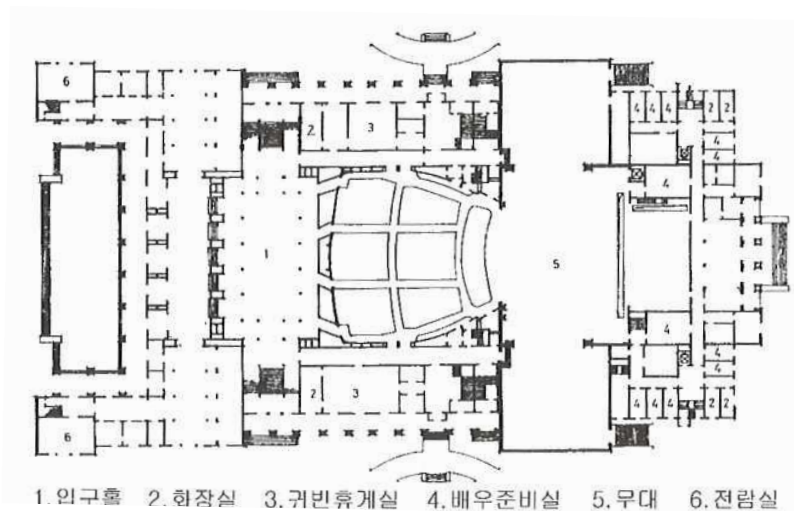


설 계: 오병현
 위 치: 평양시 중구역 번동
 착 공: 1959년
 준 공: 1960년 8월 13일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건물길이 137m, 폭 73m
 대지면적: 75,000m²
 연면적: 29,000m²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프로그램: 대강당(2,200석),
 소강당(700석), 360여개 실

[그림 3-82] 평양대극장 전경

〈출처 : <http://cafe.daum.net/samsan529>〉

소위 민족건축양식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건물인 평양 대극장은 북한의 사상적 내용을 주제로 한 가극이 공연되는 장소로 유명하다. 장방형의 건축물로서, 정면의 양측 모서리를 성벽과 같은 무창의 벽체로 계획하고 상부에 사모지붕의 정자를 하나씩 세움으로써, 건물에 정면성을 부여했다.



[그림 3-83]인민대학습당 단면도

출처: Ibid.,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1999), p173

1층부터 2층까지는 기단부로서, 정면과 측면은 방형 열주로 계획하고, 정면쪽 기단

상부에 2층 규모의 팔작지붕을 올렸다. 그 뒤로 더 높은 팔작지붕 건물을 올림으로써, 멀리서 볼 때, 여러 채의 전통건축물과 같이 보이도록 계획되었다. 지붕은 크게 4개의 서로 다른 높이의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과 지붕사이에 한 단 낮은 기와지붕을 연결하여 지붕선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처마 밑에는 공포를 올리고, 지붕 용마루 끝에는 치미를 설치하여 전통적인 미를 표현하고 있다.

④ 국제 친선 전람관



사진: 국제 친선 전람관 전경
〈출처: Ibid.,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1999), p186〉

위 치: 평안북도 향산군 향산읍
준 공: 1978년
규 모: 지상 6층
연면적: 약 28,000m²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묘향산 입구에 위치하는 국제 친선 전람관은 1978년 김일성이 146개국의 지도자들, 당, 정 국 각계 인사로부터 받은 선물 28000여 점을 전시해 둔 일종의 전시장이다. 건물은 저층부와 상층부로 구분되며, 상층부에 여러 채의 팔작지붕 건물이 올려져, 거대한 건축군 이미지를 형성한다.

하층부와 상층부의 기둥은 방형 기둥과 원주로 그 형식을 달리하고 있다. 방형 기둥의 하층 기단부에는 크기가 다른 방형 돌을 성돌과 같은 모양으로 붙이고, 조형적인 목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5개의 홍예문을 설치하였다. 한편, 상층부 원주 위에는 하양식 공포와 겹처마 지붕을 올렸다. 공포부분과 처마에 단청을 칠하고 치미와 귀면, 추녀기왓을 설치하여 건물에 전통미를 더하고 있다.

⑤ 옥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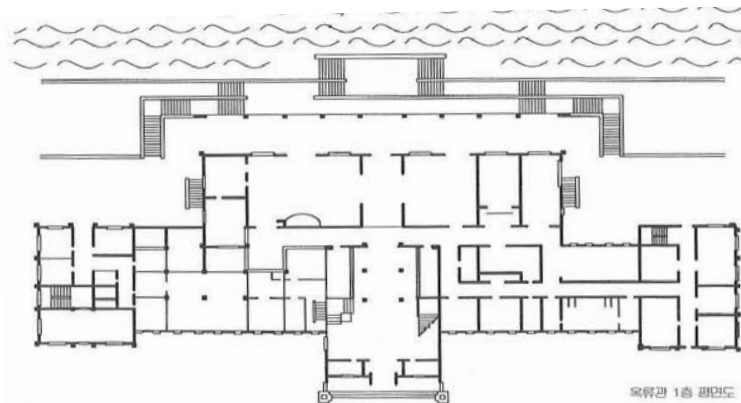


사진: 옥류관 전경
〈출처: <http://blog.naver.com/ylij1407>〉

위 치: 평안북도 중구역 옥류거리
준 공: 1960년,
1988년 별관증축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면적: 본관_5,800m²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1960년 개관한 옥류관은 대규모 식당으로서 대동강변에 면해있다. 건물은 본관과 별관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관은 본관이 완공된 지 28년인 1988년 9월에 별관이 증축되었다. 기와 지붕을 올리고 지붕 하부는 현대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계단을 통해 후면에 위치하는 대동강변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본관 1층에는 100여석의 좌석을 가진 2개의 연회장과 30~40석 규모의 연회장과 8~15석을 가진 6개의 작은 방 등 30여개의 중소연회장이 갖추어져 있으며, 2층에는 2000명 수용 가능한 대연회장이 있다. 별관에는 대중 식사실, 가족식사실, 연회장, 그리고 대동강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 야외식당이 있으며 1400명의 인원을 수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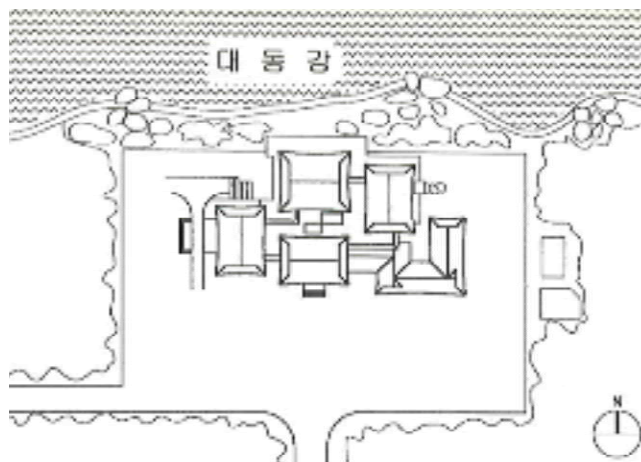
[그림 3-84] 옥류관 1층 평면도
출처: Ibid.,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1999), p180

⑥ 평양 송어국집



사진: 평양 송어국집 전경
 <출처: Ibid.,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1999), p143>

위 치: 평양시 낙랑구역 통일거리
 준 공: 1991년 준공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4,335m²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그림 3-85]평양 송어국집 배치도
 출처: Ibid.,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1999), p143

5개 동의 건물이 한 개의 건물로 연결된 평양 송어국집은 11개의 식사실과 4개의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이와 크기가 다른 팔작지붕을 직각 방향으로 배치하여, 여러 개의 건물들이 모인 건물군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 건물은 가운데에 위치하며, 동측에는 물탱크실과 펌프실이, 서측에는 부속건물이 위치한다. 1층의 정면과 측면

두 곳에 위치하는 현관부는 열주로 정면성을 표현하며, 그 외의 입면은 벽체구성이다.

⑦ 개성민속여관

개성시 자남동 남문에 위치하는 개성 민속여관은 전체 50실로 구성된 숙박 시설이다. 개성 지방의 전통 한옥을 개조하여 1989년에 개장한 단층 호텔로 온돌 전체 실은 전통 침구를 갖춘 전통 온돌방 형식을 취하며, 1등실 2실과 2등실 6실, 3등실 44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86]개성 민속여관 수변
 사진출처: <http://cafe.daum.net/samsan529>

⑧ 모란각



사진: 모란각 전경
〈출처: Ibid.,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1999), p155〉

위 치: 평양시 모란봉 구역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약 1,200m²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모란각은 전통적인 조선시대 건축구조와 양식을 응용하여 철근콘크리트로 건립한 식당이다. 기단부를 조금 들어올려 지면과 떨어지게 만들어 마치 누각과 같은 건물이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둥 상부에 각각 공포를 설치하였으며, 겹처마 팔작지붕에 용마루 끝에는 치미를 설치하여 전통양식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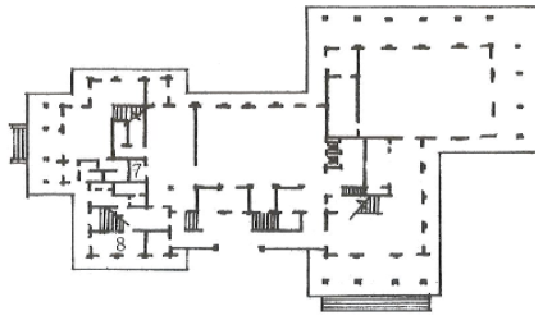
[그림 3-87]모란각 평면도
출처: Ibid.,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1999), p155

⑨ 안주 칠성각



사진: 국제 친선 전람관 전경
〈출처: Ibid.,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1999), p185〉

위 치: 평안남도 안주시
준 공: 1972년
규 모: 지상 2층
연면적: 약 1,400m²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그림 3-88]안주 칠성각 평면도

출처: Ibid.,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1999), p185

안주 칠성공원 내에 자리잡고 있는 칠성각은 모란각과 같이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건립된 식당건물로서, 한 쪽 면은 도로에 면하고 다른 한쪽은 공원의 호수에 면하고 있다. 주 현관이 한쪽에 치우치는 비대칭 평면으로서 1,2층 모두 회랑으로 입면을 구성하였으며, 기둥상부에 주심포식 공포를 올렸다.

2) 국외의 유사사례

① 소주박물관 신관

사진및 이미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5px;"> 소주박물관 전체 모형 소주박물관 전경 </div>
시설 개요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p>위치 苏州市 平江区 东北街 204号</p> <p>설계 I.M.Pei</p> <p>규모 지하1층, 지상1층, 주체건축처마고도는 6m이하로 공제, 중앙 대청과 서부 전시홀은 부분 2층 배치, 고도 16m</p> <p>건축면적 약 19,000㎡</p> <p>지붕구조 강구조, 유리 와 석재</p> <p>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p> <p>건물배치 중앙부분은 입구로 전정, 중앙 대청과 주 정원 ; 서부는 박물관 주 전시 구역 ; 동부는 부 전시구역 및 행정 사무실 구역</p> </div> </div>
사업 개요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p>사업주체 소주시정부</p> <p>설계기간 2002.4 -2003.8</p> <p>총공사비 3.39억 CNY</p> </div> <div style="flex: 1;"> <p>준공시기 2006년 10월</p> <p>시공기간 2003.11-2006.9</p> </div> </div>

□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박물관 신관의 설계는 전통적 소주 건축풍격을 반영하여, 박물관을 정원 사이에 배치하였으며, 박물관의 주 정원은 북면 拙政园 건축 풍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박물관 신관의 주 색조로서 흰색을 사용하여, 소주 지역의 전통적 도시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한편, 주변 건물의 창틀과는 차별화된 회색 화강암으로 창틀을 계획하여 첩편일률적인 가로 분위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박물관의 지붕 형상은 소주의 전통적 경사지붕 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서, 전통 지붕인이 재해석 되어 현대적이고 기하학적인 지붕으로 재탄생하였다. 유리 지붕은 주변의 석지붕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광을 전시홀 내부로 유입시킨다.

② 교토영빈관(Kyoto State Guest House)

사진및 이미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교토 영빈관</p> <p>출처 : www.panoramio.com/photo/12266841</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교토영빈관 내부</p> <p>www.flickr.com/photos/nobuflickr/1281267696/</p> </div> </div>
시 설 개 요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padding-right: 10px;"> <p>위치</p><p>설계</p><p>시공</p><p>규모</p><p>대지면적</p><p>연면적</p><p>지붕구조</p><p>구조</p><p>건물배치</p> </div> <div> <p>京都市上京区京都御苑23 (京都御苑内)</p><p>니켄 세케이</p><p>大林・竹中・鹿島特定建設工事共同企業体</p><p>지하1층, 지상1층(일부 2층) 最高軒高: 약 7.6m</p><p>약 20,140㎡</p><p>약 16,000㎡</p><p>팔작지붕 (일부맞배지붕), 완구배(緩勾配):금속 판자지붕</p><p>철근콘크리트 구조(일부 철골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조)</p><p>전통적인 비대칭 기러기 행렬</p> </div> </div>
사업 개요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padding-right: 10px;"> <p>사업주체</p><p>시공기간</p><p>준공시기</p><p>총공사비</p> </div> <div> <p>국토교통성 近畿지방정비국 교토營繕사무소</p><p>3년(2002년 3월 기공, 2005년 2월 완공)</p><p>2005년 4월</p><p>82억 27000만엔</p> </div> </div>

□ 전통 원리에 충실한 공간의 구현

1994년 10월 25일의 내각회의에서 일본의 역사, 문화의 상징으로서 국제적으로 지명도 높은 교토에 국가의 영빈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대적인 기능을 수용하는 일본 고유의 전통적인 공간을 계획하였다.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영빈시설로서의 편리성·쾌적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방문객에게 일본 전통의 공간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해주기 위해 설립된 만큼, 건물과 조경, 실내 인테리어 전체가 어우러져 일본 고유의 공간감을 연출하고 있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신문과 뉴스상에 보도된 한스타일 건축물 중 사업 추진 주체가 공공이며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준공을 앞둔 60건의 건축물 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들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전체 60건 중 55%인 33건이 전라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지역만으로는 26건으로,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조성률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조성률을 보이는 지역은 전라북도와 서울 (각각 12%)이고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6건(10%)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시기별 조성현황의 특성을 보면, 한스타일 육성정책이 발표된 2007년 이후로 진행된 사업이 전체 60건중 49건으로 전체 사업 건수의 82%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사업은 재외공관을 제외하면 모두 지자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지원금과 보조금의 형태로 지방 정부의 사업 일부를 지원하고 권장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68%에 해당하는 41건이 신한옥이며, 그 다음은 한옥풍 건축으로 15%에 해당한다. 한실과 정통한옥은 각각 5건으로 낮은 조성률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정통한옥, 신한옥, 한실 등 건축유형에 따라 대표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정통한옥의 사례는 혜화동 주민센터 리노베이션을 꼽았다. 혜화동 주민센터는 1940년에 건축된 한옥을 사들여 주민센터로 리노베이션한 사례이다. 그러나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창호 및 내부 마감을 전통에 충실하게 고치고, 보다 주민들이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제2차 리노베이션이 진행중이다.

신한옥은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축유형으로서 총 7개의 사례를 검토했다. 국회 한옥 사랑채는 그 상징적 의미에 걸맞게 크고 당당하게 지어졌다. 비싼 건축비가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지만, 목조공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무주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 안동 군자마을 회관은 지역 한옥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특별한 신기술 없이도 세련되고 합리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 훌륭하다. 구로구 어린이도서관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지어진 건물로서 2층 한옥을 실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시도가 성공적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남산국악당은 현대건축과 신한옥을 결합해서 미학적 정취와 현대적 용도를 해결했다. 커다란 공연장을 지하로 내려보내고 지상에는 단정한 한옥을 지어 주변 남산 한옥마을의 경관에 일조했다. 지하의 채광을 위해 정원을 썬크으로 구성하고 전통 화계를 조성

한 점도 새롭다.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은 ㄷ자 한옥의 마당을 아트리움으로 구성하고 지하공간을 만들어 마당의 공간감을 키운 것이 새로운 시도이다. 한옥의 정취를 간직하면서 부분적으로 현대적 기술과 공간을 삽입시킨 기법이 뛰어나다. F1 한식육교는 자동차 경주장의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으로 지어졌다. 장스팬을 해결하기 위해 집성목을 사용하고 목재의 결합에 볼트를 이용하는 등 현대 목조의 기술을 적극 활용했지만 전통한옥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평가된다. 완도 산림 박물관은 15세기 주심포 양식을 적극 채용하는 등 문화재급 한옥의 위용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전시설비 등 현대적 기능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옥풍 건축은 현대 구조로 건축되었지만 한옥의 외형으로 꾸민 건물로서 전남축산 기술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연구실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철골조로 건물을 조성한 다음 목재로 철골을 감싸 한옥의 모습을 만들었다. 2층 구조의 어색함을 감쇄시키기 위해 아래층은 성벽의 이미지로 꾸몄고, 2층을 마치 누각처럼 보이게 했다. 기타 차고 등을 행랑의 모습으로 조성하고, 철제 난간을 목조 계자각 난간처럼 만드는 등 세부적인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 한실의 사례로는 산본도서관 한옥공간 리모델링과 안산 관산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리모델링을 들었다. 두 곳 모두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 자료실을 한옥풍 인테리어로 꾸민 곳이다.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좋은 평가와는 달리 한옥부재의 마감미 미흡하고 내부에 들인 가구의 재질과 형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이와 같은 한옥들은 모두 주민들이 쉽게 방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어진 사례들로서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 널리 소개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다.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은 이들 건축물의 사업추진과정을 살펴 한옥 공공건축물의 활발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삼고, 아울러 미흡한 부분을 참고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제4장 한스타일 공공건축 관련 정책 및 산업 현황

1. 공공건축물 사업의 개요
2.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사업의 추진체계 분석
3.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체계 분석
4. 문제점

1. 한스타일 공공건축 관련 정책 현황

기존의 한옥관련 정책은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한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스타일 육성정책(2007)’을 계기로 한옥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에서는 개별 한옥과 한옥마을에 대한 보전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스타일 육성정책’ 마련 이후 한옥에 대한 인식개선과 보급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에서는 법제도 정비, 한옥기술개발 추진, 관광자원화 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옥 활성화 정책 수립을 통해 한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 중앙정부의 한옥관련 정책

공공건축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한옥관련 정책으로는 범정부의 ‘한스타일 육성 종합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 국토해양부의 ‘한옥건축 육성정책’, ‘한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외교통상부의 ‘글로벌코리아 추진 계획’ 등이 있다. 전통한옥을 보존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왔으나, 본격적인 한옥지원 정책이 시작된 것은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이후이다. 각 부처가 협력하여 한국 고유문화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표 4-1] 공공건축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한옥 정책

구분	지원 사업	내용
범정부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2007~2011)	한옥건축 법적·제도적 기반의 확충, 한옥건축 전문 교육과정의 개설, 한옥건축 전문기술자 제도의 도입, 한옥마을 조성, 공공시설에 한옥디자인 요소의 접목 등 종합계획
문화체육 관광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2000~2010)	숙박휴양거점 조성, 문화관광루트 개발,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 지역축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 5개 유형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	공공문화시설내 한옥공간 활성화 어린이 도서관 내부 한옥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국토해양부	한옥건축 육성정책 (2009)	한옥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한옥사업선정 지원 및 향후 국고지원 예산규모 확대 계획 등
	한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2009)	건축법령에 한옥의 용어 규정(건축법시행령 개정), 한옥의 대수선 기준완화 및 특례기준 마련 등
외교통상부	글로벌 코리아 추진계획 (2009)	재외공관의 국가 브랜드 거점화

① 범정부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한스타일 육성정책은 한글, 한식, 한복, 한지, 한국음악 등 한국 고유문화의 6대분야를 브랜드화 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2월에 마련되었으며, ‘세계 문화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 개척’이라는 정책비전에 따라 추진된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은 모두 40개의 과제로 구성되었다.

한옥부문은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한옥의 저변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및 일반인 인식전환 등 한옥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관광부에서는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과 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확대 부분을 담당하였으나, 2009년 이후 한옥관련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옥부문에는 5개의 과제가 할당되었으며, ① 전통 한옥건축의 보전·관리 및 활용, ②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③ 한옥건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④ 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 ⑤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로 구성되었다.

특히,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옥디자인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두 가지 계획이 제안되었는데, 하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내 한옥마을 조성 계획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파트 노인정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 청사에 한옥 디자인 요소를 접목시켜 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행복마을 내 한옥마을의 공공시설물을 현옥 공간으로 계획하는 사업은 진행중이며, 일반 도심 공공시설에 한옥공간을 도입하는 계획은, 문화체육 관광부에 의해 추진된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현실화되었다.

[표 4-2]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중 한옥부문의 구성

구분	한스타일 육성정책 중 한옥분야 과제
1	전통한옥건축의 보전·관리 및 활용
2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3	한옥 건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4	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
5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

② 국토해양부 ‘한옥지원사업’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부터 본격적인 한옥건축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한옥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추진 및 한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한옥지원사업’은 한옥의 보급·확대를 통해 한옥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옥을 현대에 맞게 되살리고 재창조키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매년 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으며, 지원받은 사업들 중 공공건축물과 관련된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3] 국토해양부 한옥지원사업

년도 (총액)	지자체	용도	지원액
‘08 (2.5억)	영암군청	한국음식문화센터 (전통음식체험관)	1.5억원
	공주시청	한옥생활체험관 (숙박시설)	1억원
‘09년 (5억)	이천시청	한옥건축체험관 (숙박시설)	1억원
	부여군청	한옥생활체험관 (숙박시설)	1억원
	장흥군청	한옥숙박관 (게스트하우스)	1억원
	서울시청	한옥문화관 (전시시설)	1억원 (토지비 미확보로 ‘11년 반납예정)
	전남도청	한옥표본집 (한옥모형)	1억원
‘10년 (5억)	서울 구로구청	한옥도서관	3억원
	전주시청	한옥체험홍보관	2억원
‘11년 (5억)	서울시청	은평박물관내 한옥전시장 건립	2억원
	광주시청	전통한옥 기능성 체험관	1.7억원
	강릉시청	전통 차체험관 건립	1.3억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옥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후 한옥관련 학계·업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며 2011년의 경우 9곳의 지자체가 총 16개의 한옥사업을 응모하여 3개의 사업이 선정되는 등 한옥건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옥지원사업의 선정기준으로 ① 한옥의 특성반영 정도 ② 한옥 활성화 및 대중화 기여도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의 지역 편중도 등도 고려하여 수상작을 선정한다.

4년간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은 12건의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 지역이 4건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서울이 3건으로 그 뒤를 이음. 앞서 3장의 ‘지역별, 시기별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조성 현황’에서 전라도와 (전라북도 한스타일건축의 50%는 2007년 이전에 조성됨) 서울 두 지역이 가장 높은 조성률을 보인 것도 두 지자체의 한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의 개수로는 전라남도가 4건으로 가장 많음에도, 전체 지원 금액은 서울이 6억원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구로구 한옥도서관이 3억이라는 최고액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표 4-4] 지역별 사업 개수 및 지원금액

지 역	총 사업개수	지원금액
전라남도	4	5.2억원
서울	3	6억원 (1건에 해당하는 1억원은 반납예정)
충청남도	2	2억원
강원도	1	1.3억원
경기도	1	1억원
경상남도	1	1억원
합계	12	16.5억원 (1억원 반납시 15.5억원)

용도별로는 체험·문화시설이 6건, 숙박시설이 4건, 지역문화시설이 1건(구로구 한옥도서관), R&D 사업(전라남도 한옥 표본집)이 1건으로, 지원받은 시설 대부분이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된 시설이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보다 폭넓고 손쉽게 한옥공간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청소년·어린이들의 이용도가 높은 어린이 도서관 공간을 한식으로 리모델링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에 시행되었다. 한옥 전체를 건축하는 것이 아닌 한옥의 특징적인 공간요소들을 추출하고 새롭게 디자인하여, 기존 건축물 내에 한옥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한옥문화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을 한옥의 전통이미지를 지닐 수 있도록 전통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대상지 선정과정은 제출된 대상지별 사업계획서를 보고 총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5가지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그 평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5]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항목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주변 여건 및 운영계획 4. 예산계획 5. 추진일정 6. 홍보계획 7. 조성후 기대효과 8. 현황사진 9. 평면도 10. 대상지약도	사업취지와와의 부합정도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의 취지와의 일치여부	20
	대상지의 성격 및 위치, 주변상황	지역에서 기관의 성격, 의미	20
		프로그램 및 수용량 현황	
	사업추진 가능성	접근성 및 이용도	20
		리모델링 대상공간의 적합성	
	해당기관의 의지	리모델링 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적합성	20
		보조금 외의 재원확보 가능성	
	파급효과	지자체 및 기관운영자의 적극성	20
		완료후 타 시설로의 파급가능성	
		사업추진시 계기별 홍보	20

최종 선정지구인 서울, 군포, 안산, 여수 4개소에 각각 2억원씩 전체 8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서울의 구로구 한옥도서관은 초기의 리모델링 사업에서 신축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구로구의 적극적인 의지로 11억 남짓한 지방비를 보조금으로 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정 후의 일정은, 보조금 교부('09.3~6월), 설계자문('09.4~6월), 시공('09.5~6월 이후), 모니터링 후 사후평가로 진행되었으며, 기획에서 시공후 평가까지 이어지는 과정 자체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옥 건축에서 중요한 목재 준비 과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치 않고 계획하여 일정이 촉박해보인다. 실제로, 4개안 중 2개안(구로구, 산본)을 설계한 구가도시건축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원목을 사용할 경우, 높은 시공 완성도를 위해서는 기획에서 준공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적당하므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업 일정계획이 필요하다.

④ 외교통상부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추진계획’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추진계획’은 기여외교 및 문화외교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외교적 추진계획으로서 2009년 7월 22일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국가브랜드위원회’ 제2차 보고회의에서 보고하였다. 국가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및 평화유지활동(PKO) 참여확대를 통해 기여외교 강화, 낙후된 재외 공간 청사 및 관저에 한국의 전통과 미감을 살린 고품격 한국적 공간을 조성하고, 관저를 한식 세계화고급화의 전진 기지로 활용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업추진 계획에서 대상 사업은 ‘ODA확대 및 선진화 추진’, ‘PKO 참여 확대 등 국제기구 활동 기여 강화’, ‘재외공관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재외공관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6] ‘재외공관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의 주요 내용

사업명	시행 년도	사업 내용	추진체계	추진실적
재외공관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공관의 국가브랜드 거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56개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의 주요 응접공간을 전통 한옥, 한지 등 한국의 전통을 살린 품격있는 공간으로 개선 -무형문화재 가구와 우수 미술품 및 전통 공예작품을 전시하여 한국적 공간 완성 한식 세계화, 고급화의 전진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적 공간으로 재창조된 관저 만찬장에 걸맞는 고품격 한식을 현지 외교단 및 여론지도층을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한식세계화, 고급화 추진 -이를 위한 한식 관련 여건(관저 요리사의 정예화, 식기류 및 메뉴판의 고품격화)조성 및 지원 	외교통상부 직접 추진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문화예술, 한식 세계화 관련 부처와의 종합적 협력 체계 활용	실적 없음

그러나 계획수립 이후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외공관 한식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의 협의체계 구축으로 사업의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01년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지자체 합동으로 경상북도 내 11개 시·군에 대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총 189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총 1조 8,353억 원으로 추정되며, 총 사업비 중 4,207억원의 재원을 국비조달로 계획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숙박 휴양거점지역 개발의 단계적 추진, 중점정비 대상자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문화관광루트 개발 추진, 문화지원 정비보수, 지역축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으로 총 18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89개의 세부사업 중 한스타일 공공건축과 관련되었거나 관련 가능한 사업 부분은 숙박휴양 거점사업, 중점정비사업 (전통마을), 관광지 개발사업(가로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안내센터)으로서, 전체 사업 개수 중 최대 4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규모면에서 향후 한스타일 건축의 시험장이 될 만큼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유형별 사업개수

시·군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영덕	울진	예천	의성	청송	봉화	영양
숙박휴양 거점사업	1	1	-	1	-	1	-	-	1	-	-
문화관광 루트개발	1	1	1	1	1	1	1	1	1	1	1
중점정비	5	2	3	1	2	3	3	2	1	1	2
관광지개발	4	4	2	2	3	3	4	4	3	4	3
문화자원 보수정비	-	-	-	6	7	5	-	4	3	-	-
문화자원 정비보수	19	10	11	-	-	-	5	-	3	5	4
지역축제 활성화	3	2	2	2	1	1	1	2	1	1	2
인프라 구축	3	1	1	1	1	1	1	1	1	1	1
계	36	21	20	14	15	14	15	13	14	13	12

* 단위: (개)

2) 지방자치단체의 한옥관련 정책

① 서울시의 ‘한옥선언’ (2008)⁴⁰⁾

한옥선언은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한옥의 멸실을 제어하고 한옥의 보존 및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한옥과 한옥주거지를 보호 및 형성하고, 역사도시 서울의 다양한 주거유형 조성과 문화정체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서울시 전체에 4,500동의 한옥을 보존하거나 신규 조성(4대문 안 3,100동/4대문 밖 1,400동)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멸실제어, 보존지원, 신규조성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한옥선언’을 통해 한옥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법령 등 제도정비와 서울 전 지역의 한옥 관리 가이드라인(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한옥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한옥 밀집지역의 지구 지정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한옥 보존 및 신축 시 관련 지원금을 제공⁴¹⁾하여 공급과 수요를 확대하였다.

[표 4-8] 서울시 한옥선언 주요내용

구분	기간	대상	주요내용
멸실제어 (1,100동) 한옥보전 마스터플랜 시범사업	단기 (09-10)	4대문 안 중요문화재 주변 480동	지구지정 추진
	중기 (11-14)	4대문 안 전체 200동	
	장기 (15-18)	4대문 밖 한옥밀집지역 420동	
보존지원 (3,150동) 한옥지원사업 대상지 확대	단기 (09-10)	4대문 안 중요문화재 주변 2,000동	지원금을 1억원 규모로 상향(보수 시 6천보조 + 4천옹자, 신축시 8천보조 + 2천옹자) 지원방법 다양화(등록한옥에 대해 신축과 첫보수비용 지원, 20년 된 한옥 다시 신축과 보수비 지원, 지속적인 관리 병행, 5년 단위 보수유지비 1천만원 지원)
	중기 (11-14)	4대문 안 전체 300동	
	장기 (15-18)	한옥관련 경관사업 등 주민희망지역 850동	
신규조성 (250동) 한옥은 없으나 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	1단계	성북2 재개발예정구역 (시범사업지, 50동)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2단계	한옥단지 조성 확대 (200동)	

※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0), 「건축도시·환경 공공사업 정책실태조사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22.

40) 국토해양부(2010), 「한옥 환경성 평가 및 한옥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Ⅱ」, 국토해양부, pp.59~70.

41) 지원금액 : 향후 10년간 3,700억원 투입

지원대상 : 4대문 안의 한옥을 개보수하거나 비한옥을 한옥으로 다시 조성하는 경우, 사대문밖이라도 주민들이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우선 지원

지원 금액 : 시보조금과 융자를 합하여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며, 지붕 등 부분 보수시에도 천만원까지 지원

한옥보전관리 및 신규조성을 위해 서울시는 주택국 내 한옥문화과를 신설하고, SH 공사는 한옥전문 관리부서를 신설하였다.

한옥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한옥을 공익시설로 활용할 경우 해당 공익시설 설치비의 80%이내에서 지원하거나, 철거한옥 자재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옥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멸실제어책을 마련하였다.

한옥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지원, 생활편의시설 설치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 등 한옥밀집지역의 인프라지원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그간 한옥이 보전위주의 정책이었다면 ‘한옥선언’을 통해 서울 고유 경관 회복, 주택 유형 다양화 실현, 전통문화거점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한옥을 보전하고 육성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공공건축보다 개별 한옥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②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⁴²⁾

전라남도는 2004년부터 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한옥 육성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행정혁신국 내 행복마을과를 설치하여 한옥관련 지원사업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적이고 친환경적인 주거양식을 보급하며 도시민유치 정책과 연계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옥 신축 중심으로 추진함에 따라, 2008년 한옥지원조례를 개정(2005년 제정)하여 한옥 건축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1년 6월 기준으로 총 90개마을이 지정되었고, 1083동의 한옥이 건립이 확정되고, 약 550동의 한옥이 신축되었다. 2010년까지 한옥 개·보수 및 신축에 약 650억원, 마을정비사업에 160억원으로 총 81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융자금은 한옥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였다.

42) 국토해양부(2010), 「한옥 환경성 평가 및 한옥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Ⅱ」, 국토해양부, pp.59~70.

유형에 따라 기존마을 정비형과 신규단지 조성형이 있으며, 기존마을 정비형은 기존 형성되어 있는 마을에 10동이상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규단지형 마을은 새로 조성하는 마을에 20동 이상 한옥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마을의 안길정비, 상·하수도 정비 등의 환경정비와 한옥 신축사업으로 나누어지며, 한옥민박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4-9]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 개요

구분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정현황	성과
보존	한옥보존 시범마을	대수선 시 2천만원 외관수선시 1천만원 지원 (신축시 기준 동일)	기존에 한옥이 10호이상 존치되어 보호가 필요한 마을	5개마을 건립계획 : 55동 확정 : 48동	완료 43동 공사중 5동
신축	기존마을 정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 신축지원(바닥면적 85㎡ 기준) - 조금 4천만원(도 2천만원, 시군 2천만원 내외) - 용자금 3천만원 지원(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지원자격: 도내 1년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한옥 10호 이상을 집단으로 신축하려는 마을	19개시군 59개 마을	한옥신축 확정 총 911동, 그중 완료 444동, 공사 중 178동, 준비 중 289동
	신규단지 조성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반 시설비 : 3억원 (도비 1.5, 시군비 1.5) ※기존마을 정비형 행복마을에만 지원 ■ 마을형편에 맞는 국·도비 사업 우선 선정(추천)지원	한옥 20호 이상을 신축하여 신규단지를 조성하려는 마을	12마을(지구) 건립계획: 432동 확정: 38동	확정동수 총 38동, 그중 완공 10동, 준비중 28동
	예비행복 마을 조성현황	-	-	9개시군 9개마을	한옥건립동수 총 122동

※ 출처 : 전라남도 행복마을 홈페이지 참조, <http://www.happyvil.net/>

행복마을 조성사업 외에 주요추진 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한옥 홍보를 위한 한옥형 관광호텔 조성 및 한옥건축박람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한옥도서관, 문화시설 등 한옥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한스타일 공공건축 조성사업 분석

1) 공공건축 사업의 기본 추진 체계

① 사업 기본 진행 단계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은 발주청⁴³⁾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절차를 규정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⁴⁴⁾에 근거하여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시행과정은 크게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⁴⁵⁾

[표 4-10]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

진행 단계	단계별 내용
기획단계	사업계획을 수립(기본구상)하고 타당성검토 등을 통해 필요성을 검증,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의 입찰방식 결정 및 설계용역 발주
계획단계	선정된 설계용역업체가 설계를 수행하는 단계로 기본설계, 중간설계, 각종 심의 등을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
시공단계	공사용역을 발주하고 선정된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시공·공정·품질관리 등의 공사관리 및 준공검사(사용승인)를 통해 건축물을 완성
유지관리단계	준공 이후 단계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의 사후평가를 통해 공공건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

*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0)

4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5.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4)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3(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0), 「공공건축물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29.

② 공공건축물의 유형별 조성체계

공공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건설과정에 관여하는 주체가 다양하고, 예산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정부 주도형, 학교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조성절차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 중앙정부 주도형

정부청사나 국립박물관 등 공공업무를 위한 시설 또는 국가의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지방정부 주도형과는 달리 청사수급관리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있으며, 예산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중앙건설기술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 지방정부 주도형

지자체 주도로 건설되는 공공건축은 대부분 시민생활에 밀접한 시설들로 중앙정부 주도형과는 달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채발행승인심사, 투융자심사 절차가 있으며, 예산 규모에 따라 타당성조사, 중앙건설기술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 학교시설

교육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학교시설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건축과는 달리 학생수용계획수립(수요조사), 교부금수령(예산확정), 예정지에 대한 학교영향평가(타당성조사) 등의 별개의 절차가 존재하며, 심의나 허가절차 대신 협의에 의해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고, 준공 후 관리권한이 학교로 이양됨으로써 일반적인 공공건축 조성절차와는 구분된다.

③ 공공건축의 시설별 관리주체

공공건축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으로써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시설별로 해당부처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관할의 공공건축물은 재정보호에서 기획, 설계 운영 및 관리의 전 과정을 담당부처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정부청사를 비롯한 각 행정청의 청사와 군시설, 항공·항만시설 등의 정부건축물과 공용건축이라 하더라도 구가차원에서 건설되는 국립도서관, 국립박물관, 해양박물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학교시설 전부가 중앙부처가 직접 공급,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포함된다. 지방정부 관할의 공공건축물은 정부재정에 의해 지방정부 주관 아래 기획, 설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며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표 4-11] 공공건축의 시설별 관리주체(예시)

분류	시설분류			관리주체
정부 건축	정부시설	법무시설	검찰청	법무부(기획조정실)
		공공청사	정부청사	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소)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세청(본청, 지방청, 세무서)	국세청
		군시설	군 관련시설	국방부(운영지원과)
공용 건축	기초생활 시설	공공행정 시설	지방청사, 소방서	지자체
			법원(고등, 지방, 지원)	대법원/법원행정처
			경찰서	행정안전부/경찰청
			우체국	지식경제부(운영지원과)
			전화국	지식경제부
		보건위생 시설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자체
			국립병원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
	여가생활 시설	문화시설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	지자체
			지방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공립박물관	지자체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공립미술관	지자체
		청소년수 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 지자체/교육청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지자체
			전문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생활복지 시설	아동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자체
	교육시설	유치원	유치원	지자체
			국립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운영지원과)
		학교시설		교육과학기술부(운영지원과)

출처 : 서수정 외(2007),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33.

공공건축의 발주 및 관리주체가 다양하고, 담당자가 행정직일 경우 전문적 지식의 부재로 인한 기획업무 부실 우려가 있으며, 기획업무 부실로 인한 예산이나 프로그램의 요구내용이 불명확해질 경우 과업지시서 내용의 미비로 빈번한 설계변경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할 여지가 많다.

2) 서울시의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① 전담부서 운영현황

서울시에서는 한옥관련 전담조직으로 한옥문화과를 운영하고 있다. 한옥문화과는 주택본부 주택기획관 내에 설치되어 한옥지원팀, 한옥정책연구팀, 한옥보전조성팀의 3개팀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8년 ‘한옥선언’을 근거로 2009년 2월 창설되었다. 한옥문화과는 북촌가꾸기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한옥보전 및 진흥을 위한 조례제정 및 사업추진도 함께하고 있다. 한옥지원팀은 북촌문화센터 운영,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 북촌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및 모바일 안내시스템 구축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한옥정책연구팀은 3명으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세부계획 및 제도개선(조례 등), 한옥·비한옥 매입 등 관리업무 및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한옥보전조성팀도 3명으로 구성되어 매입한옥 개·보수 설계 용역 및 시공관리, 한옥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신규한옥조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4-12] 한옥문화과 구성

구분	인원	담당업무
한옥지원팀	5명	북촌문화센터 운영,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 북촌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및 모바일 안내시스템 구축 총괄
한옥정책연구팀	3명	서울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세부계획 및 제도개선(조례 등), 한옥·비한옥 매입 등 관리업무 및 공유재산(매입한옥·비한옥) 관리
한옥보전조성팀	3명	매입한옥 개·보수 설계 용역 및 시공관리, 한옥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신규한옥조성 등

그러나, 한옥문화과에서는 한옥에 집중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공공건축물의 경우 한옥문화과보다는 각 담당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북촌에 속한 북촌문화센터의 경우 한옥문화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혜화동 주민센터는 행정과에서 남산국악당은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사업 진행시 행정직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 강화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지원 및 확충이 필요하다.

② 공공건축물 조성 사업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옥의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한 보조금·융자금 지원, 한옥의 매입·활용 지원,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이 시행되어 있다. 또한 한옥이 밀집된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과 한옥밀집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한옥위원회 운영,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지원 등 다방면으로 한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사업들과 맞물려 공공건축물 조성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북촌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북촌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것이며, 북촌열풍에 힘입어 혜화동주민센터도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남산국악당은 남산한옥마을 조성과 은평박물관건립 사업은 은평구 뉴타운 개발사업과 연관되는 등 많은 공공건축물 사업이 기존의 한옥 보존 및 보전 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대표사례인 남산국악당과 혜화동 주민센터는 사업내용에 관해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표 4-13] 서울시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건물(사업)명	사업기간	담당부서	내 용	비고
북촌문화센터1	2002	한옥문화과	민형기가옥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강좌운영 및 북촌 홍보전시실 운영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	완료
북촌문화센터2	2009~2012		기존 문화센터의 협소함으로 인해 백인제가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전통 공연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	진행중
남산국악당	2005~2007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 위탁운영)	남산 한옥마을의 집합적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적 한옥 공간을 구현한 전통 국악 공연장	완료
혜화동주민센터	2005~2006 2010~2011	종로구 자치행정과	최초의 한옥 공공청사 1차 리모델링 후 현재 2차리모델링 중	완료
구로구 한옥도서관	2009~2011	구로구 교육지원과	문화관광체육부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이 시작된 최초의 서원식 한옥도서관	완료
은평구 은평박물관	2005~2012	은평구 문화체육관광과	은평뉴타운 발굴 유물을 비롯한 한옥을 보존·전시·체험하는 박물관 건립	진행중
마포구 한옥공원	2010~2013	마포구 주택과	용강동 일대 재개발 구역에 남아있는 한옥을 부근으로 옮겨 한옥 놀이터가 포함된 전통 한옥공원 조성	진행중
종로구 한옥도서관	-	종로구 교육체육과	북촌이나 삼청동으로 대표되는 한옥에 도서관을 접목	계획중

□ 서울 남산국악당

2005년, 서울시는 서울의 위상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공연 인프라와 시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실시하였다. 국악예술의 계승발전과 시민들이 전통국악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남산국악당 건립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남산골 한옥마을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전통 문화예술 공간으로 정착시키고 야간 운영체제를 개선·보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국악당을 조성한 것이다. 남산국악당은 남산한옥마을 내에 조성된 전통국악 공연장으로, 2005년부터 실시설계와 건축공사를 동시에 추진했으며 2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내·외부를 전통 건축 형태로 하여 남산한옥마을 내의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도, 큰 면적을 유지하는 공연장 시설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

남산국악당 사업이 진행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시 문화국의 업무계획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50억, 2006년 약120억, 2007년에는 61억원의 예산이 기획되었으며, 2007년도의 세출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문화기반조성사업의 약 5%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악당이 위치한 남산 한옥마을 운영 등을 포함한 문화재 사업비 500억원을 포함하면 역사 문화 지원사업에 적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4] 2007년 세출예산(3,564억원 - 일반회계 11조 3,585억원의 3.1%)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	합계
예술문화	도시갤러리프로젝트 국악축제, 청계천축제 등 문화행사 재단법인 출연금 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지원 등 시립미술관 운영	25억원 196억원 420억원 200억원 115억원	956억원 (26.8%)
문화재	북한산성·풍납토성 복원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한옥마을·운현궁 운영 등	310억원 144억원 46억원	500억원 (14.0%)
체육진흥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진흥 국제 스포츠 대회 등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265억원 367억원 12억원 261억원	905억원 (25.4%)
문화기반조성	노들섬 문화콤플렉스 건립기금 지역 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전통국악 공연장 등 문화시설 건립 등	1,000억원 142억원 61억원	1,203억원 (33.8%)

* 출처 : 서울시 문화국 2007년 업무계획 자료 정리

□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

혜화동 주민센터는 한옥을 개조한 건물로 최초의 한옥청사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종로구는 경복궁·창덕궁 등 서울의 문화유적이 대부분이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사업으로서의 한옥청사 마련이 가능했다고 한다. 한옥 동청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종로구청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시가 진행해오고 있는 복촌 사업도 행정구역상으로는 종로구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서울의 역사·문화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가 이런 문제에 대해 특히 민감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우선 대지 구입이나 활용 그리고 공사비용 등 예산상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비교할 만한 선례가 없어 참고자료를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단층이 갖는 여러문제들이 있었다. 절대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다층건물에 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역사·문화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시설을 만든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가졌고, 결국 동청사가 업무를 시작하자 밀려드는 방문자들로 인해 행복한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⁴⁶⁾

그러나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어 아쉬움이 컸던 바, 새로이 신축된 혜화동자치회관과 연계하여 기존 주민센터 업무를 신축 청사로 옮기고 2차로 리모델링하여 전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구청장의 지시로 2차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타 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예산 확보 및 사업절차가 비교적 잘 처리되었으며, 약 4.4억원의 사업비로 100% 구비로 진행되었다. 이는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5] 2차 리모델링 세부추진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활 용	업무시설(동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 주민자치회관	
바 닥	엑세스플로어	쪽마루(목재)	
벽	미장면 위 도장	회벽바르기	
천 장	석고보드위 도장	한식우물반자	
창 호	유리	전통 한식창호	

46) 새로운 한옥을 위한 건축인 모임(2007), 「한옥에 살어리랏다」, 제1판, 돌베개, p.366

2차 사업에서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SWOT분석에 따른 추진전략을 세우고 약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청사 개보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적극적인 홍보와 세밀한 사업 실시 전략을 세워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담당과의 업무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종로구청에서는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계획수립 및 용역 발주·시행 등을 총괄하고 재무과, 건축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주민센터의 모든 구성원이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표 4-16] 담당부서 업무분담

구 분	담당 업무
자치행정과	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발주, 용역시행 등 총괄
재 무 과	설계자 조속한 계약 시행
건 축 과	설계용역감독, 디자인자문단 구성운영(전문가 자문)
감사담당관	조속한 일상감사 조치
혜 화 동	설계 및 공사 전반에 동(주민)의견 반영 등 주체참여

* 출처 :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1차 리모델링의 경험을 토대로 2차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3개월간에 걸쳐 5회의 자문을 진행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기존 주민센터(한옥청사)와 신축 자치회관이 상호간 조화로운 건축물이 되도록 건축디자인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한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옥전문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자치회관 신축과 연계하여 리모델링 사업 진행중에도 평소의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뿐 아니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적절한 전문가의 참여 및 잘 짜여진 프로세스가 효율적인 사업 진행의 필수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4-17] 혜화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추진일정

일정	2010. 10월	설계기간중		2010. 12월	2011. 2월~10월
절차	설계발주	전문가 자문	주민 설명회	설계준공	공사시공
내용	전자공개수의계약 (한옥전문업체지정)	자문단 구성 운영 설계용역 감독	설계 준공 시점에서 개최	설계준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부서	자치행정과, 건축과	건축과	자치행정과, 건축과	자치행정과, 건축과	건축과

* 출처 :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3) 전라남도의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① 전담부서 운영 현황

□ 행복마을과(한옥)

전라남도청은 2006년 8월 행복마을 조성 및 한옥보급을 위한 전담조직을 행정지원 국내에 행복마을과를 설치하였다. 행복마을과는 총 4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는 행복마을담당(7명), 도시민 유치 담당(4명), 농어촌 개발 담당(3명), 주택건축담당(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건축보다는 개별 한옥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전남개발공사(공공사업)

현재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대다수는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한스타일 공공건축 사업으로는 남악 신도시개발, F1경기장, 한옥호텔 영산재, 전남도립도서관, 쌀문화 테마공원, 여수엑스포타운 내 한옥단지 조성사업, 광주 환경산업산업 지원센터, 남악 도립 도서관 등이 있다. 사업 수행은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라남도지사의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된 사업들 중 거대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기업으로서 사업 수익성보다는 한옥건축 보급과 관련된 선도적 차원에서 수행된 사업들이 다수지만,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역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② 공공건축물 조성 사업

전라남도는 최근 행복마을 사업을 시작과 함께 한옥형 공공건축물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확보하고 있다. 행복마을 내에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조성하여 주위 경관을 고려한 계획도 있지만, 현대식 건물이 많은 도시나, 외곽지에 조성한 독립된 한옥형 건물이 많은 것이 서울시와의 차이점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도지사의 의지로 한옥을 도입한 공공건축물로 계획되었으며, 실험적 작품들의 건립을 통해 한옥의 현대화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다. 아직은 한옥으로 건물을 짓기에는 건축비가 높아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나, 전라남도의 경우 활발한 한옥정책에 힘입어 신기술 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한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20여개가 넘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이지만 확실하게 확인된 사업만을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18]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건물(사업)명	사업기간	담당부서	내 용	비고
선암사 전통야생차 체험관	2005~2007	순천시 문화체육과	산사체험 및 전통 차 실습이 가능하도록 지어진 정통한옥형 체험시설	완료
완도 산림박물관	2005~2009	산림박물관	문화재급의 목구조양식을 채택한 품격있는 한옥 전시시설	완료
현암 도서관 한옥어린이 자료실	2009~2010	여수시 교육문화사업단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옥공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실 도입한 어린이 도서관	완료
윤선도 유물전시관	2009~2010	해남군 문화재과	집성목 사용과 아트리움 도입으로 대공간을 도입한 전시시설	완료
영암 F1경기장 한식육교	2010~2011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 업소	국내 최대 집성목 구조물로 현대적 기술로 구현한 한식 육교	완료
축산기술연구소	2008~2010	축산기술연구소	한옥 고유의 비례 및 의장적 특징을 현대적으로 변안하여 시스템 목구조를 채택	완료
어진누리	2008~2009	전남도청 시설과	한옥으로 지어진 전남도지사 공관	완료
수리채	2003~2006		철골구조를 사용하여 회의실을 구성하고 외부손님들을 위한 객실을 갖춘 한옥형 비즈니스센터	완료
남악마루	2007~2008		남악신도시 초입에 위치한 2층의 한옥형 관광정보센터	완료
황룡행복마을 한옥도서관	2010~	장성군 경관도시과	행복마을 조성계획과 함께 조성계획이 수립된 한옥도서관	계획중
김창조 기념관	2009~2012	영암군 문화관광과	친환경에너지 집적 시설을 갖춘 한옥형 전시관으로 아트리움 도입하여 대공간 수용	진행중
남악도서관	2007~2011	전남도청 문화예술과	삼문에서 모티브를 얻어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한옥풍 도서관	완료
영산재	2009~2011	전남개발공사	전남 최초의 한옥호텔로 한옥마을의 형태로 조성었으며 집합형과 독립형으로 구성됨	완료
여수엑스포타운 내 한옥단지 조성사업	2011~2013		1단계 사업(2012년) : 내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 2단계 사업(2013년 1월) : 추가 객실확보	진행중

③ 기타 한옥건축을 위한 관리 및 지원

□ 한옥시공업체 지정운영

전라남도에서는 행복마을사업 진행을 위해 2010년부터 행복마을 내 한옥시공은 등록업체로 제한하여 2011년 현재 총 54개(종합건설업 31, 주택건설사업 6, 전문건설업 17)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지정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이상 등록업체 + 한식목공 1인 이상 기능공 보유업체로 강화하였으며, 한옥시공업체로 지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의무가 수반된다. 지원방식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라남도 한옥보조금(2000만원)도 일정 공사 진도에 따라 기성금으로 지급하며, 도와 시군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책임사항⁴⁷⁾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 한옥 건축 및 홍보를 위한 서적 발간

전라남도는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의 설계, 시공을 표준화 하여 한옥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신축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한옥관련 서적을 출판. 그 외 한옥보존시범마을 홍보서적도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된 도서는 다음표와 같다.

[표 4-19] 전라남도 발간 한옥관련 도서

발행일	도서명	목적 및 내용
2005.02	한옥표준설계도서	한옥의 다양한 평면유형을 제시하여 한옥설계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2006.06	한옥시공 매뉴얼 1,2,3권	주민들이 한옥건축을 용의하게 하기 위한 목적
2008.02	남도천년 한옥마을을 가다	한옥보존시범마을 홍보(20개 마을 모두 수록)
2011(계획)	한옥 표본집	-

□ 한옥시공 관계자 및 공무원 워크숍 개최

전라남도청은 한옥건축박람회 개최와 연계하여 한옥 견설시공을 통한 명품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 시공업체 대표, 행복마을 추진위원장,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옥육성을 위한 건축기준 발표, 한옥관련 전문가 특강,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행복마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을 통하여 한옥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7) 업체에 부여한 견설시공, 도내 생산자재 사용, A/S 등

3. 한스타일 공공건축 시범사업

1) 공공건축 시범사업의 추진체계⁴⁸⁾

① 시범사업 업무 추진 체계

공공건축물 조성 방식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정부 지원을 받아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정책적 추진사업에 대하여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가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고 업무지침을 제시한 후 시범사업 추진 주체를 만들며,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 후 최종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및 추진 시범사업 주체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하며, 정부부처의 경우 예산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지원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등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 단계에서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지침을 제시하고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안을 기준으로 사업 단체를 선정하고 해당 기획(안)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될 지방자치단체는 추진협의회 등 자체 추진 단체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 때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이때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확인한다.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48) op.cit., 김진욱 외(2009), pp.82~84.

[표 4-20] 사례 _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체계



* 출처 : 김진욱 외(2009), p.83 재인용

② 시범사업 행정지원 체계

시범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업무지침 제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후 시행계획 수립 여부 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정부는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 및 전문가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 지침을 통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시범사업 이후 실제 정책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사업 집행을 위한 행정지원, 전담부

서 지정 및 지원 조직 구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초자료 제공, 기타 사업 간의 연계방안 마련, 기타 외부 전문가 행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맡게 되며,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외부 전문가는 시범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외부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 검토 및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외부 전문가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정부의 지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세부 권한 및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 조정이 가능하다.

건축디자인시범사업(2009, 국토해양부) 예산 지원 범위

- 2009년 시범사업 국고지원금을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추진협의회 운영비용, 기획안 작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시범사업 국고지원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진협의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계획단계(2차) 디자인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지역의 건축디자인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국고지원금을 교부받은 직후 7일 이내에 예산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 일정에 맞춰 예산사용 실적도 함께 보고한다.

출처 : 김진욱외(2009), p.84, 재인용

2) 국토해양부 한옥건축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관련 중점 국정과제로 「한옥건축 산업화 추진」이 선정됨 ('09.2.3)
- 국토해양부는 전통문화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옥육성 정책” 추진 중
- 한옥육성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인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도 연관되며 세부과제인 “한스타일 세계화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한옥” 부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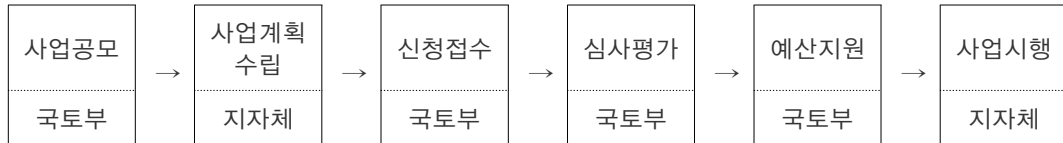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

□ 사업목적

- 한옥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 한옥 보급을 확대하여 한옥 생활화 및 한옥산업화 토대 마련
- 조속한 정책실현을 위해 일선 지자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나 지자체의 노력이나 민간시장에만 의존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한옥건축 대중화의 발판이 마련될 때까지 지자체에 국가재정 지원 필요

□ 추진체계

- 지원대상 : 지자체가 계획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는 한옥건축사업과 한옥디자인 보급사업(건축물의 일부에 한옥디자인 요소 접목) 중 한옥홍보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
- 지원대상 제외사업 : 한옥사업이 전제되지 아니한 단순한 연구용역, 민간에게 자금이 이전되는 한옥 개보수 지원사업, 일회성 전시회 등
- 추진절차 : 국토해양부는 사업공모, 평가·예산지원 등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한옥 사업 계획수립, 사업시행, 사업결과 보고를 담당함



- 심사위원 구성 : 한옥관련 전문가로 총 6인으로 구성
- 평가항목 :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계획, 사업시행, 운영·관리, 예산 집행으로 나누어 서면평가

※ 배점기준 : 계획(20점), 사업시행(50점), 운영·관리(20점), 예산집행(10점)

- 사업선정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평가순위)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내부방침으로 결정
- 예산관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관리

[표 4-21] 한옥건축사업 평가기준(국토해양부 내부자료)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총점
계획	사업부합성	한옥도시 건축지원사업과 부합성	10	20	100
		한옥문화 특성 표현여부(적합성)	10		
사업 시행	한옥건축 특성반영	한옥 건축특성 반영정도 (목구조, 온돌, 마루, 한식기와, 처마, 재료, 담장, 대문, 전통조경 등)	10	20	
		한옥풍 이미지 구현정도	10		
	실행가능성	사업규모 및 추진방안의 적절성	10	30	
		예산사용 계획의 적절성	10		
		한옥건축에 대한 자치단체장 의지	10		
운영 관리	공헌도	한옥건축 활성화·대중화 기여도	10	20	
		한옥시설물 홍보계획 및 운영관리 적정성	10		
예산	집행계획	사업비(국비)의 조기집행 (국비 요청금액 및 집행계획)	10	10	

* (항목별 등급 및 점수) 평가항목별 등급은 5단계(수, 우, 미, 양, 가)로 하며, 등급별 점수는 2점으로 함

3) 문화관광체육부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 개요

-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옥공간 보급을 시범적으로 추진
- 사업 기획부터 설계시안 연구용역 발주, 사업신청 접수, 심사 후 대상지 선정, 지원금 지급, 시공후 사용자 평가 수집.

□ 추진체계

- 사업기간 : 2009~2010
- 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취지 부합 정도, 대상지 위치 및 주변상황 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기관의 추진의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선정방식 : 사전검토 및 현장 확인(지자체 수요제출 20건 중 1차 6개소 선정)
- 전문가 그룹의 선정위원회 평가(위원 6명, 총 2차 평가)
- 한옥공간화 주요컨셉
 - 한옥의 공간적 요소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적 기능을 담는 것에도 주목하여 문화적이고 고급스러운 한옥공간 연출
 - 방, 마루, 마당의 연계 등 한옥공간의 특징인 내외부 공간을 연계하여 한옥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가능함
- '09년 예산액 : 800백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 100백만원(사업대상지 선정, 자문, 점검, 평가 등)
 - 지자체 자본보조 : 800백만원(1개사업당 200백만원)
 - 사업대상지 공사금액 중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이상을 지방비 부담 추진,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일정기간내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정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사업선정절차
 - 사업신청(지자체) → 1차 평가(지자체 사업계획서) → 2차평가(지자체 발표회) → 사업선정(선정위원회)
 - 현장평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별도 실시
- 대상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어린이도서관, 기타 공공시설 등 시민과 청소년, 어린이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
 - 신청방법 : 시·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
 - 시·도는 시·군·구에서 대상사업을 신청받아,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엄선하여 기일내에 신청
 -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 운영주체, 보조금예산 지원내역서 등 사업선정에 중요한 부분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
 - 사업계획서에 지방비 규모 및 확보시기를 반드시 포함

• 사업추진체계

구 분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추진에 대한 지침 제시, 사업의 총괄·조정, 평가·환류 등 · 전문가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전문가그룹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
전문가그룹	· 사업추진과 관련 필요에 따라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문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의 요구로 지자체의 대상지 한옥공간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 자문, 평가 등 실시 - 수시로 사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자문 및 평가(1개월에 1회씩 수행상황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지방자치단체	· 사업집행 및 지원 · 전문가그룹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 · 해당지역 전문가 발굴·활용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자문, 평가 등 실시

• 문화관광부 추진일정

[표 4-22]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일정(문화체육관광부)

단 계	기 간	내 용
연구 용역 발주	2007.9~2008.3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 한국역사학회 용역 발주
연구 1차 자문회의	2007.12.25	어린이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로 대상 선정
연구 2차 자문회의	2008.3.7	서초어린이도서관을 모델로 한옥건축 활성화 시범 설계안 발표
지방자치단체 한옥공간 시범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2008.2.15~4.16	대상지 20개소(서울2, 부산3, 광주1, 경기4, 경북5, 전북3, 전남1, 충북1) 수요제출
지자체 담당자 대상 현황확인 및 현장조사	2008.4.17~25	서울, 경기, 부산
	2009.1.6~9	전남북, 경북
사업유보	2008.4.23	사업 조속시행을 위한 기금전용 추진 불가
시범사업 기본계획 보고	2009.1.30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신청서 접수	2009.2.11	
대상지선정 1차심사	2009.2.11	
현지실사	2009.2.20~27	여수, 경기, 서울지역 현지실사
2차 평가회의	2009.3.2	
지자체 설명회	2009.3.12	사업취지 및 경과, 보조금 교부신청
워크숍 및 보조금 교부	2009.3~4	지자체 선정 설계자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보조금(1차) 교부
보조금 공문발송	2009.5.25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공문 발송
기본 구상 확인 및 자문 보조금 교부	2009.4~6	기본구상 도면 확인 및 자문 보조금(잔액) 교부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제공 자료 발췌 및 정리

• 지자체 추진일정

[표 4-23] 산본도서관 한옥공간 조성사업 추진 일정(문광부 사업 시행 후 후속 일정)

단 계	기 간	비고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방침 결정	2008.4.2	
한옥공간 도입시설 벤치마킹 실시	2008.7~2009.4	2회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심의	2008.10.16	
한옥공간 조성 국비보조금 확보	2009.6.29	2억원 확보
한옥공간 조성 시·도비 보조금 확보	2009.8.6	2.73억 확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2009.4.2~7.6	
공사착공	2009.8.16	
공사 준공 및 재개관	2010.3.17	

* ※ 출처 : 산본도서관 제공 자료 정리

[표 4-24] 구로구 어린이도서관 한옥공간 조성사업 추진 일정 계획(문광부 사업 시행 후 후속 일정)

단 계	기 간	비고
사업계획서 제출	2009.2	사업예산 총 17억 8천만원 - 문광부 2억 - 국토부 3억 - 공항공사 8억 8천 - 구비 4억여원
사업확정	2009.3	
추경	2009.3~5	
정밀안전진단	2009.4	
설계	2009.5	
시공	2009.6~8	
개관	2009.9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자료 정리

[표 4-25] 안산 관산도서관 한옥공간 조성사업 추진 일정 계획(문광부 사업 시행 후 후속 일정)

단 계	기 간	비고
리모델링 관련 구조안전진단 실시	2008.11.18~12.17	
리모델링 사업예산 2009년 본예산 반영	2008.12	요구액 1,784,636천원 → 반영액 1,145,586천원
부족예산을 위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확보	2008.12	5억원 (전체 리모델링에 사용)
관산도서관 리모델링 실시계획 수립	2008.12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입찰	2009.1.19	한옥 리모델링 사업비 총 4억원 - 문광부 2억 - 지방비 2억
문화체육관광부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 신청	2009.2.5	
관산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실시	2009.3.23~10.5	1층 한옥공간 도입 리 모델링 공사 사업 진행 포함
관산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 및 재개관	2009.1.6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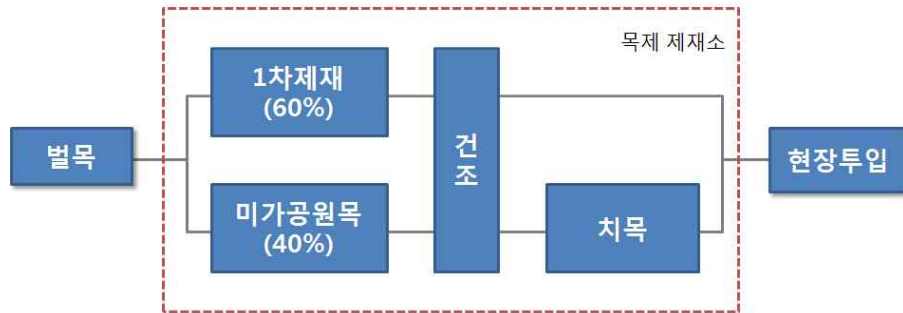
구로구의 경우 원안은 리모델링 공사였으나, 문광부 자문위원단의 의견 수렴과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신축으로 변경되었다. 부족한 사업예산은 국토부 한옥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3억원 비행기 소음지역에 위치하여 공항공사에서 8억 8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다.

1차평가 전 신청한 20개 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10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1차평가에서 적합한 6개 선정 후 2차평가에서는 대상지 현지실사 및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적합지 선정 및 우선순위 부여하였다. 심사기준에서 예산확보, 지자체장의 적극적 사업 의지, 지역적 안배, 파급효과 큰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또한 사업취지 및 경과를 설명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원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4. 한스타일 공공건축 관련 산업현황

1) 자재공급 및 표준화 현황

① 한옥건축을 위한 목재 생산 프로세스⁴⁹⁾



□ 벌목

연간 소나무 벌채량의 90%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 90%가 강릉, 삼척, 정선, 평창 등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벌목은 소나무의 성장이 멈춘 기간인 11월~2월 사이에 행해지는데 이때 수확한 소나무의 품질이 우수한 편이기 때문이다. 원목의 공급은 주로 산주와 제재소 사이를 목상이 중계하여 벌목, 운반을 도맡아하며, 산지에서 원목 생산시 소요되는 에너지는 주로 경유가 사용된다. 경유가 쓰이는 작업은 절단(전기톱), 산지작업(포크레인), 운반(화물차)임. 또한 1m³ 벌목시 소요되는 에너지비용은 6000원 정도이다. (현재 경유가 기준 1300~1400원/L)

□ 원목 반입

조사 대상 제재모(토담목조주택)에 반입되는 원목의 90%는 국내산이고 10%는 소련,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컨테이너선으로 수입된 수입목이다. 한옥 구조재로 사용되는 것은 전량 국내산이고 수입목은 대형건물에만 활용되는 실정이며, 반입된 원목의 60%는 1차 가공공정을 거치고 나머지 40%는 원목형태로 출고된다. 목재 운반 시에는 11톤(15~16m³), 25톤 트럭(22~23m³) 및 40톤 쉼레라(30m³)가 활용된다.

49) 국토해양부(2010), 「한옥 환경성 평가 및 한옥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I」, pp.109~110.

□ 1차 제재 과정

1차 제재후 가공상태는 현장에서 조립가능하도록 95%의 완성도를 가진다. 단, 서까래 등 곡선 부재를 기계로 깎을 경우 원목의 나이트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내구성 저하를 가져오므로 지붕선, 물매 등은 시공단계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다시 다듬게 된다.

□ 건조과정

건조는 자연건조와 강제건조(전력투입)로 구분되며, 원목을 제재한 다음 건조시키는 경우 건조 과정에서의 변형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제재하여야 한다. 건축용 목재는 자연건조된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자연건조의 최적 시기는 벌목 후부터 4월까지인데 이때 목재가 치목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벌목한 목재를 탈피작업을 통하여 껍질을 벗긴 후 대략 1년 이상 자연 건조시킨다.

강제건조는 기구용으로 사용되는 목재를 건조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목재를 건조실에 넣고 열이나 증기로 건조시킨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목재를 건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강제건조는 주로 100℃의 고온에서 단시간에 행하여지므로 송진 등의 물질들이 방출되고 할렬이 발생하여 목재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

② 목재의 가격과 목공사 비용⁵⁰⁾

□ 목재가격

국산재 중에서도 낙엽송과 소나무 간에 커다란 가격차이가 나타나며, 수입 수종 중에서는 미송 험록류가 뉴질랜드 송보다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국산재와 수입재를 비교해 보면, 국산 낙엽송과 수입 뉴송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국산 소나무와 수입 미송이 또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북미산 규격재인 경우 국산 소나무와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으나, 인공건조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북미산 규격재는 인공건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조되지 않은 국산 소나무와 비슷한 가격대를 나타내고 있으나 단면 치수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며, 두께 또한 50mm를 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구조용 집성재의 경우 미송 집성재는 일본 삼나무 집성재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삼나무 집성재

50) 산림청, 「국산재 이용 한옥표준모델 개발」, 산림청, p.16.

도 미건조 제재목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집성재는 어떤 두께의 경우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인공 건조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나, 제재목의 경우 제재목 두께에 따라 인공 건조된 제품의 가격이 두꺼울수록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두께 50mm 이하의 제재목은 집성재에 비해 건조된 경우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되나 두께가 두꺼워지면 오히려 집성재보다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목재 가격은 이러한 목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 설계시 부재 단면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26] 목재가격(a.비건조재, b.건조재)

구 분	가 격		비 고
	원/재	원/m'	
국산 제재목a)			
낙엽송	750	225,000	한국목재신문 전남지역
소나무	1,300	388,000	
소나무	1,000~1,670	300,000~500,000	
수입 제재목a)			
뉴송	930	280,000	목재신문 전남지역
뉴송	1,000	300,000	
미송(햄록)	1,460	440,000	목재신문 전남지역
미송	2,000	600,000	
집성재b)			
미송	6,000	1,800,000	목재신문
일본삼나무	3,000	900,000	
북미산b)			
규격 제재목	1,330	400,000	목재신문

□ 목공사 비용

목공사 비용을 도출하기 위해 구조는 납도리집 구조로 주두, 소로, 장여를 사용하지 않고, 서까래는 부연을 엮지 않은 매우 단순하게 개량된 구조를 가정하였다. 이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한옥 건축비 절감을 위하여 제안한 표준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표준 시공매뉴얼 중 목구조 부분에 대해서만 비교한다.

비교대상으로 목조 건축 전문 시공 회사의 산정 건축비를 택하였으며, 특히 치목을 수가공으로 할 경우와 프리컷으로 기계 가공할 경우로 비교하며, 재료에 있어서는 미건조 제재목과 집성재를 사용할 경우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전남의 소나무 사용시 목공사 비용은 1,630,000원/3.3㎡이고 A사의 미송 사용 시의 목공사 비용은 1,858,000원/3.3㎡이다.(목재 사용량은 약 10㎡ 정도의 차이가 있음) 만약 동일한 양의 목재를 사용한다면 전남의 경우에도 비용이 2,018,000원/3.3㎡으로 증가하여 A사의 비용보다 높아지게 된다. A사의 삼나무 집성재를 사용하여 기계 가공한 경우는 비용이 2,109,000원/3.3㎡로서 전남과 A사의 비용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집성재의 경우에는 인공 건조된 상태이므로 내구성 등의 품질 면에서는 다른 경우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집성재를 사용하고 최대한 프리컷으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표 4-27] 목공사 비용 비교표

구 분	건축면적 (㎡)	목공사비 (원)	재료비 (원)	노무비 (원)	목재 사용량 (㎡)
전남 표준 시공 매뉴얼 (소나무)	88	43,540,000 (1,630,000/3.3㎡)	17,579,000	25,961,000	40
A사 수가공 (미송)	93	52,423,000 (1,858,000/3.3㎡)	21,099,000	31,324,000	49.7
A사 기계가공 (삼나무 집성재)	93	59,538,000 (2,109,000/3.3㎡)	33,082,000	26,456,000	49.7

③ 재료 표준화 현황

접합부의 내력에 있어서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는 접합철물을 사용한 접합부의 내력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접합철물을 사용하지 않은 접합부의 내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옥의 구조설계는 불가능한 일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재 치수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접합부의 형태 등에 대한 검토도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의 두께를 가진 부재사용이 많아지고 있으며, 전라남도 행복마을이나 남악신도시내 공관 및 비즈니스 센터의 경우 모두께가 필요이상으로 두껍다.

적정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부재크기의 검토를 위한 연구를 통해 규격화된 재료를 공급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곡선재용 목재 공급 필요하다. 요즘은 제재소에서 반듯한 직선재만 나오고 있어 곡선재로 쓰일만한 원목이 없기에 디자인의 획일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예전에는 곡재를 살려 사용하였으나, 요즘에는 큰 목재를 일부러 곡선재로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재가 아닌 의장재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갈라짐 현상이 심하다. 따라서, 건축가가 곡선재를 넣어 계획하고 싶어도 재료가 공급이 되지 않아 힘든 실정이다.

□ 건조문제

목재는 기본적으로 함수상태에 따라 수축 변형이 발생하며, 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활렬, 찌그러짐, 윤할 등 조직의 파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물론, 변색 및 생물학적 열화가 더불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목재시장에서 수급되는 목재들은 수요가 많아 충분히 건조되기도 전에 건축자재로 사용되면서 부재 갈라짐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1년간 건조후 유통을 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예전엔 벌목후 2~3년 건조후 집을 지어서 변형이 적었으나 요즘은 거의 생나무 상태로 집을 지어 틀어지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옥 건축에 있어서 반드시 건조된 부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한옥의 품질과 내구연한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당장의 건축비용은 늘어날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오히려 유지하게 작용한다.

2) 한옥 공사 직종 및 노임 현황

① 한옥 공사 직종구분

대한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축관련은 일반 공사직종과 문화재 직종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공사직종은 91개, 문화재직종은 12개의 세부직종으로 구성되며, 문화재 직종의 구분 및 해설은 다음표와 같다.

[표 4-28] 문화재 직종 구분 및 해설

직종번호	직종명	직종해설
3001	도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3002	드잡이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식목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식목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식석공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식미장공	미장 바름재(진흙, 회شم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양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3007	한식와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08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9	목조각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3010	석조각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3011	특수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012	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한스타일 건축물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직종이 부가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좀 더 세분화된 구분이 필요한 실정이다.

② 평균임금현황과 노임단가

2010.1.1자 공표임금부터는 개정된 직종 및 직종수(145→117개)로 조사·공표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다. 특히, 일반공사 직종에 비해 문화재 직종의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건축비 상승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같은 면적의 일반공사와 문화재공사 진행시 문화재 공사가 좀 더 시간과 노력이 요하는 작업인 것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⁵¹⁾

건축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1차적으로 일반공사와 비교하여 초과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단가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및 프리컷 도입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표 4-29] 평균임금현황

공표일(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종	광전자 직종	문화재 직종	원자력 직종	기타직종
2011.9.1(2011년5월)	129,029	123,735	185,429	144,563	159,211	129,806
2011.1.1(2010년9월)	124,746	120,031	176,985	138,912	151,994	123,801
2010.9.1(2010년5월)	123,031	118,090	174,848	138,670	152,852	121,205
2010.1.1(2009년9월)	119,717	114,847	165,652	137,030	147,659	117,682
2009.9.1(2009년5월)	111,897	104,427	153,140	129,920	134,140	108,805

*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11년 하반기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문화재 한옥에 비해 생활한옥의 경우, 시공 및 보수 등에 있어 경제적 측면이 매우 강하게 연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전문시공 기술이 없는 업체 또는 개인이 시공하기 때문에 시공 후 처짐, 뒤틀림, 부패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51) 삼진건축 이봉수 대표 인터뷰중

[표 4-30] 건축부문 직종별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제공자료를 토대로 작성)

구분	공종	2011.9.1	2011.1.1	2010.9.1	2010.1.1	2009.1.1	2008.1.1	2007.1.1
일반건축	건축목공	106,641	99,722	98,254	96,310	101,831	102,164	96,578
	형틀목공	105,805	104,308	101,932	100,730	100,469	96,690	92,614
	창호목공	101,494	97,457	96,641	91,121	91,294	88,407	85,461
	철골공	115,954	111,501	108,881	105,994	104,340	100,401	95,336
	철근공	111,058	109,325	108,427	110,803	110,775	100,835	99,590
	석공	112,871	106,512	111,569	109,066	103,576	97,834	90,997
	조적공	104,754	102,200	100,263	95,916	89,437	86,508	87,613
	미장공	103,210	100,562	92,280	95,659	93,579	89,567	88,300
문화재	...							
	도편수	178,234	170,360	167,760	167,990	165,889	152,031	148,772
	한식목공	133,426	127,988	133,382	126,090	125,125	115,056	113,067
	한식목공조공	99,755	96,248	95,011	92,083	92,575	91,000	88,397
	드잡이공	-	151,579	-	153,216	140,488	130,000	124,878
	한식와공	170,490	160,314	155,698	160,788	160,018	164,370	160,423
	한식와공조공	170,490	160,314	155,698	160,788	116,067	112,149	110,214
	석조각공	162,857	156,098	-	156,391	151,504	133,053	122,553
	한식미장공	124,738	121,091	119,791	123,412	119,976	108,834	101,818
	...							

③ 전문가 양성기관 현황⁵²⁾

현재, 전통건축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전남도립대학의 3개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사, 건축학학사 등의 학위과정으로 전통건축 관련교육을 정규과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50-60명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설립된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경우 건축문화유산 보존과 복원, 수리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현대보다는 전통쪽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 전통건축 교육을 시작한 명지대학교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전통건축에 바탕을 둔 현대건축을 설계할 수 있는 건축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남도립대학은 한옥전문인력의 양성과 전통주거문화의 실무중심 산업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2) 한국건축역사학회(2011), "건축교육에 있어서 설계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2011년 한국건축역사학회 3월 월례회 자료집」, p.10.

가장 많은 전문가를 배출하는 곳은 직업학교이며, 노동부 지원으로 교육비가 지원되는 곳이 대부분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연간 1000명 정도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들의 교육기간은 1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하지만 대개는 3개월, 6개월 정도이며, 교육내용은 대목과정이 가장 많고 다음이 소목과정, 구들과 창호과정 등이 있으며 대목과정은 한옥 목골조의 치목과 조립이 주 수업내용이다. 직업으로 연결되는 한옥학교는 대개 치목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업학교가 대부분이며, 전통건축가를 길러내기 보다는 기능인 중에 대목을 길러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문 인력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한옥 전문 건축가 인력부족이며 다른 하나는 기능력인력 및 기술력 부족이다.

한옥 전문 건축가 인력은 3개의 대학에서 학사과정을 진행중이나 그 수가 적고, 최근에 개설되어 실제적으로 인력투입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며, 기능인력 및 기술력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수의 한옥학교가 존재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하며 과정 또한 공인된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한옥건축에 합당한 기술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옥은 특히 시공자(목수)의 실력이 중요하나 실력차이가 커서 균일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표 4-31] 교육기관별 프로그램 현황

기관명	개설연도	개설과정	교육기간	위치	특기사항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전통건축전공	2009년	건축학학사	5년	용인	
전남도립대학 한옥문화산업과	2010년	전문학사	2년	담양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2001년	학사	4년	부여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문화재수리기술강좌 전통공예건축학교	52주 16주	서울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대목, 창호, 석장, 와장, 단청	2년	부여	문화재수리복원 전문인양성
경북한옥건축 직업전문학교	2009년	한옥치목실습	6개월 3개월	예천	노동부지원
고성한옥학교	2009년	구들, 한옥치목 한옥공사	4-9주 6개월	고성	
다물장원	2010년	대목과정 소목과정 구들과정	6주 4주 3주	이천	
단양한옥학교		전통창호 및 가구 황토집짓기		단양	
락고재부설 안동한옥학교	2011년	한옥치목	6개월	안동	
목천흙집연구소		흙집짓기	20일	화순	수요자중심
지용한옥학교	2010년	전문과정 체험과정	5년 16주	홍천	목수배출목적 (1년교육+4년인턴)
청도한옥학교	2003년	대목양성과정 소목양성과정 단청과정	12주	청도	노동부지원 국비계좌제 한국목구조기술인 협회부설
청원산방	2011년	창호과정	4개월 8개월	서울	
한국목조건축 직업전문학교	1998년	기능/기술자과정 목조건축 전통한옥 통나무건축 팀버프레임건축	3개월	임실	
한국전통건축학교	2010년	대목과정	3개월	울주	
한국전통직업 전문학교	1995년	전통한옥 목공기능사양성	4개월	평창	국비계좌제
한옥문화원	2000년	전문강좌 일반강좌	1년 9주	서울	전통건축강좌중심
한옥학교	2009년	대목과정 소목과정	3개월	평창	
화천한옥학교	2004년	대목과정	6개월	화천	노동부승인

* 출처 : 한국건축역사학회(2011), "전통교육에 있어서 전통건축 설계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2011년 한국 건축역사학회 3월 월례회 자료집」, p.11.

3) 공사진행 주체간의 역할분담

① 설계자와 시공자의 역할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현재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사업의 대부분은 설계경기 및 입찰을 통해 설계자와 시공자를 지정하고 있다. 시공방법이 충분히 보편화되지 못한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에서 설계의 충실한 구현을 위해서 시공자와의 협업구도 구축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대부분의 한옥 시공사는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선정된 시공사 역시 품질을 고려하는 시공을 하기보다는 단가를 맞추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일반시공자들은 한옥의 시공방식에 익숙치 않고, 문화재 전문업체의 경우는 생활한옥 기준으로 시공하지 않아 여러 클레임이 발생하고 있다. 설계사가 직접 감리를 담당할 경우, 시공사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원하는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예상치 못한 품질저하가 발생하기 쉽다. 일부 설계사에서는 현장을 자주 방문함으로써 결과물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⁵³⁾



설계사가 직접 시공감독을 하여 공정별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건축되고 있는 한옥 사례 (경기도 양주) : 목공사의 경우, 3d free cut 가능한 회사가 전국 4개사에 국한됨(서울3, 지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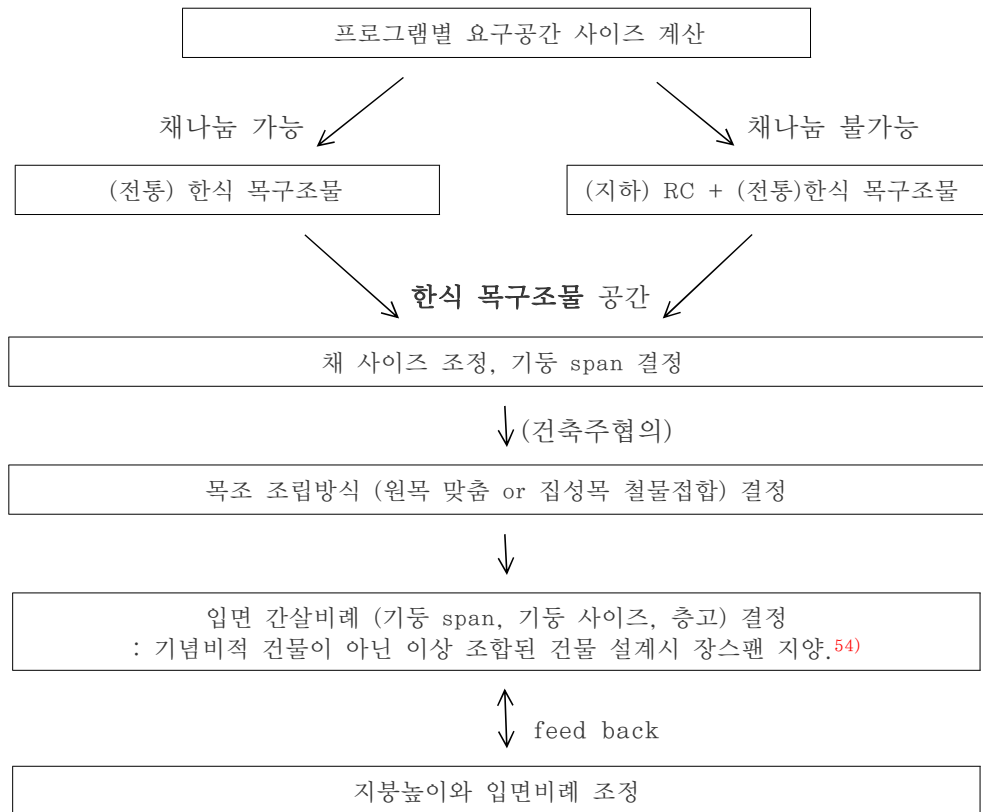
한옥설계에 경험이 있는 건축사무소의 경우, 전통 한식 목구조의 경우 충분히 표준화 되어있어, 목수의 조언과 자문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건축사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는 정도이다. 그러나 집성목을 이용한 한식 목구조의 접합부 디테일

53) 금성건축 인터뷰 중

은 철골을 일부 사용하는 등 새로운 구조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집성목 업체와 함께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

□ 신한옥 설계 프로세스 사례(금성건축)

- 지형, 지질 → 토지이용계획(조망, 배치) → 프로그램(기능) → 건물형태 → 구조
- 프로그램 → 건물 디자인



※ 모듈을 갖고 계획을 한다기보다는, 모듈을 계획에 맞추는 방식임. 스케치업, 모형 작업으로 공간비례 확인하며 작업. BIM 설계는 아님.

54) 일반적으로, 입면 계획시 (창호 고려하여) 간살 3600이상은 사용하지 않음/ 주택 층고는 2400넘게 계획하지 않음 / 지붕높이: 입면높이 가 1:20이상 되게 하지 않음. 그러나, 공공건축물의 경우 높은 층고 구현으로 간살 역시 넓어지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감각과 경험으로 비례를 조정해감

□ 설계자와 시공자의 협업방식

[표 4-32] 단계별 협업구도

구분	협업구도	해당 사항
계획 단계	설계자 - 목수	목구조 설계 협의(구조적 한계, 결구, 비례 등)
	설계자 - 시공사	한옥형 설비 구조 협의
	설계자 - 자재업체	새로운 자재 적용법 협의(집성목, 설비기구 사용 등)
시공 단계	설계자 - 목수	현장환경에 맞춘 건물 비례 및 구도 조정
	설계자 - 시공사	

• 사례 1. 유탄 건축사사무소

인터뷰에 의하면, 시공사 선정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공자들이 전통한옥 및 신한옥에 대해 생소할 뿐만 아니라, 규모상 큰 회사들도 많지 않고, 한옥 설계시 내부공간 설비 시스템 해결방식에 대해서도 무지한 실정이다. 현대건축과 공정에서도 차이가 많아, 시공자들의 시행착오가 많다. 시공회사가 건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있을 때, 설계사에 지속적으로 공정 및 디테일 시공과 관련하여 문의를 해오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설계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물이 구현된다고 한다.

평면 계획 이후 구조해결은 용이한 반면, 한-스타일에 어울리는 설비 해결은 여전히 난해하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 예산의 한계로 기성품을 그대로 사용하게 마련이고 그 결과 설비와 내부공간이 부조화가 우려되므로 한옥의 고유한 내부공간 정취를 유지하기 위한 설비처리를 기계, 토목쪽과 협의를 통해 계획단계(평면 LAYOUT 및 단면)에 반영되어야 한다.

- 한-스타일에 어울리는 조명 및 매립형 냉난방기가 디자인되어 대량생산되는 상황이 아닌 만큼, 내부 공간 구현에 있어, 한식 목구조물과 냉난방기 기성품과의 접합 및 결합 방식(디테일)에 대해 고심중임. →축산기술연구소
- 서까래를 노출시키면서 설비들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디테일 설계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음.
- 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일 경우, 이와 같은 설비 디자인과 관련하여 가격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음. (기존 자료, 데이터가 없기에 검증이 안됨)
- 광주의 경우, 지역 자체적으로 경험이 쌓여 rule이 생겨남. 즉, 조달청에는 견적 근거데이터가 없지만 발주처 에서는 건물 유형에 따라 예산을 달리하여 잡아가는 중임.

축산기술연구소의 조경공사시 건물이 구현되고 가시화되면서 건물에 어울리는 한국적인 외부공간을 만들기 위해 발주청에서 조경공사 발주하였다고 한다. 이때, 발주청에서 예산을 늘려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전체 프로젝트 기간 설계에서 준공까지 2년 5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의 이해도가 낮아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며, 다행히 축산기술연구소의 경우 CM이 있어 시공상 어려움이 적었다.

- 사례 2. 삼진 건축사사무소

삼진건축사사무소는 시공자가 현대건축을 한 사람일 경우 협업하지 않으며, 문화재를 다뤄본 사람과 협업을 하고 있다. 완도수목원 및 전남도지사 공관은 처음부터 문화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전남업체와 컨소시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타지 업체의 경우 일괄 하청을 주므로 시공품질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완도수목원의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 설비의 경우 예산 문제가 컸다. 초기안은 한옥의 멋을 살릴 수 있도록 전시와 설비를 고려하였으나, 사업을 하면서 전시설계자(인테리어)가 제3의 업체로 변경되면서 불일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삼진건축에서는 실제로 지어질 집 모양 그대로 도면을 그리며, 현장에서 선 조정은 이루어진다. 이는 착시현상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매뉴얼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도심은 가능할지라도 산이 많은 한국지형의 특성상 수작업으로 보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며, 한국건축은 예부터 착시와 원근법을 조정해왔다. 아무리 좋은 설계안이라도 시공자의 능력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므로 설계과정에서 시공자(목수)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조설계의 미비. 현대의 건축시스템은 설계와 구조해석, 시공이 각각 분업화되어 있고,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한옥의 경우는 구조적 성능에 관한 연구의 미비로 구조해석 및 설계에 한계가 있고, 접합상세를 비롯한 도면의 부재는 한옥건축시스템의 현대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전통한옥의 경우 6~8자(1.8~2.4m)로 공간이 구성되는데 이는 현대인의 확장된 생활공간에 적합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설계과정에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과정에서 공간구성의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설계과정이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상세한 한옥설계도면의 부재, 시공현장에서 목수들에 의해 설계 및 작성되는 도행판 또는 양판이라 불리는 설계도는 컴퓨터를 사용한 설계도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면 이를 시공에 직접 적용하기가 힘들고, 제공하는 시공정보에도 한계가 있다.

② 감독관 및 감리자 사업진행 체계

현재 공공발주 사업중 200억 이상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제도로 운영되며 이때, 감독관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책임감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사의 경우 감독관에 의해 감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감독관의 능력에 따라 시공품질이 좌우되므로, 시공감리는 결과물 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설계자의 의도를 살리고,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 사례 1.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신)한옥 시공 감리/감독 체크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감독관이 직접 감리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감독관이 건축 관련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도면 상세도와 표준 시방서가 충분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리 체크리스트 역시 부재중인 관계로 시공을 감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4-1] 전남개발공사 건축 업무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5. 한스타일 공공건축 사업의 문제점 진단

1) 한스타일 건축 산업기반 미비

□ 국내 한옥시장 형성 미비

국내의 아파트는 표준화된 설계와 시공품질이 보장되나, 단독주택시장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단독주택 브랜드가 있어 어느 정도 품질이 보장되고 있으나, 국내는 브랜드화 된 단독주택 공급 회사가 없어 개인들이 한옥이나 주택을 짓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한옥도 설계와 시공이 일괄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일부 건축사무소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같이 진행중이다. 향후 시장의 방향은 일괄적으로 설계 및 시공까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옥의 표준화, 시스템화

한옥의 보급률을 높이고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목재 가공시 Free cut 의존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야한다. 지금까지는 주택규모의 건물은 전통 방식으로 부재들을 조립하고 대공간 구현이 필요한 건물에만 집성목을 도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주택에도 집성목, 철물접합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 지금껏 기둥, 보, 도리, 서까래 까지만 Free cut 방식으로 가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BIM & free cut 의 일반화가 필요하다. 시공자가 최소의 고민으로 도면에 충실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도면화한 설계도서 작성이 요구되며, 현재, 한옥 건축물의 도면 수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 많이 부족⁵⁵⁾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그림 4-2] 한옥 BIM 모델링 연구

55) 추녀 부분과 같은 3차원 곡선의 구현은 지금껏 목수의 몫이었음

2) 한스타일 건축 기술기반 미비

□ 한식목구조의 구조계산 문제

한옥의 경우 일반 건축법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의 경우 공사 발주시 시행자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관행상 임의적으로 건축법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공 건축에서는 구조적인 정의가 중요하며⁵⁶⁾ 예를들어, 복층 한옥 건축물에서 최상층만 한식 목구조인 경우 어느 범주까지 한옥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한옥구조는 집성목에 철물 접합⁵⁷⁾일 때에만 구조계산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결구방식의 구조적 성능은 목수의 경험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한옥기술개발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한옥의 구조계산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

□ 내화구조 해결 문제

한옥에서 내화구조를 해결하려면 내화구조 인증을 받은 목재를 사용(집성목)하거나, 원목 현장인증을 받아야한다. 목재는 제품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방화 실험 후 인증을 받아야한다. 목재 탄화층(4cm) 제외한 단면만을 구조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의장적으로 부재 사이즈가 과다하게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 국내 유일 내화구조 인증 건물 : 타니 골프클럽(다원건축설계, 삼부토건시공) : 민간발주 사업이기 때문에 인증받지 않을 수 없었음



[그림 4-3] 내화구조 인증을 받은 타니 클럽하우스(출처 : 타니CC 홈페이지)

56) 주택의 경우, 대지관계권 규제(일조권, 사선제한)가 중요함.

57) 공공건축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철물접합(볼팅), 집성목으로 가는 추세임.

: 윤선도 유물 전시관, 김창조 전시관, 불국사 유물전시관(불국사(민간)발주),
옥산서원 유물전시관(경주시 발주), 고양시 전통문화회관

3) 한스타일 공공건축 추천체계의 전문성 미비

□ 문화재 중심의 제도 운영

현재 한옥에 관한 자료나 사업방식이 문화재 위주로 (운영방식, 돈, 심사방식) 돌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서도 문화재 지방서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신한옥을 위한 (최소한의 한옥다움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대 건축 건축사 및 시공 관계자들에게 전통건축 교육 필요⁵⁸⁾하다.

또한 현대건축과 전통건축, 각 영역에 대한 고수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간 교류와 교육을 통한 이해가 중요하며, 문화재 건축사와 일반건축사간 협의 및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 지금껏 문화재 건축사는 자신만의 영역이 확고하여 문화재가 아니면 참여하지 않았으나, 문화재 건축사들에게도 현대건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 한옥건축 품질관리 시스템 부재

현재 한스타일 공공건축 발주사업은 촉박한 사업기간으로 인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전반에 관한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발주사업은 단가위주 시공이나 재하도급으로 인한 품질저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후설계관리부재, 표준지방서 및 단가 체계의 부재, 단열, 내화, 구조, 면적 완화기준의 부재, 유지관리 체계 미흡 등 한스타일 건축의 기술 및 제도기반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 행정직에 의한 사업기획으로 전문성 저하 문제는 한옥 master architect 제도의 도입이나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한 시스템 지원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58) 원목 밑둥이 썩어들어가기 쉽다 (한옥이 근본적으로 습식시공이기 때문에) -> 현장에서 습식과 건식이 만나는 부분에 대한(통풍 설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공사 디테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한편, 합성목재는 목재 기단부 부식 문제를 해결함.

6. 소결

한스타일 공공건축 관련 정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2000~2010)과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한옥건축 육성정책(2009)과 한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009), 외교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 추진계획(2009) 등이 대표적이다. 또 서울시의 한옥선언(2008)과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참고할만하다.

이들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한스타일 공공건축 조성사업은 일반적인 공공건축 사업의 진행단계와 마찬가지로 기획단계, 계획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한스타일의 특징을 살리고 디자인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가 특히 중요하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 북촌테스크포스팀을 시발로 2009년 한옥문화과가 창설되는 등 지속적으로 한옥건축에 관한 전담조직을 운영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기획이 가능하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한옥주택을 담당하는 행복마을과와는 별도로 공공사업의 경우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어서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이다. 한옥문화진흥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옥건축 시범사업은 대체로 공공건축물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들 수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사업공모, 평가·예산지원 등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한옥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사업결과 보고를 담당하며, 심사위원이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계획, 사업시행, 운영·관리, 예산집행으로 나누어 서면평가를 진행하여 선정한다. 유사한 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부의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시공에 영향을 주는 산업현황에는 자재와 재료비, 인력과 인건비, 공사진행과정에서 담당자들 간의 역할분담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5장에서 다룬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지원 및 관리방안과 제6장에서 다룬 한스타일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들은 한스타일 건축 산업기반 미비, 한스타일 건축 기술기반 미비, 한스타일 공공건축 추진체계의 전문성 미비의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해결방안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제5장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지원 및 관리 방안

1. 촉진방안
2. 지원방안
3. 품질관리방안
4. 제도개선
5. 소결

1. 촉진방안

1)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서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우선시된다. 한옥 공공건축물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일상에서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시민들에게 한옥의 장점을 홍보하고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한옥 공공건축물은 한옥의 특징이 최대한 돋보일 수 있는 시설로서 널리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용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 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이 어렵지 않고 건축비가 저렴하면 더 좋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체로 중·소규모의 주민시설에 적합하며,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한옥으로 지으면 좋은 공공시설로 문화시설과 주민복지시설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도서관, 주민센터, 파출소 등 소규모의 공공건축물에 한스타일 적용이 쉽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교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 외교시설의 경우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예산확보나 사업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뉴욕에 작은 규모로 한옥으로 된 사찰(법당)을 지은 후 신도수가 증가했는데, 정서

적 편압함과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외교공관의 한식화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표 5-1]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적정프로그램 예시

구분	지원내용	파급효과
교육체험시설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교육효과 및 한옥에 대한 경험 기회 제공
주민복지시설	행정안전부와 연계 한스타일 커뮤니티 시설 사업 주민참여 시스템 도입	주민이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시설로 한옥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및 홍보효과 극대화, 주민참여 유도로 유지관리 용이
외교시설	외교통상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 대사관 내 한스타일 건축 적용사업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 해외동포들에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제공

① 프로그램1 - 주민생활 지원시설

□ 사업개요

주민생활지원 시설 중 표준설계도서⁵⁹⁾에 의해 보급되고 있는 우체국, 파출소, 주민센터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스타일 건축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체국 지소의 경우 전국에 1,655개소, 파출소의 경우 813개소, 주민센터는 2,68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표 5-2] 전국 주민생활시설의 수

구분	우체국(주사국)	파출소(지구대포함)	주민센터
전국 지소수	1,655개소 (2010년 기준)	813개소 (2008년 기준)	2,681개소 (2011년 기준)

59)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이 시설들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곳곳에 퍼져 있기에 확산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규모가 작고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보급된 시설이므로, 리모델링을 통하여 한실이나, 한식경관을 도입함으로써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전략

대체로 표준설계도에 의해 보급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한옥형 표준설계도서를 개발하여 보급 가능성을 높인다. 표준설계도서를 적용하면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가 가능하여 건축물의 시공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이 기대되며, 표준설계도서 제작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설계사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다.

표준설계도서를 개발하여 적용하면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으나, 다양성 부족이나 천편일률적 개성 없는 디자인이 생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표준설계도서와 병행하여 다양한 디자인 도입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주민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만큼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부터 건축가-공무원-주민의 의사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실이나 한식경관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림 5-1] 한옥파출소와 주민센터 예시

② 프로그램2 - 주민참여형 한옥정자

□ 사업개요

근린공원이나 공공용지에 지어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소규모 정자를 공급한다. 한옥정자의 계획·시공으로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옥의 장점을 체험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다.

□ 추진전략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 및 취미 프로그램에 한옥짓기실습 과목을 포함하여,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하천주변 산책로에 휴식을 위한 정자를 건립한다. ‘한옥 시공실습 교육매뉴얼’(국가한옥센터 제작, 2012 발간예정)을 통해 약 4개월 간의 과정으로 구성한다. 주민참여형 한옥정자 건립사업에는 지자체와 주민 이외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옥정자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한옥센터에서 자문 및 홍보를 지원한다.

[표 5-3] 주민참여형 한옥정자 건립사업의 체계

구분	내용
사업자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계별 관련 정보공개 및 제공 - 주민의견청취 및 수렴 - 계획안 결정과정 등 사업 설명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설명회 등 참여, 의견서 접수 - 시공 및 유지관리 참여 - 자체 유지관리 조직구성
한옥정자 건립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주민을 포함, 각종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각종 검토내용에 대한 의견의 집약 및 조성
국가한옥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 검토와 진행과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 및 자문 - 사업 홍보 및 지원(포털연계)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사업의 전반적 진행을 맡으며, 주민은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시공에 참여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주체 및 관계자, 전문가, 주민으로 구성된 한옥정자 건립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사업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 한옥 시공실습 교육매뉴얼

- 국가한옥센터에서는 대학에서 제도적으로 한옥교육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 및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실습 교과는 단기간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옥을 직접 지어봄으로써 도면의 해석, 구조 및 재료, 시공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한옥 건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한옥 시공실습 교육매뉴얼을 개발중에 있음
- 한옥 시공실습 교육매뉴얼은 1개 학기(약 4개월) 동안 온전한 한옥이 지어지고 이 과정에서 수강생들이 최대한 참여하여 한옥 시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부지 선정으로부터 예산 수립, 교육전문가와 시공전문가의 역할분담, 각 공정별 소요시간 및 인력 등 시공실습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담을 예정임

[표-5-4] 한옥 시공실습 교육매뉴얼 내용

단계	항목	세부 내용
기획단계	부지 선정	부지 선정 시 주의사항
	전문가 섭외	전문가 섭외 경로 및 방법
	예산 수립	총 예산 비용 및 마련 방법
준비단계	강의계획서 작성	주차 별 진행 내용 정리 과제물 준비
	가설공사	자재 및 공구 보관을 위한 창고 설치 전기 인입을 위한 공사
	설계도	작업기간을 고려한 도면
	자재 및 공구 구입	필요한 자재 및 공구 종류 구입 경로
실습단계	오리엔테이션	주요 부재 및 사용 공구 설명 목재 선별법 작업조 편성
	기초공사	필요한 기자재 및 진행 방법
	목공사	공구 사용법 및 작업대 제작 방법 공사 순서 정리; 치목 및 조립 비계 설치
	지붕공사	공사 순서 정리 해당 공정에서의 전문가의 역할
	수장재 공사	공사 순서 정리
	미장공사	공사 순서 정리 해당 공정에서의 전문가의 역할
	마루공사	공사 순서 정리
	창호공사	공사 순서 정리 해당 공정에서의 전문가의 역할
기타	각종 협의 사안	관련 부처 및 검토 할 법규
	예산 및 공정 관리	예산치 못했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제시
	관련 행사	개토제, 상량식, 준공식

□ 사업단계별 주민참여 및 연계 방안

추후 이 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시설이므로 초기단계부터 주민에게 한스타일 건축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설명을 실시하여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한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유지관리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단, 각 단계마다 전문가의 지원이 중요하며, 현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능력이 요구되므로, 위에서 언급했던 위원회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림 5-2] 한옥정자 건립 사례 (좌: 서울대학교 하유재, 우: 경북대학교 금란정)

[표 5-5] 사업단계별 주민참여 및 연계 방안

구분	사업단계별 흐름 및 유의점	주민참여 및 연계방안
구상계획단계	[개략적 위치, 프로그램 검토] - 한스타일 건축의 유형 및 프로그램 설정	- 초기단계부터 한스타일 건축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사업 설명 실시 - 시설의 기본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
설계시공단계	[배치, 색채 등 상세한 사항 검토] - 전문가에 의한 설계 및 시공 관리 지원 - 현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시공	-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 관해 주민 의견 수렴
유지관리단계	[사업자] - 방침, 설계 및 시공의도 등을 관리자에게 적절하게 인수 [관리자] - 방침, 설계 및 시공의도 등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 주민의 요구 및 문제를 파악한 뒤 적절한 지원 실시 - 지속적인 유지관리 주민 참여

③ 프로그램3 - 어린이 한스타일 체험시설

□ 사업개요

전국 초등학교 및 어린이시설 중 참여를 신청 시설에 한해 한실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한옥에 대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효과 및 홍보효과 극대화한다.

□ 추진전략

어린이 시설은 전국 초등학교수 5,853개(2010년도기준) 등 가장 널리 퍼져있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로구 어린이도서관, 산본 어린이 도서관, 안산 관산 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한스타일 건축물의 경우 개관 후 이전보다 이용자가 늘어나고 한옥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 또, 신을 벗고 앉거나 엎드리는 좌식생활을 반영한 넓은 대청공간이 어린이 활동에 적합하고, 좁은 공간을 좋아하는 어린이의 특성을 반영한 다락공간의 선호되는 등 이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다.



[그림 5-3] 한스타일 체험관 예시(우측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분야별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교육분야가 84.7%로 가장 높으며, 그중 유·초·중등이 72.1%로 예산비중이 높음. 2012년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의 예산편성 방향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으로 학교교육 재정지원이 35조 3,045에서 38조 4,822억원으로 3조 1,777억원이 증가하였다.

[표 5-6] 분야별 투자 비중(2010년)

교육(84.7%)		과학기술(7.5%)		사회복지(7.7%)	
유·초·중등	72.1%	기술개발	3.8%	공적연금	7.7%
고등	11.2%	과학기술연구 지원	3.7%		
평생·직업	1.2%	과학기술일반	0.1%		

* 출처 :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단위 총괄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학교당 2억원~3억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2012년도 예산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2013년도 예산편성 시 편성하도록 검토가 가능하다.

학교단위 총괄 교육환경 개선사업

- ☐ 사업개요
 - 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간 시설격차가 심한 학교에 대해 총괄 환경개선 시범사업 실시
 - － 학교단위 교사시설 등 노후건물의 전면 개·보수(리모델링) 및 내부 환경개선 등
- ☐ 추진경과
 - 사업기간 : '07하반기 ~ '08년 상반기
 - －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름 및 겨울방학 이용
- ☐ 주요내용
 - 지원대상교 및 지원예정금액 : 총 9개교에 229억원
 - － 추가소요금액은 자체예산으로 투자
- ☐ 사업선정기준
 - 인근지역 학교와의 시설격차 정도
 - 대상학교 건물의 노후도
 - 해당학교 교육환경의 낙후도 및 최근 3년간 환경개선사업비 투자정도
 - 기타 지역 주민의 민원제기 등 시설 불만 정도

〈 교부대상 시도교육청 해당학교 및 금액 〉

(단위:천원)

구분	서울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계
학교명	용마초	달성고	용전초	부천북초	춘천초	청주고	천안신안초	전주제일고	김해중	9개교
교부금액	2,700	2,600	2,700	2,500	2,600	1,900	2,700	2,600	2,600	22,900

2) 표준설계안의 개발

□ 표준설계도서 사용처

일반적으로 학교 등과 같이 동일한 기능을 가진 건축물을 다수 건설할 때에는 관련 주무부서에서 건축물 건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물설계지침 등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건축물 생산을 진행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각 용도별 공공건축물 가운데 건물설계지침을 운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학교, 경찰서 및 파출소, 우체국사, 전화국사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파출소, 우체국사, 전화국사는 표준설계도서를 적용하여 세워진 사례가 많다. 표준설계도서는 건축적인 측면에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설계비의 절감 및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표준설계안을 사용할 시 설계와 시공의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일반건축에 비해 부족한 한옥 도면을 개발하여 다양화 및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5-7] 각 용도별 표준설계도서의 활용현황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사	전화국사	학교
작성	1987	1988	1985	1989.08	1980.10 교육부가 작성
표준설계 도서	총8종	총10종	총8종 창구국6종 집배국2종	총6종	총 8종 초등 4종 중등 4종
적용대상	-		주사급 소형우 체국사	분기국사 ⁶⁰⁾	도시지역, 농촌 지역, 농촌 특 수지역, 도서벽 지 지역
목적	경찰관서의 표준화·규격화		동일성, 편리 성, 시공성	통일된 이미지 홍보 설계비용 절감	교육시설 질적 향상 및 환경개 선, 시설업무의 경감, 설계용역 비 등 예산절감
활용	1996년 표준설계도서 운용규 칙에 근거하여 폐지		96년도 이후로 극감	소도시 및 농어 촌지역에 활발 히 적용	93년 현대화 시범학교 설치 등으로 거의 활 용되지 않음
	거의적용하지 않음	1996년의 경 우 전체사업 건수의 90% 정도 적용			

*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1996), p.44-63 정리

□ 각 용도별 건물설계지침의 평면계획 관련 주요내용

기존의 평면계획 내용을 적용하고, 현대에 들어서서 전화국사처럼 새로운 기제가 도입되면서 추가 공간이 필요하거나, 학교처럼 평면 다양화를 위해 별도의 면적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제안자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표 5-8] 각 용도별 건물설계지침의 평면계획 관련 주요 내용

평면계획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사	전화국사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 경찰청 시설규모 조정기준 적용 · 과단위면적 : 정부청사관리 규정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설계도서 적용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산출식 작성 · 주사급 경우 표준설계도 적용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산출식 작성 · 실별 설계자료 · IB화 고려 · 주요실 모델안 · 분기국사 표준설계도 적용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실면적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기준

*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7), p.x 참고

□ 한옥 공공건축 표준설계도서 연구개발 방향 및 대상한정

현재 개발된 표준설계도서중 한스타일 적용이 비교적 용이한 규모는 파출소, 우체국, 주민센터로 기본적으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되어 보급되어 있으며, 한스타일 공공건축 표준설계도서 보급시 기존 유형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주민센터의 경우 한스타일을 도입하여 성공한 선례가 있고,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생활지원시설로서 표준설계도서를 적용하면 가장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표 5-9] 표준설계도서 연구개발 유형

구분	유형 ⁶¹⁾	적용가능 스타일	전국 지소 수
파출소 (지구대)	도시형 : 지하1층, 지상2층, 옥탑 농촌형 : 지상1층(45형), 지상2층(50형)	신한옥 한실도입 한옥풍	813개소 2008년도 기준
우체국 (주사국)	모서리대지형 장방형대지형 전면대지가 넓은 형 농촌형		1,655개소 2010년도 기준
주민센터	도시형 농촌형		2,681개소 2011년도 기준

60) 일반적으로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기계만 설치해 놓은 무인국사

□ 한스타일 공공건축 표준설계도서 개발시 고려 사항

한스타일 공공건축 표준설계도서 개발시 먼저 목구조로 구현가능한 공간의 한계로 인한 활용문제 및 효율성 문제를 고려해야한다. 또한 한옥의 단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단열문제해결을 위한 단열계획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고층으로 계획시(3층이상) 한옥의 비례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안이 필요하다. 또한, 부피가 커질 경우 적절한 채나눔을 계획하여 한옥의 특징을 살리는 것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규모에 따른 용도

① 소규모 :

2층 이하

주택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상점 등



제안자 설계

② 중규모 :

3층 이하

파출소/ 지구대/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도서관/ 유치원 등



제안자 설계

③ 대규모 :

3층 이상

한옥호텔/ 공공청사 / 대규모 도서관/

전시 (박물관, 미술관) 등



제안자 설계

[그림 5-4] 표준설계안 제안 예시

출처 : 금성건축 제안서(21세기 서울형 한옥모델)

그러나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는 표준설계도서 보급보다 사용되는 구법이나 부품 등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추후 연구를 통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접합부 표준설계안이나, 부품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 마련이 필요하다.

61) 유형은 개발자의 검토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표준설계 매뉴얼개발 - 부재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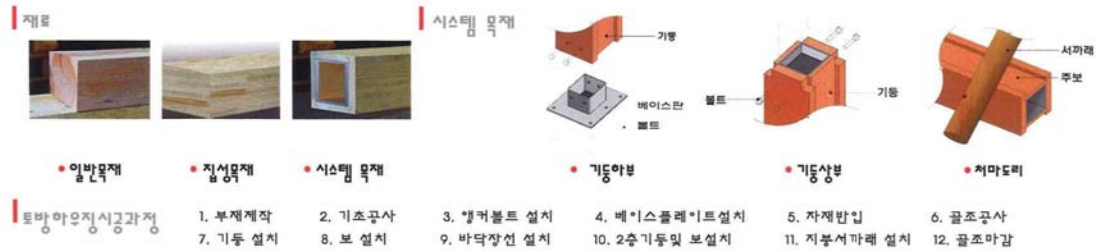
한스타일 건축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공간 구현이 어려운 목재의 단점(스팬의 한계, 변형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합성목재, 집성목재, 특수철골 등의 다양한 부재와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설계자는 공간의 성격과 재료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부재를 선택하기 마련이므로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어 냄에 있어 부재의 표준설계매뉴얼 개발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보다는 보존이 중요한 문화재와 정통건축은 전통방식에 따라 생산, 가공된 부재로 지어야 하겠지만, 새로운 한옥은 현대인의 ‘사용 용도’에 맞는 건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재료와 공법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토방하우징이 개발하여 축산기술연구소에 사용한 철골합성목구조는 논리적인 치수로 계산된 대량, 반복생산이 가능한 부재라는 점에서 새로운 부재개발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합성목중 부재 규격별, 디테일별, 스틸 형상별(□형, H형, I형)로 부재 결합 유형별로 나누어 매뉴얼화하였으며, 특히 의장적인 면뿐만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기술사들과 협의하며 시공성을 높이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 디테일 결합방식의 해결이 중요한데, 현장조립이 쉬워야 공장생산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이다. 기존 목재 프리컷 제품을 현장 조립할 때 목재자체 결구부의 절단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기존 결구부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보아지, 포 등의 보강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현대적인 창호를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부재들이 더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으며, 층고 역시 높아지게 된다. 이에 토방하우징에서는 수백개의 Steel Head Detail⁶²⁾을 개발중에 있다. 또한 목재의 본 자체를 레이저로 가공하기도 하며, 현대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계를 개발하고 기계를 다루는 공구까지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

토방하우징의 이러한 매뉴얼 작업은 옛 공법으로 집을 짓다보면 문화재를 다루는 고급목수를 만나지 않는 이상 일정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직접 현장시공까지 말아야한다는 결론에서 시작되었다.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운반가능한 부재 및 틀은 최대한 공장에서 생산하고 조립한 후 현장으로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62) 결구부의 짜맞춤 형상을 철골로 풀어낸 디테일로서 부재를 만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단순히 채를 구성하는 방식만으로도 10여개의 형상이 나올 수 있다.

다. 예를 들어 지붕공사의 경우 공장에서 부연을 일정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한 뒤 현장으로 운송하여 최종 완성하는 단계이며 screw 못을 사용하여 모든 부재들이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하도록 생산하고 있다.



[그림 5-5] 시스템 목재 개발 및 시공과정
출처 : 토방하우징

새로운 부재개발 외에도 기존 한옥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바로 한옥의 높은 열손실률인데 문화재한옥의 경우 집이 숨을 쉬게 하기 위해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옥의 장기적 보급을 위해서는 바닥, 벽, 지붕, 창호 단열이 잘 되어, 유지관리비가 절감되어야 한다. 토방하우징에서는 벽체에 대한 디테일 연구를 통해 단열재 10cm, 양쪽 윗대 5cm로 구성하고 흙벽으로 마감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전통건축의 원칙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제성을 가진 제품을 시공중에 있다. 삼진건축에서는 수장폭내에 겨를 넣어서 단열 성능을 높이고 외부에 흙을 바를 수 있도록 기성품으로 제작하여 시공성과 단열성을 높인 제품을 개발하여 시공하고 있다. 또한 벽체 자체의 의장적인 측면에서 창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쉽게 단열이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기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의장적인 면을 고려한 연구개발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3) 홍보 및 포상

① 공무원교육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정에 한스타일 건축기획 및 관리과정 추가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사업 인터뷰 결과 한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진행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전문가지원을 통한 기획업무의 보강도 중요하지만, 건축담당 공무원의 한옥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정에 한스타일 건축과정을 개설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교육기관으로 리더양성과정,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과정, 국정운영을 위한 시책교육과정,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 강좌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여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 있다.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사업의 추진주체가 지자체임을 감안할 때,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한스타일 건축기획과정을 추가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지방행정연수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교육기관
- 교육과정
 - 지역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한 장기과정
 - 지방 중견간부 양성을 위한 기본과정
 - 지방자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과정 → 한스타일 건축기획과정 신설 검토
 -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시책교육과정
 - 수요자 중심의 e-learning 교육과정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시행하며, 공무원 대상 교육자료 및 참고자료 발간은 국가한옥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스타일 건축 사업의 전반에 걸친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기획부터 사례 연구 및 한옥의 특성, 한스타일 가이드라인 사용법 및 유지관리법 등의 참고 사항 등을 1주일 정도의 기간 안에 집중 교육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표 5-10] 한스타일 건축기획과정 교육계획안

개요	내용
교육 목표	한스타일 건축 사업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 실무능력 배양
교육 특징	한스타일 건축사업과 관련된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사례연구 및 한옥의 특성, 한스타일 가이드라인 사용법, 유지관리방안 등 참고 사항 집중 교육
교육 대상	지방자치단체 5~6급 공무원
기간/횟수	5일(비합숙) /1회

[표 5-11] 교과목 편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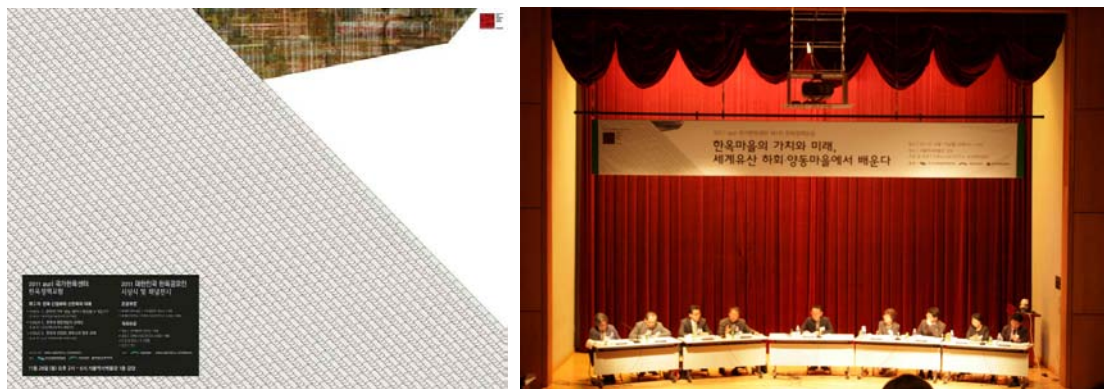
분 야	교 과 목	시 간 배 정				
		계	강의		참여 (실습)	기타
			집합	사이버		
계 (100%)	12과목	28			10	2
직무교과	11과목	24	12		10	
	한스타일 건축 개론	3	3			
	－ 한스타일 건축의 분류 및 유형	1	1			
	－ 한스타일 건축의 특성	1	1			
	－ 정통한옥의 조영원리와 공간활용	1	1			
	한스타일 건축 기획 실무	9	9			
	－ 공공사업기획 과정의 분석	2	2			
	－ 한스타일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2	2			
	－ 지역고유의 건축색 창출 방안	2	2			
	－ 한스타일건축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2			
	－ 한스타일 건축 관련 업체 현황	1	1			
	우수사례 발표 및 분임 토의	10				
	－ 한스타일 공공건축 우수사례 현장학습	7			7	
	－ 분임토의	3			3	
	유지관리방안	2				
	－ 체크리스트 및 유지관리시 유의점	2				
소양교과	1과목	2	2			
	국정과제 · 시책	2	2			
행정 및 기타	입교 및 수료, 설문조사등	2				2

② 한옥정책포럼 및 포상

□ 한옥정책포럼

한옥에 대한 인식전환 및 홍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포럼 개최가 필요하다. 최근 지어지고 있는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한옥관련 업체가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기술과 기법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포럼을 통해 만들 수 있으며, 앞서 제기되었던 정부부처간 의사소통의 부재를 포럼을 통해 해결가능하다.

국가한옥센터 정책포럼은 한옥 관련 전문가 및 한옥에 관심있는 일반인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한옥활성화를 위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11년 10월 17일 '한옥 마을의 가치와 미래, 세계유산 하회, 양동마을에서 배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1회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2011년 11월 28일에 '한옥 산업화와 신한옥의 미래'라는 주제로 2회포럼이 개최되었다. 국가한옥센터의 정책포럼은 한옥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한옥정책포럼에서 한스타일 공공건축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홍보가 가능하다.



[그림 5-6] AURI 정책포럼 포스터 및 사진

□ 우수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포상제도

최근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한옥 신축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9년 한국건축문화 대상수상작에 한옥물이 선정되는 등 한옥이 우수 건축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1회 개최하여 한옥건축을 주거, 비주거, 공공공간 부문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한옥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2011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크게 계획분야와 준공분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계획부분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준공부분은 설계자·시공자·건축주로 제한하였다. 총 참여작품수는 계획부분 152작품, 준공부분 18작품으로 참가등록부터 시상식까지 약 4개월의 짧은 시간이지만, 성황리에 공모전을 마감하였으며 한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인한 자리였다. 계획부분은 주거/비주거/공공부문으로 구분되어 심사하여 대상, 금상 각각 1작품, 은상, 동상 각각 3작품을 포함하여 다수의 작품을 입선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준공부분은 최근 3개년 사이에 준공된 한옥건축물만을 대상으로 대상1작품, 한옥상 2작품 등 총 3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앞으로도 한옥공모전과 연계하여 우수한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수상 제도의 운영을 통해 설계자와 시공자, 건축주, 연구자 등을 포상하고 치하하여 한옥관련 인적 인프라를 꾸준히 네트워크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런 포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한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림 5-7] 한옥공모전 패널전시 및 시상식

2. 지원방안

1) 예산지원

① 국토해양부 한옥건축 지원사업 검토

국토해양부는 2008년부터 지자체 한옥건축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08년 2.5억원, 2009년 이후로는 5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다가 내년부터는 총 9억원의 사업비로 지자체 한옥건축 사업 중 3~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만원)

사업명	'11예산 ①	'12예산안 ②	증감 (②-①)	
				%
한브랜드 한옥도시건축 지원	1,100	1,800	700	63.6
지자체 사업 지원	500	900	400	80

* 출처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12년 사업내용

- 지자체 사업지원 : 1.5~2억원 × 4개소 = 9억원
 - 지자체의 한옥사업 중 홍보효과가 큰 사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 한옥인력양성 : 2억 × 3개소 = 6억
 - 한옥의 관심증가, 한옥기술개발을 통해 한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전문기술 인력 확보
- (기타) 한옥홍보사업 지원(0.5억), 한옥정책연구개발(2억), 한옥 업무지원(0.5억원)

□ 적정지원비 산정

일반건축과 한옥의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한옥의 경우 일반건축에 비해 건축비가 1.5배~3배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현대건축으로 공공청사를 지을 경우 평균 건축비가 3.3㎡당 500만 원 선이며, 최소한의 한옥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3.3㎡당 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한옥으로 지을 시 약 1.4배정도의 추가 비용이 든다.

인테리어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일반건축 인테리어 비용은 3.3㎡당 150만원선이며, 한실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3.3㎡당 300만원 정도로 2배 정도 높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건축비 비교

구분	현대식 공공청사	한옥	차액
단가	500만원	700만원	200만원
구분	현대식 인테리어	한실	차액
단가	150만원	300만원	150만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 50%이상이 적정지원금액으로 일반건축에 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아직 사업의 시범적 성격이 강하고 사업비가 많지 않은 관계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추가비용의 반액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text{지원금액} = (\text{한옥건축비} - \text{일반건축비}) / 2$$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규모부터 대규모 시설의 건축비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예상지원금액을 파악한 결과, 소규모인 주민센터의 경우 한옥으로 지을 시 지원금액은 7천만원 정도, 한실도입시 5천만원 정도가 적정선으로 파악되며, 중규모인 도서관이나 체험관의 경우 각각, 한옥은 1억4천, 3억원, 한실은 1억원, 2억원, 대규모인 전시관의 경우 예상 지원금액은 5억 5천만원 정도로 파악되었다.

한실을 도입할 경우 한옥에 비해 30% 정도 예상 지원금액이 낮게 파악되었으며, 내년도 국토해양부 한옥지원사업의 사업비가 9억원으로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대규모시설의 지원은 실현가능성이 높고 한옥건축 특성이 잘 나타난 1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중소규모 시설과 한실도입 사업에 다수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표 5-13] 일반건축과 한스타일 건축비 비교

면적(㎡)	구분	일반건축	한옥	인테리어	한실
233 (혜화동 주민센터)	건축비	약 3억5천만원	약 4억9천만원	약 1억원	약2억1천만원
	지원금	7천만원		5천만원	
441 (구로구 어린이도서관)	건축비	약 6억7천만원	약 9억4천만원	약 2억원	약 4억원
	지원금	1억4천만원		1억원	
927 (김해 한옥체험관)	건축비	약 14억원	약 20억원	약4억2천만원	약8억4천만원
	지원금	3억원		2억원	
1831 (해남 윤선도 전시관)	건축비	약 27억7천만원	약 38억8천만원	-	-
	지원금	5억5천만원		-	

②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의 복합화

공공건축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며, 동사무소, 마을회관, 커뮤니티 시설 등 거주성이 있는 건축물 위주로 운용될 때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화 방안 모색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교시설 내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생활 시설 등을 복합화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넓은 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지역에서 공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업기획시 연계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기획함으로써 관련부처의 예산지원을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한옥은 아니지만 금산 다락원의 경우 예산지원기관 이해로 각 사업비 동시에 확보, 7개의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12개 보조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건립한 복합 다기능 문화복지센터로 프로그램 복합화의 좋은 사례이다.

□ 참고사례1 - 금산 다락원

금산다락원은 7개의 중앙기관이 지원하는 12개의 보조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건립한 멀티플 문화센터로 여러 건물을 하나의 단지 내로 통합하는 목적, 즉, 제각기 소규모의 강당을 갖지 않고 소공연장과 대공연장이 있는 문예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후 진행한 사례이다. 냉난방을 담당하는 기계실도 각각 건립하지 않고 중앙집중식으로 건립하여 비용절감과 함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하나의 마당안에 문광부가 지원하는 문예회관·문화원·야외공연장이 들어있고, 복지부가 지원하는 보건소·노인복지회관·청소년수련관·장애인복지회관이 있다. 또한, 농림부가 지원하는 농업경영인 회관과 행자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특성화사업)이 있고, 농진청이 지원하는 여성생활과학관·농어민건강생활관, 마사회가 지원하는 농어촌문화체육센터(실내체육관)와 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국민체육센터(수영장)가 확보되었다.

건축 및 운영관리의 사업비를 절감하여 중앙집중식으로 건립하여 운영에 있어 비용절감과 더불어 시공단계에서도 과감한 비용절감으로 인해 약 2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여러 시설의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핵심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인해 운영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대표적 사례이다.

[표 5-14] 금산다락원 유관기관 지원 및 협조 현황



□ 참고사례2 - 국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⁶³⁾

국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화적 기반시설을 학교가 제공하여 문화강좌·체력증진 등의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보육시설·주차장 확충 등 주민편의를 증대시켜 학교가 지역 공동체 생활의 구심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외부재원으로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주 5일 수업과 다양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문화시설 확충하여 평생학습, U-Learning을 위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학교시설 복합화 실행모델 개발 연구」 내용에 의하면 복합화 시설의 유형과 종류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준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실제 복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하다.

[표 5-15] 복합화 대상시설 종류 및 관련부처

시설유형	이용대상	시설종류	관련부처	시행청
교육시설	학생 + 지역주민	유치원, 초·중·고 학교시설	교육과학기술부	시·군·구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녹지시설		공원 등	국토해양부	
보육시설	지역주민	영·유아 보육원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등	행정안전부	

출처 : 오병욱 외(2009), 「학교시설 복합화 실행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 이용대상 연령 3세부터, 보육시설 이용대상 연령 0세~5세)

체육 및 문화시설, 녹지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공공시설 등과 연계한 학교 프로그램의 복합화로 주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

63) 차주영 외(2009), 「지역 중심생활공간으로서 학교시설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증·개축을 통한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을 중심으로-」, pp.40-43.

가족부,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한 사례이다.

③ 복수 예산 확보 방안 모색

프로그램의 복합화를 통해 예산확보를 하는 방안도 있으나, 하나의 프로그램이더라도 각 부처의 지원사업 중 연관 사업에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 가능하다. 문화시설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을, 교육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안전부, 외교시설은 외교통상부의 예산지원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한옥건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복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표 5-16] 프로그램별 정부부처 지원사업

구분	국토해양부	문화체육 관광부	교육과학 기술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험관	지자체 한옥건축 사업 지원	◎		지역명소 활성화 사업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주민자치센터	지자체 한옥건축 사업 지원			◎ 특별교부세	
외교공관		해외문화홍보 인프라 확충			◎

(◎ : 관련부처)

□ 예시 1 - 학교시설 내 생활관 또는 도서관을 한옥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학교시설 내 도서관을 한옥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예산 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전원학교 컨셉에 맞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도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시설은 BTL사업이 활발히 이루

어지는 분야로 민자유치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한 기존 학교의 여유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된다.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추진 사업 중 한옥과 연계 가능한 사업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육성하여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 창출

주요정책 추진상황 VIP보고('09.2) 및 전원학교 추진계획 수립('09.6)

공모를 통해 전원학교 110교 선정('09.7), '09년 사업비 790억원 교부('09.7)

e-러닝교실 인프라 및 교수학습지원시스템 구축('09.10~'10.9)

전원학교 '10년 사업계획 수립('10.3), 사업비 513억원 교부('10.4)

농산어촌 전원학교 확대 방안 수립 및 30교 추가지정('10.3~7)

□ 예시 2 - 주민센터

주민센터를 한스타일로 건축할 경우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예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주민센터 신축사업비는 통상 지방비(시비, 구비) 확보가 이루어진 후 국비가 지원되는 프로세스이나 간혹 열악한 재정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신축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규모가 크지 않은 시설이므로, 상대적으로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 광주 남구 효덕동 주민센터 신축⁶⁴⁾

- 준공 후 26년이 지난 효덕동 주민센터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사무실과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 및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발생
- 남구 효덕동은 진월택지지구사업 등으로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2011년 3월 현재 4만5천 140여명이 거주
-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병완 의원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이례적으로 확보

2) 자재지원

한옥은 목재를 가공하여 기둥을 세우고 보를 걸고, 그 위에 소로와 첨차, 도리와 서까래를 짜맞추어 세운 가구식 구조의 집이다. 건축물의 구조형식에 의한 분류는 크게 조적식, 가구식, 일체식의 3가지로 나뉘는데, 한옥은 목재의 기둥, 보, 도리로 이루어지는 기본 골격을 만든 후, 지붕을 씌우고 바닥, 벽체, 창호를 설치하는 목조가구식 구조이다. 한옥을 구성하는 목재 부재는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매우 많아서 다음의 표와 같이 일반적인 100㎡의 바닥면적을 갖는 한옥의 경우 약 60㎥ 이상의 목재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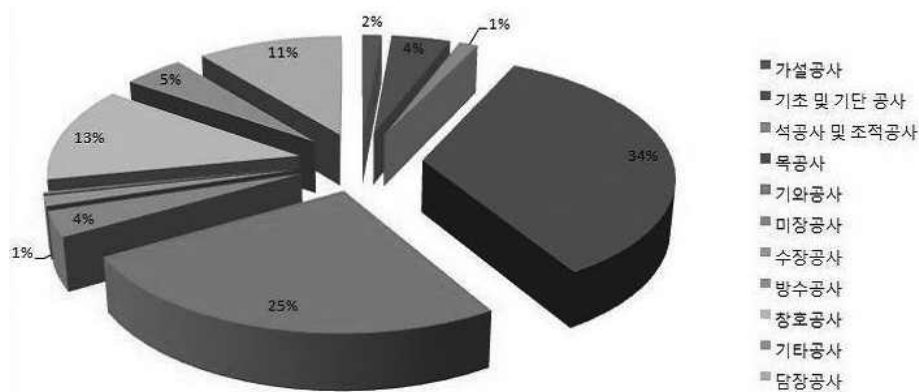
[표 5-17] 한옥을 구성하는 목재 부재 예시(1고주 5량일 경우)

품명	규격 (尺 X 寸 X 寸)	수량	품명	규격 (尺 X 寸 X 寸)	수량
평주	10 x 10 x 10	16	단연	6 x 6 x 6	79
고주	14 x 10 x 10	4	선자연	15 x 8 x 8	24
주두	1,3 x 12,0 x 4,0	16	선자연	14 x 8 x 8	24
소로	0,6 x 5,0 x 3,0	80	선자연	12 x 8 x 8	24
주심창방	8 x 8 x 10	6	갈모산방	5 x 3,5 x 10	8
주심창방	7,5 x 8 x 10	2	이매기	60 x 3 x 3,5	2
귀창방	10 x 8 x 12	4	이매기	40 x 3 x 3,5	2
귀창방	9 x 8 x 12	2	부연	6 x 3 x 5	76
귀창방	7 x 8 x 12	2	고대부연	0,7 x 3 x 5	72
상창방	8 x 8 x 10	3	장연개관	9,5 x 1,0 x 10	72
상창방	7 x 8 x 10	2	단연개관	5,5 x 1,0 x 10	59
주심장여	8,2 x 3 x 7	6	선자개관	7,5 x 1,0 x 10	72
주심장여	7,7 x 3 x 7	2	부연개관	3 x 1,0 x 10	72
주심귀장여	9,7 x 3 x 7	4	고대부연개관	3,5 x 1,0 x 10	72
주심귀장여	9,2 x 3 x 7	2	집부사	16 x 8 x 8	4
주심귀장여	7,2 x 3 x 7	2	합각연목	15 x 8 x 8	8
중장여	8,2 x 3 x 7	2	박공	1,2 x 2 x 18	4
중장여	12,2 x 3 x 7	4	목기연	4 x 3 x 4	42
중장여	13,2 x 3 x 7	2	목기연 개관	12 x 1,2 x 11	4
상장여	8,2 x 3 x 7	3	풍판	6 x 1,5 x 10	30
상장여	7 x 3 x 7	2	풍판띠장	15 x 3 x 5	2
퇴랑	6,5 x 8 x 11	4	풍판띠장	10 x 3 x 5	2
대랑	16,5 x 12 x 16	4	풍판틀대	6 x 2 x 3	30
종랑	12,5 x 8 x 12	4	연합	60 x 3 x 3,5	2
주심도리	8,2 x 10 x 10	6	연합	40 x 3 x 3,5	2
주심도리	7,7 x 10 x 10	2	허방	8 x 3 x 10	10
귀주심도리	6,7 x 10 x 10	2	허방	7,5 x 3 x 10	4
귀주심도리	9,2 x 10 x 10	2	허방	5 x 3 x 10	2
귀주심도리	9,7 x 10 x 10	4	허방	15 x 3 x 10	2
중도리	8,2 x 10 x 10	2	중방	8 x 3 x 7	10
중도리	12,2 x 10 x 10	4	중방	7,5 x 3 x 7	4
중도리	13,2 x 10 x 10	2	중방	5 x 3 x 7	2
상도리	8,2 x 10 x 10	3	중방	15 x 3 x 7	2
상도리	7 x 10 x 10	2	문선	6 x 3 x 5	34
동지주	1,9 x 9 x 9	8	문선	7 x 3 x 5	4
판대공	3,2 x 3,5 x 40	4	장귀틀	15 x 8 x 10	3
초매기	50 x 3 x 4	2	동귀틀	5 x 8 x 10	2
초매기	30 x 3 x 4	2	동귀틀	5 x 8 x 9	2
추녀	16 x 8 x 20	4	사술귀틀	8 x 6 x 8	30
사래	12 x 8 x 17	4	마루판	6 x 2 x 10	116
장여	9,5 x 6 x 6	76			

* 출처 : 한옥 환경성 평가 및 한옥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 2010, 국토해양부(2010)

64) 아시아투데이, 「광주 남구 효덕동 주민센터 신축 탄력」, 2011. 4. 25 기사 발췌

일반적으로 한옥 1채를 시공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비 총액 중 목재 부분의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달하며, 또한 전체 공사비중 목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도 34%를 차지한다.



[그림 5-8] 한옥 공종별 투입 공사비 비율

출처 : 한옥 환경성 평가 및 한옥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 2010, 국토해양부

원목가격 상승, 국내 건설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원목 수입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목재의 지원 또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신규 국산 목재의 수요 개발과 관련하여 공공건축물의 한옥 도입은 긍정적으로 보이며, 국토해양부와 산림청간의 연계를 통해 국산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방식에 의한 원목의 지원 또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 및 재료를 이용한 목재의 지원도 고려해야한다.

① 목재 지원 (기존방식)

다행히 산림청에서도 2011년 국내에서 필요한 목재 중 국산재 공급을 지난해 보다 늘려 목재 자급률을 15%까지 높일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벌채와 산물 수집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목재 유통·가공시설 지원, 신규 국산 목재의 수요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국산 목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벌채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중⁶⁵⁾이며 국산재 이용 한옥표준모델 개발을 완료한 후 각 지방 산림청

65) 2010년 친환경 벌채 제도 도입

에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한옥의 국산재 사용의 가능성을 실험중이다.

※ 국산재 이용 한옥표준모델 개발, 산림청 · 한국목재공학회, 2010.12

· 국산재 현황

- 벌기령에 도달하여 활용이 가능한 목재자원이 적지 않고 꾸준히 증가중

· 한옥 구조부재로서 국산재의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

- 수급의 원활성 : 연간 5,000채 한옥 신축시 필요한 원목의 양은 750천^{m³}, 국산 소나무 임목축적중 v영급(40~50년)의 0.8%에 해당, vi영급(50년이상)의 2.2%에 해당
- 국산 소나무의 임목축적에 기초한 한옥 구조부재로서 국산재 수급에는 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 경제성

- 일반적으로 한옥 1채 시공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비 총액 중 목재 부분의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4%
- 전체 공사비 중 목공사 차지하는 비율도 34%
- 가격 경쟁력 제고 및 목공사비의 절감 고려 필요
- 길이 3m~3.5m 가량의 원목은 가공 공급 가능
- 대량, 중량 및 고주 등 주요 구조부재는 약 5m이상의 길이를 갖기도 하므로 국산재 수급 시 많은 조사와 검토 필요

□ 기본방향

국토해양부와 산림청간 연계를 통해 공공사업에 필요한 목재 수요를 파악하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사업에 국산재를 저렴하게 보급하고 빠른 수요의 파악으로 잘 건조된 목재의 공급을 유도한다.

□ 내용

우선적으로 보급이 쉬운 소규모 부재 공급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표준화된 주요구조부재(기둥, 보, 도리)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스타일 건축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곡선재(추녀, 우미량)의 공급이 검토되어야 하며, 전문가 인터뷰에 의하면 특히 5자짜리 퇴보(우미량)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부재사이즈를 표준화하여 단위별로 (보칸이 3, 4.5, 6m 단위등) 공급하는 시

스텝을 갖추고, 계획적으로 특대재를 생산하여 한스타일 건축 보급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모델지원 (대체 목재 사용)

□ 간벌재의 사용

※ 간벌목 한옥용 목재로 재탄생, 한국목재신문, 2011.11.4일자 기사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가 소나무 1131㎥(10트럭 113대 분량)을 한옥용 맞춤형 목재로 특별 생산, 한옥 건축업체에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목재는 산림 내 병해충 등 재해저감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산된 것으로 간벌재의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한옥용 목재로 공급하는 것. 공급되는 목재는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 피해 예방지역인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를 비롯한 3개 지역 52ha에서 생산된 목재들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측은 “한옥이 각광받음에 따라 한옥 건축용 목재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산 목재 공급량이 매우 적어 수입 목재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맞춤형 목재를 생산했다”며 “지금까지는 주로 곧은 나무 위주로 목재를 생산 공급해 왔으나 휘어진 나무를 사용하는 한옥용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목재의 휘어진 상태를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소는 금번 생산된 목재를 전자입찰을 통해 한옥 건축업체 및 사업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간벌재는 수입목의 절반 가격밖에 하지 않아 건축자재로 활용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간벌재는 지역마다 큰 제재소에 가면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강원도에 가면 국유림에서 나오는 간벌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간벌재를 사용할 경우 목재가격의 절감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8] 직접비 상세 - 재료비

재료	구조부재 자재비	지붕구조부재 자재비	직접재료비
더글러스퍼 집성목	50,410,800	21,812,491	72,223,291
간벌재	25,205,400	10,906,245	36,11,645
비율	70%	30%	100%

* 출처 : 국산재 이용 한옥표준모델 개발 연구를 토대로 재작성

재료비 비교는 산림청 한옥표준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비는 목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산정한 것이며, 목공사는 목구조 공사와 지붕공사를 포함한 것이다. 제시되는 산정표는 지붕을 제외한 구조목에 대해 구조용집성재(더글라스 퍼)를 사용한 경우와 간벌재를 활용한 경우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더글러스퍼를 사용하였을 경우 직접재료비가 7백여만원에 이르나 간벌재를 활용할 경우 거의 50% 수준으로 떨어진다.

간벌재는 곧지 않고 구부러진게 많아 집을 짓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토막토막 잘라 건축에 활용한 사례도 있다.

□ 간벌재 이용사례 1 - 한옥풍 주택

이 사례는 간벌재를 이용하여 지은 한옥분위기의 주택으로 25cm 길이로 자른 간벌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지런히 쌓고 사이사이에 진흙을 메워가는 방식으로 벽체를 구성하였다. 벽 두께가 25cm나 되어 일반 주택에 비해 보온성도 뛰어나고 훨씬 견고한 장점이 있으며, 벽을 쌓아가는 중간중간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방처럼 나무를 한 단씩 옆으로 길게 끼워서 구성하였다. 간벌재에 구조재로서 쓰인 것은 아니지만, 벽체에 활용하여 보온성 및 심미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구조재로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을 다음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9] 간벌재로 지은 한옥분위기의 황토집
출처 : 전원생활 2009년 2월호

□ 간벌재 이용사례 2 - 국립수목원

이 사례는 직경 15cm 이하의 간벌재만을 사용하여 통나무 2-3개를 묶어 기둥재로 사용한 것으로, 간벌재를 이용한 지붕구조 및 기둥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간벌재를 구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사례는 한옥의 형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한스타일 건축과 접목하여 좀 더 다양한 방식의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5-10] 간벌재를 사용한 건축물 - 국립수목원 목재체험관
출처 : 친환경매거진 <http://www.digitalorganic.net/>

□ 간벌재를 이용한 한스타일 공공건축 모델 개발 및 지원사업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스타일 보급을 위해서는 고가의 재료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재로는 잘 쓰지 않는 간벌재를 활용하여 건축비를 절감하면서도 건물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직 민간에서 간벌재를 도입하기에는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공사업에서 선도적으로 간벌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이용한 공공건축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능평가 및 부재가공방법, 구조계산, 모듈화 계획 등의 개별연구용역 발주가 필요하며, 연구가 완료되면 이를 적용하여 가능성을 검토할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급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공공건축물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한스타일 공공건축 사업시 개발모델 지원 및 산림청과의 연계를 통한 저렴한 간벌재 제공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추가 연구를 통하여 간벌재의 사용을 대규모 건물에도 확대가능하다.

3) 기술지원

□ 민간업체 기술개발 지원

이 시대에 맞는 현대 한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벽체, 창호, 바닥, 지붕, 토방의 요소별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한옥기술개발 R&D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옥 산업의 다양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기반인 민간업체의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업체의 경우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투자자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 자본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뷰에 의하면 시스템 목재 개발업체인 토방하우징의 경우 작업공간 마련과 설비투자비,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여 생산가능한 기계 제작비 등 엄청난 기술개발비를 충당하는 점이 어렵다고 한다. 전라남도에서는 한옥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자본을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업체에 요구하는 사항이 은행 담보 대출과 다르지 않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⁶⁶⁾ 따라서 민간업체 기술개발비의 지원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민간업체의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주체가 되어 한옥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작업공간마련비용, 설비투자비용, 기계제작비용 등을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최소 3백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표 5-19] 민간업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안)

구 분	내 용
주체	국토해양부
사업목적	한스타일 건축 산업기반 육성
사업대상	한옥 관련 기술개발 민간업체
지원 항목	작업공간마련, 설비투자비 지원, 기계제작비 지원
지원금액	유형별 최소 3백만원 ~ 1천만원
심사기준	기술개발계획의 창의성, 실효성 및 소요예산의 적합성

66) 토방하우징, 한진수 대표이사와의 인터뷰, 2011.9.26

3. 품질관리 방안

1) 사업진행과정의 전문성 강화

① 전담조직 설치 -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연계

앞에서 살펴본 바 비전문가인 공무원의 사업 기획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와 칸막이식 행정으로 인한 책임소재 회피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총괄관리 체제의 필요성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은 국가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건축에 대한 효율적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기획능력이 부족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전문가 지원 및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공공건축 관련 행정능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중앙부처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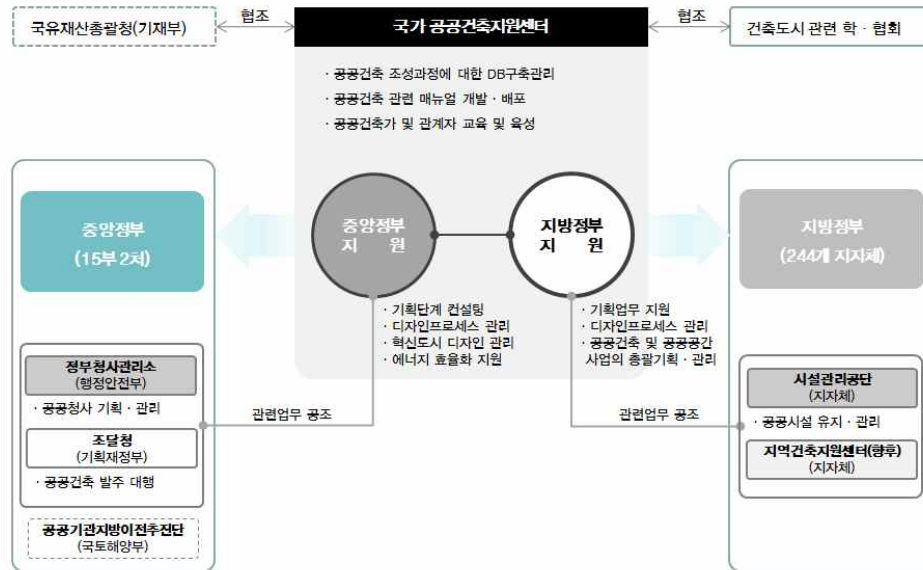
- 일반 공공건축 조성절차가 상이한 교육청 발주 교육시설 및 국방부 군사시설은 제외
- 지자체 국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직접발주 사업건수는 연간 50여건 내외

□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공공건축 사업

- 전담조직이 부재하거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발주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
-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보건소 등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사업을 우선지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역할은 크게 6가지로 공공건축가 육성 및 파견을 통한 기획업무 지원, 공공건축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공공건축 주요 심의과정에서의 건축부문 전문검토 지원,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대한 DB구축 및 관리,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에 대한 사후평가 시행·관리, 공공건축 관련 매뉴얼 개발 및 홍보 지원 업무로 구성된다.

조직구성(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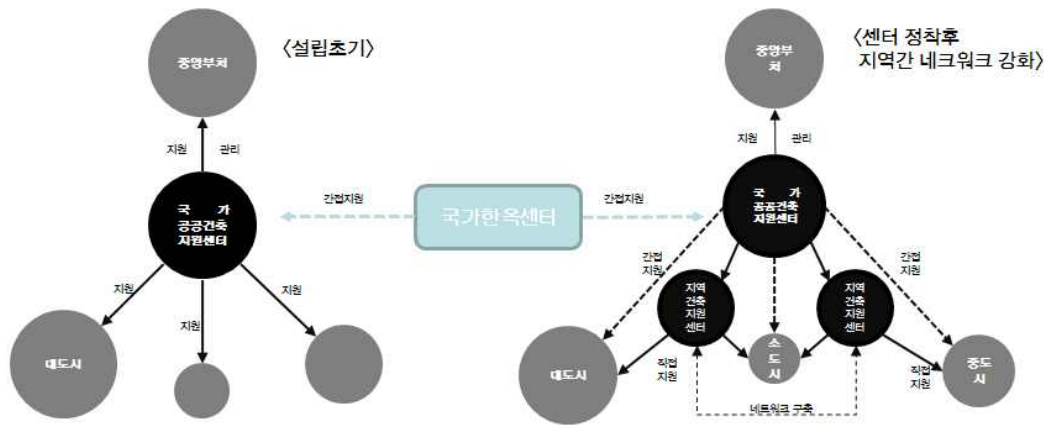


[그림 5-11]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구성(안) 예시

출처 : 공공건축지원센터 발제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부자료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재부와 건축도시관련 학·협회의 협조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각각 지원하게 되며, 중앙정부에는 기획단계 컨설팅, 디자인프로세스관리, 혁신도시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을, 지방정부에는 기획업무,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의 총괄기획 및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공공건축 지원센터에서는 모든 공공건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스타일 공공건축은 일반공공건축과 성격이 조금 상이하므로 내부에 한옥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옥에 대한 전문가풀 및 한옥의 특징에 맞춘 지원내용은 국가한옥센터의 협력하에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5-12] 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지원센터는 설립초기인 기반구축단계에서는 공공건축가 육성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우수지원사례를 만들고 센터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며, 지자체의 지원요청에 대한 부담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센터 정착후 지역간 네트워크 강화단계에서는 지역 대중도시 내 공공건축 전담기구 또는 부서를 두는 지자체가 확대된 후 공공건축가 교육 및 육성, 매뉴얼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한다.

□ 국가한옥센터 지원 내용

기획,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전 단계 지원업무 외에 국가한옥센터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20] 국가한옥센터 지원 내용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업무	국가한옥센터 지원 정보
지역현황 분석을 토대로 사업필요성 판단 및 자문 적정 입지선정, 시설용도계획, 시설규모 및 프로그램, 예산계획 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발주방식 결정에 대한 자문 및 설계용역 계약에 관한 지원 설계 및 시공 수행계획에 대한 자문 디자인 및 경관계획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자문	한옥건축전문가 풀제공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가이드라인 개정안 제공 한스타일 공공건축 우수사례 DB 한옥 표준품셈 및 표준설계안

② 한스타일 공공건축 설계지침서 내용 보완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은 한옥의 고유비례와 공간을 다룰 수 있는 건축가에 의해 계획되어야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 남악마루 및 수리채 계획시 일반건축가에 의해 설계가 진행되었으나, 한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한옥전문가를 초빙하여 재설계를 하였다. 이는 설계업체 지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지역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가 아닐 경우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스타일 건축 정착초기에는 설계지침서 내용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설계지침서 내용에 추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스타일 건축 설계지침서 추가 사항

- 정통한옥과 신한옥의 경우 한옥 건축 경험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며, 일반건축사 사무소가 참가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한옥 건축 경험이 있는 업체와 공동으로 응모하도록 한다.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통한옥형 또는 양식에 준하는 건축물의 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한다. _ 프로그램 명기 가능(교육시설, 체험시설, 문화시설 등)
-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응모시 가점(참여율 30% 이상 시 3점, 참여율 20% 이상시 1점)을 부여한다.
- 설계경기 당선자는 향후 설계용역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의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자격이상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업체 대표자는 당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한옥풍 건축의 경우는 일반건축사 사무소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한옥 고유의 비례는 단기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 경험을 갖춘 건축사가 설계단계에 참여하도록 하여 품질을 확보하며, 경험이 없는 건축사가 참여하고자 할 경우 경험자와 협력하여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단, 한옥풍 건축의 경우는 일반 건축사도 참여하여 창의적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2) 발주방식의 개선

현재 한스타일 공공발주 사업의 대부분이 발주자의도 반영과 행정관리가 용이한 적인 설계·시공 분리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설계·시공 분리방식은 초기 설계단계에서 시공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성과 유지관리 개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불충분한 설계도서로 인해 시공과정에서 잦은 변경이 발생한다. 한스타일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한옥 시공사가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선정된 시공사 역시 품질을 고려하는 시공을 하기보다는 단가를 맞추는데 급급한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시공품질이 저하되고 공정이 지연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 참여자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다. 또한 설계자의 시공사 선정권이 없기 때문에 설계의도 반영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로구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건축가가 한옥부분만 시공자를 섭외하여 품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고, 완도수목원 및 전남도지사 공관은 처음부터 문화재실적이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건축가가 제안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 통합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건물 규모에 따라 발주방식을 달리하여 적용하면 품질관리 및 사업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설계 및 시공의 일괄관리 - 총공사비 50억 이하

□ 사후설계관리제도 도입⁶⁷⁾

사후설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설계자가 시공단계까지 참여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유지·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설계와 시공의 연계 유도를 통한 건축디자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건축구역에는 설계자가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가 가능한 사후설계관리 업무가 도입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72조8항에 의해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가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사시공사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이후 해당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67)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0), p.109

※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업무 내용

- 모니터링 :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
-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발주 시 적용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사후설계관리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설계업무) ④제5조제1호다음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에 한해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후설계관리’제도를 통한 설계자의 시공단계 참여를 모든 공공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축법」 23조(건축물의 설계)에 사후설계관리 조항 ⑤항을 신설하고, 기존 동법 72조 특별건축구역의 사후설계관리 조항 ⑧항을 삭제하여 사후설계관리 도입을 지원한다.

*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 「건축법」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삭제)

사후설계관리업무는 건축사의 설계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기존의 건축설계도서를 검수하는 ‘설계감리’나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검수하는 ‘공사감리’와는 다른 업무이다.

[표 5-21] 기존 감리업무와 사후설계관리업무 비교

구분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후설계관리
근거법	「건축법」 및 「건축사법」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목적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감독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가 관계법령과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건축설계 완료 후 시공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수행주체	건축사, 감리전문회사	설계 등 용역업자	설계용역 수행 건축사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0), p.109

② CM 제도 도입 검토 - 총공사비 50억이상

발주방식으로서의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공감리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좀 더 좋은 품질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의 분리가 아닌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CM)는 발주자를 대신해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통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발주자가 본연의 업무인 행정역량 강화와 문화재 관리, 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대형 사업에는 CM을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4장에서 살펴봤듯이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의 경우도 CM제도를 통해 공무원, 설계자, 시공자 간의 의견 차를 조율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한 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한스타일 공공건축 진행시는 사후관리제도 보다는 CM제도의 도입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한옥기술개발 연구가 완료되어 BIM 시스템이 구축되면 CM 제도 적용시 사업의 품질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설프로젝트는 기획, 설계, 발주, 시공, 운영단계의 순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걸쳐 규모, 성격, 예산 등에 따라 업무수행기간과 업무범위가 정해진다. 단계별 건설사업 관리자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22] 건설사업관리 단계별 업무내용

기획단계	설계단계	발주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
용역업체 선정 및 사업조직 구성	제안요청서 작성	공사발주계획 수립	시공계획 수립 공정, 공사비 통합 관리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확인
건설사업관리 수행 계획 수립	계약조건 검토	입찰안내서, 계약서 작성	설계도서, 시공 상 세도 검토	시설물운영, 유지 관리업체 선정
사업 타당성 검토	설계자 선정	시공자 선정	시공확인 및 검증	시설물 인수인계 및 업무지원
	설계품질 및 공정관리	자재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품질, 안전, 환경 관리	사후 평가 및 최종 보고서 작성
발주방식 결정	공사비분석, 원가적 정성 검토	각종 인허가 및 대 민업무	공정관리 및 분쟁조 정	
	설계 VE		기성, 준공검사	

단계별 공통업무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절차서 작성, 운영, 사업단계별 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관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 각종보고, 인허가 및 대민업무,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응 업무 협조 등이다.

* 출처 : 이석범(2011), 「문화재수리복원사업 관리 개선방안 - 건설사업관리적용을 중심으로」, p.47

건설사업관리의 발주방식은 계약방식에 따라 CM for fee 또는 Agency CM(용역형 CM)과 CM at Risk(시공책임/위험부담형 CM)으로 구분된다.

- CM for fee 또는 Agency CM(용역형 CM)
 - Construction manager는 설계 및 시공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건설사업수행에 관한 발주자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만을 함
- CM at Risk(시공책임/위험부담형 CM)
 - 발주자와 합의된 계약 조건 하에서 Construction manager가 시공자 역할까지 하면서 그에 따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표 5-23] CM 방식의 관리요소별 비교

구 분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용역비
용역형	단축	증액	높음	낮음
시공책임형	단축	절감	낮음	높음

출처 : CM협회

[표 5-27]과 같이 시공책임형이 원가관리면에서는 용역형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품질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Risk가 원가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용역형이 책임형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스타일 건축사업의 경우는 한스타일 고유의 가치를 살리는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한스타일 건축 시장이 미약하여, 시공자가 CM을 담당할 수 있는 업체 육성이 되지 않았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한스타일 공공건축물물의 품질관리상의 문제는 자문의견반영이나 각 주체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타나났기에 시공책임형보다는 용역형이 더 적합하게 보인다. 앞으로 한스타일 건축산업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형별·규모별로 적합한 CM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유지관리비 책정 합리화

공공건축 사업 기획시 운영비 및 시설관리비는 초기 투자 이후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투입되는 비용으로, 보통 운영비용은 수당을 포함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시설물관리 등을 포함한다. 특히 시설물관리 비용을 포함하는 관서운영비⁶⁸⁾는 시설규모에 대하여 비례적용하고 있으나, 한옥의 특성상 일반건축에 비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비 항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인터뷰결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유지보수공사로 목재 칠공사이며, 그 외 기와나 창호지의 보수도 필요한 부분이다.

68)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택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표 5-24] 한옥 유지관리 비용

유지관리 공사	주기	사례	연면적(㎡)	비용	비고
칠공사	1년주기	남악마루 수리채 어진누리	264 990 419	1회 5천만원정도	행복마을 등록업체를 통해 비용을 낮춤
			합 1673		
		영산재	3231	1회 6~7천만원	
		현암정사	322	오일처리 1회 2천2백만원	
				방부처리 1회 3천만원	
기와 교체	수시	남악마루	264	-	좋은 제품을 구하기 어렵고 파손시 대체품을 구하기 어려움
창호지 교체	수시	영산재	3231	목재 문짝 1350개 창호지 교체비 1000만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중 칠공사는 1년주기로 해주는 것이 목재의 오염과 부식을 막는 방안이며, 비교적 큰 비용이 주기적으로 나가게 되는 부분으로 시설비 예산 책정시 꼭 반영해야할 항목이라 할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1회 칠공사비용이 사례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유지관리비 표준단가 도출이 필요하다.

기와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태풍에 의한 파손시 교체가 필요하며, 파손시 대체품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공사시에 여유분을 확보해두는 것이 편리하며, 장기적으로 기와 자재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창호지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축의 특성상 파손될 확률이 높아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한다. 한옥호텔 영산재의 경우 목재문만 1350개로 교체비가 천여만원에 이른다. 유지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다.

4. 법제도 개선

1) 한스타일 건축 표준품셈 개발

정부, 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자재비·노무비·장비비·가설비·일반경비 등 1천4백30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이때 적용되는 정부고시가격이 바로 「표준품셈」으로 발주시관은 이에 따라 낙찰예정가를 결정하고 건설업체도 이를 기준으로 나름대로 적절한 응찰가를 산출해 낸다. 그러나 이는 일반건축에 한하여 제공되는 표준품셈이며, 문화재의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문화재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지는 현대화된 한옥 건축의 경우 건축 영역이 불명확하고 적용가능한 표준품셈의 부재로 사업비 추정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한스타일 공공건축 발주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대략적인 사업비를 계산하는 실정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쌓인 경험을 토대로 조달청에는 건적 근거데이터가 없지만 발주처에서 건물 유형에 따라 예산을 달리하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설비디자인과 관련하여 가격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존자료나 데이터의 부재로 검증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 문화재표준품셈 2011년도 개정안 - 기계장비 이용 품셈 추가

4-19 기동치목(기계장비)

4-19-1 원기둥(8각제재목 사용, 기계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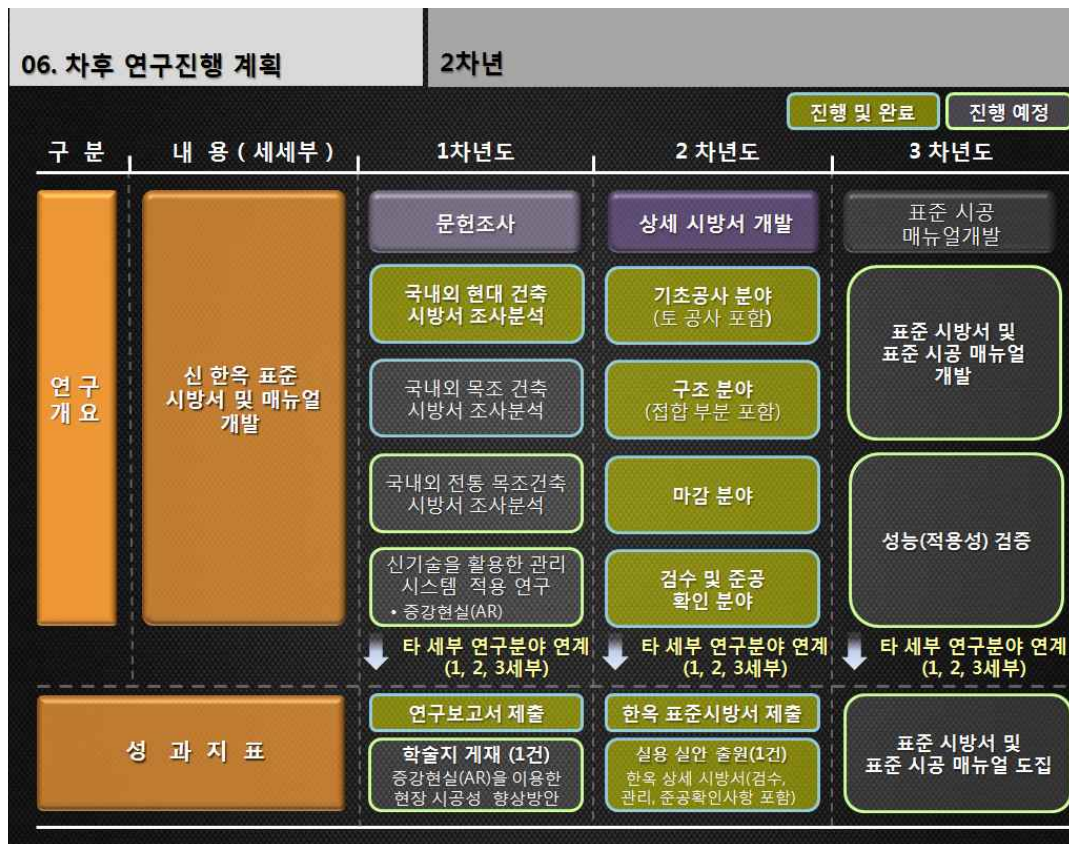
(m3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목 공		인	1.61	
한 식 목 공 조 공		인	0.97	
보 통 인 부		인	0.81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5%	식	1	

[주] ① 본 품은 8각제재목(製材木)을 사용하여 치목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치목하고, 마무리는 연장을 사용할 때의 품이다.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도 2004년부터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1개 공종 122개 항목'을 '18개 공종 209개 항목'으로 확대·개정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목공사에 대해 기계품과 인력품으로 구분, 목재의 사용기준, 수량산출기준, 편수제도, 기계장비 운반 등의 기준을 마련해 수리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수리기법이 상생할 수 있도록 품셈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경우 문화재의 보수 및 복원공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한스타일 건축중 정통한옥 및 일부 신한옥의 범주까지는 적용이 가능하나 새로운 공법이 적용된 신한옥 및 한옥풍 건축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기존자료를 토대로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분류작업과 새로운 공종 및 기술을 반영한 품셈 마련이 시급하다. 표준품셈 산출을 위해서는 표준시방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한옥기술개발 연구사업에서 표준시방서 개발 연구가 완료되면 표준품셈 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림 5-13] 한옥 표준시방서 연구진행계획도

출처 : 한옥기술개발 3차워크샵 자료

현재 한옥기술개발에서 진행중인 표준시방서 개발 연구는 국내외 현대건축·목조건축·목조건축 조사분석, 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 적용 연구 등의 문헌조사 분석과 타 세부 연구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표준시방서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표준품셈 개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표준작업의 능률, 방식, 난이도, 표준작업시간에 구성 등이며, 개발의 기준은 타분야 품셈과의 비교를 통해 할증요소를 선정하여 작업 품셈의 합리화와 체계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 5-25] 표준품셈 개발시 고려해야 할 사항

표준품셈 제작	품셈개발의 기준설정
표준작업 능률 표준작업 방식 작업의 난이도 표준 작업시간의 구성 작업시간 연구	품셈의 비교 품셈의 기준과 할증요소 선정 작업 품셈의 합리화 사업종의 체계화

2) 방화지구내 내화구조 완화기준 마련

□ 한옥의 내화구조 가능성

목재는 제품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방화실험 후 인증하거나, 내화구조 인증을 받은 목재(집성목)를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현장인증시, 목재 탄화층(4센티) 제외한 단면만을 구조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의장적으로 부재 사이즈가 과다하게 커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광주시내 방화지구내 사찰 계획시 건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통과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한스타일 건축 유형별 기준

정통한옥은 원목을 쓰므로 원목 현장인증이 필요하지만, 단층한옥의 경우 개구부가 많으므로 대피에 어려움이 없다. 신한옥 및 한옥풍 건축의 경우 원목, 집성목, 합성목, 철근콘크리트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므로, 재료 및 규모에 따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현행법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설부장관이 정하며, 건축법 제35조에 의해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① 방화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면적이 30㎡ 미만의 단층부속건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 중앙도매시장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 높이 2m 이상의 문 또는 장책(牆柵)이 불연재료인 것, ㉣ 높이 2m 미만의 문 또는 담, ② 방화지구 내에 있는 간판·광고탑·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m 이상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 개선안

정통한옥의 경우 방화지구내 한옥건축시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완화해줄 수 있으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신한옥 및 한옥풍 건축은 일정 면적별 방화계획을 세워 설계하도록 기존의 제도를 따르도록 한다.

3) 대규모 한옥건물 건축시 건축선 조항 검토

□ 면적 산정법 : 현행법

현행법에서 한옥에서 처마길이의 특례가 반영되어 일반건축물의 처마길이가 1m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부분은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 포함되지만, 한옥의 경우 처마가 2m를 초과할 때 실제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건축면적에 포함됨으로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해 줌으로서 한옥지붕의 유형적 특징을 보호해주기 위해 건축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사찰의 경우 사찰보존법에 의해 4m 까지 완화되어 고유의 비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한스타일 공공건축 적용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주택으로서의 한옥은 2m이하의 범위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나, 부피가 커지는 공공건축물은 처마길이가 2m 이상 길어져야 기존 한옥의 비례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존 제도 적용시 비례가 이상한 건물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 자문에 의하면 한스타일 공공 건축물의 경우 고층화되고 건물부피가 커질 가능성이 많아 고유 비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마길이가 3M 정도 필요하며,⁶⁹⁾ 처마가 짧을 경우 비바람에 의한 목재의 손상으로 인해 관리가 어려우며, 관리비가 증감하는 결과 초래할 우려가 있다.⁷⁰⁾



[그림 5-14] 남악신도시 비즈니스센터 - 어색한 건물비례 및 목재손상

따라서, 처마를 길게 하여 미적으로도 아름답게 하며, 목재의 손상 최소화할 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건축시 면적산정 완화 기준 마련 필요하다.

69) 삼진건축사사무소 이봉수소장 자문회의, 2011. 9. 26

70) 남악신도시 공관 및 비즈니스센터 관리, 전라남도청 시설과, 심동섭 주무관 자문, 2011, 7.31

□ 개선방안

- 1안 - 사찰 기준에 맞추어 4M까지 완화

사찰의 경우 주거용 한옥에 비하여 규모가 크므로, 공공건축 기준에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

- 2안 - 한스타일 공공건축 건축심의 위원회를 통한 기준 완화제도 마련

아직 한스타일 공공건축이 충분히 자리잡지 않았고 그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상태에서 법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M 이상의 처마길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한해 완화하도록 조치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기준을 완화한다.

향후 한스타일 건축 유형 및 규모별 비례 기준 연구를 발주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4)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축진을 위한 법률제정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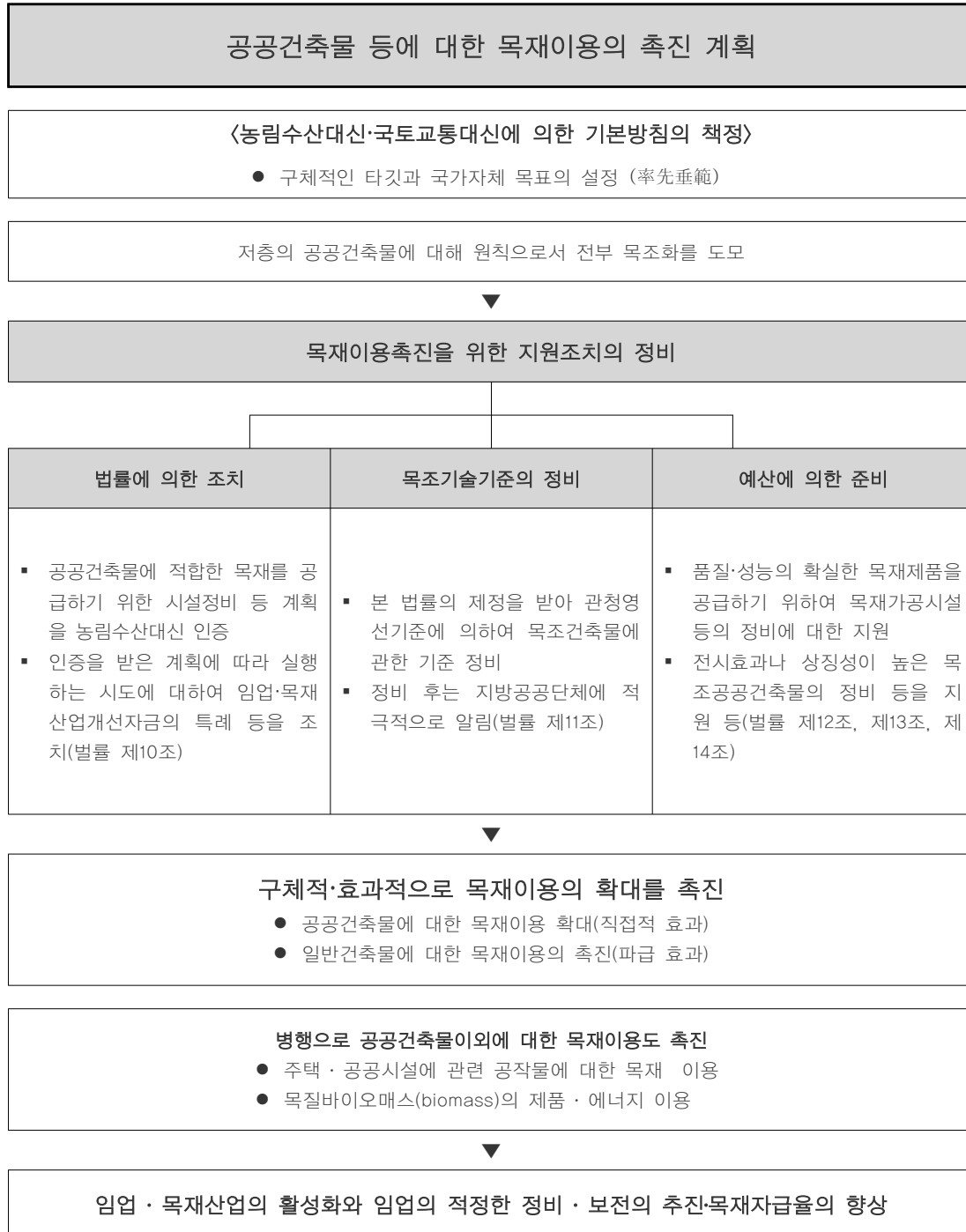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한옥건축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옥 공간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으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에 머물고 있다. 또한,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며 정부의 각 부처가 협력하여 한국 고유문화를 브랜드화 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으나, 실제로 각 부처의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건축의 경우 각 부처마다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어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진흥을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 진행 비용뿐만 아니라 연구 및 기술 지원, 한옥 산업화를 위한 업체 지원, 추후 유지관리 비용까지 총체적으로 장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과 농림수산부가 협력하여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우고 목재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중이며 공공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반건축물의 목재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일시적 예산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참고할 만한 우수사례라 할 수 있다.

※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일본_국토교통성)

- 제174회 통상 국회에서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헤세이 22년 법률 제 36호)이 성립하여 5월 26일에 공포되어 10월 1일에 시행
- 국토교통성과 농림수산부의 협조체제 하에 저층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목조로 건축하도록 법률 제정
- 법률제정 배경
 - 임업재생 도모 필요성: 삼림정비 미비(목재가격 하락 등 원인), 국토 보전 등 삼림의 다면적 기능 저하
 - 공공건축물 목표로 목재이용 보급: 목조율 낮음, 파급효과 높음
- 목조기술 기준을 정비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하되 중앙정부의 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정함
- 민간에서 국가연구기관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표 5-26]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목재이용의 촉진계획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



이 법률은 공공건축물의 정비 용도로 제공하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 및 확보를 위한 조치로 입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삼림의 적절한 정비 및 목재의 자급을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 법률에서 목표로하는 목재 제조의 고도화는 공공건축물 정비를 위한 목재의 제조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의 정비, 고도의 지식 및 기술을 가지는 인재의 확보, 그 외의 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목재의 공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기본방침을 토대로 각 지자체별로 적절하게 방침을 정하여 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목재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 및 개인은 목재제조 고도화 계획을 제출한 후 심사를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정비하는 공공건축물 가운데 저층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 목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고층의 경우는 내장재나 난아 기구 등에서 목질 바이오매스 연료 도입 등을 도모하고 있다.

목재제조고도화 계획에는 목재제조 고도화의 목표, 내용 및 실시기간,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위치, 배치 및 구조,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용자로 대출하여 주며, 혹은 국유시험연구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목재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련부처가 협의하에 법령을 제정하여 예산 및 기술, 시설이용 지원 등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초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하였던 예산, 기술, 제도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촉진을 위한 법령제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공공건축물에서 민간건축물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 소결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지원 및 관리방안은 크게 촉진방안, 지원방안, 품질관리방안,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방안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후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들만을 추출했으며, 이에 대한 개괄적인 실천로드맵까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촉진방안은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이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준설계도서를 보급하여 이를 촉진시키며 각종 교육기회와 포상기회를 만들어 한옥문화를 장려하는 방안이다.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선 주민생활 지원시설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보급되고 있는 우체국, 파출소, 주민센터 등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형 한옥정자는 계획·시공으로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옥의 장점을 체험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으며, 한옥 시공실습 교육매뉴얼을 통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한스타일 체험시설은 이미 몇몇 곳에서 효용이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는 공공건축물은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사, 전화국사, 학교 등으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공건축물이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정에 한스타일 건축기획과정을 추가하여 건축담당 공무원의 한옥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기적인 한옥포럼 및 포상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것도 필요한 사안이다.

지원방안은 크게 예산지원, 자재지원, 기술지원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예산지원 부분은 가장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이지만 투입할 수 있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는 특히 2012년 국토해양부의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액을 산정하는 공식을 도출했다. 부족한 예산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연계가능한 프로그램의 복합화를 통해 여러 부처의 예산을 받는 방법과 한 가지 프로그램이지만 여러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산재 이용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한옥 공공건축물에 국산 목재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특히, 간벌재 등 지금까지 한옥 건축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목재를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점도 주목해볼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한옥기술

개발 사업의 성과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한옥 공공건축물을 신기술 개발의 테스트베드로 이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

품질관리방안은 한옥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보장하고 사회적 모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운영방안이 된다. 사업진행과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한옥에 맞게 보완하며, 시공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본적인 체계정비뿐만 아니라 발주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또 한옥의 특성상 일반건축에 비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비 항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도 제시하였다.

법제도 개선부분은 한옥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며, 장기적으로 한옥 공공건축물을 장려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는 부분이다.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안은 한스타일 건축의 표준품셈 개발이다. 현재 한옥기술개발에서 진행 중인 표준시방서 개발 연구는 국내외 현대건축·목조건축·목조건축 조사분석, 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 적용 연구 등의 문헌조사 분석과 타세부 연구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표준시방서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표준품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이밖에 방화지구내 내화구조 기준이라든지 대규모 한옥건물 신축시 건축선 조항 등이 한옥 건축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을 원칙적으로 목조로 건축하는 것을 법령화한 일본의 사례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건축물에 한옥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일도 중요하다.

제6장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 및 체계
2.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3.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

1) 한스타일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의 목표 및 종류

① 한스타일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의 목표

- 한옥 특유의 건축적, 공간적 요소의 현대화 방향에 대한 공통의 이해기반 마련⁷¹⁾.
- 한스타일 건축의 최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디자인 지침 마련.
-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한옥 품질관리 지침 제공.

71) 추후 지자체별 법령과 조례 등에서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② 한스타일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의 종류

□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한옥공간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품격과 최소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침이다. 따라서, 한옥의 범주 내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구현되는 신한옥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하고, 한실과 한식경관의 조성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대건축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한옥풍 건축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한스타일 공공건축 설계 공모를 위한 설계지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설계사 선정 이후 기본설계 진행시 자문회의 안건으로도 활용됨을 전제로 마련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한옥스러움’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과 안건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스타일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유도한다는 데 그 활용 가치가 있다. 한편, 시설 프로그램과 관련한 구체적이고도, 정량적인 내용은 별도의 사업별 혹은 시설별 상세 설계지침에서 다루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표 6-1]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활용

가이드라인의 종류	사업단계	활용주체	비고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계공모~기본설계	설계심사위원/ 자문위원	감독관의 확인필요

□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은 전통 구법에 준하여 신축되거나 개,보수된 한스타일 건축물의 완성도와 품질상태를 검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침이다.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신한옥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통한옥과, 한실, 한식경관의 조성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은 활용 시기에 따라 준공 가이드라인과 관리 가이드라인의 두 가지로 구분 이는 각 시기별로 활용 주체와 적용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준공 가이드라인**은 한옥 시공중 주요 공정이 끝날 때마다 책임 감리자 혹은 감독관이 주체가 되어 시공 완성도를 검사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⁷²⁾. 단, 건축직 감독관의 자격은 (한옥)건축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혹은 지자체 한옥 전담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은 자로 제한하는 것을 권장한다.

관리 가이드라인은 준공 이후에 감독관이 주체가 되어 한옥의 품질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한옥 자체의 물리적인 변화와 노후화를 확인하는 지표로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이후 사용자들의 이용에 생겨나는 변화들 및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평가 및 확인의 주체가 되는 건축직 감독관의 자격에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

[표 6-2]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의 활용

가이드라인의 종류		사업단계	활용주체	비고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준공	착공~준공	감독관 or 시공감리	-
	관리	준공 이후 1년 주기	감독관	-

7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2조 제 3항>

2) 기존 공공건축 및 한옥관련 가이드라인 사례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체계를 세우기에 앞서, 기존의 한옥 관련 디자인 가이드라인 두 개[항목 ①]와,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한 개 [항목 ②], 그리고 한옥 시공(기술) 기준 관련 자료 중 대표적인 네 가지[항목 ③]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① 기존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

□ ‘한옥공간’ 디자인의 고려요소⁷³⁾, 2008

2008년도 문화관광부에 의해 수행된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중 3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한옥공간’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현대 건축물에 적용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단위로서의 한옥공간의 디자인 전략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한옥공간을 (본 연구서 2장의 한스타일 건축의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문화재한옥’과 ‘정통한옥’에 뿌리를 두고 표출되는 내외부의 공간 및 조형 요소라 정의하고, 한옥의 격식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 단위로서의 디자인 요소를 다음의 [표 6-3]에 서와 같이 여덟 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6-3] 한옥공간 디자인의 고려요소

기거방식(입식/좌식)	창호 ⁷⁴⁾ , 입면구성	전기 및 냉,난방설비	스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의 성격에 맞는 기거방식 결정. 천장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창호와 전통 창호 입면요소 기와지붕의 재료,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비시설 매입방법, 설비시설 노출 시 의장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칸(약 2.4m)단위의 공간 스케일 중층 계획시 비례
재료 : 질감, 색채	가구, 소품	내/외부연계:마당,마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목재 구조부 목구조 의장요소 내,외장 자연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 불박이장, 전통가구 (오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당을 중심으로 한 공간 조직방식 마당-마루-방-부엌 기단부의 높이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공간의 일상 영역으로의 확산지향

73) 문화체육관광부·한국건축역사협회(2008),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p.69~77.

제시된 한옥공간 디자인 고려요소는 시범계획안을 통해 현대 건축물에서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 대상이 주로 ‘한실’에 국한된 관계로,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과 관련하여 완결된 건축물로서의 한옥이 가지는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 한옥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기초자료⁷⁵⁾, 2008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에 의해 수행된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중 제 3편인 「한옥마을 조성방안 연구」 내용 중 일부로서, 한국 전통마을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마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류하여 전통마을 설계 공모 시 기본 설계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과 환경의 생태학적 관계를 중시한 한국 전통마을의 개념을 반영하고, 인문, 사회적 환경으로서, 프로그램적 요소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물리적인 건축물 계획에 있어서도 한옥 자체의 조형요소 이외에 마을과 주호의 영역을 구분하는 공간 요소들 및 지역적 주호의 특성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한옥공간’ 디자인 고려요소와 비교할 때, 한옥의 요소별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붕 구조, 기둥 및 창고, 기단 등 한옥이 가지는 요소디자인에 대한 수용 혹은 현대적 해석’⁷⁶⁾이라고 간단히 언급한 반면, 한옥의 집합적 경관처리 및 주변 환경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기준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이 ‘한옥 마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일반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한옥을 주변 환경과 함께 어우러지는 총체적인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연구이다.

74) 창호를 도입할 때 기존의 창틀 형태에 전통창호의 요소만 가지고 올 것인지, 문선, 문지방, 문상방, 머림 등의 창호의 설치 및 입면과 관련된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한옥 요소를 입면에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기와지붕이나 회벽마감의 사용, 목조부재나 전통 창호를 외벽에 덧붙이거나 아예 목조로 입면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Ibid., p.72.)

75) 국토해양부(2008), 「한옥마을 조성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pp.47-63.

76) Ibid., p.56.

[표 6-4] 한옥시범마을 계획요소 분류

분류		계획요소
공간적 요소	토지의 효율적이용	자연지형 활용 및 지형의 조정 (지형순응배치)
		기후조절을 위한 공간구성 (일조,조망,배치)
		오픈스페이스의 최대화
	친환경적 공간구성	자연토양의 보전, 인공지반 조성,
		우수의 침투유도,
		생태적 식재, 바이오톱 조성 및 연계,
		친수공간 조성, 건물녹화
커뮤니티 공간조성	공공마당조성, 주호들의 블록화	
	주호들의 커뮤니티공간	
조형적 요소	한옥의 조형적가치와 이념의 구현	한옥의 조형적 가치에 대한 현대적해석
		한옥의 재료, 물성이 가지는 이념의 구현
	조형적 형태계획	공간구성요소로서의 조형적이미지 (담장, 대문)
		공동체요소로서 조형적이미지 (장승,숫대,정자,원두막등)
	지역적 주호의 특성	지역의 색채표현
		지역적 이미지 표현 (지역전통주거채택)
		주동의 이미지 표현 (지형&스카이라인)
		주호공간의 전통성 표현 (지역재료, 문양)
라이프스타일 고려		
프로그램 요소	주민 커뮤니티구축	교육적 커뮤니티, 문화적 커뮤니티,
		복지를 위한 커뮤니티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에너지 순환 원칙
		공동생산시설
	주민참여 시스템	노동에 의한 협동
		문화와 주민들의 화합에 의한 협동

* 출처: 국토해양부 (2008), p.48.

② 기존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건축 유형별 디자인 품질지표(안)⁷⁷⁾, 2010

다음의 [표 6-4]는 2009년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2년에 걸쳐 건축공간도시연

77) 김상호·엄운진(2010), 「공공건축의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25~149.

구소 AURI 에서 수행된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연구」의 결과물 중 일부로서, 서울시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과 서울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사항, 국내 공공건축 현시설계지침,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 영국 CABE의 디자인 리뷰 *design review* 검토사항과 국내외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지표를 검토하고 국내 연구진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도출된 디자인 품질지표이다.

[표 6-5]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지표(안)

분야	세부항목	검토사항
공익성	지역사회의 공헌도	장애인과 노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접근계획, 공공건축물의 기능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계획, 교통수단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등
	접근의 편의	공공건축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
	건축디자인 선도	지역주민의 휴식과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계획, 지역사회 생활환경 증진을 위한 계획
디자인	주변환경과의 조화	지형조사와 주변지역시설의 사전조사를 통한 순응적 배치, 지역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친환경성	에너지 절약, 자연환경을 이용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건물의 유지관리 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건축물의 형태 및 재질	건축물의 최상부 디자인과 옥외부착물, 주변과의 조화를 강조한 형태와 재질의 사용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사용성	합리적 공간이용	기능에 따른 공간 배치와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가변성과 확장성, 공간의 적정규모 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각종 재해에 대한 대책마련,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소음과 채광, 환기에 대한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효율적 동선체계	공간 내 원활한 흐름을 동선계획과 이용자 안전성 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 출처: 김상호·엄운진(2010), p.48.

기존의 권위 있는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지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완하여 공공건축물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지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각각의 항목들이 한옥과 관련된 내용으로 변환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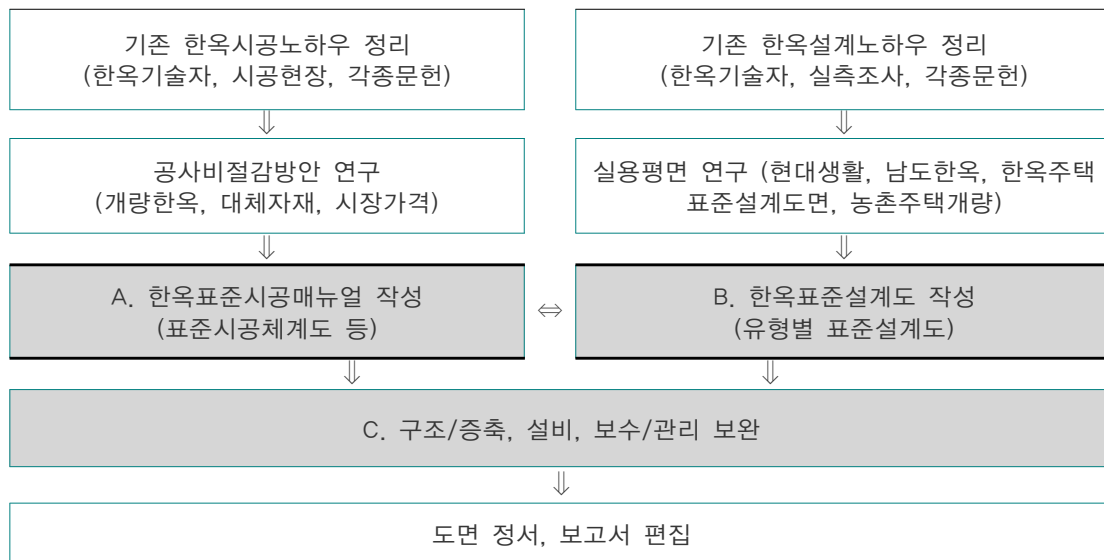
③ 기존 한옥 시공(기술) 기준

□ 전라남도 한옥 시공매뉴얼⁷⁸⁾, 2006

전라남도 고유의 살림집 전통 한옥을 현대인의 새로운 주거생활 양식에 맞는 실용적인 설계안으로 발전시켜 한옥의 대중적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만든 매뉴얼로서, 표준 설계안, 시공매뉴얼과 함께 유지관리 매뉴얼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체 내용구성은 제1권 표준시공매뉴얼과 제2권 표준설계도, 제3권 유지/관리/보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기존 한옥 기술자와의 인터뷰, 문헌내용 연구,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표준 시공매뉴얼은 10개의 주요 공정에 따라 구성된 반면, 유지/관리/보수 매뉴얼은 주요 목구조체 (목공사) → 지붕(지붕공사) → 벽, 방(미장공사) → 창호(창호공사) → 마루, 계단, 난간(수장공사) → 기단(석공사) → 굴뚝, 아궁이, 구들(구들공사) → 철물(철물공사) → 담장(담장공사)의 순서로 9개 공종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건물 안에서 밖으로 공정별 대상의 위치에 따라 항목이 나열된 이유는 시공 중에는 매뉴얼 적용이 공정을 따르는 반면, 준공 이후에는 검사자의 동선에 따라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6] 전라남도 한옥시공 매뉴얼 연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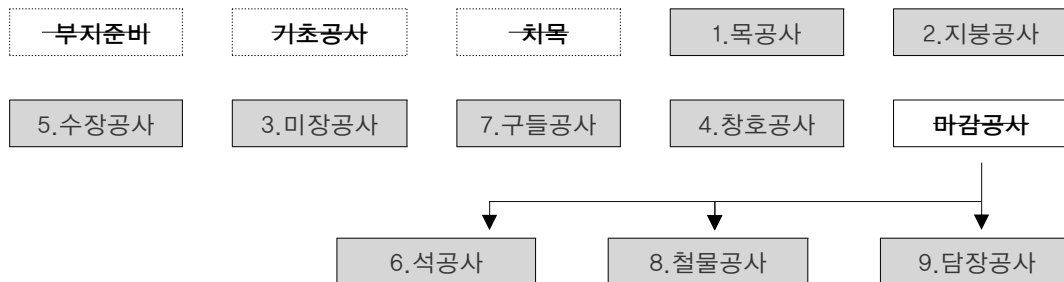


* 출처 : 전라남도 (2006), 「한옥 시공 매뉴얼」, v.1

78) 전라남도(2006), 「한옥 시공 매뉴얼」, 전라남도.



[그림 6-1] 한옥 표준시공 work flow
※ 이미지 출처 : 전라남도 (2006), 「한옥 시공 매뉴얼」 v.1.



[그림 6-2] 전라남도 한옥시공매뉴얼 'v3.한옥 유지/관리/보수 매뉴얼' 항목

□ 금성건축 공종별 시공감리 체크리스트⁷⁹⁾

금성건축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한옥 시공감리 체크리스트로서 7개 공종에 따라 항목을 대분류 하였으며, 공종 내에서 공정에 따라 상세히 분류 하였다. 검측 항목별 검사 기준은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 내용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목공사와 석공사의 경우 시공 이전의 부재상태 및 1차 가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였다. 이는 시공 직전에 재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결과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79) 금성건축, (2011), 부록 참고

[표 6-8] 금성건축 시공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분류기준

공종	세부공종	문항수
석 공 사	부재 및 부재마감상태 확인	4
	설치상태 확인	5
목 공 사	부재 및 치목상태 확인	9
	기둥부분	9
	공포부분	9
	연목, 추녀, 평고대부분	12
	개판, 합각 박공부분	7
	창호부분	5
지 붕 공 사	적심 및 강회다짐 시공 상태 확인	6
	지붕기와 잇기 시공 상태 확인	5
미 장 공 사	작업준비 및 재료검사	4
단 청 공 사	미장공사 시공 상태 확인	4
	단청 시공 상태 확인	5
전 돌 깔 기	자재 및 시공 상태 확인	7

□ 신한옥 기술기준(안) ⁸⁰⁾, 2009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 과제 중 하나인 ‘신한옥 성능기준’에서 제시한 기술 기준으로서, 신한옥 기술기준의 제정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본구성과 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향후 R&D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내용은 크게 일반사항, 건물의 구축, 건물의 성능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분화된 하위 항목별로 기술기준 현황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서술하였다.

먼저, 일반사항과 관련하여, 재료 및 목재의 이음과 맞춤법에 대한 기술 기준에 대한 연구를 조사한 후 향후 R&D과제를 도출하였다.

건물의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표 [6-8]에서와 같이 한옥의 구축 단위별로 기술 기준 및 R&D 과제를 서술하고 있다.

80) 국토해양부(2009), 신한옥 성능기준,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 1」, 국토해양부.

[표 6-9] 한옥의 구축 단위와 단위별 항목

기술단위	기초	주요구조부	지붕가구	지붕마감	벽	천장	바닥	창호
세부 항목	지정 기초 기단	기둥 도리 보	서까래 추녀	기와 흙재	벽	천장	마루 온돌	창호

마지막으로, 건물의 성능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한옥의 현대화 차원에서 성능개선을 필요로 하는 기술 단위별 기술기준과 R&D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6-10] 성능개선을 필요로 하는 한옥의 기술단위와 단위별 항목

기술단위	방내화	단열	내구성	차음	설비
세부 항목	내화성능자재 방화설계기준	단열재 단열공법	방부/방충처리 내구성향상공법	바닥, 벽재의 차음성능기술	전기설비 기계설비

□ 한옥건축 시범사례집⁸¹⁾, 2009

한옥건축 시범사례집 역시,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의 과제 중 하나인 ‘한옥 건축 아카이브의 체계’ 연구의 결과물로서 공정별로 시공법과 관련법규, 시방서, 내역, 시공시 주의점을 상술하였다. 86개의 개별 공정에 대한 실제 시공사진을 수집한 후, 24개의 공정으로 분류 및 정렬하고, 기술별로, 자재별로, 공사별로도 구분하여, 시공과정 전체에 대한 아카이브 체계를 구축하였다. 24개의 공정은 다음의 [표 6-10]과 같다.

[표 6-11] 한옥의 주요 공정

가설공사	기초공사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수장공사
▼					
온돌공사	마루공사	천정공사	벽체공사	내장공사	창호공사
▼					
도배공사	단청공사	담장공사	석공사	벽돌공사	포장공사
▼					
조경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준공

81) 국토해양부(2009), '한옥건축 아카이브의 체계',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 2」, 국토해양부.

3) 기존 공공건축 및 한옥관련 가이드라인 분석

①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항목 분석

한옥 및 공공건축의 디자인에 관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옥마을 계획요소 분류’의 구성이 가장 포괄적으로 한옥건축물의 내·외부 공간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한옥마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항목의 가감이 필요하며, 한옥공간의 디자인 고려요소 분류 및 요소별 디자인 전략을 잘 제공하고 있는 ‘한옥공간 디자인 고려요소’의 항목과 비교 검토할 수 있다. 또 체계적인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으로서 ‘공공건축 디자인품질지표’는 공익성과 사용성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 있어서 시사점이 있다.

[표 6-12] 기존 한옥/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비교 및 분석

분류		A, 한옥공간 디자인요소 (2008)	B, 한옥마을 계획요소 분류 (2008)	C, 공공건축 디자인품질지표(안) (2010)
항목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거방식, · 창호/입면 · 스케일 · 재료: 질감, 색채 · 가구/소품 · 내/외부 공간연계 · 전기/기계설비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토지이용, - 친환경 공간, - 커뮤니티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공헌도 - 접근의 편의, - 건축디자인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의 조형가치 - 마을의 조형적 이미지 - 지역별 주호의 조형 특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환경과의 조화 - 생애주기 고려한 친환경성 - 건축물의 형태,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커뮤니티, -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 주민참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공간이용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 효율적 동선체계
시사점	장	'한옥 공간'의 디자인 고려요소 분류 및 요소별 디자인 전략 제공.	한옥의 집합경관 및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가이드라인 제공.	기존의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체계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공.
	단	완결된 건축물로서 한옥이 가지는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 결여.	다양한 입지적 조건을 지니는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일반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일반 건축물 지침이라 할 한옥만의 공간특성과 관련한 설계 지침이 없음.

②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의 항목 분석

앞에서 살펴본 시공(기술)기준 사례들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시공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한옥건축 시범 사례집(D)이 가장 우수한 분류 체계를 지니며, 유지/관리/보수 방법과 관련해서는 품질 상태 점검부터 보수방법까지 매뉴얼화 한 전라남도 한옥 시공 매뉴얼(A)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 그러나 두 매뉴얼 모두 한옥의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공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항목은 갖고 있지 않으며, 신한옥 기술기준(안) (C)에서만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성건축 시공감리 체크리스트(B)는, 설계자이자 감리장의 입장에서 작성된 만큼, 설계안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주의하여 감리해야 할 항목들이 공종별로 정리되어 있다.

[표 6-13] 기존 한옥 시공(기술)기준 비교표

기술 기준	A. 전라남도 한옥 시공매뉴얼 (2006)	B. 금성건축 시공감리 체크리스트 (2011)	C. 신한옥 기술기준 (안) (2009)	D. 한옥건축 시범 사례집 (2009)
내용	표준시공지침, 유지/관리/보수 지침 표준설계안	시공 감리시 검사 항목	신한옥 기술기준 현황, 추후 R&D 과제	한옥 시공 세부공정 체계
항목 구성	10개 주요공정	6개 주요공종	· 재료와 구법 · 건물의 구축단위 · 한옥 성능 향상기술	24개 공정 (16개 공정)
시사 점	단계별, 시기별 매뉴얼 마련	공종별 감리 주안점	한옥의 성능향상 방안과 관련한 안건 마련	한옥 공정의 분류의 틀 마련. 시공자료 집대성.

이와 같은 분석, 비교의 결과, 체계적인 공정에 따라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품질을 관리할 때, 현실적으로 한옥의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한옥건축 시범 사례집(D)과 한옥 시공매뉴얼(A)을 기본 틀로 삼고, 공정 기반 가이드라인 체계를 수립하였다.

단, 한옥의 기술개발 및 성능 향상과 연관이 깊은 기계/전기/통신/소방 설비 공사 ([표 6-14]의 ■ 부분)의 경우 프로젝트별 규모와 성격에 따라 시공 시기가 다른 관계로, 하나의 공정으로 분리하는 하되, 가이드라인 작성시에는 하나의 독립된 가이드라인 항목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관련된 여러 공정들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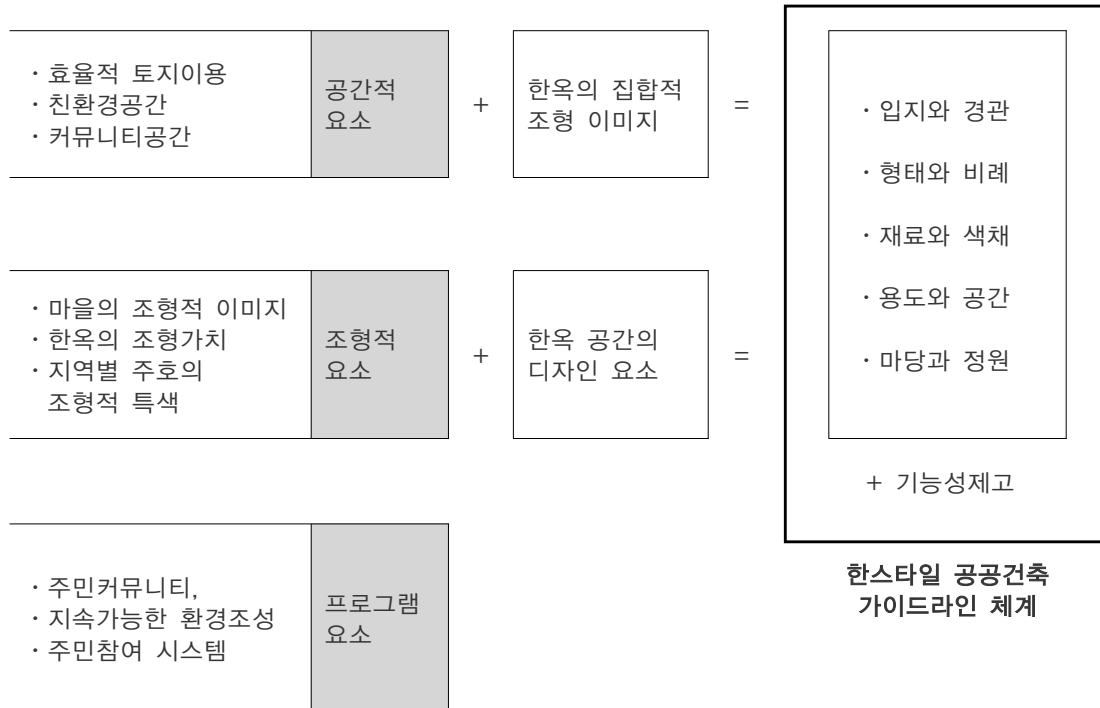
2.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1)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체계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기존 한옥 및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먼저 공간적 요소, 조형적 요소, 프로그램 요소를 기본으로 했고, 여기에 특히 한옥이 지니는 경관적 가치와 한옥건축에서 주의해야할 비례와 색채 등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내부와 외부공간, 그리고 개별 건물과 주변 경관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되는 한옥 고유의 특징에 유의하며 한옥을 일반 현대건축물과 구분 짓는 특징들을 기준으로 새로운 항목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1.입지와 경관 2.형태와 비례 3.재료와 색채 4.용도와 공간 5.마당과 정원 6.기능성 제고의 6가지 대분류로 검토항목이 결정되었다.

[표 6-14]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계



2) 디자인 기본원칙과 적용예시

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

한옥은 주변의 자연환경 및 지세에 순응하여 지어지는 건축이기에 건축 이전에 입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선인들은 풍수(風水) 이론에 입각한 경관이 수려하고 땅의 좋은 기운이 좋은 배산임수의 명당을 찾은 후에, 지세와 지형에 맞추어 한옥을 지었다. 한편, 근대 이전의 마을이 씨족사회와 농업사회에 기반한 생산 공동체였던 만큼, 각각의 가구를 구획하는 담장과 여러 채의 한옥군은 통일성 있게 계획되고 배치되어, 주변 자연경관과 함께 유기적 집합체로서의 경관을 형성하였다. 요컨대, 한옥은 주변의 자연경관 및 인접 건물들과의 조화가 중요한 건축이다.

비록 오늘날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양상이 다양하고 대상지 역시 프로그램에 따라 도심지에서부터 전통 한옥 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앞서 언급된 전통 한옥의 입지 및 경관 계획상의 특징을 반영하여, 독립된 신축 건물로서의 신한옥을 디자인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배치

옛 한옥이 기존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지어졌다면, 오늘날의 한옥은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공간을 갖춘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지형의 특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상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지형활용계획 사례1. 윤선도 유물전시관	지형활용계획 사례2. 산림박물관
	
자연지형 및 인공지형을 통한 채광 가득한 지하 공간 구현	경사지를 활용한 누마루형 □자건물의 누하 진입부

□ 주변 건물 스케일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 계획

도심지 혹은 전통 한옥 마을 내에 새로 지어지는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은 주변의 건물들과 어울리는 규모로 계획되어야 한다. 주변 건물에 비해 위압적으로 거대하거나 외소하지 않으며, 주변건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규모로 계획되어야 한다.

적정규모계획 사례1. 남산국악당	적정규모계획 사례2. 구로구도서관
	
<p>〈출처: 2010/ 04/ 17 문화재방송 웹페이지〉</p> <p>남산 한옥마을의 공간스케일과 어울리는 비슷한 규모로 남산국악당의 지상층을 계획함. 나머지 공간은 지하로 계획.</p>	<p>〈출처: 국토해양부 한옥 공모전자료〉</p> <p>가로변에 면하는 도서관 부분을 인접건물과 어울리는 2층으로 계획함. 정면성부여</p>

□ 집합적 조화를 이루는 가로경관계획

울타리와 담장, 대문 등 전통적으로 특정 가로 경관요소의 특색이 강한 지역에 새로운 한스타일 공공건축을 계획할 경우, 신축되는 부분이 기존의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통일성 있는 집합적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가로경관 1. 도시한옥(출처:네이버백과사전)	가로경관 2. 강진 병영마을 돌담길
	

② 한옥 고유의 비례 구현

동아시아의 다른 목조건축들과 마찬가지로, 한옥은 기초부, 벽체부,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비례는 다른 나라의 것들과 차별화된다. 높은 기단과 휴먼스케일의 아담한 실내공간, 낮고 부드러운 지붕 곡선은 한옥 고유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한편, 주로 단층으로 구성되는 예의 한옥과 달리, 오늘날 한옥의 경우, 현대적 프로그램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입식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공간의 점유 방식이 달라지고, 필요 공간의 규모는 증대함에 따라, 복층형 혹은 지하층을 활용한 한옥이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스타일 공공건축 설계시, 구체적인 계획에 앞서, 필요한 규모와 용도의 공간을 수용하면서도 전체적인 공간이 한옥 고유의 비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1. 동경 한국문화원	사례 2. 남산국악당
	
현대건축물 내 한실 : 지붕, 벽체, 기초부 입면구성	단일채의 입면 분절 : 한 채를 입면을 여러 채가 조합된 이미지로 분절하여 한옥 고유의 비례 구현.
사례 3. 윤선도 유물전시관	사례 4. 축산 기술연구소
	
지하층의 대형 콘크리트 구조와 결합된 지상층 한옥 : 지상층에서 보이는 부분의 한옥은 아담한 한옥 고유의 입면비례 유지	중층형 한옥풍 건축 : 누각 및 성곽 이미지로 상층부에 아담한 스케일의 한옥 입면비례 구현

□ 기초부

먼저, 초석과 기단이 한옥의 안정감을 결정하고, 전체 입면비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을 고려할 때, 그 높이와 크기가 적절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이 때, 벽체부 및 지붕과의 비례 뿐만 아니라 실 점유방식 및 사용자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단 및 초석의 높이를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경사지를 활용한 계획시, 지하 구조체로 이어지는 한옥의 기초부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중층 계획시 저층부를 성벽과 같이 디자인 할 때에는 건물이 지나치게 비대해 보이지 않도록 전체 비례를 고려하여 기초부 높이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부 사례 1. 군자마을회관	기초부 사례 2. 윤선도 유물전시관
	
아담한 건물스케일과 어울리는 자연석으로 초석과 기단 계획.	입식의 실 점유 방식을 고려한 낮은 기단 계획
기초부 사례 3. 한국가구박물관	기초부 사례 4. 남산국악당
	
〈출처: CNNGC, 사진:김남훈〉	
실별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한 높이의 초석과 기단을 계획.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함.	지상층 한옥과의 조화를 고려한,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층 및 기초부 계획.

□ 벽체부

한옥 설계에서, 층수 및 기둥의 간격과 층고, 그리고 기둥 및 주요 구조재의 단면 사이즈를 계획하는 것은 한옥 고유의 의장적인 비례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택 용도의 정통 한옥의 경우 실내 공간의 규모를 살펴보면, 한 칸의 크기는 보통 8자 (240cm)사방을 기준으로⁸²⁾, 창과 가구의 높이는 옛 사람들의 평균 신장인 5척에 맞추었기 때문에⁸³⁾ 이 치수를 오늘날의 한옥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대의 입식 가구들을 설치하고, 현대적 프로그램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의 규모가 비좁다. 따라서 아담한 공간감은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모듈을 계획하여야 한다.

한옥의 규모가 커질수록 창호, 벽체, 난간 등의 입면구성은 단조롭지 않도록 잘 계획되어야 한다. 인방과 창방, 머름대 등의 부재의 조합과 창호 문양에 의한 입면 구성에 있어, 실별 기능에 부합하면서도 다양한 입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락방, 마루, 수납공간 등 다양한 높이의 실 조합을 입면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실이라 하더라도, 창호 패턴에 변화를 주거나 인방과 창방의 위치에 변화를 주어가며 입면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창살은 예의 방식을 답습하는 데에서 진일보하여 건물의 전체 이미지에 어울리면서도 건물의 기능성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벽체부 계획 사례 1. 윤선도 유물전시관	벽체부 계획 사례 2. 구로구 한옥도서관
	
다양한 창호와 인방, 창방 조합을 반영한 입면 계획, 외부에 목재를 댄 여닫이창호	다양한 실 조합을 반영한 입면, 외부에 목재 창살을 댄 창호

82) 2008. 문화체육관광부/한국건축역사학회,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p23

83) 2000. 신영훈,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한옥」, p26

③ 한옥에 어울리는 재료와 색채의 선정

한옥은 나무, 흙, 돌, 짚, 한지 등 자연재료로 지어진 건축이다. 오늘날 국내 법령 및 조례에서 한옥을 정의하는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로 ‘자연 재료의 사용’을 꼽을 만큼 [표 2-4], 친환경 재료의 사용은 한옥을 정의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한옥의 주요 마감재였던 회반죽, 흙, 벽돌, 한지, 장판지 등의 자연재료가 습도와 기온 조절 등에 있어 지니는 기능적 장점들은 친환경 건축 차원에서 오늘날 재조명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기존의 흙벽이 단열재가 매입된 현대식 시스템 벽체로 대체되고, 구들 장판이 전기선 및 보일러관이 놓인 시스템 패널로 대체되면서, 한스타일 공공건축에 적용 가능한 현대 건축 마감재 범위는 확대해졌다. 좌식 혹은 입식의 실별 점유 방식에 따라 다양한 마감재를 조합하여 공간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창호의 재료 역시 기존의 목재 한식 창호에서, 목재가 아닌 시스템 창호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의 한옥건축에 다양한 마감재 적용이 가능한 만큼, 한옥과 어울리는 자연 재료 느낌의 색채와 재질감의 마감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의장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 주요 재료

[표 6-15] 목재의 종류

	원목	원목 심통가목	구조용 집성목
			
건조	80%건조목(기계건조시 15cm이상 건조불가)	건조목	건조목
표준품질강도	미확보	미확보	확보
맞춤	전통맞춤(부재단면손실이 큼) -유격 3mm확보	원목과 같음	철물결합(단면손실없음) -유격 1.5mm이하
치목/조립	1. 전통목수 2. 공장생산+전통목수	공장생산 전통목수 + 일반목수	공장생산 숙련공+일반목수
단가	1	길이 1m당 1만원 추가	2.5
유지관리	건축후 목재수축으로 인한 틈새, 뒤틀림	틈새, 뒤틀림 저감	변형없음->틈새차단
구조	내진설계 불가능	원목과 같음	내진설계 가능

* 출처:(2011), (주)금성건축제, 「2회 한옥 정책 포럼 발표자료」

품격 있는 좋은 한옥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목재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목재는 크게 원목과 원목 심통가목, 구조용 집성목이 있으며, 유사 목

재로는 목재로 마감된 철골재가 있다. 건물의 격식에 맞는 색채와 문양이 있는 목재를 선택해야 하겠지만, 구조재의 단가와 부재 가공방법 및 공기감축률, 시공 편의성, 유지관리 비용 전체를 고려하여 건물의 기능과 격식에 맞는 목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목을 주요 경우 건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함수율이 낮은 원목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목재의 함수율은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지침의 항목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석재 중, 대지와 건물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석축 및 기단에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과 재질, 색채는 건물뿐만 아니라 인접 대지의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경사지에 배치될 경우에는 석축과 기단의 색채 및 재질감의 상이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석재 대신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할 경우에도 색채와 재질감이 대지 및 한옥과 어울리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석재 사례 1. 윤선도 유물전시관	석재 사례 2. 라궁 〈이미지출처: 한겨레뉴스, 2007/09/28〉
	
기단과 초석은 화강석 마감 석벽은 잔돌 마감	기단 및 기초는 화강암 마감. 석축은 노란빛이 도는 자연석 마감.

기와는 일반적인 흑기와 외에 시멘트 기와, 동기와, 징크 기와, 칼라강판, 알루미늄 기와 등 다양한 재료의 한식기와⁸⁴⁾등이 있으며, 기와의 수명 및 사용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격식에 맞는 재료의 기와를 선택하여야 한다. F1 한식육교에 사용된 알루미늄 [그림 3-37]는 F1경기 중 기와장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정된 재료로서, 사용성과 건물의 격식을 고려한 기와 선정의 좋은 사례로 판단된다.

84) 2009,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제 3과제: 보급형 한옥설계과정과 시범설계안',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 국토해양부, p46

□ 창호 재료

창호재료사례1. 남산국악당	창호재료사례2. 구로구도서관	창호재료사례3. 축산기술연구소
		
(상층부)목재의 색상과 유사한 (하층부)시스템 창호 사용	기둥과 창호를 유사한 색채로 칠작업.	외부에 세살창 문양의 목재 방충망 설치

창호는 한옥의 입면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창호에 사용되는 목재의 색채와 재질감은 주요 구조용 목재와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기능상의 이유로 한식 창호를 대신에 규격화된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는 추세인데, 목재 창, 알루미늄 창, 커튼월 유리창, 철재 창 등의 여러 가지 재료의 창호를 설치할 때, 창틀의 두께를 고려하면서, 색채 및 재질감을 한옥과 어울리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감 재료

마감재사례1. 구로구 한옥도서관 (출처:국토해양부,한옥공모전자료)	마감재사례 2. 관산 도서관 (현대 건축물 내 한실)	
		
목재와 석재 느낌의 바닥재를 사용하고 벽체는 회벽으로 마감하여, 공간 전체가 자연재료로 마감된 한옥의 느낌을 구현함.	(좌) 한옥공간 내 좌실은 목재 느낌의 바닥재로 마감함. (우) 한옥공간이 부각할 수 있도록 천정면과 바닥을 어두운 검정색으로 도색하고, 밝은 목재를 사용함. 기둥과 벽면은 담장과 같은 이미지의 밝은 흰색으로 마감함.	

한옥이 지니는 공간적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옥 공간에 어울리는 재질과 색채의 마감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외부 마감재는 가능한 자연재료 혹은 자연재와 어울리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내부 마감재는 현대적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도 한옥 공간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재질과 색채의 마감재를 사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설비 및 가구

반자가 있는 실의 경우, 통신/전기/기계/소방 시설은 반자 상부에 설치될 수 있으나, 연등천장으로 계획된 개방적인 공간의 경우, 설치된 현대식 설비시설은 외부로 노출된다. 이 때, 노출되는 전기 배선, 설비 배관 마감재 및 전등과 더불어, 전기 스위치, 콘센트, 디퓨저, 냉난방기, 등의 설비시설의 색채와 재질감이 한옥의 공간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특히, 전등은 의장적인 효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상 필요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접조명 혹은 직접조명의 방식을 선택하여 계획해야 한다.

설비 사례 1. 윤선도 유물전시관 (1층전시실)	설비 사례 2. 국회한옥(접견실)
	
<p>a. 보 상단에 도리방향과 평행하게 무채색의 설비 배관 및 배선, 조명시설 설치</p> <p>b. 도리방향에 평행하게 이동식 패널 설치.</p>	<p>반자에 설치된 전등, 디퓨저, 화재 안전장치</p>

한옥공간의 실제적인 이용방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구와 소품은 매우 중요하다.⁸⁵⁾ 그러나, 초기에 설계자에 의해 디자인되고 배치된 가구는 거주자 및 사용자에 의해 교체되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 가구들로 인하여 한옥 공간의 품격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한스타일 공공건축은 한옥 공간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설 보급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에 적합하면서 한옥의 공간에도 어울리는 가구를 계획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설계자는 건축주 및 사용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상되는 수요에 적합한 가구를 계획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85) Ibid., 2008. 문화체육관광부/한국건축역사학회, p75

<p>가구 사례 1. 구로구 어린이도서관 (전통체험실) 〈 출처 :국토해양부,한옥공모전자료 〉</p>	<p>가구 사례 2. 한국 가구 박물관 〈 출처: CNNGC, 사진:김남훈 〉</p>
	
<p>전통방식에 충실한 한국 전통의 좌식 가구 배치</p>	<p>전통적인 문양을 번안한 입식 가구 배치</p>

④ 용도에 적합한 한옥 공간의 구현

움집에서 시작한 한반도의 주거는, 마루, 온돌, 부엌 등 각각의 주택 공간요소로 독립적으로 발전, 분화하였으며, 각 시대의 기술력 발달정도와 사회적 요건 변화에 맞추어 공간 요소의 분화와 통합을 되풀이 하였다.⁸⁶⁾ 그 결과, 평면구성은 지역마다 다를지라도, 마당을 중심으로 마루와 방, 그리고 부엌공간이 모인 한옥 공간의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한스타일 공공 건축의 경우, 프로그램의 특성상 대규모의 단일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입식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현대의 건축기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중심으로 공간을 조직하게 되면, 한옥 고유의 입체적인 공간 조직이 사라져 갈 수 있다. 따라서 방-마루-부엌-마당으로 구성되었던 한옥 고유 공간 조직의 특성을 재해석하고 현대의 프로그램에 맞게 변용하여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성 반영

한옥의 형태는 지역별 기후와 문화, 자연 조건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기 달리 발전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에 따라 평면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별 환경과 한옥 평면의 차이는 의장 및 재료상 특징에도 차이를 가져와 한옥 형태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한옥의 다양한 유형 개발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한스타일 공공건축 설계시 지역 전통 한옥의 특징을 공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86) Ibid., 2008. 문화체육관광부/한국건축역사학회, p22

□ 용도별 공간구성

한옥의 입체적인 공간 조직은 온돌방과 마루, 부엌과 다락 등의 다양한 높이와 천장고로 구성된 공간들이 냉/난방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로서, 한옥 고유의 중요한 특성이다. 비록 오늘날, 온돌이 시스템 패넬로 대체되고, 부엌이 독립적인 공간이 되면서 기능적 차원에서 는 입체적 공간 조직방식의 의미가 약해졌으나, 한옥 고유의 공간 조직이 지니는 풍요로운 공간감을 고려할 때, 방-마루-부엌-다락 등의 공간 요소별 특징을 건물의 용도에 맞게 변안하여 계승할 필요가 있다.

한옥 공간조직 사례 1. 베니스 비엔날레 〈출처: 구가도시건축〉	한옥 공간조직 사례2. 군자 마을회관 〈출처: 구가도시건축〉
	
비엔날레 전시를 통해 한옥 고유의 입체적 공간의 현대적 활용 가치를 재확인함.	연결마루를 통해 전체 건물의 내부동선을 통합하여 시설이용의 편의성 및 마루공간의 다양한 활용성을 제고함.

특히, 마당과 직접 면하는 개방적인 반 옥외공간인 마루 공간은 폐쇄적인 성격의 방과는 대조되는 공적인 성격의 공간으로서, 한옥 고유의 공적 공간을 계승하고 현대화 하는 차원에서 한스타일 공공건축 설계시 커뮤니티 활동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마루 공간과 같은 반 옥외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수납공간

현대의 삶에 맞는 한옥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평면 혹은 입면상의 붙박이식 수납공간을 구획하는 것은 한옥 실내공간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초기 설계시 평면 및 단면상으로 다락 및 창고, 벽장 등의 가구 외 수납공간을 여유 있게 계획함으로써, 한옥 고유의 입면 비례를 유지하면서도 실내공간의 성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수납공간 사례1 : 영산재 호텔	수납공간 사례2 : 구로구 도서관
	
침실 : 불박이식 전면 수납장	세미나실: 옷장, 불박이 수납장 및 냉방기실

□ 설비 공간

대규모 공공시설의 계획시 한옥에 담기 위해서는 통신/기계/전기/소방 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간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평면상으로 PS와 EPS, 공조실을 계획할 때에는 한옥의 실내 공간 뿐만 아니라, 외관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냉, 온난방 부하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실별 기능에 맞게 반자를 드리우고 설비시설의 배선 및 배관 방식을 고려하여 반자 상부 및 바닥 하부 공간에 적정 규모의 설비공간을 계획해야 하는데, 이 때 반자에 가려져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단연을 세장한 부재로 대체할 경우, 충분한 설비공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목재의 수량을 절감할 수 있다.⁸⁷⁾

양주한옥 지붕 목구조 공사 중 사진 <출처: 국가한옥센터, 제 2차 한옥 정책 포럼 발표자료>	
	
노출 단연부분 → 마루, 욕실 부분 단연 : D-120	비노출 단연부분 → 방, 주방 부분 단연 : 2" x 6"

87) 2011. 김용미, 제 2차 한옥 정책 포럼 발표에서.

⑤ 전통의 가치를 지닌 마당의 조성

한옥은 여러 채가 배치되어 한 집을 이루기 때문에, 채들의 조합에 의해, 앞마당, 뒷마당, 사랑마당 등의 다양한 마당이 형성된다. 마당은 건축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며 이들을 정위(正位)하는 기준점으로서 공간구성의 요체가 되며, 동선 역시 마당을 중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⁸⁸⁾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한옥의 마당은 한옥 내부 공간 및 마루 등의 반 실내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생활의 중심 공간이다.

부엌과 화장실, 업무시설이 모두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서 삶의 중심공간이 마당과 같은 외부가 아닌 내부로 이동한 현대인의 삶 속에 마당이 지니던 공간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미학적인 비움의 공간이 아닌,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공공의 프로그램을 담고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면서도, 한옥과 잘 어울리는 전통 가치를 지닌 외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의 마당 및 정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여 오늘날의 한옥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 내, 외부 공간 연계

마당과 정원 등의 외부공간은 내부 공간 활동이 연장된 공간이자, 건물 내부로 자연광을 유입하면서 내부공간과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즉, 마당공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다양한 공공의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프로그래밍 하고 시각적으로 내부와 외부공간이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내/외부공간 연계 1. 구로구 도서관 마당	내/외부공간 연계2. 라궁
	
<p>마당공간을 아트리움으로 구성하여 공간을 연결</p>	<p>건물의 사이를 회랑으로 연결하고 사이 마당을 구성</p>
	<p>중정형 마당을 도입하고 수공간으로 계획하여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내부와 외부를 연계함</p>

88) 2008. 문화체육관광부/한국건축역사학회, p29

또한 대규모 시설 설계시, 한옥 공간의 진입경관 및 한옥에서의 외부 조망 모두를 고려하여 주차공간을 구획하고, 적절한 규모의 진입마당을 계획하여 공간 진입시 전이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전통 조경

전통 한옥에서, 조경이라 하면 떠올리게 되는 식재공간은 담장 근처에 제한적으로 조성되었다. 담장 앞에 화단 혹은 화계를 두어, 내부에서 담장 및 주변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식재공간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한국의 전통 조경방식을 계승하기 위하여, 한스타일 공공건축 설계시, 실내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배치되는 한국 고유의 전통 조경요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통조경 1. 남산 국악당	전통조경2. DBEW 사옥 〈출처:blog.daum.net/hamaia10〉	전통조경 3. 한국가구전시장 〈출처:CNNGC, 사진:김남훈〉
		
지상층에서 지하1층까지 이어지는 화계가 지하공간으로 채광을 유입.	계단형 누각 측면에 낮은 담장과 식재공간 조성	석재를 이용한 전통 조경요소 도입

□ 외부공간 바닥면

마당을 포함한 외부공간 바닥면의 포장재의 재료와 색채 및 패턴은 시설 관리면에서 용이하면서도 한옥 공간과 어울리도록 계획 되어야 한다. 기단, 회랑, 마당 뿐만 아니라 도로면에 이르기까지, 바닥면의 패턴과 재료는 한옥공간과 어울리면서도 전체 건물 및 마을 전체 이미지에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한편, 기단부 주변을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여 마당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외부공간 바닥면 사례 1. 남산 국악당	외부공간 바닥면 사례 2. 라궁
	
건물 진입부에 검붉은색 전벽돌 포장. 철제 선형 배수로가 영역을 구획.	백색토 마당 주변의 회랑에 흙색 전벽돌 포장. 기단부를 따라 곳곳에 배수구 설치.

□ 옥외 시설물

한스타일 공공건축은 프로그램 특성상 일반 주택건축에 비하여 가로등, 휴지통 및 시각표지판 등의 옥외 시설물을 많이 갖춘다. 따라서 한옥과 어울리는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건물 전체의 품격을 제고하는 데 있어, 옥외 시설물의 재료와 색채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 개별 냉,난방 실외기 덮개의 재료와 색채 역시 한옥에 어울리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실외기 사례. 영산재	공공시설물사례. 윤선도유물전시관	그래픽사례. 남산국악당
		
건물 내부에 실외기 공간을 미리 계획	자연재료인 목재를 사용하고 무채색을 사용하여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	한글을 그래픽화하여 건물과 어울리도록 디자인

⑥ 기능성 제고

예의 한옥이 지닌 기능적인 단점을 극복하고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한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법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옥을 구성하는 주요 목구조체, 벽체, 창호, 바닥, 지붕 등의 요소별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노력이 기술자 뿐만 아니라 설계자에 의해서도 지속될 때,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한옥의 현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한옥의 기능성 제고와 관련한 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한옥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유지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설계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목구조

목구조는 한옥을 정의하는 제1의 특성임과 동시에 수공작업에의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생산 및 대중 보급성이 낮고, 방화에 취약하다는 점 등 한옥이 지니는 내재적인 단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목재의 지속적인 수축과 변형은 목재와 이질 재료가 만나는 부분에 틈새를 형성하여 한옥의 단열 기밀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옥의 근본적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 부재 및 목구조 방식을 설계에 반영하려는 실험과 노력이 중요하다.

□ 벽체, 천장, 바닥

한옥은 목구조체와, 벽, 천장, 바닥면이 만나는 부분에 틈새가 많이 생기고, 창호의 기밀성은 낮기 때문에, 단열 및 차음기능이 매우 취약하여 현대식 냉, 난방기 사용시 시설 유지 관리비의 부담비용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테일을 포함하여, 벽체, 천장 바닥면의 단열 기밀계획 및 차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실과 주방 등 현대적 설비시설을 갖춘 물이 닿는 서비스 공간이 내부공간에 위치하게 되면서, 누수로 인한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처리에 주의를 기울여 마감을 계획하여야 하며, 방수에 적절한 소재의 문턱을 계획하여야 한다.

□ 창호, 난간

전통적인 난간의 높이는 사람의 앉은 키에 준하여 계획된 것으로서, 중층으로 계획시,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 의장상 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과 높이의 난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3)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체크리스트

분류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평가 결과
1. 입지와 경관	주변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조화를 고려한 배치인가?		<input type="checkbox"/>	○ △ ×
	한옥의 규모가 주변 공간스케일과 조화를 이루는가?		<input type="checkbox"/>	○ △ ×
	울타리, 담장, 대문 등 가로에서 보이는 경관이 주변 건물들과 조화로 운 집합적 조화를 이루는가?		<input type="checkbox"/>	○ △ ×
2. 형태와 비례	지붕과 벽체부, 기초부가 적절한 비례를 이루는가?		<input type="checkbox"/>	○ △ ×
	기초부	초석 및 기단의 높이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 △ ×
	벽체부	기둥의 지름, 간격, 높이가 건물규모에 비해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 △ ×
		창호와 벽체의 입면구성이 단조롭지 않게 계획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 △ ×
		난간의 위치와 형식이 건물과 어울리는가?	<input type="checkbox"/>	○ △ ×
	지붕	처마 길이와 벽체의 높이가 적절한 비례를 이루는가?	<input type="checkbox"/>	○ △ ×
		지붕의 물매와 용마루곡, 처마곡이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 △ ×
		서까래 및 부연의 단면 크기는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 △ ×
		기와와 막새 등, 지붕재료의 크기는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 △ ×
3. 재료와 색채	주요 재료	목재의 종류와 색채는 건물의 성격에 적합한가?	<input type="checkbox"/>	○ △ ×
		석재 및 콘크리트의 재질과 색채는 건물 성격에 적합한가?	<input type="checkbox"/>	○ △ ×
	창호	창호의 재질 및 색채는 한옥과 어울리는가?	<input type="checkbox"/>	○ △ ×
	마감재	내,외부 벽면과 천장 및 바닥면은 한옥 공간에 어울리는 마 감재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
	설비 및 가구	냉난방기, 전선, 컨센트, 덕트, 파이프, 스프링클러, 디퓨저 등 노출되는 설비/전기/통신/소방 시설의 마감은 한옥 목구 조와 어울리는 재료와 색채의 것으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
		가구는 한옥 공간에 어울리는 재료와 색채의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 △ ×

분류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평가 결과
4. 용도와 공간	지역성	지역 전통한옥의 특성을 공간계획에 반영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
	용도별 공간 구성	커뮤니티활동 및 휴식을 위한 톳마루, 대청마루 등 반 옥외 공간을 용도에 맞게 적절히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
		복층구조를 적용하거나, 지하층 및 다락과 반자공간 등을 활용하여 용도에 적합한 규모의 입체적인 한옥 공간을 구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
	수납 공간	한옥 실내공간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납공간이 계획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 △ ×
	서비스 공간	한옥의 단면 구성 특징을 반영하여 반자 위 혹은 마루 및 실 하단부에 설비 공간을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
		한옥의 공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EPS, 공조실, 창고 등 서비스 실의 평면을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
5. 마당과 정원	내외부 공간 연계	한옥이 잘 보이는 적절한 규모의 진입마당 혹은 전이공간을 계획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 △ ×
		주차시설 및 교통 편의시설이 진입마당의 조망을 해치지 않는 곳에 배치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 △ ×
		실내공간과 마당 및 외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 △ ×
	전통 조경	수목의 종류, 식재 위치와 개수가 시설 성격과 공간 규모에 어울리는가?	<input type="checkbox"/>	○ △ ×
		화계, 장독대, 담장 등 전통 조경 요소는 적절한 장소에 적당한 규모로 계획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 △ ×
	바닥면	기단 주변에 자연배수를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
		바닥 패턴의 재료와 색채가 한옥공간과 어울리는가?	<input type="checkbox"/>	○ △ ×
	옥외 시설물	가로등, 벤치 등의 공공 시설물은 한옥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와 색채로 디자인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 △ ×
		실외기 등 옥외 설비물의 덮개가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와 색채로 디자인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 △ ×
		한옥에 어울리는 색채와 문양의 옥외 부착물 및 그래픽이 디자인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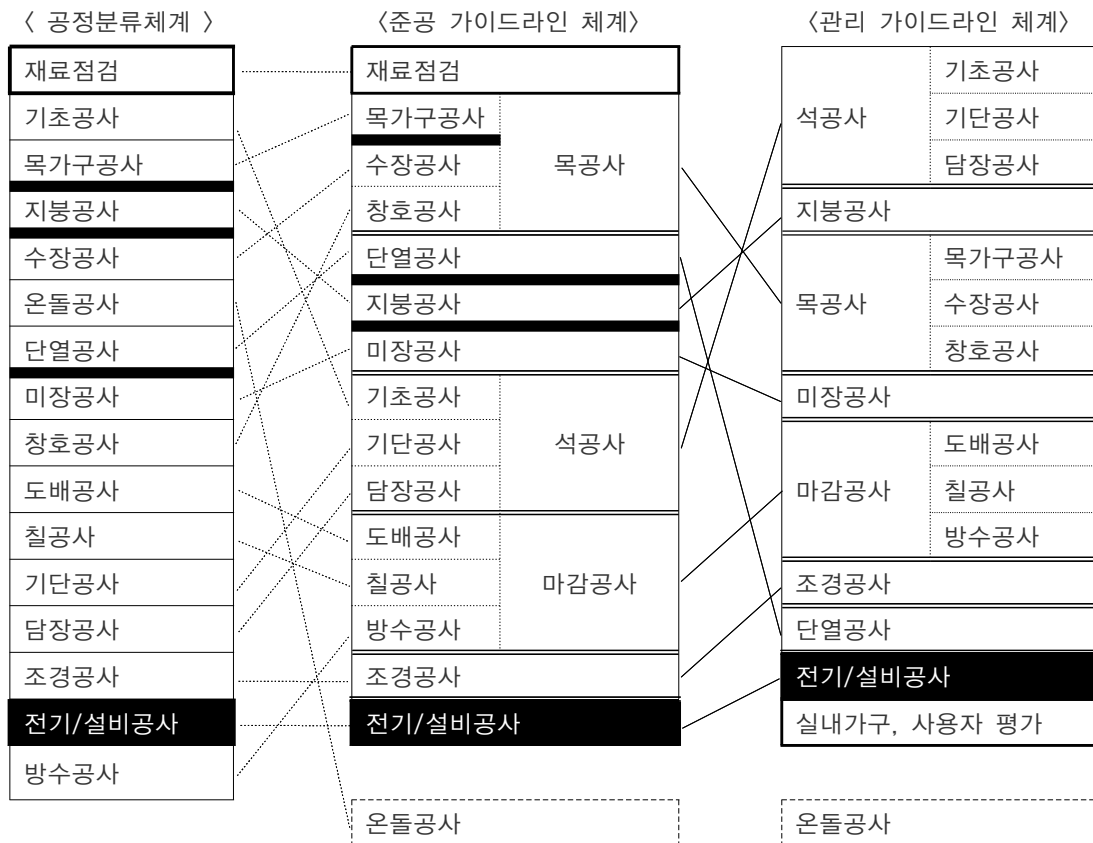
분류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평가 결과
6. 기능성 제고	목구조	목재 가공 및 조립방식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가?	<input type="checkbox"/>	○ △ ×
		목조건축에 적합한 방화, 방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 △ ×
	벽체 천장 바닥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열 기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
		건물의 용도와 실별 특성에 맞는 차음계획을 수립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
		화장실, 주방 등 물이 닿는 면의 방수처리는 잘 되어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 ×
	창호 난간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창호 및 난간을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

3.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1)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의 체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준공 전 체크리스트로 제공되는 준공가이드라인과 정기적인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로 제공되는 관리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 두 가지 가이드라인은 모두 공사의 공정에 기반한 동일한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항목이 배치된 순서가 다르다. 준공 가이드라인은 공사의 순서에 맞추어 항목이 배열되어 있지만, 관리 가이드라인은 감독관의 동선을 고려하여 건물 밖에서 안으로 항목들을 재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표 6-16]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체계



2) 품질관리 검토사항과 검토후 조치사항 예시

① 목공사

□ 목가구공사

위치	준공전 검토사항	준공후 검토사항	필요시 조치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한 방부, 방청, 방염처리여부 · 조립후 부재의 손상 · 조립후 맞춤부와 이음부의 손상 · 결구 부위의 틈새 · 조립상태의 도면일치 여부 · 사용철물의 도면일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부, 방충, 방염 처리시기 · 오염인자로 인한 구조상의 위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와 상담후 수지처리 or 방부/방충처리 or 방염처리
주요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석상부 위 기둥위치 · 기둥의 귀삿음 도면일치 여부 · 공포, 소로 위치 도면일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울거나, 변형, 파손된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바리 이음,
서까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 안허리곡의 도면일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활부의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지처리,
추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마길이, 추녀길이 및 레벨의 도면일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물 보강 상태 및, 철물과 부재와의 결합 상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물고정/보강 · 드잡이공사

□ 수장공사

위치	준공전 검토사항	준공후 검토사항	필요시 조치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재 사이의 틈 유무 · 설치 후 부재의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부, 방충 처리 시기 · 부재의 부식, 파손여부 · 부재사이의 틈새 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부/방충처리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재와 수장재가 접하는 부위의 이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과 접하는 부위의 틈새 간격 · 벽의 기울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지처리
마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루의 기울어짐 · 보행시 삐걱거림, 흔들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루의 기울어짐 · 바닥재 연결 이완 · 삐걱거림, 흔들림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물고정/보강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시 삐걱거림, 흔들림 · 안전사고 예방 난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삐걱거림, 흔들림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재교체
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예방 난간 높이⁸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구의 이완 · 흔들림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잡이공사
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짐, 들림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흘림자국, 변색부위 · 처짐, 들림 	

89) 전통한옥에서 난간 높이는 30~60cm를 사용하여 왔으나, 안전사고에 유의한 높이 계획이 필요하다. (국토해양부(2009), '한옥건축 아카이브의 체계',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 2」, 국토해양부, p.64.)

□ 창호공사

위치	준공전 검토사항	준공후 검토사항	필요시 조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창틀과 창호의 맞춤 상태 창호의 뒤틀림/개폐시 간섭 창살의 가공 상태 창호 철물류의 설치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호 개폐시 간섭 창호의 뒤틀림, 처짐, 균열, 이완 상태 울거미와 살의 파손여부 창호 철물류 설치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짐, 균열, 이완이 심한 문은 해체하여 재설치. 철물류 재설치/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호지의 파손,부식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호지 덧댐 및 전체 도배

② 지붕공사

위치	준공전 검토사항	준공후 검토사항	필요시 조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수 처리 상태 확인 지붕곡(처마선과 마루선)의 도면일치 여부 연암설치 및 기와골의 설계도서(시방서)일치 여부 기와의 단수 및 기와곡의 설계도서(시방서)일치 여부 치미, 귀면와, 착고 등의 도면 일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면 침식, 누수 열, 탈락, 이완 현상이 발생한 기와 합각벽의 파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와 / 부재 교체 일정부분이상 노후시 전체기와교체 양성 바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두께 흙에서 자라나는 나무나 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 뿌리제거 이후 홍두께 흙에 생석회나 시멘트섞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두께 흙 또는 알매흙의 흘러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와 고르기 및 홍두께 흙과 알매흙에 강회섞기.

③ 석공사

공정	준공전 검토사항	준공후 검토사항	필요시 조치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재의 종류, 크기, 설치 위치 및 가공방법의 도면일치 여부 석재하부의 지지부분 및 뒷채움 상태와 철물 보강 여부확인 깔끔한 줄눈⁹⁰⁾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재 하부의 침식, 석재의 흔들림. 기울기, 부식도, 균열, 박리 잡초 및 식물체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훼손부 교체작업 보강작업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식문양,담장기와의 규격,형태 담장 쌓기법의 도면 일치여부 담장 하부 및 지반의 배수 상태 흙재의 보양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 줄눈의 탈락 담장의 기울기, 균열, 풍화상태 담장하부 및 지반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체 제거작업 드잡이 공사
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들,아궁이, 굴뚝의 위치, 형태 및 규모의 도면일치 여부 불때기시, 화기나 연기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때기 확인 구들장 침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판/바닥재 공사 구들 해체/보수공사 아궁이,굴뚝 보수

90) 사괴석담, 화방벽, 전돌벽의 줄눈은 내민 줄눈으로 함. (전라남도 「한옥표준시방서」 3권 p.44.)

④ 미장공사

위치	준공전 검토사항	준공후 검토사항	필요시 조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르지 않거나, 수장재보다 두껍게 미장된 면 유무 · 탈락, 균열 부위 유무 · 방바닥(구들위 미장시)기울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락, 갈라짐, 규칙적인 경사균열 여부 · 마루 밑 환기 상태 · 벽체와 수장재의 접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 보수 흠손질 (초벌 바름 유지)

⑤ 마감공사

공정	준공전 검토사항	준공후 검토사항	필요시 조치사항
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도료의 사용여부 · 단청의 문양, 색채, 적용 위치 등의 설계도서 일치여부 · 단청 채색 완료 이후 들기름 칠 또는 이에 준하는 재료의 2회 도포여부 확인 · 접속부 및 결합부의 도장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부적으로 칠이 벗겨진 부위 · 칠공사 시기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 칠공사
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지와 장판지, 창호지의 보양 후 균열, 늘어짐 및 퇴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찢어지거나 낡고 변색된 벽지, 장판지, 창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한 도구로 긁어낸 후 기존재료와 비슷한 종으로 교체
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면과 닿는 부분의 방수/ 방습 처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수, 결로 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습처리 · 방수처리

⑥ 기타 한옥성능 관련 공사

공정	준공전 검토사항	준공후 검토사항	필요시 조치사항
단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열위치, 단열재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 불량 · 배선/배관 노출 및 안전 사고의 위험성 · 통신/ 설비시설 오작동 	해당 공종별 전문가에 의한 보수/교체 공사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기구의 종류 · 설비시설의 배선/ 배관위치, 마감상태 		

3)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준공)

구분		검사내용	결과	조치사항	
재료 상태	목재	수종과 색상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부재별 목재 함수율과 강도는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운반시 변형, 부식, 청태발생 및 파손된 부분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석재	석재의 종류와 형상, 색상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가공 상태	목재	구조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목재를 가공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치목된 부재의 종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부재의 방부/방청/방수/방염 처리는 잘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석재	석재의 마무리치수와 설계도면의 치수는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석재의 마감방식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전돌의 규격 및 문양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목공 사	공통	부재의 조립순서와 조립방법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결구된 부분은 긴밀하게 잘 결구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조립 후 부재 및 연결부의 상태는 뒤틀림, 처짐, 들림, 틈새 형성 등의 변형 없이 양호한가?	<input type="checkbox"/>		
		사용 철물의 종류와 설치 위치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목구 조 공 사	주요 구조 체	기둥은 초석상부 먹 메김 위치에 정확히 세워졌는가?	<input type="checkbox"/>	
			기둥의 귀솟음은 사전에 승인된 수치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공포 및 소로의 위치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서까 래	양곡 및 안허리곡은 도면과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천장면에 설치된 설비시설의 종류와 위치가 설계도서와 일 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추녀	처마길이, 추녀길이 및 레벨은 도면과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수장 공 사	공통	천장면이나 바닥면에 매입, 설치되는 전기/설비/통신/소방 시설 등의 배선, 배관작업이 설계 도면대로 빠짐 없이 수행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벽면	수장재와 벽체가 이완된 틈 없이 긴밀히 접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천장	처지거나 들린 부분이 없이 평활한가?	<input type="checkbox"/>	
		마루, 계단	귀틀과 마룻널 등 마루 부재는 긴밀히 이어져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보행시 삐걱거리거나 흔들림 없이 안전한가?	<input type="checkbox"/>	
			바닥면은 기울어짐 없이 평활한가?	<input type="checkbox"/>	
		난간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설계도서대로 설치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구분		검사내용	결과	조치사항
목 공 사	창호공사	창틀/문틀과 벽체의 접합부는 틈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창호가 상호 간섭 없이 잘 여닫아지는가?	<input type="checkbox"/>	
		창살의 가공은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창호의 종류, 색상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방수 문턱의 시공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단열공사		설계 도서에 준하여,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단열재를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지붕공사		지붕면에 설치되는 전기/설비/통신/소방 시설 등의 배선, 배관작업이 설계 도면대로 빠짐없이 수행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방수처리는 잘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지붕곡(처마선과 마루선)은 도면에 맞게 구현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연암 설치, 바닥기와와 마루기와의 겹잇기, 기와 단수 및 기와곡은 도면 및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막새기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치미, 귀면와, 착고 등의 크기 및 적용 위치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미장공사		미장재는 수장폭 이내로 얇게 발라졌는가?	<input type="checkbox"/>	
		탈락이나, 갈라짐 없이 고르게 면이 마감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바닥면은 기울어짐 없이 평활한가 ?	<input type="checkbox"/>	
석 공 사	공통	석재의 설치위치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석재하부의 지지상태 및 철물보강상태는 양호한가?	<input type="checkbox"/>	
		설치 후 손상된 부분이 없으며 보양상태는 양호한가?	<input type="checkbox"/>	
	기초공사	초석의 높이와 크기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기단공사	기단의 높이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담장공사	석재와 흙재의 결합이 견고한가?	<input type="checkbox"/>	
		줄눈이 깨끗하게 마무리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담장의 뒷채움 상태는 양호한가?	<input type="checkbox"/>	
담장 하부 및 주변의 배수상태가 양호한가?		<input type="checkbox"/>		

구분		검사내용	결과	조치사항
마감공사	칠공사	지정된 도료를 사용하여 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단청의 문양, 색채, 적용위치 등이 제출된 단청문양모사도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단청에 들기름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2회 이상 도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접속부 및 결합부의 도장상태는 양호한가?	<input type="checkbox"/>	
	도배공사	지정한 색채와 질감의 도배지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균열, 늘어짐, 오염이 없이 잘 보양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방수공사	방수 및 방습 처리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통신/ 전기/ 설비공사		실별 냉, 난방기 및 전기/통신/소방 기구의 종류 및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조명기구의 종류 및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덕트, 파이프, 스프링클러, 디퓨저 등 노출되는 설비/전기/통신/소방 시설의 마감은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설치된 모든 통신 및 전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input type="checkbox"/>	
가구 및 소품 /기타		가구의 종류 및 설치된 위치가 설계도서와 설치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실외기와 실외기 덮개는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정된 공공시설물이 설계도서에 맞게 배치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건물 전체의 청소가 깨끗하게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선택적용]

구분	검사 내용	검사 결과	조치사항
온돌공사	고래는 난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구들, 아궁이, 굴뚝의 위치 및 형태는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불때기시, 연기가 안전하게 굴뚝으로 배출되는가?	<input type="checkbox"/>	

4)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관리)

구분		검사내용	결과	조치사항
석공사	공통	석재 하부 지지력 약화로 석재가 흔들리거나 기울어지는가?	Y/N	전면보수
		석재에 부식이나 균열, 박리가 일어났는가?	Y/N	
		줄눈 혹은 지지부에서 잡초 및 식물체가 자라고 있는가?	Y/N	
	담장	담장이 기울거나 균열, 풍화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는가?	Y/N	전면보수
		탈락, 균열, 이완현상이 발생한 곳이 있는가?	Y/N	
		담장 하부 및 주변의 배수상태가 불량한가?	Y/N	
지붕공사		지붕면이 박리되거나 지붕면이 침식되었는가?	Y/N	전면보수
		누수되는 곳이 있는가?	Y/N	전면보수
		균열, 탈락, 이완 현상이 발생한 기와가 있는가?	Y/N	
		합각벽이 파손되었는가?	Y/N	
		나무나 풀이 홍두께 흙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Y/N	
목공사	목재 공통	방충/방부/방염 ⁹¹⁾ 처리가 필요한가?	Y/N	
		철공사 ⁹²⁾ 를 해야할 시기인가?	Y/N	
		도장, 혹은 단청이 국부적으로 벗겨지거나 훼손되었는가?	Y/N	
		오염인자(누수, 미생물, 흰개미, 곰팡이 등)로 부식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부분이 있는가?	Y/N	전면보수
		녹이 슬거나 부식된 철물이 있는가?	Y/N	
	목가구 구조체	기울어지거나 변형 및 파손되어 구조상 문제가 있는 부재가 있는가?	Y/N	전면보수
		이완된 결구부가 있는가?	Y/N	전면보수
		과도한 갈렘으로 미관상 문제가 있는가?	Y/N	
		철물과 부재의 결합 상태가 견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Y/N	
	수장	이음과 맞춤 부위 중 벌어지고 틈이 생긴 부분이 있는가?	Y/N	
		마루나 벽에 기울어짐이나 뒤틀림이 있는가?	Y/N	
		반자에 처지거나 들린 부분이 있는가?	Y/N	
		마루나 반자에 비흘림자국 혹은 습기로 인한 변색부위가 있는가?	Y/N	
		마루나 계단 보행시 삐걱거림이나 흔들림이 있는가?	Y/N	
		난간 결구부 및 철물 연결부가 이완되어 흔들림이 있는가?	Y/N	
		창호	문틀이나 문선에 변형이 생겨 문/창문이 잘 여닫아지지 않는가?	Y/N
	창호에 뒤틀림, 처짐, 균열, 이완 등의 변형이 생겼는가?	Y/N		
	울거미와 창살에 파손이 있는가?	Y/N		
	견고하지 않게 설치되어 이탈하려는 창호철물이 있는가?	Y/N		
	찢어지거나 오염, 혹은 부식된 창호지가 있는가?	Y/N		

구분	검사내용	결과	조치사항
미장공사	벽체에 규칙적인 경사균열(45도 경사로 난 금)이 있는가?	Y/N	전면보수
	경사균열 외의 균열과 박락이 발생한 벽체가 있는가?	Y/N	
	지붕 및 벽체에 누수 혹은 결로현상이 있는가?	Y/N	
	벽체와 수장이 접하는 부분에 벌어진 틈새가 있는가?	Y/N	
마감공사	찢어지거나 낡아 부식된 벽지, 장판지가 있는가?	Y/N	
	사용자의 낙서 및 이물질 부착 등으로 오염되어 교체가 필요한 마감재가 있는가?	Y/N	
	방수면 하층 및 하단에 누수 혹은 결로현상이 발생하는가?	Y/N	
설비공사	노출된 배선과 배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가?	Y/N	
구분	설문 내용	설문 결과	
사서 인터뷰	사용자에 의해 추가된 실내/옥외 부착물이 있는가?	Y/N	
	사용자에 의해 교체되거나 추가된 조명기구 및 가구가 있는가?	Y/N	
	위치가 변경됐거나 오작동하는 통신 및 설비시설이 있는가?	Y/N	
	단열 및 냉/난방이 불량한 곳이 있는가?	Y/N	
	날씨 변화에 따라 누수,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가?	Y/N	
사용자 평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가?	○ △ ×	
	시설 이용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 △ ×	

[선택적용]

구분	검사 내용	검사 결과	조치사항
온돌공사	불때기시, 연기가 방안으로 새들어 오는가?	<input type="checkbox"/>	
	구들장에 침하한 부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91) 방부처리는 주로 2~3년을 주기로, 방염처리는 5년을 주기로 행해짐. _조선건축 윤대길 소장과의 인터뷰.
 92) 일반적으로 2년에 1회 수행되나, 미관상으로는 기능상 필요하다 판단될 때 하는 것이라 일정한 주기를 정하기는 어려움.

제7장 결론

이 연구는 한옥 건축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공공건축물의 한옥화에 주목하여 보급방안과 관리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때문에 이 연구의 대상인 한옥 공공건축물은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야할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급체계를 분석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연구의 제목으로 쓰인 한스타일은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고 있으나 자생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우리 고유문화를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하여 세계적인 문화명품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중 한옥 공공건축물에 관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한옥건축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리모델링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그런데 지원대상인 한옥의 정의는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서 매우 한정된 범위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은 현대건축물 내부의 인테리어를 한옥식으로 꾸미거나 외부 마당을 조성하는 등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현대적 편의성’과 ‘전통에의 충실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그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로 한스타일 건축을 채택했다. 그 결과 한옥풍 건축, 신한옥, 정통한옥, 문화재한옥으로 구분하였다. 전근대한옥과 근대한옥을 포함하는 정통한옥은 유지 및 관리의 대상으로 보존을 위한 정책대상이 된다. 현대의 신공법을 적용한 신한옥은 적극적인 육성의 대상으로 이 연구의 주요대상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한국 고유의 건축요소 혹은 모티브를 반영한 현대건축인 한옥풍 건축은 직접적인 지원대상이라고고는 할 수 없지만,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옥문화의 진흥을 위해 참조할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스타일 건축으로 이어지는 공공건축 중 공공(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 주관이 되어 발주하고 공공의 예산으로 이어지는 시설 및 공간 환경으로 공공건축물의 범위를 한정하며, 시민대중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가진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공공건축물에 한스타일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91%로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사한 설문을 건축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행한 결과, 39%만이 추진의사를 밝혀 상당한 온도차를 확인하였다.

한스타일을 공공건축에 도입하게 되면 공공건축물의 입장에서 친환경 건축의 이미지, 한국 전통의 미를 살린 건축, 탈권위,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한옥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이 증대된다. 마찬가지로 한옥문화 진흥의 입장에서 보면 한옥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고품격 한옥의 보급에 역할을 담당하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한옥 체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한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신문과 뉴스상에 보도된 한스타일 건축물 중 사업 추진 주체가 공공이며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준공을 앞둔 60건의 건축물 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들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전체 60건 중 55%인 33건이 전라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지역만으로는 26건으로,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조성률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조성률을 보이는 지역은 전라북도와 서울(각각 12%)이고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6건(10%)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시기별 조성현황의 특성을 보면, 한스타일 육성정책이 발표된 2007년 이후로 진행된 사업이 전체 60건중 49건으로 전체 사업 건수의 82%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 한스타일 공

공건축물 사업은 재외공관을 제외하면 모두 지자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지원금과 보조금의 형태로 지방 정부의 사업 일부를 지원하고 권장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68%에 해당하는 41건이 신한옥이며, 그 다음은 한옥풍 건축으로 15%에 해당한다. 한실과 정통한옥은 각각 5건으로 낮은 조성률을 보인다.

이어서 정통한옥, 신한옥, 한실 등 건축유형에 따라 대표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정통한옥의 사례는 혜화동 주민센터 리노베이션을 꼽았다. 혜화동 주민센터는 1940년에 건축된 한옥을 사들여 주민센터로 리노베이션한 사례이다. 그러나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창호 및 내부 마감을 전통에 충실하게 고치고, 보다 주민들이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제2차 리노베이션이 진행중이다.

신한옥은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축유형으로서 총 7개의 사례를 검토했다. 국회 한옥 사랑채는 그 상징적 의미에 걸맞게 크고 당당하게 지어졌다. 비싼 건축비가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지만, 목조공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무주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 안동 군자마을 회관은 지역 한옥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특별한 신기술 없이도 세련되고 합리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 훌륭하다. 구로구 어린이도서관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지어진 건물로서 2층 한옥을 실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시도가 성공적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남산국악당은 현대건축과 신한옥을 결합해서 미학적 정취와 현대적 용도를 해결했다. 커다란 공연장을 지하로 내려보내고 지상에는 단정한 한옥을 지어 주변 남산 한옥마을의 경관에 일조했다. 지하의 채광을 위해 정원을 썬크원으로 구성하고 전통 화계를 조성한 점도 새롭다.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은 ㄷ자 한옥의 마당을 아트리움으로 구성하고 지하공간을 만들어 마당의 공간감을 키운 것이 새로운 시도이다. 한옥의 정취를 간직하면서 부분적으로 현대적 기술과 공간을 삽입시킨 기법이 뛰어나다. F1 한식육교는 자동차 경주장의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으로 지어졌다. 장스팬을 해결하기 위해 집성목을 사용하고 목재의 결합에 볼트를 이용하는 등 현대 목조의 기술을 적극 활용했지만 전통한옥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평가된다. 완도 삼림 박물관은 15세기 주심포 양식을 적극 채용하는 등 문화재급 한옥의 위용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전시설비 등 현대적 기능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옥풍 건축은 현대 구조로 건축되었지만 한옥의 외형으로 꾸민 건물로서 전남축산

기술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연구실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철골조로 건물을 조성한 다음 목재로 철골을 감싸 한옥의 모습을 만들었다. 2층 구조의 어색함을 감쇄시키기 위해 아래층은 성벽의 이미지로 꾸몄고, 2층을 마치 누각처럼 보이게 했다. 기타 차고 등을 행랑의 모습으로 조성하고, 철제 난간을 목조 계자각 난간처럼 만드는 등 세부적인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 한실의 사례로는 산본도서관 한옥공간 리모델링과 안산 관산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리모델링을 들었다. 두 곳 모두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 자료실을 한옥풍 인테리어로 꾸민 곳이다.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좋은 평가와는 달리 한옥부채의 마감미 미흡하고 내부에 들인 가구의 재질과 형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이와 같은 한옥들은 모두 주민들이 쉽게 방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어진 사례들로서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 널리 소개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다.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은 이들 건축물의 사업추진과정을 살펴 한옥 공공건축물의 활발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삼고, 아울러 미흡한 부분을 참고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의 한스타일 공공건축 관련 정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스타일 육성종합계획(2007~2011),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2000~2010)과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한옥건축 육성정책(2009)과 한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009), 외교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 추진계획(2009) 등이 대표적이다. 또 서울시의 한옥선언(2008)과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참고할만하다.

이들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한스타일 공공건축 조성사업은 일반적인 공공건축사업의 진행단계와 마찬가지로 기획단계, 계획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한스타일의 특징을 살리고 디자인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가 특히 중요하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 북촌테스크포스팀을 시발로 2009년 한옥문화과가 창설되는 등 지속적으로 한옥건축에 관한 전담조직을 운영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기획이 가능하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한옥주택을 담당하는 행복마을과와는 별도로 공공사업의 경우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어서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이다. 한옥문화진흥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옥건축 시범사업은 대체로 공공건축물에 집중되어 있

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들 수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사업공모, 평가·예산지원 등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한옥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사업결과 보고를 담당하며, 심사위원이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계획, 사업시행, 운영·관리, 예산집행으로 나누어 서면평가를 진행하여 선정한다. 유사한 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부의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시공에 영향을 주는 산업현황에는 자재와 재료비, 인력과 인건비, 공사진행과정에서 담당자들 간의 역할분담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들은 한스타일 건축 산업기반 미비, 한스타일 건축 기술기반 미비, 한스타일 공공건축 추진체계의 전문성 미비의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지원 및 관리방안은 크게 촉진방안, 지원방안, 품질관리방안,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방안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후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들만을 추출했으며, 이에 대한 개괄적인 실천로드맵까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촉진방안은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이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준설계도서를 보급하여 이를 촉진시키며 각종 교육기회와 포상기회를 만들어 한옥문화를 장려하는 방안이다.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선 주민생활 지원시설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보급되고 있는 우체국, 파출소, 주민센터 등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형 한옥정자는 계획·시공으로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옥의 장점을 체험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으며, 한옥 시공실습 교육매뉴얼을 통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한스타일 체험시설은 이미 몇몇 곳에서 효용이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는 공공건축물은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사, 전화국사, 학교 등으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공건축물이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정에 한스타일 건축기획과정을 추가하여 건축담당 공무원의 한옥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기적인 한옥포럼 및 포상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것도 필요한 사안이다.

지원방안은 크게 예산지원, 자재지원, 기술지원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예산지원 부분은 가장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이지만 투입할 수 있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는 특히 2012년 국토해양부의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액을 산정하는 공식을 도출했다. 부족한 예산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연계가능한 프로그램의 복합화를 통해 여러 부처의 예산을 받는 방법과 한 가지 프로그램이지만 여러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산재 이용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한옥 공공건축물에 국산 목재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특히, 간벌재 등 지금까지 한옥 건축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목재를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점도 주목해볼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한옥기술 개발 사업의 성과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한옥 공공건축물을 신기술 개발의 테스트베드로 이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

품질관리방안은 한옥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보장하고 사회적 모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운영방안이 된다. 사업진행과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한옥에 맞게 보완하며, 시공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본적인 체계정비뿐만 아니라 발주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또 한옥의 특성상 일반건축에 비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비 항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도 제시하였다.

법제도 개선부분은 한옥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며, 장기적으로 한옥 공공건축물을 장려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는 부분이다.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안은 한스타일 건축의 표준품셈 개발이다. 현재 한옥기술개발에서 진행 중인 표준시방서 개발 연구는 국내외 현대건축·목조건축·전통목조건축 조사분석, 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 적용 연구 등의 문헌조사 분석과 타 세부 연구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표준시방서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표준품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이밖에 방화지구내 내화구조 기준이라든지 대규모 한옥건물 신축시 건축선 조항 등이 한옥 건축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을 원칙적으로 목조로 건축하는 것을 법령화한 일본의 사례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건축물에 한옥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일도 중요하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한스타일 공공건축물의 기획단계, 준공단계, 유지관리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가이드라인의 기본목표는 한옥 특유의 건축적, 공간적 요소의 현대화 방향에 대한 공통의 이해기반 마련, 한스타일 건축의 최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디자인 지침 마련,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한옥 품질관리 지침 제공으로 요약된다.

한스타일 공공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한옥공간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품격과 최소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신한옥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실과 한식경관의 조성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한스타일 공공건축 설계 공모를 위한 설계지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설계사 선정 이후 기본설계 진행시 자문회의 안건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침이다.

한스타일 공공건축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은 전통 구법에 준하여 신축되거나 개보수된 한스타일 건축물의 완성도와 품질상태를 검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침으로서, 신한옥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통한옥과, 한실, 한식경관의 조성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은 활용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준공 가이드라인은 한옥 시공중 주요 공정이 끝날 때마다 책임 감리자 혹은 감독관이 시공 완성도를 검사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관리 가이드라인은 사후 한옥의 품질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한스타일 공공건축은 독립적으로 활성화될 수 없다. 현재 한옥 산업이 지닌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으며, 이에 더해 공공건축의 사업체계가 갖는 불합리한 단점들도 더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문화의 진흥을 선도하고 바람직한 공공건축물의 모범으로서 제시될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다.

참고문헌

- 강만호, 정훈, 주석중(2009), “생활한옥 모형개발을 위한 한옥의 의장요소 선호도 분석”, 「대한건축학회」, v.11.
- 건설교통부(1997), 「공공건축물의 설계표준화 지침서 개발연구」, 건설교통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교육과학기술부.
- 구가도시건축(2009), 「산본도서관 설계설명서」, 구가도시건축.
- 구가도시건축(2011), 「구로구립 글마루 어린이 한옥도서관 작품 설명서」. 「제1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준공부문 자료」, 국토해양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0), 「공공건축물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토해양부(2008), 「한옥건축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기획 연구」,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2008),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연구」,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2008), 「한옥마을 조성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2009),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2010), 「한옥 환경성 평가 및 한옥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2011), 「지자체 한옥건축 사업지원 공모 평가자료」,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2011), 「한옥 활성화 실천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2010), “한옥 세계화에 앞장서는 국회(2010.3.18)”, 「국회사무처포털」, www.assembly.go.kr.
- 김상호·김영현·이민우(2009),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 개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상호·엄운진(2010),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성홍(2004),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복합도시건설추진단.
- 김용미(2009), “현대건축과 한옥의 결합가능성”,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53.
- 김진욱·박태성·이민우·이진민 (2009), 「공공 건축물 설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자인행정 지원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NEO JAPANESE 홈페이지, <http://neo-japanesque.net/>
- 문화체육관광부(2008),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국토해양부.
- 문화관광부(2008),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2차 변경계획」, 문화관광부.
- 문화재청(2007), 「古都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안」, 문화재청.
- 박지민(2007), 「전남지역 전통한옥 안채의 규모체계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진준(2010), 「한옥건축의 활성화 방안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 산림청(2010), 「국산재 이용 한옥표준모델 개발」, 산림청.
- 산본도서관(2011), 「산본도서관 한옥공간 조성」, 산본도서관.
- 서수정·조준배·임현성 (2007), 「공공 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손승광(2008), 「전통한옥의 도시집합주거로 발전 가능성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연합뉴스(2007), “고양시‘전통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2007년 8월 13일자 기사)
- 염철호·임현성(2010),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영암군청 문화관광과(2008), 「악성 김창조선생 기념관 및 사당 건립사업-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지침서」,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 오병욱 외(2009), 「학교시설 복합화 실행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상민·김진욱·이민우 (2009),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석범(2011), 「문화재수리복원사업 관리 개선방안 - 건설사업관리적용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일본 국토교통성, http://www.mlit.go.jp/gobuild/gobuild_fr4_000002.html
- 일본 입업청, <http://www.rinya.maff.go.jp/j/riyou/koukyou/index.html> 문화관광부(2006),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문화관광부.
- 전라남도(2006), 「한옥 시공 매뉴얼」, 전라남도.
- 전라남도 행복마을 홈페이지, <http://www.happyvil.net/>
- 전봉희(2006), 「현대적 편의성에 전통에의 충실도에 따른 한옥의 분포양상」
- 전봉희(2006), 「한옥의 브랜드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 연구」, 국학연구 v.8, pp.275-317.

전원생활(2009), 2월호.

조정구(2007), 「ARCHITECT 조정구-안동군자마을회관」, 건축문화, 2007년 9월호

조명래(2007), “우리의 공공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건축포럼 발제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차주영 외(2009), 「지역 중심생활공간으로서 학교시설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중·개축을 통한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을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친환경매거진 <http://www.digitalorganic.ne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6),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자재의 표준화 연구」,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7), 「공공건축물의 설계표준화 지침서 개발 연구」,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0), 「건축도시·환경 공공사업 정책실태조사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축역사학회(2011), 「2011년 한국건축역사학회 3월 월례회 자료집」,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역사마을가꾸기”,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

한국목재신문(2011) “간벌목 한옥용 목재로 재탄생”(2011.11.4일자 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2009), 「신한옥마을 시범사업 시행방향 및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 국토해양부.

한스타일 홈페이지, <http://www.han-style.com/hanok/index.jsp>

A Study on Policy Measures for Provision of the Han-Style Public buildings

Lee, Kang Min
Ok, Chae Won

This study investigates policy measures for the provision of Han-style public buildings as a way to promote Hanok architecture. Han-style is a brand of Korean tradition that is unique and has potential to be promoted with supports by the government. As Han-style public buildings belong to both Hanok and public buildings, this study starts with clarifying the range of Han-style buildings.

Generally, Hanok is defined as wood-framed house made of natural materials and covered with Korean traditional roof. However, as Hanok evolves into diverse types, this definition is too limited to cover the whole trends. In this study, Han-style architecture ranges the whole types of Hanok and modern buildings with unique characteristics of Hanok. On the basis of two factors-'convenience for modern life' and 'closeness to the tradition', Han style architecture is categorized into four types ; 'Cultural property', 'Traditional Hanok', 'New-hanok', 'Hanok-style building', 'Han-sil'.

'Traditional Hanok' means modern and premodern buildings which need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ies. 'New-Hanok' refers to contemporary Hanok which has evolved into diverse ways. This type is the main subject of promotion policy. 'Hanok-style buildings' are buildings designed with traditional motif. Although this is not the subject of promotion policy, it is worth being referred in terms of its convenience for the implementation. Lastly, 'Han-sil' means Hanok space that is partially implemented in contemporary buildings.

In terms of public buildings, this study limits the scope of Han-style public buildings to facilities and space environments which are order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uilt with public budget, and opened to the public. On the basis of supportive results from a survey on Han-style public buildings by AURIC, the provision of Han-style facility is expected to result in influential promotion of Hanok among the public.

Based on the criteria on Han-style public buildings, 60 completed or almost constructed projects are selected from mass media reports since 2000. The analysis shows that, 'New-Hanok' is the leading type among current Han-style public buildings, and Jeolla-do is the most active province promoting Hanok public buildings. Based on the statistical survey on current trends of Han-style public buildings, the following 12 projects are selected and analyzed as representative ones in building types, building programs, design strategy, and locality.

Hyewha dong community center is an example of remodeled 'Traditional Hanok'. The second remodeling of restoring Hanok space, 'Maru' and 'Ondol-room' is currently under the construction. The seven examples of 'New-hanok' range from traditional wood structure to mixed structure of concrete and wood. Despite the fact that projects such as Sarang-Jae and Gunja village community center are constructed by carpenters in traditional way, it is notable that space organizations of them were designed to meet modern programs. Guro-gu Hanok Library is also a traditional wood structure building. But it is designed as two-stories Hanok that is rare and creating diverse spaces. It is highly evaluated with its modern programs and diverse transformations of traditional spaces such as 'madang' and 'darak'. Namsan Traditional theater in Seoul and Yun Seondo Museum in Haenam are mixed structure buildings. . The underground space with sunken garden and atrium receiving skylight suggests a remarkable solution for maintaining aesthetic values of Hanok's human scale, meeting contemporary program needs by providing bright underground spaces which interact with outdoor spaces. F1 bridge is a long span wood truss traversing auto racing tracks, using steel connectors. It is notable that this modern wood structure displays a traditional appearance. Wan-do forest museum adopted a 15th century wood structural style to present a magnificent appearance, however, it failed in making the interior

Hanok space suitable for modern museum programs and unique in its traditional style. Compared to the previous two types of Han-style public buildings, 'Hanok-style building' and 'Han-sil' are easy to be constructed and cost less than other two types. Jeolla Nam-do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Hanok-style building'. By finishing steel columns and beams with wood, and designing the elevation ration traditional, this two-stories building looks like an Hanok on castle wall. Two projects of Hansil-Children's reading rooms in Sanbon library and Gwansan library are highly valued as satisfying facilities to the neighborhood.

In terms of performing process, the flaws revealed from the analysis on twelve projects above would be a reference and a basis for design and management guideline for Han-style public buildings.

Along with the analysis on the 12 projects above, it is necessary to inspect current policies and administrative process of Hanok public building projects.

Representative current policies and programs by central government are the followings; Intergrated plan for Han-style promotion as a pan-government task (2007~2011), Confucious Tourism development task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2000~2010) a task for the vitalization of Hanok space (2000~2010), a policy for the promotion of Hanok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MLTM) (2009), system improvements for Hanok (2009), a plan to promote Global Korea b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FAT) (2009). Similar Hanok promotion policies by local governments are Seoul Hanok manifesto (2008) and Happy village task in Jeolla-namdo.

The performing process of Han-style public buildings follows the same phases of general public buildings ; planning, designing, construction, management. Among them, planning is the most important phase deciding the character and quality of Hanok. Thus, the planning role of organizations for Hanok architecture such as 'Bukchon Task Force Team', 'Department of Hanok in Seoul' and 'Division of Happy village' in Jeolla-do is very crucial to the future of Han-style public buildings.

As programs of Hanok promotion policy, two demonstrative pilot projects for Han-style public buildings were performed by MLTM and MCST. In both projects,

each department played limited role in offering, valuing, budgeting, and supporting projects. As practical performer of projects, local governments were selected based on the submitted reports on the plan, schedule, management of building quality, operation of budgets. Even though work flow and management plan suggested by local governments are insufficient to warrant high-quality Hanok, Hanok facilities and Hanok spaces implemented in public buildings are evaluated to have created positive impacts on neighborhoods.

In addition to systematic performance of Hanok task, another prerequisite for boosting Hanok industry is overcoming obstacles to high-quality Hanok construction. The deficient supply of high-quality timber resources, high labor costs for carpenters, and disorganized work flow of Hanok constructions, especially when the structure is mixed structure of traditional wood structure and modern concrete or steel structure, should be solved first. In this sense, new policy measures supporting Hanok industry is important to promote Han-style public buildings.

From the analysis above, this study suggests four kinds of policy measures for promoting Han-style public buildings; stimulus measures, supporting measures, management measur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timulus measures consist of four programs. First, Han-style space can be reintroduced in the community facilities to help neighborhood experience Hanok space in their routine life. Secondly, Jeong-ja(Korean pergola) construction program by the neighborhood can be a good way to educate people. By participating in the whole process of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the neighborhood can learn Hanok thoroughly. An educational guideline book for Hanok construction by the local government would be helpful for this program. Thirdly, Han-style programs for children can be connected with projects for improving educational facilitie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By doing this, Hanok space can be introduced through diverse facilities for children. Lastly, informational campaign on Hanok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training programs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would be in charge of architectural works for the province.

Supporting measures are funding and material supplying programs. First,

funding budget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sures. But the efforts to raise fund should be made in a diverse way as the fund itself is limited. Secondly, domestic timber supplying system for Hanok can be constructed. By connecting this program with that of 'Korea Forest Service', architectural resources can be supplied in low costs, and new demands for domestic timbers that has not been widely used for Hanok can be created. Thirdly, funding current Hanok R&D by MLTM can be considered as a way for developing Han-style public building technologies.

Management measures aim to ensure the dignity of Han-style public building spaces. Providing special organizations for Han-style public buildings, design and management guidelines, and reinforcing the standards of qualifications for the construction companies can be considered as detailed measures. Additionally, high maintenance fee of Hanok needs to be took into account.

The last one i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By inspecting impediment factors, possible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be suggested for long-lasting promotion of Han-style public buildings. Standards for fireproof construction and building line fall under this case. Above all, the most urgent issue is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Standard Estimating system of Han-style public buildings. For this, current R&D of Architectural standard specifications for Hanok need to be spurred.

In the last part of this study, guidelines for Han-style building design and management are suggested. They have three purposes ; being a basis for understanding Hanok's unique architectural elements and its evolution, providing a design guaranteeing the minimum quality of Han-style architecture, and providing management guidelines for government officials' convenience.

Han-style public building Design guideline provides criteria on the uniqueness of Hanok space. This goes for 'New-Hanok' type and partially applied to other types. This can be used not only as a guideline for designers, but also as agendas for advisory committee at planning and design phases.

Han-style Management guideline aims to provide management standards for examining and managing building condition of New Hanok or remodeled traditional

Hanok. This comprises of two types of time-based guidelines with different uses. One is used to examine the completeness of each construction phase by the construction supervisors or architectural officials. Another is used to inspect the condition of Hanok periodically after the construction by architectural officials.

To conclude, Han-style public buildings cannot be promoted independently. It carries all the complex problems of current Hanok industry. Moreover, the defective administrative process of public building tasks are obstacles to new policy measures for Han-style public buildings. However, Han-style public buildings are worthy of being studied because they have potentials to play leading roles in promoting Hanok culture and to suggest desirable alternative models for public buildings.

부록 1. 일본 공공건축 목재이용에 관련 법률 및 방침

1)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⁹³⁾

목 차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2장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제7조- 제16조)

제3장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 이외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
(제17조-제20조)

부칙

제 1 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목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의 방지, 순환형 사회의 형성, 삼림이 가지는 국가 흙의 보전, 수원의 함양 그 외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 및 산촌 그 외의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 등에 의하여,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 장관 및 국토 교통 대신이 책정하는 기본 방침 등에 대해 정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건축물의 정비의 용도로 제공하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의 확보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등에 의하여 목재의 적절한 공급 및 이용의 확보를 통한 임업의 지속적 한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따라서 삼림의 적절한 정비 및 목재의 자급율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1. 이 법률에 대해 「공공건축물」이란, 다음에서 제시한 건축물(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2백1호) 제2조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93) 제174회 통상 국회에서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헤세이 22년 법률 제 36호)이 성립하여 5월 26일에 공포되어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 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정비하는 공공의 용도 또는 공용에 제공하는 건축물
- 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사람이 정비하는 학교, 양로원 그 외의 전호로 제시한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 2. 이 법률에서 「목재이용」이란, 건축 기준법 제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주요 구조부 그 외의 건축물의 부분의 건축재료, 공작물의 자재, 제품의 원재료 및 에너지원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그 외의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러한 목재를 사용한 목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이 법률에서 「목재 제조의 고도화」란, 목재의 제조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사람이, 공공건축물의 정비의 용에 제공하는 목재의 제조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의 정비, 고도의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지는 인재의 확보 그 외의 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건축물의 정비비용으로 제공하는 목재의 공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

- 1. 국가는,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및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안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인 것 그 외의 전조 제1항 제1호에서 제기하는 건축물의 성질에 의하여 목재에 대한 수요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솔선해 그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에 노력해야 한다.
- 3. 국가는, 목재에 대한 수요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재이용의 촉진과 관련되는 대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4. 국가는, 목재이용의 촉진에 있어서는 공공건축물의 정비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목재가 적절히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 것에 비해 목재제조의고도화의 촉진 그 외의 공공건축물의 정비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5. 국가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건축재료로서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조의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 기준법 등의 규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목재의 내화성 등에 관한 연구의 성과, 건축의 전문가 등의 전문적인 지견에 근거한 의견, 여러 국가에 있어서의 규제의 상황 등을 근거로 하고 검토를 더해 그 결과에 근거하여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에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6. 국가는,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연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인재의 육성 그 외의 목재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된다.

7. 국가는, 교육 활동,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 실시에 관한 국민의 협력을 요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구역의 경제적 사회적제조건에 따라 국가의 시책에 준해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하는 시책을 책정하여 및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그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의 노력)

제5조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 등에 관하여 목재이용의 촉진에 스스로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의 노력)

제6조 국민은, 목재이용의 촉진에 스스로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

(기본방침)

제7조

1. 농림수산부 장관 및 국토 교통 대신은,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 이라고 한다.)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제시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의 의의 및 기본적인 방향
 - 나.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다. 국가가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목표
 - 라. 기본방침에 근거해 각 성 각 청의 장(재정법(쇼와 22년 법률 제314호) 제210조 제2항에 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다.)이 정하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마. 공공건축물의 정비의 용도로 제공하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사. 그 외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본방침은,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상황, 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

- 에 관한 기술 수준 그 다른 사정을 감안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농림수산부 장관 및 국토 교통 대신은, 경제 사정의 변동 그 외 정세의 추이에 의해 필요가 생겼을 때는, 기본방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5. 농림수산부 장관 및 국토 교통 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해 또는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각 성 각 청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6. 농림수산부 장관 및 국토 교통 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해 또는 이것을 변경했을 때는, 지체 없고, 이것을 공포함과 동시에, 각 성 각 청의 장 및 도도부현 지사에 통지해야 한다.
 7. 농림수산부 장관 및 국토 교통 대신은, 매년 1회, 기본방침에 근거하는 조치의 실시 상황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도부현 방침)

제8조

1.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방침으로 입각하여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방침(이하 「도도부현 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제시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 나. 해당 도도부현이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목표
 - 다.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있어서의 공공건축물의 정비의 용도로 제공하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의 확보에 관한 기본목표 사항
 - 라. 그 외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
3. 도도부현 지사는, 도도부현 방침을 정해 또는 이것을 변경했을 때는, 지체 없고, 이것을 공표하도록 노력과 함께, 관계 시읍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읍면 방침)

제9조

1. 시읍면은, 도도부현 방침으로 입각하여 해당 시읍면의 구역내의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방침(이하 이 조에 대해 「시읍면 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할 수 있다.
2. 시읍면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제시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해당 시읍면의 구역 내의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 나. 해당 시읍면이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목표

마. 그 외 해당 시읍면의 구역 내의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

3. 시읍면 방침에 대해서는, 전항 각 호로 제시한 사항 외, 해당 시읍면의 구역 내에 있어서의 공공건축물의 정비의 용도로 제공하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시읍면은, 시읍면 방침을 정해 또는 이것을 변경했을 때는, 지체 없고, 이것을 공표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재제조고도화계획의 인증)

제10조

1. 목재의 제조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사람은, 목재 제조의 고도화에 관한 계획(이하 「목재제조고도화계획」 이라고 말한다.)을 작성하여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한데 근거하여 이것을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목재제조고도화계획이 적당한 취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 목재제조고도화계획에는, 다음으로 제시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가. 목재 제조의 고도화의 목표
 - 나. 목재 제조의 고도화의 내용 및 실시기간
 - 다. 공공건축물의 정비의 용도로 제공하는 목재의 제조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시설의 종류 및 규모
 - 라. 삼림법(쇼와 26년 법률 제2백 49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울 수 있었던 지역 삼림계획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향에 규정하는 민유림(동법 제2십오조 또는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보안림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보안시설 지구의 구역 내 및 해안법(쇼와 31년 법률 제101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해안 보전 구역 내의 삼림(삼림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숲을 말한다. 제4항에 대해 같다.)을 제외한다.)에 두어 전호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삼림법 제1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개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 마. 목재제조의 고도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3. 농림수산부 장관은, 제1항의 인증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대하고, 그 목재제조고도화계획이 기본방침에 의하여 적절한 것이며, 한편, 목재 제조의 고도화를 확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인증할 때는, 그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농림수산부 장관은, 제2항 제4호로 제시한 사항이 기재된 목재제조고도화계획에 대해 제1항의 인증을 하려고 할 때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동항 제3호의 시설의 정비의 용도로 보조자하는 삼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대하여 해당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개발 행위가 삼림법 제10조의 2 제2

- 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증할 때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한다.
5.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동의를 하려고 할 때는 도도부현 삼림 심의회 및 관계 시읍면장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재제조고도화계획의 변경 등)

제11조

1. 전조 제1항의 인증을 받은 사람(이하 「인증 목재 제조업자」 라고 한다.)은, 해당 인증과 관련되는 목재제조고도화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농림수산부 장관의 인증을 수 없으면 안 된다. 다만,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2. 인증 목재 제조업자는, 전항 다만 책의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농림수산부 장관은, 인증 목재 제조업자가 전조 제1항의 인증과 관련되는 목재제조고도화계획(제1항의 규정에 변경의 인증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신고가 있을 때는, 그 변경 뒤의 것. 이하 「인증목재제조고도화 계획」 이라고 한다.)에 따라서 목재제조의 고도화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증할 때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전조 제3항으로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인증에 대해 준용한다.

(임업·목재산업개선자금 조성법의 특례)

제12조 임업·목재산업개선자금 조성법(쇼와 51년 법률 제42호) 제2조제1항의 임업·목재산업개선 자금이며, 인증 목재 제조업자가 인증 목재제조고도화계획에 따라서 목재 제조의 고도화를 실시하는데 필 요점인 물건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은 동법 제 5 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1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삼림법의 특례)

제13조 인증 목재 제조업자가 인증 목재제조고도화계획(제10조 제2항 제4호로 제시한 사항이 기재된 것에 한정한다.)에 따라서 동항 제 3 호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발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삼림법 제10조의 2 제1항의 허가가 있던 것으로 간주한다.

(국유시설의 사용)

제14조 국가는 정부명령으로 정하는 것에 근거하여 공공건축물의 정비의 용도로 제공하는 목재의 생산에 관한 시험 연구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국유의 시험연구시설을 사용허락할 경우에 대해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증할 때는 그 사용의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보고의 징수)

제15조 농림수산부 장관은, 인증 목재 제조업자에 대하여 인증 목재제조고도화계획의 실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벌칙)

제16조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사람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 동항의 형을 과한다.

제3장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 이외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

(주택에 있어서의 목재이용)

제17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가 단열성, 습성조절기능 등이 뛰어나 자외선을 흡수하는 효과가 높은 일, 국민의 목조주택에의 지향이 강한 일, 목재이용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인 것 등에 촉진하기 위해 목재를 이용한 주택의 건축등을 촉진하기 위해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원조, 목조주택에 관한 전시회의 개최 그 외의 그 수요의 개척을 위한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공공시설과 관련되는 공작물에 있어서의 경관의 향상 및 위안의 양성을 위한 목재이용)

제18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를 이용한 guardrail, 고속도로의 차음벽(遮音壁), 공원의 책(柵) 그 외의 공공시설과 관련되는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그 주위에 있어서의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 등을 설득함과 동시에 그러한 목재를 이용한 공작물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를 이용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원조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나무의 성질 바이오매스의 제품 이용)

제19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바이오매스(동식물에 유래하는 유기물인 자원(원유, 석유 가스, 가연성 천연가스 및 석탄(이하 「화석 자원」 이라고 한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중목에 유래하는 것(아래 「나무의 성질 바이오매스」 라고 한다.)에

대하여 펄프, 종이 등의 제품의 원재료로서의 이용 등 종래부터 행해져 온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 외에 그 용도의 확대 및 다단계의 이용(우선 제품의 원재료로서 이용하여 재사용 하여 및 재생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품의 원 재료로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나무의 성질 바이오매스를 화학적 방법 또는 생물적 작용을 이용하는 방법 등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써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의 추진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나무의 성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제20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나무의 성질 바이오매스를 화석 자원의 대체 에너지로서 이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의 억제 및 나무벌채 또는 간벌에 의해 발생하는 미 이용의 나무의 성질 바이오매스의 유효한 이용에 등에 의하여 나무의 성질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의한 그 이용의 촉진, 나무의 성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이용과 관련 되는 정보의 제공,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의 추진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하고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고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검토)

제2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했을 경우, 이 법률의 시행의 상황에 대해 검토를 가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2)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요

-헤세이 22년 10월, 임 야 청(林野庁)

1. 취지

본성(省)령은,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헤세이 22년 법률 제 36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에 수반하여 목재 제조 고도화 계획의 인증의 신청수속 등을 정하는 것이다.

2. 개요

- (1) 목재제조고도화 계획의 인증의 신청 및 변경의 인증의 신청(제1조 및 제2조 관계)
 - 목재제조고도화 계획의 인증의 신청 및 변경의 인증의 신청 시에 필요한 신청서의 양식 및 첨부 서류를 정한다.
- (2) 목재 제조 고도화 계획의 경미한 변경(제3조 관계)
 - 법 제 11조 제 1항 다만書の 농림 수산성(水産省)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이름 및 주소의 변경 등을 정한다.
- (3) 국유시험연구시설의 감액사용의 수속(제4조 관계)
 - 국유시험연구시설의 감액 사용과 관련되는 인증신청수속(신청서의 양식 및 첨부 서류) 및 인증 수속(인증서의 교부 및 그 양식)을 정한다.

3. 시행 기일

- 법의 시행의 날(헤세이 22년 10월 1일)

3)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요

- 헤세이 22년 10월, 임 야 청(林野庁)

1. 취지

- 본 정령은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헤세이 22년 법률 제36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에 수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사람이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의 범위, 임업·목재 산업개선 자금의 특례의 상환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개요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사람이 정비하는 공공건축물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사람이 정비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이하의 건축물을 정한다.

학교; 양로원, 탁아소, 복지 홈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사회 복지시설; 병원 또는 진료소; 체육관, 수영장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운동시설; 도서관, 청년의 집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사회 교육시설; 차량의 정거장 또는 선박 혹은 항공기의 발착장을 구성하는 건축물에서 여객의 승강 또는 약속의용으로 제공하는 것; 고속도로의 통행자 또는 이용자의 편의에 제공하기 위한 휴식소

(2) 임업·목재산업 개선 자금의 특례의 상환기간

- 인증 목재제조업자가 인증 목재 제조 고도화 계획에 따라서 목재 제조의 고도화 진행에 필요한 임업·목재산업 개선 자금의 상환 기간에 대해서, 10년 이내로부터 12년 이내로 연장한다.

(3) 국유시험연구시설의 감액 사용

- 공공건축물의 정비의용으로 제공하는 목재의 생산에 관한 시험 연구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사용시키는 국유의 시험연구시설로서 「소방청 소방 대학교」의 시험연구시설을 지정하여 사용의 대가의 5할 이내를 감액하는 취지를 정하는 것과 동시에, 국유시설의 사용의 대가의 감액과 관련되는 인증 수속을 정한다.

3. 시행 기일

- 법의 시행의 날(헤세이 22년 10월 1일)

4) 국가의 기본방침의 주된 포인트

1.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의 의의 및 기본적 방향
 -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이, 임업의 재생이나 삼림의 적정한 정비, 지구 온난화의 방지 등에 공헌하는 것
 - 과거의 비목조화의 생각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목조화, 내장 등의 목질화 도모라는 생각으로 전환
2.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 건축 기준법 그 외의 법령에 근거하는 기준으로 내화건축물로 하는 것 등이 요구 등 없는 저층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조화 촉진
 - 목조화를 촉진하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의 예(재해응급대책 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 목조화가 곤란한 경우에서도 내장 등의 목질화, 비품이나 소모품으로서의 목재이용, 목질 바이오매스(biomass)의 이용을 촉진
3. 국가에서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목표
 - 국가는, 그 정비하는 공공건축물 가운데, 적극적으로 목조화를 촉진하는 공공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저층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원칙으로서 모두 목조화를 도모
 - 고층·저층에 관련되지 않고 내장 등의 목질화, 비품이나 소모품으로서의 목재이용을 촉진하는 것 외에 난방 기구 등에의 목질 바이오매스 연료의 도입에 노력하는 등
4. 기본방침에 근거해 각 성 각 청의 장이 정하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기본적 사항
 - 각 성(省) 각 청(庁)의 목재이용의 방침·목표의 설정, 추진체제 등
5. 공공건축물의 정비의 용도로 제공하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
 - 공공건축물의 정비에 적절한 목재의 원활한 공급의 확보, 합법 목재의 공급·이용의 촉진
6. 그 외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 도도부현 방침 또는 시읍면 방침을 작성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유지 관리를 포함한 공공건축물의 정비 등에 대해 비용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관계 부처 등 연락 회의의 설치

5) 국토교통성 공공건축물목재이용촉진연락회의 설치

2011 .3.9

1. 취지

-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헤세이 22년 법률 제36 호)」 및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헤세이 22 년 농림 수산성, 국토 교통성 고시 제3호)」에 근거하여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의 이용의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국토 교통성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계획」이라고 한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국토 교통성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 연락 회의(이하 「공공건축물 부처 내 연락 회의」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부처 내 관계 부국 간의 원활한 연락·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구성

- 공공건축물 부처 내 연락 회의의 구성원은 별기대로로 한다.

3. 임무

- 국토 교통성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계획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일
- 국토 교통성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계획에 근거하는 조치의 실시의 상황에 관한 일
- 국토 교통성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계획의 추진과 관련되는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 그 외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

4. 사무국

- 공공건축물 부처 내 연락 회의의 서무는, 국토 교통성대신 관방관청 영선부 관리과 및 정비과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 (별기)

- 국토 교통성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 연락 회의의 구성원
- 대신관방 회계과장
- 대신관방 복리후생 과장
- 대신관방 관청 영선부 관리 과장
- 대신관방 관청 영선부 정비 과장 (◎)
- 도시·지역 정비국 총무과장
- 하천국 총무과장
- 도로국 총무과장
- 자동차 교통국 총무과장
- 항만국 총무과장
- 항공국 감리부 총무과장
- 국토 기술 정책 종합 연구소 총무부 총무과장
- 국토 지리원총무부 총무과장
- 기상청 총무부 총무과시설물품 관리실장
- 해상보안청 장비 기술부 시설보급 과장(◎)은 의장

6) 목조 계획·설계 기준

1. 목조 계획·설계 기준의 제정 <H23.5.10>

- 관청 영선부에서는, 목조의 관청 시설의 설계의 효율화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목조 계획·설계 기준」을 제정했다. 본 기준에 대해서는 관청 영선부의 기존의 기준에서는 부족한 목조의 건축 설계에 관해 내구성, 방내화, 구조 계산 등의 기술적인 사항 및 표준적인 수법을 정하고 있다.(목조 계획·설계 기준의 개요, 목조 계획·설계 기준 및 동 자료)

2. 목조 계획·설계 기준 검토회 <H22.7.29>

- 관청 영선부에서는 다 법률의 성립을 받고 관청 시설과 관련되는 「목조 계획·설계 기준(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며 동 기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목조 계획·설계 기준 검토회」를 설치했다.
- 본 검토회에서는 목조의 관청 시설과 관련될 계획·설계의 효율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기술적 관점으로부터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도중을 목표로 「목조 계획·설계 기준(가칭)」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 덧붙여 관청 영선부에서는동검토회로부터의 보고를 받고 금년 중에 「목조 계획·설계 기준(가칭)」을 제정할 예정으로 하고 있어 이 기준의 제정에 의하여 목조로 공공건축물을 정비할 때의 기술적인 검토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설치 규약, 위원 명부)

3. 개최 상황 등

- 제1회(헤세이 22년 7월 29 일 개최) 議事次第 의사개요
- 제2회(헤세이 22년 9월 21 일 개최) 議事次第 의사개요
- 제3회(헤세이 22년 11월 22 일 개최) 議事次第 의사개요
- 제4회(헤세이 22년 12월 20 일 개최) 議事次第 의사개요
- 제5회(헤세이 23년 1월 31 일 개최) 議事次第 의사개요
- 제6회(헤세이 23년 2월 24 일 개최) 議事次第 의사개요

부록 2. 설문조사 댓글토론 내용

[설문]한옥과 가장 어울리는 공공건축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간 : 2011.05.09 ~ 2011.05.22



[그림출처] 한겨레

■ 구로구에 첫 한옥 어린이 도서관 생긴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4220065>

■ [한국건축문화대상/사회공공부문 대상] 남산국악당, 일반 한옥과 차별화

<http://economy.hankooki.com/page/estate/200910/e2009100418290369550.htm>

■ [진화하는 한옥의 재발견] <3> 윤대길의 도교 한국문화원 사랑방

<http://news.nate.com/view/20100818n01197>

■ 최초 한옥청사 해화동사무소입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202543.html>

1) 문화 및 전시시설(박물관, 공연장, 전시관 등)	<div><div></div></div>	253명 (35%)
2)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어린이집, 노인정 등)	<div><div></div></div>	225명 (31%)
3)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 등)	<div><div></div></div>	50명 (7%)
4) 대사관 및 외교 공관	<div><div></div></div>	156명 (22%)
5) 대규모 청사(도·시·군·구청 등)	<div><div></div></div>	38명 (5%)

야간비행 2011-05-22 오후 11:59:11

우선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한옥으로 짓고, 인식이 굳어지고 확산되면 대사관과 행정청사 등과 교육시설에까지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철철 2011-05-22 오후 8:43:24

주위에서 쉽게 볼수 있으면 좋을것 같네요

흐음.... 2011-05-22 오후 3:48:40

해화동 사무소 참 보기 좋네요~~~^^사회복지시설이 그 활용 용도 면에서나, 인지성 등에서 매우 효과적인 거 같습니다.

김정현 2011-05-22 오후 3:21:55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음 편한 곳이면 좋겠네요.

하종휘 2011-05-22 오후 1:47:18

전통건물과 문화의 결합이 새로운 트렌드라 봅니다

전조각 2011-05-22 오전 11:41:19

쉽게 보여지는 시설에 한옥이 잘어울릴것 같습니다.

fruitskwan 2011-05-21 오후 5:43:59

개인적으로는 교육시설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짐.

동바리 2011-05-21 오전 12:36:38

빌딩숲속이든, 산속이든, 주택가든...무엇이든 어울리지 않을까요?

곰돌이 2011-05-21 오전 12:12:25

대표적인 공공건물이 한옥의 형식으로 들어선다면 즐거울거 같습니다.

ykh8802 2011-05-20 오후 7:56:28

제 생각에는 그나마 문화 및 전시시설이 어울리겠네요. 그것도 소규모일때의 이야기고...스케일이 커지게 되면 한옥 고유의 특성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국장 2011-05-20 오후 6:38:09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다면 눈이 즐겁겠군요...

nadowoo 2011-05-20 오후 5:45:30

전통건물과 문화의 결합이 새로운 트렌드라 봅니다

maya 2011-05-20 오후 4:36:27

주변에 많은 전통 건물을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gregorio 2011-05-20 오후 3:40:59

한옥은 목수와 와공의 맘과 노력이 배어있는 진정한 건물이라 생각합니다.

hso0913 2011-05-20 오후 1:16:37

다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한국을 알리는 대사관이 우선적으로 되야할듯하네요

스나이퍼 2011-05-20 오전 10:40:37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관공서등에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것은 소중한니깐

뉴욕으로 2011-05-19 오후 11:13:49

박물관!

주니 2011-05-19 오후 9:51:47
우리나라사람만이 아닌 다른 외국인도 그 아름다움을 함께 느꼈으면해서웃 ㅋ

유요 2011-05-19 오후 7:05:54
조화를 잘 시킨다면 무엇이든 어울릴듯.

구길 2011-05-19 오후 6:02:10
잘만하면 다 어울림.

아르곤주입 2011-05-19 오후 3:52:12
공관으로 한표~

그냥 2011-05-19 오후 2:13:01
대사관 및 외교공관을 한옥으로 건립하여 우리 한옥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반드림 2011-05-19 오전 10:37:01
공공시설물에 점차적으로 저런 한옥으로 많이 변환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아이 2011-05-19 오전 9:39:33
한옥은 우리것이므로 일상적으로 자주 접할수 있는것 생활화 할수 있는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과 가까이 활용할수 있는 시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ark21 2011-05-19 오전 9:04:03
한옥의 경우 규모가 큰것은 잘 안어울릴 것 같다. 작지만 여러 켠이 섞여있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

sddus 2011-05-19 오전 9:03:29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어린이집, 노인정 등)

maco 2011-05-18 오후 9:01:53
한옥에 현대적인 감각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가미시키는 것! 디자이너들의 고민사항이 아닌지?

둘맹이 2011-05-18 오후 8:25:11
교육시설을 한옥으로 지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한옥을 체험하면서 특별한 공간 경험을 체득할 수 있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잡초 2011-05-18 오후 3:59:10
이젠 해외의 공관을 신,개축시에는 한옥이 가미된 내외부를 하여도 별 손색이 없으리라 사료됨 물론 위치에 차이는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신장을 하였다는 증거이죠.

테오 2011-05-18 오후 3:30:38
어떤 시설로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사이트에 어떤 성격을 가진 건물을 짓느냐를 논할 때 한옥의 방식을 도입하느냐하는 고민도 나올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긴 유지보수나 사용성, 경제성등 여러문제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킬힐은노자의매력 2011-05-18 오후 2:57:10
외교활동에서의 한옥은 우리가 말로서 그들에게 한국을 알리지않아도 큰무기가 될수있을것으로 생각된다

hint 2011-05-18 오후 2:36:47
외국에서도 공공 건축물 중 시청과 같은 청사가 전통적인 형태를 띄고있어 관광객은 물론 시민에게도 친숙하게 전통을 느낄 수 있게 지역에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에 청사가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튼튼 2011-05-18 오후 2:30:27

배산입수에 맞게 지어지는게 낫지않을까요. 대지가 자연과 인접한곳이 적당할듯

오감득 2011-05-18 오전 10:00:55

쉽게 접근가능한 곳부터

하늘 2011-05-18 오전 9:51:58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부터가 좋을 것 같네요..

나무의자 2011-05-18 오전 9:36:52

장소의 특이성이 있는 건물은 외형이든 공간이든 자유로움이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및 전시시설에 적용되어 많은 사람이 한옥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좋은 방향이라도 생각합니다.

이일 2011-05-18 오전 9:31:43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 및 전시시설'을 선택했는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는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도 한옥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browna 2011-05-18 오전 9:19:58

누구나 가볼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공연장, 전시관, 공원 등...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rohae 2011-05-18 오전 9:14:00

한옥이 거의 사라진 요즘 한옥의 공간구조나 한국적인 스케일 등을 적용하여 학교를 지으면 어린 학생들에게 전통이라는 것을 책이나 박물관이 아닌 생활에서 느끼게 해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케니스9 2011-05-18 오전 9:10:43

어릴때부터 우리전통공간을 경험하게 하는게 좋을듯.. 요즘은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한것 같음...

마시멜로 2011-05-18 오전 5:25:08

사회복지시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옥은 우리 고유의 문화인데 시민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람보람 2011-05-17 오후 11:16:36

대사관에 한표 던집니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괜찮겠군요.

달봉 2011-05-17 오후 11:16:02

문화 시설이 외국 사람들이 접근 하기 쉬워서 세계에 우리 문화를 알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여닐 2011-05-17 오후 7:35:36

사실 대규모 청사도 하면 좋겠지만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표~

꿀봉 2011-05-17 오후 4:24:30

문화공간~

물카리스웨트 2011-05-17 오후 3:19:31

대사관이나 외교 공관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홍구 2011-05-17 오전 11:41:33

대사관!!

바라밤 2011-05-17 오전 10:36:56

ㅋㅋㅋ 이걸 어렵네요...

카사비앙카 2011-05-17 오전 10:08:33

대사관 및 외교공관이야말로 한옥이 필요한듯..

계리 2011-05-17 오전 9:44:21
대사관 한표요

누기 2011-05-17 오전 9:43:11
학교쵸 아이들 교육에 좋을 듯

초맨 2011-05-17 오전 9:41:59
각 건축물의 목적과 잘 조화 시킨다면 무엇이든지 좋죠

가필드 2011-05-17 오전 9:11:29
옛 선조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한옥서당 학교도 친환경건축물로 계승발전시키면 좋을것 같은데요!

훈남 2011-05-17 오전 8:59:14
5개의 항목중에 1번으로 선택 하였습니다만.. 더욱더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조합시켜보는것두 괜찮겠습니다.

타루 2011-05-17 오전 8:56:47
한옥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에너지 효율성과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개발됐으면 합니다

kriea 2011-05-17 오전 8:55:56
사람들이 많이 가보는 곳이 좋을듯하네요! 학교가 전통건축물이며, 마치 서당같겠네요!

pjh 2011-05-17 오전 8:54:07
한옥에 대한 재평가도 좋지만 먼저 많이 접할수있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성인들이야 어려서부터 일부 접하고 살아왔지만 지금 어린친구들은 우리의 건축상은 콘크리트 건축물인줄 알고 있으니까요!

nuno 2011-05-17 오전 8:31:32
전통한옥을 딱 어떤 종류의 시설에 국한해서 한정 적용하는것은 좀 어불성설인것 같다.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것도 가능하고, 그 일부나 단지 일부에 한옥을 접목하는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경로로 한옥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다.

을파소 2011-05-17 오전 8:20:10
지금까지 구시대의 유물로만 접근해온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시대 거주자에게 적합한 모델 개발과 관심이 필요 합니다.

ant082 2011-05-17 오전 2:49:31
문화및 전시시설은 전시와 용도에따른,, 하지만 대사관을 그렇게하면,, 우리건축을 알릴수 있는

진룡 2011-05-17 오전 12:38:34
규모상으로 봤을 때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mrlim 2011-05-16 오후 8:20:53
대형 건축물에서의 찍어내기식 한옥 도입은 피해야 합니다. 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게 적용해야지요.

BJUT 2011-05-16 오후 8:05:28
한옥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현대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ozm 2011-05-16 오후 7:52:05
기능과조화시키는데있어야작은큰발전이필요한듯

ko 2011-05-16 오후 7:19:35
한옥의 디자인 요소를 현대건축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은 전통의 맥 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한옥을 건축가의 디자인의 병풍정도로 활용하는 디자인은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스케일 또한 한옥은 한옥의 영조적이어야 한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계이단아 2011-05-16 오후 6:28:25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처럼... 한옥에 들어가는 대표적 프로그램이 전시관이나 박물관이긴 한데 그게 한옥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하고 기대하고 찾는 프로그램이다보니.. 수익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유리해보이긴합니다... 허나 그래서 너무 일편화 된 공공건축물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활활활 2011-05-16 오후 6:24:09

겉으로 보여지는 전통적인 미와 우리의 것이라는 것에 얽매이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먼저 어릴때부터 가까이 하는게 중요하겠죠..

귀염너구리 2011-05-16 오후 6:14:23

한옥이 전통주거양식 문화를 대표하니 문화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jsen 2011-05-16 오후 6:07:29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부터 다가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kevin1 2011-05-16 오후 5:46:08

대사관 및 외교공간에 시도하면 한국건축의 미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콩장 2011-05-16 오후 1:43:03

문화시설에 한표

abcd09072 2011-05-16 오후 1:37:59

외교가 중요

udhee 2011-05-16 오후 1:37:33

한옥의 원형을 세련되게 변형(현대화)시키는 것이 핵심일 것임

qtsun 2011-05-16 오후 12:45:22

꼭 하나를 정한다기 보단 각각의 건축에 어떤 한옥의 특색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freearchie 2011-05-16 오전 11:47:17

한옥의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한 경제성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neosky 2011-05-16 오전 4:07:07

참 좋긴 하네요..

ricky 2011-05-16 오전 3:21:35

학교

콩콩 2011-05-15 오후 11:01:38

커뮤니티 공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RAPHAEL 2011-05-15 오후 8:49:05

양옥에 한옥을 접목시키는 방식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 대한 사전조사나 해결방안을 찾아보는게 순서 아닐까 싶네요

꽃가이 2011-05-15 오후 2:34:00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문화 및 전시시설에 하는것이 효율적인거 같습니다.

아키페인 2011-05-15 오후 1:51:54

아무래도 우리끼리의 문화보다는 세계에 알리는 한옥을 하는 것이..그리고 고층보다는저층에 하는것이 한옥의 비례감에서도 좋을것 같네요 면적이 많더라고 한옥으로 한다면 저층으로 분산하거나 넓게 배치하는 것이 그나마 낫겠어요

하안방 2011-05-15 오후 12:02:55

문화 전시시설이 가장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만 설계비만 올라갈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주민 사회복지시설에 먼저 적용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가난한재벌 2011-05-15 오전 11:22:43

잘 하시겠지만, 괴물의 출현이 걱정됩니다.

멤멤멤 2011-05-15 오전 11:14:31

그냥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곳이 어울리는거 같아요

빨간등대 2011-05-15 오전 6:49:42

전통과 관련되서 우리의 문화를 알리기에 더욱더 적합하다고 사료됨.

윤종 2011-05-15 오전 3:46:37

공공 청사만이라도 전통적 건축양식을 따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

차도남 2011-05-14 오후 6:44:42

우리나라의 멋을 점점더 이용해 가는게 옳은 방향으로 가는것 같아서 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공학도정환 2011-05-14 오후 6:36:26

꼭필요한설문조사네요

건축사 2011-05-14 오후 2:48:01

구로구에 첫 한옥 어린이 도서관 생긴다

만덕2갈매기 2011-05-14 오후 2:45:42

문화 및 전시시설(박물관, 공연장, 전시관 등)

포리코 2011-05-14 오후 12:32:57

한옥과 어울리는 건축물..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을 골랐는데.. 저는 한옥의 특성중에서 조금식 안으로 들어가는 다시말해 마당이라는 대공간, 마루라는 중간크기의 공간, 방이라는 작은 크기의 공간 이런식으로 하는 한옥이 마음에 드는데 주민센터, 어린이집, 노인정 같은 주민 및 사회 복지시설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가이상하네.

un 2011-05-14 오전 6:14:57

한옥의 건축특성의 모조는 큰 의미가 없으며, 보이지 않는 특성을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아 2011-05-13 오후 9:41:22

외국서 살때 보니까 한옥으로 대사관이나 외교공관 지은 일본에들 정말 좋아보이더라구요. 진짜 나라의 자존심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목에 힘만주고 온갖 육만먹는 대사관 놈들 생각하면 심원한장주기 싫지만 그래도 대사관저는 한옥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ㅇ

오?X발 2011-05-13 오후 8:49:19

문화 및 전시시설을 할경우 우리가 이용할때 느끼는 분위기나 전시장이 풍기는 느낌에 한옥이 더해지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외국인들이 받아 우리 문화가 고풍적이라는 광고 효과도 있지 안나..생각합니다

hibridge 2011-05-13 오후 8:17:14

새롭게 짓는것도 좋지만 기존 한옥(촌)을 잘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master 2011-05-13 오후 8:16:39

역사박물관 정도면 어울릴듯..

eternalsdj 2011-05-13 오후 7:50:24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관공서 건물

다담버 2011-05-13 오후 6:00:12

대규모공간은 힘들거 같고 소규모 공간 중 상징성있는 건물에 한해서 한옥을 짓는 것은 바람직한듯합니다.

one 2011-05-13 오후 5:47:34

2000년 가까이 해오던 것들이 100년 안에 단절된 것은 참어처구니 없다.

mapinfo 2011-05-13 오후 4:03:11

밑에 보아스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흔치않은기회 2011-05-13 오후 3:56:15

문화 및 전시실에 접목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limb 2011-05-13 오후 3:42:44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만이라도 ...

dunggaloo 2011-05-13 오후 3:39:56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은 사람의 삶이 담겨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되네요.

건축하는사람 2011-05-13 오후 1:47:51

지역커뮤니티의 대표장소인 주민센터에 한표

우드신 2011-05-13 오전 10:45:45

용도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한데...

아줌마 2011-05-13 오전 10:39:46

신기하게 '한옥'그러면 맘이 차분해지네여.

nikki 2011-05-13 오전 10:27:05

한옥으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해보는건 어떨까요 .. ㅎㅎ

picoco 2011-05-13 오전 10:14:46

문화 및 전시설과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보아스 2011-05-13 오전 10:01:59

한옥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이 단순히 외향적인 부분인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기와가 있는 단층 건물이고 문풍지 발린 문, 아랫목, 석가래, 기둥, 들마루, 부뚜막, 축사, ... 등 기능적인면과 성능적인 면이 잘 고려된 발란스가 맞는 모듈화된 안전한 그런 한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예전 한옥은 아무래도 사용성면이 너무 양좋은 듯한 기억이 있어서...

지예 2011-05-13 오전 9:33:39

요즘은 디지털에만 의존하는 세상이라 공공건축물이라도 전통을 유지해 간다면 '여유로움'을 저절로 느끼게 될 거 같은데요. 아날로그적인 전통 한옥! 현대성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교육시설에도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요.

황이 2011-05-13 오전 9:25:18

학교를 한옥으로! 교복을 한복으로!

스킨 2011-05-13 오전 9:03:26

한옥이 가지는 미와 규모의 한계, 특징을 살릴려면 저층 중규모 정도의 시설이 바람직할듯합니다.

Big.Do 2011-05-13 오전 8:50:54

나도 문화시설에 한표.

곤입니다 2011-05-13 오전 8:48:44

문화시설과 전시시설로 한옥건축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법으로 괜찮을거 같습니다.

fuzztone 2011-05-13 오전 8:05:55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한표

trauma 2011-05-13 오전 5:30:22

의미로만 봤을때는 외국 공관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이미 파리에 유도 경기장을 자신들의 전통 스타일로 짓는 등의 많은 노력으로 자기네 문화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고 2011-05-13 오전 12:13:44

문화시설에 한표..

theanswer 2011-05-12 오후 10:12:35

문화시설이 가장 전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STYLE 2011-05-12 오후 9:11:25

일반적이어서 그런지 문화 및 전시시설이..

노른자 2011-05-12 오후 6:01:52

기능이 가능하면 간단하고 규모가 적어야 적합할 듯

도다리 2011-05-12 오후 5:43:19

대규모 청사등도 고려해야 될 것 입니다

youhyung 2011-05-12 오후 4:32:15

문화시설로서 한국의 미를 알릴수 있고 편하게 접근할수 있다고 생각함.

미미 2011-05-12 오후 3:26:11

문화및전시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이 2011-05-12 오후 3:18:16

저는 한옥은 한옥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하는 곳이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옥을 많이 볼 수 없는 시점에서 문화시설및 전시시설로의 이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영광 2011-05-12 오후 2:30:13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세대차이라는 말은 우리아이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전수하지 못한대 대해 발생한 말입니다. 접하기 쉬운 내 주변부터...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야 할것으로 봅니다.

mochaholic 2011-05-12 오전 10:09:24

한옥의 특성상 대규모의 공공청사 보다는 우리 주변의 작은 건물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주민센터나 어린이 집, 노인정등은 우리 주변에서 가깝게 이용 가능해서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되네요~

윤스 2011-05-12 오전 9:41:16

문화시설부터 적용해나가는것이 좋다.

훈자 2011-05-12 오전 9:31:29

평소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한옥으로 짓는다면 한옥에 익숙해 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2342 2011-05-12 오전 4:41:42

외국공관 괜찮네요

핑크 2011-05-11 오후 11:11:39

어린이시설 한옥의 추억을 간직하도록 그래서 한옥사랑 저변이 늘어나도록 교육시설의 한옥화도 좋네요~

주용파 2011-05-11 오후 8:59:33

우리나라를 대표할수 있는 관공서도 잘어울릴것 같네요

야호오 2011-05-11 오후 8:14:18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민원실 및 접객실은 그래도 어울림

보다 2011-05-11 오후 8:05:34

주민들이 항상 접할수 있는 가까운 시설에 한옥이있으면 더욱더 친근한 건축물로 자리잡을 수 있을것 같아요!

설비튜닝 2011-05-11 오후 7:49:32

우리나라의 전통을 알기를 위해서는 상징적인 건물 및 관공서 건물은 한옥으로 짓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미리내 2011-05-11 오후 7:23:44

관공서의경우 업무상 많은 민원인이 왕래하므로 우리것에 대한 자부심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요?

내키는백옥십 2011-05-11 오후 7:02:32

주민센터나 어린이집등 시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곳에 한국의 미를 더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Gable 2011-05-11 오후 6:49:44

외국에 한옥을 짓는 것도 좋은 방식일듯 하네요~!

디모테오 2011-05-11 오후 6:13:52

관공서를 한옥으로 만들어서 한국적 미를 살렸으면 합니다.

세실 2011-05-11 오후 4:55:01

우선 한옥과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부터 시험적으로 접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람 2011-05-11 오후 4:40:29

질문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 선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없음 2011-05-11 오후 4:28:20

생활공간이나 교육공간, 휴식공간, 외국인 대상의 공간 모두 어울릴 듯 싶지만, 한옥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재현에 불과하기 때
문에...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장소성과 맥락을 잘 고려해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lop 2011-05-11 오후 3:52:31

효율성을 따지는 업무시설 보다는 교육,전시,공연같은 용도를 지닌 시설에 적용하는것이 맞을듯 싶습니다.

멋진놈 2011-05-11 오후 2:28:24

일상에 가깝게..

2009451096 2011-05-11 오후 2:14:58

현시점에서의 조화성....

pipeem 2011-05-11 오후 2:06:30

교육시설이 적은게 아쉬운데..요즘은 학교도 대형화되서 현실적으로 작은 건물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늬 2011-05-11 오후 1:33:55

한옥이 일상에 가까워질 수록 더 친밀해지고 발전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한 표!

spring 2011-05-11 오후 1:09:31

대규모 청사라고 해서 건물스케일을 키우는게 아니라 궁이나 대저택의 조합처럼, 작은 부서건물들의 군집체로서 이루어지는건

어떨까요

Lim 2011-05-11 오후 1:07:01

한옥이 문화시설에 접목되면 대중이 접하기 쉽고 천천히 여유로웠던 관습이 어우러지면서 우리문화를 더 많이 느낄수있을듯

jin_h 2011-05-11 오후 12:57:47

저도 대사관 및 외교 공관에 한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좋을 듯 하여서요, ㅎ

짱돌 2011-05-11 오후 12:46:09

어릴때부터 주로 사용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Mr.zommer 2011-05-11 오후 12:13:12

대사관 및 외교 공관도 좋은듯 합니다....

해리포탈 2011-05-11 오전 11:42:14

외교 공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마당 2011-05-11 오전 11:32:36

대규모 건물보다는 작은 공간들이 연속될 수 있는 실들이 좋겠지요^^ 설계는 하기 나름이지만요^^

너구리 2011-05-11 오전 11:24:31

어떤 시설이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피 2011-05-11 오전 11:22:58

방문이 많은 건물부터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패밀리맨 2011-05-11 오전 11:19:22

규모와 용도, 재료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넛왕왕던킨 2011-05-11 오전 11:16:21

너무크진 않은것

minc0511 2011-05-11 오전 11:11:50

어느 용도이든 어떻게 적용하기 나름 아닐까요.

cheungsong 2011-05-11 오전 11:03:26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에 어울리는것 같다.

john 2011-05-11 오전 11:01:56

문화 및 전시시설등 박물관등이 한옥으로 어울릴것 같습니다.

Northridge 2011-05-11 오전 10:59:52

우리 삶에 정신적인 휴식과 생명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문화, 전시시설은 도시의 번잡하고 분주한 일상에서도 동구 밖 느티나무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물라시옹 2011-05-11 오전 10:55:54

어느 시설이든 진정한 전통 한국 건축의 느낌이 어느 건물에 난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sadalsuud 2011-05-11 오전 10:47:21

어떤 시설이던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Design+ 2011-05-11 오전 10:46:27

변화는 생활이용시설에서 부터~

보라여우 2011-05-11 오전 10:45:42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도입을 하여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를 고려한 계획이 필수겠구요

설 2011-05-11 오전 10:36:37

주변환경 및 상화에 따라서 무슨 시설이든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공간사랑 2011-05-11 오전 10:33:14

우리 나라의 좋은 점을 알리는 것에는 대사관과 외교 공관 만한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암사자No.1 2011-05-11 오전 10:29:07

대규모청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이니.. 어울리다고생각했는데

fng 2011-05-11 오전 10:11:00

한옥문화의 전파는 문화전시시설부터 해야하지 않을까요.. 형식과 담는 콘텐츠가 조화를 이룰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sodobi 2011-05-11 오전 10:02:31

학교같은 큰 건물이 한옥 형태이면 조금 보기 싫음.

왕초 2011-05-11 오전 10:00:28

아주미술관 강추

은하 2011-05-11 오전 9:20:03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shui 2011-05-11 오전 9:17:33

다른 나라에 있는 대사관들을 한옥으로 지어서 한국의 미를 알리는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목록이 2011-05-11 오전 9:04:27

대사관 및 외교공관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얀바다 2011-05-11 오전 9:04:02

처음에는 문화 및 전시시설이 좋을것 같습니다.

cogito 2011-05-11 오전 9:02:54

특히 노인정에서 아이들에게 예절교육을 가르친다던지...어린이가 노인정에서 규칙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던지...정책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지닌 정책을 편다면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에서 시작해 전 국민의 민족적 자긍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퍼스 2011-05-11 오전 8:53:13

작은거 부터 차근차근...

건설사업관리 2011-05-11 오전 8:49:15

전통한옥의 장점을 살린 재료의 보급이 우선되어야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수우로 2011-05-11 오전 8:36:20

국외 공관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금만 있으면 ^^

Ceasar 2011-05-11 오전 8:33:10

대규모 관공서를 한옥으로 멋지게 지으면 합니다.

블루스카이 2011-05-11 오전 8:30:13

한옥설계능력이 없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 생각하시는지...

곰돌이아빠 2011-05-11 오전 8:29:01

아무래도 대형 건물들 보다는 소규모가 좋지 않을까요?예술의 전당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로스 2011-05-11 오전 8:21:09

아무래도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곳이 아이들교육이나 주민들 생활에 직접 연결관계가 있으니 좋겠죠,,^^

gv410 2011-05-11 오전 8:09:20

대규모 건축은 구조및 설비시스템의 연구가 더 필요하며 소규모건물부터 적극 시도하는게 바람직

빨간우산 2011-05-11 오전 7:33:49

교육시설에 우선적용하여, 배워가며 우리것을 소중히 여길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개구리 2011-05-11 오전 6:48:31

무조건적인 적용보다는 소규모, 상징적인 건축물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빛나는 바람 2011-05-11 오전 6:47:39

문화 및 전시시설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더리 2011-05-11 오전 6:21:36

유지관리측면을 많이 고려해야할 듯

나무 2011-05-11 오전 6:16:55

현실적으로 그 규모가 한옥에 적합한 시설부터 해 나감이 옳다고 본다.

For_Arci 2011-05-11 오전 5:35:00

교육시설에 한옥의 정신을 담는다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은 한옥의 정신을 생활로서 배우면서 자랄수 있겠지요

무효 2011-05-11 오전 12:45:28

기वान만 얻었다고 다 한옥은 아니겠지요...한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현대건축과 접목하되, 한옥만이 가질수 있는 동선이나 창호의 쓰임새등 여러모로 한국적인 미를 살리는 것이 세계화시대에 한국건축이 살아남을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국적인 미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공공청사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master94 2011-05-11 오전 12:43:30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옥으로 짓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쥔 2011-05-10 오후 6:16:42

교육시설이 어린이들에게도 한옥을 체험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워니 2011-05-10 오후 5:44:13

공공 건축물이 도시민의 실생활에 아주 가깝게 근접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구로구 한옥어린이 도서관이나 해화동사무소 등과 같은 시설에 한표를 던집니다. 또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5월의꿈 2011-05-10 오후 5:41:13

문화 및 전시시설의 기본 외관은 현대식과 한옥이 어우러져야 할것입니다. 특히 여러개 층으로 지어야 할 경우 현대식이 필수적이겠으나 디자인은 한옥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투투 2011-05-10 오후 4:34:49

쉽게 드나드는 시설을 먼저 신축하여 한옥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해화동사무소와 같은 건물이나 어린이 도서관 등이 좋은것 같네요...

디모데오 2011-05-10 오후 2:50:34

민원인 및 생활에 접할수 있는 장소에서 한옥을 체험하는 것도 좋아요 해화동사무소 이용해보세요 참 좋아요.

Jude 2011-05-10 오후 2:39:04

관청과 같은 공공건물에 한옥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본적 건축 유형과 그 쓰임새를 잘못 연결하는 실수라고 봅니다. 차라리 소 규모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중정형 배치와 함께 잘 결합되리라고 봅니다.

그루터기 2011-05-10 오후 2:21:30

규모의 건축보다는 전통적인 스케일에 어울리는 규모의 건축물/ 사적,공적이든 관청을 것 같고요/ 내,외부시설은 침단설비와 조화되었으면 합니다.

길 2011-05-10 오후 1:46:12

규모가 너무 커지는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namchul 2011-05-10 오후 1:37:56

공건물은 다 좋을듯

jaewoo1987 2011-05-10 오후 1:30:44

교육시설

오기술사 2011-05-10 오후 12:53:35

제 사건으로는 문화 및 전시시설 이라도 한국적 전통의 현대화를 통한 계승이 어떨까 합니다.

NDK51 2011-05-10 오후 12:39:06

사진만 봐가지곤 알 수가 없네요..그렇다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민시설이 아닐지...

봉수 2011-05-10 오전 10:48:04

지구단위 계획을 학교 중심으로 하는데, 역사 교육도 제대로 안하는 지금 상황에선 교육시설이 의미 있어 보입니다.

亂場 2011-05-10 오전 10:32:03

공공부분에서 먼저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super-man 2011-05-10 오전 6:41:32

아무래도 전통에 대한 인식을 감안한다면 거시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마마 2011-05-10 오전 5:36:22

생활화된 문화체험이 한국적 공간에 녹아있다면 관자로 하여금 한국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것

나나 2011-05-10 오전 5:29:54

한국적 정체성의 본질이 잘 드러난 조형언어가 공간화된다면 외교 공간의 의미차원의 기능이 잘 수행되지 않을까...

들메 2011-05-10 오전 4:17:32

각 종 교육시설들을 한옥으로 짓는다면, 학생들이 한국적인 감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몸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ㅎ

서봉진 2011-05-10 오전 12:36:53

각 국에 있는 대사관을 먼저 한옥으로 한다면 좋을거 같네요 ㅎ

까공이 2011-05-10 오전 12:21:43

문화나 전시시설이 한옥으로 적합하지만, 한옥 건축물의 보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청사건물부터 본보기를 보여줘야 많은 관심을 가질듯합니다.

KHAN 2011-05-09 오후 10:22:34

용도에 맞게 한옥을 발전시키는게 더 좋은 듯.

?X발탱구 2011-05-09 오후 10:07:55

문화 및 전시시설의 한옥화는 전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사관이나 외교 공관을 한옥화 한다면 세계로 알릴수는 있겠죠

SW차재선 2011-05-09 오후 9:33:42
d

pascal777 2011-05-09 오후 9:15:42
노인정과 주민센터의 경우가 우선적이 될 것 같네요 어린이 집도 포근함과 친근함을 느끼게 될 것 같고 아이들에게 문화적 정체성도 줄 것 같군요 다만 한옥의 여러 구조는 개선 되어야 겠지만요. 장애인도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겠고요

건축사랑 2011-05-09 오후 8:17:11
대외적이미지차원에서 대사관부터 우선시행하며좋을듯하네요

도시재생 2011-05-09 오후 8:08:01
어떤 특정 건물의 용도에만 한옥이 어울릴것이라는 선입견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 선조들은 한옥이라는 고유 건축양식을 가지고 모든 용도의 건물을 설계하였음을 명시하였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도시확도 2011-05-09 오후 7:55:04
한국의 정서는 전시관 공연장이 맞지 않을까요?

꼬꼬마 2011-05-09 오후 6:52:32
휴먼스케일에 맞는 공간이니까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이 좋을거 같습니다.

powerlomo 2011-05-09 오후 6:24:31
외국에 가장 어필할 수있는 방법으로 대사관 및 외교공관은 무조건 한옥의 미를 살리는 설계를 한다!! 머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네요

helloyang 2011-05-09 오후 6:17:30
주민

dinosauro 2011-05-09 오후 5:08:22
각 나라마다 있는 대사관 및 외교 공관이야말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널리 알릴수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Fwang 2011-05-09 오후 5:06:24
소규모 동네도서관이나 쉼터정도라면 도입해볼만도 하다고 봅니다. 요즘 관공서에선 온통 어떻게하면 돈을 좀더 펴평쓸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래분 말씀처럼 남아있는 한옥이나 잘 보존했으면 싶네요..

망마 2011-05-09 오후 3:37:44
작은 건물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한옥이 단일건물로 몇천평씩 하고 그러진 않으니깐요. 웬지 한옥은 수수하고 부드럽고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아닌 미를 갖고 있는것 같스빈다.

민짱 2011-05-09 오후 3:33:34
대사관이야말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널리 알릴수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미농 2011-05-09 오후 3:23:14
주민시설이 좋습니다

8235 2011-05-09 오후 2:45:18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한옥으로 문화의 공유

비디비디 2011-05-09 오후 2:29:03
주거시설

pknu2000 2011-05-09 오후 2:28:08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릴수 있는 소규모 대표건축물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해니 2011-05-09 오후 1:49:18

옛것을 보관하는 박물관을 외부는 고전 내부는 신식으로 하면 빛나지 않을까 싶네요

바람이될거야 2011-05-09 오후 1:24:14

초기단계에서는 소규모 건물이 적합할 듯..노하우나 디자인 요소가 많이 쌓이면 큰 건물도 멋지게 탄생할 듯합니다.

벌써 기대됩니다..^^

인천남아 2011-05-09 오후 12:27:11

소규모 전시관이나 노인정은 한옥으로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듯합니다.

패러다임 2011-05-09 오후 12:05:19

대외적으로 한국을 알리기에는 대사관 및 외교공관이 좋다고 판단되며 협상 및 중요한 현안과제를 논의할 때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멋쟁이 2011-05-09 오전 11:29:41

한옥이 사라져 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대건축물의 편리함은 누구나 선호 하지만 한국의 전통가옥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보존과 신축은 진행해야 하고 봅니다.

다운의 바다 2011-05-09 오전 10:48:50

굳이 골라야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니, 소규모 동네도서관이나 쉼터정도라면 도입해볼만도 하다고 봅니다. 요즘 관공서에선 온통 어떻게하면 돈을 좀더 평평쓸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래분 말씀처럼 남아있는 한옥이나 잘 보존했으면 싶네요..

일심 2011-05-09 오전 10:27:31

과제는 많지만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그것이 현대와 접목되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것이다

l4j 2011-05-09 오전 10:16:56

없다고 하고 싶었으나 없다는 보기가 없어서 주민 및 사회 복지시설에 한표. 그나마 젤 낫다. 한옥마을에 있는 기존의 한옥이나 철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Ginnie 2011-05-09 오전 10:05:12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한옥건물이라면 좋은 이미지를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림쟁이 2011-05-09 오전 9:51:49

한옥은 건축물 한 가지만을 가지고는 그 특성을 나타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입식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현 시대에 구성원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실 생활에 자연스럽게 다가왔으면 합니다. (2번)

건국 2011-05-09 오전 9:32:00

부지를 확보가 관건인가? 단일 건축물로 해서는 완성할 수 없는 것 같고.

천상천하유아독존 2011-05-09 오전 9:31:07

보고, 듣고, 즐기고

dissertation 2011-05-09 오전 9:30:43

활용성과 미학성을 조화시킨다면 어떤 것이든 좋겠지만 우리 실생활과 친근한 부분부터~

sam 2011-05-09 오전 9:30:12

누구나 이용하는 청사의 한옥도입이 중요할 것같다.

몽인지성 2011-05-09 오전 9:25:24

지붕이 기와로 덮여있어 한옥이 아닌, 우리네가 한옥에서 느끼는 것이 표현되는 한옥이어야 할것같습니다.

mascot 2011-05-09 오전 9:23:05
문화 및 전시시설이 잘 어울릴것 같아요.

chlrlhuh 2011-05-09 오전 9:01:02
대규모 건물과 한옥적 특성을 조화시키는 건.. 쉽지 않지요..ㅠ

안개바다 2011-05-09 오전 8:28:16
적절한 규모의 건축물에 전통양식의 우리주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주거양식과 한옥의 우수성 및 주거욕구를 부추길 수만 있다면

그냥 2011-05-09 오전 8:13:18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건물보다는 일정 규모로 구분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의 주칸 1~2칸정도) 목적의 시설물에 더욱 적합할 것 같습니다.

kss 2011-05-09 오전 8:08:19
문화 및 전시시설부터 시작하여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맑고항기롭게 2011-05-09 오전 7:13:21
대외적 홍보효과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에게서도 멀어져있는것이 한옥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한옥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같은곳에 먼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음왕자 2011-05-09 오전 7:06:31
대외적 홍보효과가 먼저 되어 다른 것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전시시설이나 청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고토 2011-05-09 오전 6:21:36
교육시설부터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임여킹 2011-05-09 오전 3:28:57
대사관

chyoung33 2011-05-09 오전 12:49:37
2번

New Yorker 2011-05-09 오전 12:19:25
대사관 및 외교 공관



[그림출처] 파이낸셜 뉴스

■ 공공건물에 '한옥' 바람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423000069>

■ 한옥으로 모입니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ew.asp?nNewsNumb=002139100028&ctcd=C09>

■ 한옥 양식 공공청사·아파트 늘린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0911/e2009111118194369550.htm>

■ 전주시 '新한옥플랜' 사업 본격화

<http://h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437591>

■ 한옥 르네상스 시대 개막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0325521>

1) 한옥으로 지어 한국적 미를 살리는 것이 좋다.	<div><div></div></div>	135명 (17%)
2) 한옥과 현대 건축물을 조합하여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좋다.	<div><div></div></div>	535명 (67%)
3) 현대건축물 내에 한식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한옥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div><div></div></div>	59명 (7%)
4)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div><div></div></div>	72명 (9%)

모 2011-05-23 오전 12:01:57

한옥을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업체가 제한적인 것 같다.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텐데..

야간비행 2011-05-22 오후 11:57:19

일본 교토시의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미야코(京)'디자인과 같이, 한옥이라는 전통디자인과 현대적 디자인의 접목에 대한 디자인적인 원칙, 요소, 기준, 예시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다양한 분야(단순히 건축분야만이 아니라, 사회, 역사, 경관, 환경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에 의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를 통해 완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필통 2011-05-22 오후 9:14:36

한옥의 멋을 처마선, 배흘림, 한식 인테리어와 같은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 할 수 있다면 구지 공공건물이 아니라 모든 건물에 적용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철철 2011-05-22 오후 8:48:09

용도나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화시키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흐음.... 2011-05-22 오후 3:43:25

순수 한옥으로만 지으면 한옥의 단점 및 경제성, 인력(장인) 등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옥과 현대 주거와의 조합을 통해 최대한 한옥의 장점을 수용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조각 2011-05-22 오전 11:42:15

한옥과 현대건축물의 조합이 좋아보입니다!

fruitskwan 2011-05-21 오후 5:42:50

진부한 이야기로 볼 수 있겠으나, 한옥과 현대 건축물을 조합하여 전통과 현대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는 것이 좋겠다.

물라 2011-05-21 오후 3:45:38

한옥의 장점과 현대건축이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새로운 해석이 필요

히로 2011-05-21 오후 3:09:01

기와의 이용할수도 있죠...하지만 기존 구법에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디자인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실 2011-05-21 오후 1:23:50

한옥의 장점을 살려 적용한다면 훈통하다고 생각됨, 옛날식주택이 아닌 현대건축으로서의 한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붕을 꼭 기와로 할것, 등의 기준은 피하는게...

동바리 2011-05-21 오전 12:33:45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을 사술이나 미신으로 여긴다. 일부 건축사들은 한옥을 케케묵은 과거의 흔적 정도로 여긴다. 김중업선생님도 김수근선생님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되 전통을 해쳐서는 않된다고 하셨다. 우리가 잘알고있는 양복을 입고 스테이크를 먹으며 한옥에 사는 미국인도 있다. 협회에게면 건축100년사는 있어도 건축 천년사는 없다. 그냥 현실로 인정하고 모두 잊어버려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전통은 소중한 것이다.'라며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ykh8802 2011-05-20 오후 7:52:46

현재와 과거의 생활방식이 분명 다를텐데, 대규모 건축에 한옥이 과연 적합할지는 모르겠네요, 요즘 한옥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긴하지만, 저렇게까지 해서 꼭 한옥을 살려야 하는 것인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 2011-05-20 오후 6:36:54

좋아요~~

팍거다물라 2011-05-20 오후 5:35:36

공공건축물이더라도 용도나 사용성에 따라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aya 2011-05-20 오후 4:35:23

초고층이나 현대식 건축물이 아닌 한옥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조성되었으면합니다.

경택 2011-05-20 오후 4:27:32

한옥만이 한국적 건축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한옥을 보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 아닐까요?

sk0715 2011-05-20 오후 3:53:29

적절한 조합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gregorio 2011-05-20 오후 3:45:23

한옥만의 이미지를 찾는것보다 우리의 생활과 환경에 조합되어있는 한옥의 배치와 특성을 찾는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건축국 2011-05-20 오후 3:17:21

공공건물을 한옥으로? 한옥에 대한 정의가 단순한 외형적 특성을 차용한 전통건축의 재생산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과거와 다르게 시간, 공간, 문화, 용도 등이 다름을 인지 할 필요가 있다.

hso0913 2011-05-20 오후 1:15:53

형태만 가져오는것이 아니라 건축적 의미를 가져와야한다

chichk 2011-05-20 오전 9:08:48

단순히 한옥의 형태를 취하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미래의 최첨단IT건축물을 고딕양식의 교회형태로 짓는다면, 그것이 어떠한 문화적 정통성이 있을것이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계승발전해야 할 대상은, 장소적.공간적 본질인 것이지, 형태적 답습이 아니다...

yainboy 2011-05-20 오전 1:59:40

한국성을 한옥에서만 찾아야 할까?

뉴욕으로 2011-05-19 오후 11:13:30

한국의 멋이 있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확이 2011-05-19 오후 9:29:31

공공건축물은 대개 그 스케일이 큰데 한옥은 휴먼 스케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해 2011-05-19 오후 8:21:53

전통성도 중요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한듯 합니다.

유요 2011-05-19 오후 7:04:28

조합이 좋은듯.

구길 2011-05-19 오후 5:48:17

현대적인 면을 더해서 변화를 주는게 좋을듯함

응곰 2011-05-19 오후 4:55:02

한옥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표준화 시키는 방안모색

그냥 2011-05-19 오후 2:09:12

한옥을 표준화하여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꾸기달려라 2011-05-19 오후 1:45:49

공공건축물이란게 범위가 너무 넓으며, 한옥으로 공사시 시공성 ,경제성, 유지보수성 등에서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현재 지정되어있는 문화재 건축물들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실정인데, 그 많은 공공건축물들을 한옥으로 하면 어떻게냐는 발상을 하다니... (이런 글을 올린다는 거자체가 답답합니다.)

테오 2011-05-19 오후 1:01:28

설문조사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답할 수 있는 문항이 너무 제한적이네요.....

연구원 2011-05-19 오전 11:21:36

그저 한옥인척 하는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한옥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archinull 2011-05-19 오전 10:09:32

전통을 개승 한다는 명목아래 단지 외관에 국한된 무분별한 전통건축의 도입은 지양해야 할 것 이다. 전통건축의 장점에 시간의 함수를 대입하고 현대의 공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 할 것 이다. 또한 기능뿐만 아니라 전통의 미를 고찰하고 현대의 미를 조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접근해야 할 것 이다.

sddus 2011-05-19 오전 9:04:39

한옥으로 지어 한국적 미를 살리는 것이 좋다

ark21 2011-05-19 오전 8:58:13

우리의 멋스러움과 우리에게 어울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한옥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충분한 해석과 타당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이다. 1980~1990년 당시 일부지역에 한옥의 지붕(겉모습만)을 무조건 적용하여 건축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양복입고 갓을 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겠다

pasoul 2011-05-18 오후 11:52:15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적 특성을 한옥에서 찾고 그것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현대의 건축의 기능에 맞으면서 미적으로도 뛰어나기 까지 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것이겠지요. 한옥의 좋은 기능을 살리면 자연친화적으로 뛰어난 미래지향적 건축이 될 수 있어 더욱 현대의 요구에 부응할 것 같습니다.

maco 2011-05-18 오후 9:02:59

한옥 혹은 전통건축의 범위를 선을 긋지말고 무한한 확장과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함

할루 2011-05-18 오후 7:39:23

전통건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듯하며 다들 고민하시고 계시겠지만, 암튼, 일단, 구조는 목구조가 아니니 차지하고, 철골조가 그렇게 바람직한가는 고민해야하고 규모대응 구조양식은 그건 아무거나 잘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제외하고 나면, 세부디자인면에서 기존의 한옥양식을 받아들이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합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외부 창호디자인이나 벽면 무늬등등. 그정도가....바람직하지 않은가 합니다.

잡초 2011-05-18 오후 3:49:28

그래도 한옥은 은은 하면서 어딘가 포근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요파리 2011-05-18 오후 3:11:59

한옥으로 건축적 미학을 살리면서 현대기술을 접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킴힐은노자의매력 2011-05-18 오후 2:56:17

한옥의 근본적인 민족인 우리가 한옥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한옥을 기억해낼것인가

든든 2011-05-18 오후 2:32:53

한옥은 친환경요소가 뛰어나니 그걸 파서 현대로 해석하는게 여러모로 활용도가 낮지않을까요

오후풍경 2011-05-18 오후 12:20:19

한옥의 재해석이란 말을 흔히 하는데. 정녕 재해석된 건축물은 하나도 없는듯...

그림쟁이 2011-05-18 오후 12:13:49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키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무슨 기준으로 조화롭다 그렇지 않다라고 누가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 현 시점에서 공공건축물은 용도와 상관없이 외관에만 치중되어 온 것 같습니다.

Architheque 2011-05-18 오전 10:33:28

선택할 지문이 마땅치 않네요. 너도나도 인증받겠다 여념없고, 그렇게 교육하고 교육받은 국제건축사다운 수준의 세련된 해석이 있어야겠지요. 그게 신지역주의로 가든 어쩌든...

토마스 2011-05-18 오전 10:20:56

한옥의 친환경적 요소를 잘 이해하여 건축물을 설계, 시공한다면 한국적 미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건축 분야에서도 훌륭한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감득 2011-05-18 오전 9:59:25

적절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가도 똑같은 건축물들...—— 제가 외국인이라면 정말 재미없을듯하네요. ^^

하늘 2011-05-18 오전 9:51:15

한옥이 아니라 한국적인 것이 좋겠지요.

나무의자 2011-05-18 오전 9:35:34

한옥의 구분별한 적용보다는 일부 건물을 계획한다던지 한옥을 재해석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2011-05-18 오전 9:35:30

형태와 구조를 현재에 와서 그대로 답습한다면 필패 할 겁니다. 한옥의 개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현재의 재료와 기술, 그리고 개념과 조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일 2011-05-18 오전 9:34:52

한국적인 것 혹은 한옥을 현대에 맞추어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은 기관이나 설계/시공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ohae 2011-05-18 오전 9:11:49

한옥...으로 지을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건물을 만들 때라고 생각함...

래몬유령 2011-05-18 오전 8:29:53

한옥과 현대건축물을 조합하는것. 좋다고 생각합니다만....그게 상당히 어렵죠 전주시 시청건물만 봐도 알수가 있어요.

dbwpdus 2011-05-18 오전 8:10:12

한옥과 현대건축물을 조합하여 고유의 전통미와 현대적건축미를 조화롭게 혼합하여 창조적인 건축물을 적용하면 공공건축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담 2011-05-18 오전 7:44:15

한옥이 상징성이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적인 부분을 가미해야 겠지요

마시멜로 2011-05-18 오전 5:28:46

옛날 한옥은 현대의 생활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불편하다고 판단됩니다. 현대와의 조화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좀더 융통성 있게 계획하는 것이 사용하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사점합세 2011-05-18 오전 1:58:56

모든 공공건물이라는 점은 반대하지만 상징적인 건축물에는 한옥스타일 적용하는것이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어닐 2011-05-17 오후 7:37:09

지금 시대에 조합해서 지을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소년 2011-05-17 오후 5:55:31

절충안이란 가장 모호하면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본래의 의미조차 상실하는.... 과거 한국의 미의 재현 보다는 전통의 미를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개념으로 이끄는 것이 적절하다. 도대체 한옥과 현대건축물을 조합하여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를 누가 어떻게 할수있단 말인가 ...?

물카리스웨트 2011-05-17 오후 3:18:21

그렇다고 모든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스나이퍼 2011-05-17 오전 11:52:17

상징적인 건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2011-05-17 오전 11:42:49

주변과의 조화!!

우주인 2011-05-17 오전 11:34:15

한국 고유의 경관이 거의 사라져버린 지금 도심 중간에 덩그러니 한옥만 짓는다고 해서 전통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변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 졌을 때 현대 속의 진정한 전통성을 창조해낼 수 있겠죠.

바라밤 2011-05-17 오전 10:36:06

한옥과 현대 건축물을 조합하여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좋다.

Healthy city 2011-05-17 오전 10:20:23

편리성은 강조

카사비앙카 2011-05-17 오전 10:07:54

전통한옥으로 짓자니 공사비가 너무 커지는건 아닌가?

게리 2011-05-17 오전 9:43:55

단 한옥으로 지었다가 불편하면 이도저도 안되죠

누기 2011-05-17 오전 9:42:49

편리성은 강조

초맨 2011-05-17 오전 9:41:28

자연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남 2011-05-17 오전 8:57:38

적절히 조화시켜보는 시도 좋습니다.

타루 2011-05-17 오전 8:54:44

조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자칫 한옥의 장점을 다버리고 외형만 비슷하게 따라한 것이 전통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nuno 2011-05-17 오전 8:29:06

지금 이시대에 신축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는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통 한옥의 미를 현대건축물에 반영시키는 것으로도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082 2011-05-17 오전 2:48:42

한옥과 현대건축물의 조화에선, 정주에대한 개념을 다시.

전통 2011-05-17 오전 12:37:59

언제나 정답은 조합.

Mr.Fundamental 2011-05-17 오전 12:11:08

어려운 주제와 화두이지만, 잘 풀어낼수 있는 미래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대와 현대, 과거와의 만남

율파소 2011-05-16 오후 11:15:42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이 변화 발전하면서 현대건축도 같이 발전 하되 동시에 공유하는 면이 있으면 공존하면 될 것 같습니다.

mrjim 2011-05-16 오후 8:06:48

건축이라함은 시대의 반영입니다. 지금처럼 외국 건축을 모방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과거를 그대로 모사하는 것 또한 좋은 건축은 아닙니다. 과거의 건축은 민속촌과 사찰 박물관에서 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건축을 표현하고 그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장소성과 현대이라는 시간을 모두 반영하려는 건축가의 노력과 공공행정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BJUT 2011-05-16 오후 7:55:22

저도 제대로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와만 엮고 끝날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ozm 2011-05-16 오후 7:50:57

어렵긴하겠지만그래도조화로운측면이 좋치않을까요

건축계이단아 2011-05-16 오후 6:35:51

저도 오늘날의 언어로 어떻게 재해석시키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의 형태를 단순히 오늘날에 찾아간다는건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에 그치는 것이니까요

귀염너구리 2011-05-16 오후 6:13:18

현대건축 속에서 우리나라 전통건축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sen 2011-05-16 오후 6:06:39

너무 조형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재해석하는 방향이 필요할거같아요.

kevin1 2011-05-16 오후 5:46:45

훌륭한 생각 입니다.

람보람 2011-05-16 오후 4:50:33

한옥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현대성과 조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KINS인 2011-05-16 오후 4:04:04

전통과 실용을 잘 조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kimhyungkeun 2011-05-16 오후 2:25:19

괜찮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abcd09072 2011-05-16 오후 1:38:28

말은쉽지요

아키알빅 2011-05-16 오후 1:33:14

역시 신구의 조화가 적절히 이뤄져야 굿인듯ㅎㅎ

콩장 2011-05-16 오후 1:23:48

막연히 전통이라고 따라야 하기 보다는 취사선택의 기준 마련이 중요할 듯

qtsun 2011-05-16 오후 12:44:24

전통을 어떤식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듯 합니다.

freearchie 2011-05-16 오전 11:45:05

조화

이삼 2011-05-16 오전 8:47:46

이시대에 우리의 한옥을 새롭게 조명하여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현대의 주거문화에 전통주거의 개념을 다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획일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통한옥의 수직확장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철

골조과 목조의 조화, 융합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많은 노력과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나야나 2011-05-16 오전 7:40:24

LVL, 집성재등 공학목재를 활용하여 주민커뮤니티시설이나, 스포츠센터등 공용시설을 한옥의 요소를 잘 살려서 상징적인 시범 사업등으로 활성화 유도함...

neosky 2011-05-16 오전 4:04:43

전통이라는 형식적인 굴레에 많이 얽매어져 있지는 않나 걱정은 됩니다만,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방식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ricky 2011-05-16 오전 3:20:10

무조건 한옥을 지어야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면에서 일본의 건축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메타포.

콩콩 2011-05-15 오후 11:00:45

대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동사무소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lakbean 2011-05-15 오후 9:02:39

옛것을 그대로 사용하는것도 현재의 것을 그대로사용하는것 둘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현대적해석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게 바람직할것같습니다.

Stunner86 2011-05-15 오후 2:49:07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꿀가이 2011-05-15 오후 2:35:15

지붕만 전통적으로 한다고 그계 한옥의 아름다움은 아니겠지요 현대에 맞춰 적절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상 2011-05-15 오후 12:01:39

한옥의 아름다움을 현대 건축물에 조합하는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옥의 고유 아름다움을 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안방 2011-05-15 오후 12:01:17

한옥의 장점을 살리는 고유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에서 시행하기는 어려우니 공공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발 외국설계 좀 그만 따라합시다.

가난한재벌 2011-05-15 오전 11:24:28

과거의 답습은 아닐꺼라 믿습니다. 외형보다 시대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건축부탁드립니다.

멤멤멤 2011-05-15 오전 11:16:00

한옥을 짓는것보다 지금 건축물에서 한옥의 느낌을 표현하는게 좋을거같네요

빨간등대 2011-05-15 오전 6:47:57

전통도 개량이란 명목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으므로..

윤종 2011-05-15 오전 3:39:53

2번을 선택했는데,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앞으로 실현가능한 연구가 따라야 겠네요

건축사 2011-05-14 오후 2:46:53

1번

만덕2갈매기 2011-05-14 오후 2:44:57

한옥으로 지어 한국적 미를 살리는 것이 좋다.

핑크팬더 2011-05-14 오후 12:42:00

전 반대합니다. 공공건축물은 대규모의 구조물인 경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기
와만 올려놓고 한옥이라고 하는 양복입고 갓 쓴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독립기념관 구조물처럼 전통을 재해석하여 현재적
인 모티브로 변화시킨다면 몰라도 한옥으로 짓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리코 2011-05-14 오후 12:27:17

전 한옥과 현대 건축물을 조합하여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으로만 집을 짓는것은 전통성을
가지는 거지만 그것은 예전에 것이고.. 이것이 현대에 와서 어떻게 해석이 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저
희 나라에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을 한옥과 현대 건축물의 조합을 통하여 이러한 것이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 한
국을 알리는 건물들로서도 좋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un 2011-05-14 오전 6:13:52

형태적으로 한옥을 모방하기보다, 한옥의 공간적 특성이나, 조형적 모티브를 계승발전 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X발 2011-05-13 오후 8:51:39

전통 한옥만을 고집할경우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오히려 도대대거나 이 프로젝트가 오래가지 않을수가 있기에 한옥과 현대 건축
물을 조합하여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키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master 2011-05-13 오후 8:17:24

한옥의 현대적 재해석이 좋을듯합니다.

eternalsdj 2011-05-13 오후 7:49:39

한옥의 내부를 현대식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옥슈슈 2011-05-13 오후 6:25:51

윗 그림에서처럼 현대식 대형 건물에 한옥기와,, 잘 안어울리는 경우가 많은 듯 싶습니다. 작은건물에는 괜찮을거 같습니다만,
기와의 어떻게 기능하면서 만들어진 형태인지를 생각한다면, 저런 건물에 어울리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덤벼 2011-05-13 오후 5:58:47

한옥으로 짓되 양식을 혼재하는 것은 확실히 혼재하고, 정통한옥은 제대로 원형대로 지었으면 합니다.

one 2011-05-13 오후 5:45:07

좋으면 좋은 것...

mapinfo 2011-05-13 오후 4:05:18

여러분이 말씀하신것처럼 기와형태 등 외형만 가져오는건 의미없습니다. 한옥의 내부 한옥의 정신이 깃들여져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저희업종분들도 한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일반분들이면

흔치않은기회 2011-05-13 오후 3:57:13

내부는 이미 한옥의 특징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겉데기만 있는 한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limb 2011-05-13 오후 3:39:35

고층구조물의 경우(특히 지붕부)에는 현대 건축물과 적절한 합의 이루어야...

dunggaloo 2011-05-13 오후 3:38:51

한옥의 멋을 살리되 꼭 형태적인 부분만 차용할 것이 아닌 공간적, 기능적으로 조상의 지혜를 살릴 수있는 부분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dh 2011-05-13 오후 2:44:14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많은사람들을 수용해야하는데....어떻게 될는지 한옥을 다 없애버리고 성냥갑같은 아파트만 들어
서는것은 보기싫지만

임효정 2011-05-13 오후 2:34:40

한국 고유의 참맛속에는 분명 현대인들에 주는 교훈이있을것입니다 통풍이잘되게 문을 열고 처마쪽으로 고정시킨다는등 그런...

지해를 현대건축과 조화시키면서 발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하는사람 2011-05-13 오후 1:44:48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에 희망이 느껴집니다.

qufold 2011-05-13 오후 12:55:16
진화한 한옥

우드신 2011-05-13 오전 10:43:51
전통을 살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않은 작업인 듯..

picoco 2011-05-13 오전 10:13:55
외부 디자인정도는 한옥으로 하는게 좋을듯..

보아스 2011-05-13 오전 10:05:44
한옥에 대한 정확한 디파인이 어떤 것인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한옥은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베지진과 같이 지붕이 너무 무거우면 지진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부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품같은 느낌도 좀 생기네요... 한옥은 기와지붕 뿐인가요?

지예 2011-05-13 오전 9:31:30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면 멋진 공공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뽕이 2011-05-13 오전 9:24:44
기왓장이 넘치는 나라가 됐으면 ㅎㅎ

스킨 2011-05-13 오전 9:00:39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오기를

독고다이 2011-05-13 오전 8:54:20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해서 짓는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곤입니다 2011-05-13 오전 8:51:31
공공건축물의 상징성을 가지기 위하여 한옥과 현대건축물을 조화하여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Big.Do 2011-05-13 오전 8:50:32
조화가 중요하지.

늘보 2011-05-13 오전 8:31:16
조화한다고 괜히 한국 고유의 미를 해치지 말고 아예 한옥으로 하거나 아예 상관없이 하거나...

fuzztone 2011-05-13 오전 8:05:00
조화가 증류할 듯...

Vd 2011-05-13 오전 6:05:39
시대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을 찾으며 한옥형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설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마인드가 담긴 건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다 한옥으로 건물을 지을건가요?

trauma 2011-05-13 오전 5:27:40
조합을 한다해도 어떤 방향일지에 따라 천차만별인 듯 합니다. 하지만 궁궐이나 인진왜란 이후에 보이는 대규모의 한옥 건축물들이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2011-05-13 오전 12:13:16

아무래도 두개를 조합하는게 나을듯싶네요

내STYLE 2011-05-12 오후 9:11:46

나름의 매력이 있을듯

uta 2011-05-12 오후 8:13:17

한옥과 현대 건축물의 조합이라는게 너무 광범위하기때문에 설문지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k-con 2011-05-12 오후 8:07:45

조화도 중요하고, 한국만의 미를 잘 강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노른자 2011-05-12 오후 6:01:04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느냐가 관건

ryudongj00 2011-05-12 오후 4:43:49

온전히 한옥구조로 짓는 것은 현대의 생활양식에 비취볼 때 불편한 점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렇다고 굳이 내부에 한식 인테리어를 적용하는 것도 괜한 비용낭비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공건축물을 전부 한옥으로 짓는 것도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고, 우리나라의 전통성을 상징하거나 그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에 대해 한옥구조를 허용하는 것은 찬성.

youhyung 2011-05-12 오후 4:31:15

한국적 미로 한국을 대표할수 있도록.

미미 2011-05-12 오후 3:25:37

한국적 미를 최대한 살려야..

주의영광 2011-05-12 오후 2:24:41

우리것에 대한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의 현대적인재해석이 가미된 전통건축물과 현대건축물이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로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속에서 발전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나는걸 2011-05-12 오전 10:53:59

얼마나 잘 구현해내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합니다

김균테 2011-05-12 오전 9:53:30

방향은 좋지만, 구현은 쉽지 않은 일인 듯...잘못하면, 양복입고 갓쓴 듯한 어색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윤스 2011-05-12 오전 9:40:36

한옥의 특징을 현대 건축물과 조합하여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키는것이 좋다.

훈자 2011-05-12 오전 9:30:23

한옥이지만 실제 우리들은 한옥에 익숙하지 않아 한옥형식의 건물을 보면 대부분 '청와대 같다'라고 생각하는게 아닐까요? 전통건축물 형식의 보편화와 우리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좋은거 같습니다.

아키페인 2011-05-12 오전 9:09:12

웬지 청와대 같은 느낌이 나는 건 몰까요.. 청사가 청와대보다 더 빛을 바라게 될듯..

Elliot 2011-05-12 오전 8:11:08

경복도청사 현상공모는 설계가이드라인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지붕을 고수하는 것 보다는 전통의 디자인요소를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공공청사에 걸맞는 합리적인 공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갓쓰고 양복입은 꼴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342 2011-05-12 오전 4:41:02

정신적인 것에서 찾아야..

324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 방안 연구

cespark 2011-05-12 오전 12:22:49

외형적인 한옥 자체의 구조미보다는 한국적 미를 담아야.

홍민기 2011-05-12 오전 12:10:41

그 안에 기능적인 면만 잘 살린다면 한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핑크 2011-05-11 오후 11:06:59

완전 찬성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더 만든다는 것에서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적인 한옥이라고 옹마루를 시멘트로 대체해 버리는 일은 마음아프습니다.

주용파워 2011-05-11 오후 9:00:12

좋은것 같습니다!!!

arteg 2011-05-11 오후 8:28:56

전통이란 것이 옛것을 그대로 살린다고 하여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옥이 과거에 우리 삶에 큰 터전이었고 생활을 담은 그릇이었지만 그것을 현 시대에 옮긴다고 하여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의 삶에 맞게 그리고 한 국민에게 알맞게 개조하고 미래를 위한 삶의 그릇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구지 통나무 기둥에 기와를 올려야만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야호호 2011-05-11 오후 8:13:14

시공비 비쌘

보다 2011-05-11 오후 8:06:22

한국적 미도 좋지만 시대에 뒤처지지않기위해 현대성을 조화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것 같습니다.

설비류님 2011-05-11 오후 7:48:13

한국의 전통의 미를 살리는거 중요 합니다.

jjong 2011-05-11 오후 7:39:10

유럽과 같이 그 나라 고유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내 2011-05-11 오후 7:25:22

한옥적 미와 현대적 편리성을 조화시키면 어떨까요

내키는백옥십 2011-05-11 오후 7:03:49

너무 한국적인것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한국의 미를 살릴수있다면... 더 좋지않을까요

Gable 2011-05-11 오후 6:49:01

좋은 것들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야...

최나래 2011-05-11 오후 6:41:41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공공건물이 나라를 대표하는 만큼 우리의 전통을 충분히 살리고 기능에 있어서는 현대인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현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모테오 2011-05-11 오후 6:12:40

전통한옥이 발전해야 한국의 멋이 산다

서남 2011-05-11 오후 4:55:03

한옥으로 짓되 내부 기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실 2011-05-11 오후 4:49:02

전통 한옥을 현대 건축물과 조합하여 발전시켜 나가면 한옥의 대중화와 지속적인 한옥계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람 2011-05-11 오후 4:39:08

한옥으로 짓는 것이 좋지만, 기능성 문제를 감안하면 한옥과 현대 건축물의 조화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없음 2011-05-11 오후 4:25:56

공공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한옥으로 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현대적 해석을 위한 노력에도 많은 노력과 경연대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돌이 2011-05-11 오후 4:17:02

공공건축물은 굳이 한옥식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있는 건축물이면 좋다고 봅니다.

klop 2011-05-11 오후 3:47:49

한옥으로 짓는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디자인의 계승이나. 친환경성이나 인데.. 따져봐서 효과가 좋으면 짓는것이지 이걸 정책적으로 확대내 마네 따진다는것이 좀 웃긴일인듯 하다. 최근 적절히 타협한 형태로 지어지고 있는 한옥들 보면 정말 가관이다..테마파크인지 한정식집인지 구분이 안된다.

멋진놈 2011-05-11 오후 2:27:53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중요하죠^^

2009451096 2011-05-11 오후 2:14:36

현시점에서의 조화성....

spring 2011-05-11 오후 1:10:59

생활패턴이나 양식은 양식화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한옥의 진화가 이루어져야될텐데, 이는 어느 지정된 형식적 공식이 아닌 보급과 발달에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짱돌 2011-05-11 오후 12:44:53

한옥의 좋은점을 잇고 좋지 않은 점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

폐인직전 2011-05-11 오전 11:42:55

밑에 말씀대로 쉽지 않은 문제로 해결해야할 것들이, 크게는 개념에서부터 작게는 세부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요

해리포탈 2011-05-11 오전 11:41:33

조잡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면 찬성입니다.

너구리 2011-05-11 오전 11:23:34

한옥의 멋을 살리는 것도 나쁘진 않죠.

피피 2011-05-11 오전 11:21:53

전통의 요소를 극대화 해야 합니다.

도넛왕왕던킨 2011-05-11 오전 11:15:51

참신한듯

minc0511 2011-05-11 오전 11:12:47

쉽지 않은 문제로 많은 디자인 연구가 필요할 듯 합니다.

udhee 2011-05-11 오전 11:11:59

한옥의 원형을 보존하고 변형의 현대화에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패밀리맨 2011-05-11 오전 11:03:15

공공과 민간부분 모두 건축적 양식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규모가 큰 공공건축에 있어 한옥은 재료가 목재를 기본으로 되어 있어 자칫 형태적 모사만 하게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cheungsong 2011-05-11 오전 11:01:49
비효율적입니다.

Northridge 2011-05-11 오전 10:56:02
한옥을 짓되 한옥의 정수(Essence)와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의 완벽한 이해, 어색한 한옥 해석의 오류를 배제한 한국인의 주거에 대한 이해, 여기에 더하여 현대 건축기술의 완벽한 접목(단열, 에너지, 친환경)을 통한 놀라운 건축이어야만 할 것이다. 최대의 걸림돌은 건축가이면서 유일한 해결자 역시 건축가(설계자)라고 생각한다. 설계 다음은 역시 이를 생성시키는 건설자의 몫이라 생각한다. 어쭙잡은 모방은 아니함만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John 2011-05-11 오전 10:55:34
한옥의 기본은 목구조인데 공공건축물이라고해서 꼭 한옥형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들라시용 2011-05-11 오전 10:54:50
한옥을 재해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와나 그런 부분 요소를 쓰는것보다 그속의 의미를 현대적인 건축언어로 승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adalsuud 2011-05-11 오전 10:46:08
한옥의 현대화 필요합니다.

Design+ 2011-05-11 오전 10:45:32
한옥의 형태와 미를 직접적으로 대입하는것 보다 그 공간이해력과 조형적 미를 가져오는게 좋을듯

보라여우 2011-05-11 오전 10:44:34
한옥의 현대화같은 한옥의 현대화....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무시한 무분별한 한옥은 과연 필요할까요

공간사랑 2011-05-11 오전 10:31:32
저도 fng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한옥형식을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fng 2011-05-11 오전 10:09:31
한옥의 형식이 아닌 한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현대건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난초향 2011-05-11 오전 10:04:26
공공건축물보다는 아파트 등 집합 주거건축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한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sodobi 2011-05-11 오전 10:01:25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지만 주변과 잘 부합되도록..

왕초 2011-05-11 오전 10:00:01
조감도 멍미

alex 2011-05-11 오전 9:42:00
형태나 재료 이런것에 굳이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통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의 수법들, 자연지세를 거스르지 않는것, 자연과 동화되는 것, 채 나눔을 통한 공간의 위계를 설정하는 법, 인간적 스케일에 대한 배려, 각각의 나눠진 공간의 유기적 연계(시각적,기능적), 그리고 좀 더 욕심내자면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드러나는 처마의 기둥등 곳곳의 부드러운 곡선미...

동파 2011-05-11 오전 9:33:06

집을 짓는데 한옥도 하나의 훌륭한 방향이죠. 한옥을 표현하는 기본요소는 지켰으면 하는데요. 목재, 흙, 돌 자연재료를 법식에 맞춰하는 등 고유의 맛이란게 있는데.... 콘크리트로 재현하는 방법등은 아쉬운 점이 느껴져요. 전체건물을 콘크리트 한옥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주건축물은 현대 콘크리트로 하고 일부를 법식에 맞는 한옥으로 표현하는 방법등이 좋아보여서.... 부어에 있는 한 리조트가 이런방법이던데... 좋은 느낌...

은하 2011-05-11 오전 9:18:45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Lim 2011-05-11 오전 9:18:01
한옥만의 고유특성을 내부에 접목시켜 생활하면서 느낄수 있도록 하는것이 전승시키는 방법 아닐까요? 외부는 각사이트마다 성격이나 용도도 다르고 주변관계도 고려해야되니 특정지역이 아닌이상 한옥디자인만 추구하는건 무리가있어보이네요

shui 2011-05-11 오전 9:15:48
옛 사람들의 마음이 건물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하얀바다 2011-05-11 오전 9:03:03
한옥의 장점과 현대건축물의 장점을 조합하는 것이 좋을것 같음.

목록이 2011-05-11 오전 9:02:26
나쁠 것 없죠

퍼스 2011-05-11 오전 8:51:24
한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건설사업관리 2011-05-11 오전 8:46:22
현대건축과 전통한옥의 장점을 살려 디자인 한 사례를 보니 적절한 조합은 도시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수우로 2011-05-11 오전 8:35:16
규모등에 따른 사업비만 타당성이 있다면 한옥도 괜찮을 듯...

Ceasar 2011-05-11 오전 8:31:57
전통과 현대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멋진 한국전통 건축물을 기대해 봅니다.

재두루미 2011-05-11 오전 8:31:51
한옥으로 지을 경우에도 분명하게 한옥답게 지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를 한옥 형태로 짓는 것이 쉽지 않다면 일부라도 정확하게 한옥으로 짓는 식으로 조화로운 건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곰돌이아빠 2011-05-11 오전 8:27:41
외형만 흉내내고 한옥이라고 하면 안되겠조

블루스카이 2011-05-11 오전 8:24:30
건축과 학생들에게 디자인 공부나 더 시키라...그게 뭐니 그 실력으로 한옥과 현대물을 접목시키면 잡종교합이 된다.

지로스 2011-05-11 오전 8:20:10
한옥디자인을 접목시킨다는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죠.. 많은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쵸베티치 2011-05-11 오전 8:13:15
한옥과 현대주택이 어울려 우리의 거주문화에 조금더 한국의 미가 스며든다면 그것또한 좋은일이 되겠지요

gv410 2011-05-11 오전 8:07:32
서울 혜화동 주민센터의 예를 보면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봄

빨간우산 2011-05-11 오전 7:32:48

많은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바우 2011-05-11 오전 7:32:42

공공이 앞서 나간다면 좋은 모델이되리라 생각합니다. 현대건축과 한옥의 어울림의 평가장, 공공건축물의 이미지 개선에도 좋을듯합니다.

빛나는 바람 2011-05-11 오전 6:46:57

한옥으로 지어 한국적 미를 살리는 것이 좋은거 같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도 있으니깐요~

개구리 2011-05-11 오전 6:46:31

그냥 생각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많은 연구가 뒤따라라 줘야만 가능한 것

투더리 2011-05-11 오전 6:20:04

전통과 현대의 조화

나무 2011-05-11 오전 6:14:55

건물은 형태도 중요하지만 용도에 따른 실의 배치와 동선, 공간의 평면적, 입체적크기 등 다양한 요구변수가 있다. 따라서 한국적인 미를 살린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하나 정통한옥은 재료가 목재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철골을 접목한ㄹ 많은 기술적, 의장적 연구가 필요하다.

For_Arci 2011-05-11 오전 5:32:33

한옥의 형태를 흉내내어 짓는 것이 아닌 한옥의 정신을 살려 계승 발전 시켜야겠지요

무효 2011-05-11 오전 12:44:58

기वान 없었다고 다 한옥은 아니겠지요...한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현대건축과 접목하되, 한옥만이 가질수 있는 동선이나 창호의 쓰임새등 여러모로 한국적인 미를 살리는 것이 세계화시대에 한국건축이 살아남을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국적인 미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공공청사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master94 2011-05-11 오전 12:42:19

적극찬성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에도 영향을 줄거라 봅니다.

유쾌한독수씨 2011-05-11 오전 12:35:49

건축도 생명을 지닌 것일진대, 그 시대에 걸맞고 편안해야겠지요. 소위 문화재라 불리는 건축들은 그 모양새로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꼬부기 2011-05-11 오전 12:22:23

한옥은 아기자기하게 모여 마을을 이룰때 멋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스케일면에서 너무 커지면 좀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네요...

jandung 2011-05-10 오후 10:07:27

한국적 미라는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의 내적 의미를 잘 녹여 내면서 형태의 정의를 찾아 가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우택 2011-05-10 오후 9:04:20

쉽지는 않겠지만 조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솔직히 정말 기वान 없었다고 조화롭다, 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현재도 이런 저런 구석에서 종종 볼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개인 적으론 좋아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한옥의 공간의 쓰임새와 동선같은 부분이 잘 녹아있다면 좋을 듯^^

쵸 2011-05-10 오후 6:11:13

조화보다는 전통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월의꿈 2011-05-10 오후 5:39:28

쉽지 않겠지만 현대과 과거의 조화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루루 2011-05-10 오후 4:31:25

기와만 얹었다고 다 한옥은 아니겠지요...한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현대건축과 접목하되, 한옥만이 가질수 있는 동선이나 창호의 쓰임새등 여러모로 한국적인 미를 살리는 것이 세계화시대에 한국건축이 살아남을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국적인 미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공공청사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우름 2011-05-10 오후 3:56:38

한옥과 현대건축을 조화시켜서 효율적인 공간이용을 도모하면서 한국적인 미를 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두마리의토끼를 같이 잡기는 힘들겠지만요

디모테오 2011-05-10 오후 2:48:41

한국적 미를 살리는 것이 좋다.

Jude 2011-05-10 오후 2:37:46

한옥을 건물 형태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한옥은 그 중정형 배치 방식과 분리할 수 없는 거주양식입니다. 그런데 한옥은 사실 거리와 외부공간에는 폐쇄적인 방식의 주거이므로 오늘날의 공공건물의 양식에 꼭 적합하다 할 수 없어요. 한옥을 위한 한옥은 반대입니다.

namchul 2011-05-10 오후 1:37:01

goood

jaewoo1987 2011-05-10 오후 1:30:20

한옥으로 지어 한국적 미를 살리는 것이 좋다

도영파파 2011-05-10 오후 12:47:48

한옥은 우리나라 주거환경에 적합하도록 건축되어진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층화 대형화되는 현대건축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든다.저층위주의 건축물에 접목하여 설계되어진다면 어색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NDK51 2011-05-10 오후 12:42:02

한옥이 장점만 있는 건축물도 아니고, 목재에 기와 얹는다고 한옥도 아니니 한옥이 갖는 재료적 구조적 공간적 장점만 취하는 형태가 되어야겠쥬. 문제는 건축비가 상승한다는 점일텐데 이 부분이 가장 난관..

오기슬사 2011-05-10 오후 12:39:42

한국의 정통성, 미래지향적 계승의 합의를 찾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봉수 2011-05-10 오전 10:46:39

90년대 학교 다닐때 배운것들을 15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애길 끄내고 있으니...

亂場 2011-05-10 오전 10:29:03

합목적성...

super-man 2011-05-10 오전 6:38:36

전통과 현대와 미래의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

나나 2011-05-10 오전 5:32:20

전통적 조형언어를 현대적 언어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론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마마 2011-05-10 오전 5:24:56

전통에 대한 집착보다는 공공공간의 구체적 기능에 따른 행태에 타당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둘메 2011-05-10 오전 4:37:30

우리의 한국적인 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살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봉진 2011-05-10 오전 12:47:04

당연히 해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까공이 2011-05-10 오전 12:18:33

한옥의 전통성과 현대 건축물의 실용성을 조합한 공공 건물이 필요합니다.

KHAN 2011-05-09 오후 10:19:25

너무 전통적인 것보다 환경에 대응해서 발전된 모습이 중요할듯.

?X발행구 2011-05-09 오후 10:06:15

한옥의 현대적 해설,,

SW차재선 2011-05-09 오후 9:33:11

d

pascal777 2011-05-09 오후 9:10:34

한옥문화가 확산되어 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옥건축도 현대적 공법으로 진행되도록 개선되어야 겠습니다. 3D캐드를 통한 사전 재단과 결합이 필요하겠네요

꿈많은 소년 2011-05-09 오후 8:28:19

한옥의 용도(주거)와 공공시설(주거외..)의 용도와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건축사랑 2011-05-09 오후 8:14:07

지나친것보다는 적절한조화가

도시재생 2011-05-09 오후 7:59:57

여설론 현대식 한옥보다는 전통적 한옥을 지어 한국적 미를 살려, 도시의 정체성 역사성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꼬꼬마 2011-05-09 오후 6:51:28

이미 현대성과 조합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지 않나요? ㅎㅎ

powerlomo 2011-05-09 오후 6:22:36

건물의 외관은 한옥과 현대건축물의 조합보다는 전통한옥방식으로 한국적미를 살리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왕하는거 제대로 하면 좋겠지요 내부설계는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현대의 방식을 이용하는것이 좋겠지요

helloyang 2011-05-09 오후 6:17:07

현대식으로 해석

Vanillin 2011-05-09 오후 6:02:24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 외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살리는것 같지않은데, 공공건물에서 부터 우리나라의 건축 미 를 보여준다면 좀더 좋을것 같네요.

dinosauro 2011-05-09 오후 5:06:42

한국의 미와 옛 성인들의 지혜까지 담긴 건축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Fwang 2011-05-09 오후 5:04:46

한옥의 무조건 적인 적용 보단 한옥만의 미를 승화시키는 한옥의 아이덴티티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루보넷 2011-05-09 오후 4:32:42

한옥의 무조건 적인 적용 보단 한옥만의 미를 승화시키는 한옥의 아이덴티티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2011-05-09 오후 4:24:58

한옥과 현대건축물을 조합하여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키는 것.... 이상적인 말이지요. 그러나 현대건축과 한옥의 조화는 생각 만큼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현대건축물에 어쭙잖은 한옥의 디테일이나 부분적인 차용은 원래의 전통 한옥을 재현하는 것 보다

더 보기가 안좋을수 있습니다.

망마 2011-05-09 오후 3:35:31

경상북도 청사 사진이군요. 사실 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짱 2011-05-09 오후 3:32:35

껌데기 뿐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파란하늘 2011-05-09 오후 3:30:05

무조건 외부에 보이는 한옥의 요소를 가져다붙일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옥의 미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농 2011-05-09 오후 3:22:14

전통과 현대가 함께했으면..

순심이 2011-05-09 오후 2:47:48

공공건축이라고 무조건 한옥으로 짓는 것은 너무 획일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은 그 대지가 위치한 장소의 성격과...건축가의 디자인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현대건축이라고 전통성이 표현 않되나요?...

8235 2011-05-09 오후 2:46:07

한국 건축의 기본을 먼저 세울 구심점을 마련하는게.

비디비디 2011-05-09 오후 2:31:20

한옥과 현대 건축물의 조화가 아니라..한옥을 현대에 맞는 철학과 기술로 재해석하여 짓는 것이 돼야하지 않을까..

pknu2000 2011-05-09 오후 2:26:26

전통건축물의 양식에 현대적인 건축기술의 장점을 접목한다면 좋은 건축물이 나올것 같습니다.

유혀니 2011-05-09 오후 1:48:12

ㅋㅋ 경상북도 도청 사진이구먼유.. 신구의 조화가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호프폴 2011-05-09 오후 1:30:18

공공건축물에서 한옥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능과 디자인개념을 적극 발굴해 적용하여 한옥의 우수한 기능과 디자인 개념을 검증한다면 민간건축물에서도 많이 적용할 것 같습니다.

바람이될거야 2011-05-09 오후 1:20:13

한옥디자인 찬성합니다...많이 활성화되어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남아 2011-05-09 오후 12:25:40

외관은 전통적인 한국의 고유의 멋을 살리고 실내는 이용객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화로운 공공건축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패러다임 2011-05-09 오후 12:02:10

한옥 전통의 미를 살리면서 실용적으로 건설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raan 2011-05-09 오전 11:39:55

한옥이 현대적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은 그간 한옥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면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옥의 활용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이전에 짐짓 한옥과 현대 건축의 조화 정도로 선을 긋지는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쟁이 2011-05-09 오전 11:32:18

한옥은 한옥답게 지어지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운의 바다 2011-05-09 오전 10:38:27

현실적으로 한옥을 대규모 공공건축물에 도입하는건 무리인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미 지어진 몇몇 건축물은 어설픔게 한옥의 모양만 흉내내놓고 우리의 것을 재해석했니 어쩌니 하는것도 좀 우스운 모양이죠. 부분적으로 한옥적인 요소를 삽입하거나 한식 인테리어를 도입하는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한옥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시스 2011-05-09 오전 10:34:18

겉데기만 가지고 한옥이다 라는 접근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단순히 돌로 마감하고 지붕에 기와를 얹었다고 전통성을 살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l4j 2011-05-09 오전 10:14:30

건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미래를 꿈꾸는 거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복을 입고 생활하지 않듯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에게 맞는 시대정신과 건축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한옥을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집으로 짓는것은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여도 공공건물로서의 한옥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아닐까 합니다.

Ginnie 2011-05-09 오전 10:04:23

문제는 조화라는 것이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할듯합니다.

일심 2011-05-09 오전 9:57:05

한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과 디자인으로 거듭나야 할것이다

천상천하유아독존 2011-05-09 오전 9:31:33

제대로된 한옥의 미를 살려주었으면...

dissertation 2011-05-09 오전 9:29:28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면 좋을 듯 합니다.

sam 2011-05-09 오전 9:28:33

공사비를 낮출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 왜냐하면 재료비뿐아니라 인건비도 한옥에 대하여는 너무높다.

보령 2011-05-09 오전 9:27:28

..

건국 2011-05-09 오전 9:24:56

한국의 미를 한국의 공공청사에 보는 것은 뿌듯한 일이겠쥬. 그러나 목부재도 콘크리트로하는 것은 사양.

통인지성 2011-05-09 오전 9:22:05

한옥, 한식 이모든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옛것을 존중한다는 의미로만 받아들려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열심히 시대에 적합한 건축을 한다면, 100년후 지금의 아파트는 가장 한국적인 건축물이 될것 입니다.

mascot 2011-05-09 오전 9:21:43

완전 한옥식 보다는 현대성과의 조화가 더 좋을듯..

HEOKWAHN 2011-05-09 오전 9:09:42

목구조로 한옥을 지어야 제맛인듯

chlrhuh 2011-05-09 오전 9:00:01

그저 일반 공공청사 건축물에 기와장 몇개 붙여놓고 한국의 미라고 할 거면 안 하는게 낫습니다. 한옥은 기본적으로 1층 구조인데, 수개층짜리 공공건축물을 한옥식으로 짓는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차라리 내부를 한국적으로 꾸미거나, 가로등, 의자등 소품을 한국적 디자인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2011-05-09 오전 8:10:48

한국적인 미를 살리면서도 한옥이어서 불편한점을 현대적인 공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었으면 합니다.

kss 2011-05-09 오전 8:06:42

모든 건축물들은 그시대의 문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얼음왕자 2011-05-09 오전 7:04:33

전통과 현대의 조화. 전통과 현대감각, 편리함 등이 같이 버무려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맑고향기롭게 2011-05-09 오전 6:55:58

전통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대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현대성을 조화시키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릭 2011-05-09 오전 6:37:50

공공건축물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동사무소를 말함인지 구청규모를 말하는지..용적율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전통 한옥이란 여백의 공간미로서 바닥면적을 많이 차지한다. 일전에 콘크리트 광화문을 목조로 다시 지은 이유중 하나가 모양만 한옥인 것을 과감히 구조조정한 것이다. 청와대가 콘크리트 구조인 것 같다.과거 신라시대 황룡사지 9층 목탑같은 규모도 엄청난 마당의 바닥면적을 필요로한다. 한옥의 멋은 공간 플러스 목조의 미학이다.복촌한옥처럼 좁은 구조는 아닐 것같은데,수도권은 집지을 땅이 없어 GB도 수용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번두리지역은 단독 허물어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데, 어느곳은 난개발이요 어느곳은 문화르네 상스를 주장하는데 헛갈린다. 환경적 측면에서 가뜩이나 병해충이나 이상기온으로 사라지는 소나무종의 개체수를 기하급수적으로 감소시킬 것 같다. 일견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재개발 재건축도 한옥마을로 만들 것 같다. 어려운 건설시장에 새로운 틈새를 만드는 궁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고토 2011-05-09 오전 6:19:07

조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여킵 2011-05-09 오전 3:28:02

일반 건물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할 것 같다

카지노 2011-05-09 오전 1:27:06

한옥으로 지어 한국적 미를 살리는 것이 좋다

New Yorker 2011-05-09 오전 12:18:52

한옥과 현대 건축물을 조합하여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좋다.

부록 3.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보급을 위한 공무원 대상 수요조사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입니다.

현재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국토해양부 한옥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3문항 정도로 1-2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조사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자체에서는 한옥으로 공공건축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아니오
<p>한옥으로 지을 의향이 있는 공공건축물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2-3개 가능)</p> <p>예시) 박물관, 공연장, 전시관, 홍보관, 체험관, 주민센터, 어린이집, 노인정, 마을회관, 어린이 도서관 등</p>	<p>한옥으로 공공건축물을 짓기에 꺼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예시) 높은 건축비로 인한 사업비 확보의 부담 한옥관련 정보의 부족 비효율적 공간 사용 등</p>
<p>정부에서 한옥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까?</p> <p>예시) 표준품셈의 제공 디자인 품질 체크리스트 프로그램별 한옥 수용 여부 등</p>	<p>국가에서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한다면 사업진행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p> <p>네(다음으로) 아니오(끝)</p>
	<p>사업지원비의 적정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p> <p>예시) 일반건축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더 드는 비용을 지원</p>

□ 수요조사 결과

	의향 여부	네		아니오		
		의향이 있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제공 내용	꺼려지는 이유	사업비 일부 제공 시 진행 의사	적정금액은
서울시청 김만호	Y	화장실	디자인에 대한 지침 요구			
서울시청 이경아	N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어간다	Y	건설비용의 절반이 상
서울시강남구 이효중	Y	주민센터	품질에 관한 사항			
서울시강동구 신복철	Y	마을회관	설계도면과 실시도면이 제공 요구			
서울시강북구 박병규	N			한옥의 특성상 공간이 용에 비효율	N	
서울시강북구 한영석	Y	주민센터	디자인에 관한 지침 요구			
서울시강서구 이호경	Y	주민센터, 마을회관	다디자인에 관한 지침 요구			
서울시관악구 박병호	Y	한옥건축물이란 정의가 모호하여 추진하고자 하 는 건축물 탐색이 어렵다	한옥을 지어야 마땅한지 여부 제공			
서울시관악구 이상문	N			최근 건축물 신축	Y	50%이상 지원 요구
서울시광진구 강지영	N			한옥에 관한 정보 부 족	Y	건축비추가되는 부 분에관한지원 요구

서울시노원구 김창일	N			한옥의 특성상 많은 인원을 수용하거나 여러가지 부피가 큰 집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공간적인 애로사항이 많음 더불어 토지이용에도 비효율적임	N	
서울시도봉구 김태완	N			한옥의 건축비가 일반 건축비에 비해 많이 들고 일개 지자체에서 비용충당하기가 어려움 또한 한옥에 관련 되거나 한옥 건축에 관련되서 정보의 부족	Y	전액지원요구
서울시동대문구 최원준	Y	주민센터나 어린이집을	표준품셈과 한옥건축물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설계시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하길 원함			
서울시동작구 이은경	Y	경로당	표준품세와 한옥건축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건축하는데 걸리는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를 요구			
서울시서대문구 박성식	N			예산문제와 공간비효율성	Y	전액
서울시서대문구	N			한옥으로 건축할 만한 대상이 없음	Y	총건축비의50%이상 지원적정

김정수				한옥 건축비용이 과다함		
서울시서초구 최지원	Y	전시관이나 공연장	한옥건축물을 짓는데 필요한 공사비			
서울시성동구 장일	N			공간적인 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N	
서울시송파구 이은미	Y	주민센터	표준품셈요구			
서울시영등포 구 전영진	N			공간활용에 있어서 비 효율적이다	N	
서울시 용산구 황미숙	N			건설에 따른 비용문제	Y	전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서울시은평구 박숙근	N			금액이 너무 과다함	N	
서울시은평구 이우진	Y	박물관	표준설계도,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용역 요 구			
서울시은평구 이진원	Y	박물관	표준품세			
서울시은평구 표정혜	Y	문화체험시설	한옥설계도면에 관한 지침			
서울시은평구 송지영	Y	박물관	표준품셈			
서울시종로구 정일선	Y	주민센터, 문화센터	표준품세, 디자인			
서울시종구	N			한옥건축물 시공이 어	Y	총건축비의 80%가

최승일				려움		적절
서울시중랑구 권정천	N			예산부족	Y	총건축비의 70%가 적절
부산시강서구 장도영	Y	주민센터	표준품셈			
부산시기장군 진두석	Y	주민센터, 보건소	디자인, 표준품세			
부산시남구 박창호	Y	경로당	한옥물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산출해주는 지침 필요			
부산시동구 최복식	N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부족하다	N	
부산시진구 최민승	N			편의성이 부족하여 생 활하는데 불편함	Y	한옥을 건축하는데 드는 추가비용
부산시북구 송갑수	Y	주민센터	디자인에 대한 지침			
부산시사상구 조위진	N			공단지역이라서 주변 경관과 부조화	N	
부산시사하구 김영란	N			이미새롭게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이있음	N	
부산시서구 김천술	Y	마을회관, 노인정	표준품세, 디자인과 품질, 프 로그램별 한옥수용여부			
부산시수영구 조태호	N			선례가없음	N	
부산시연제구 민영천	N			비용문제	Y	총 건축 비 의 30~40%
부산시해운대 구	N			비용과다, 공간비효율 성	Y	총건축비의 50%

장해진						
인천시청 조완제	N			예산문제	Y	총건축비의 50%
인천시청 홍기주	Y	영빈관	한옥관련정보제공			
인천시강화군 이진경	N			기타	Y	총건축비의 60%
인천시남구 정현철	N			사업비용문제, 고층으 로 못올림	Y	총건축비의 50%
인천시남동구 박효순	N			저층위주의 불편함	N	
인천시부평구 윤경아	N			토지마련하기가 힘들	Y	총건축비의 50%
인천시옹진군 박기문	N			방수문제, 유지관리비 용문제	N	
인천시중구 백선경	Y	박물관, 주민센터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디 자인의 제시			
광주시청 이은상	N			사업비용의과다	Y	전액지원
광주시청 김훈	N			논의된 바가 없음	Y	총건축비의 50%
광주시광산구 이남준	Y	도서관, 박물관	표준품셈			
광주시남구 이옥균	N			예산부족문제	Y	전액
광주시동구 성경훈	Y	주민센터, 사업소건물	구조개선이나 내구성관련 설계 지침			

광주시북구 심재문	N			비용문제	Y	30억
대구시청 서영태	N			예산문제	Y	총건축비의 50%
대구시남구 손원익	Y	마을회관	표준품셈			
대구시달서구 장희근	N			공사기간과 비용	Y	총건축비의 50%
대구시동구 김광규	N			예산문제	Y	전액지원
대구시서구 전영진	N			비용과다	Y	총건축비의 80%
대구시수성구 이정주	N			생활하는데 불편	N	
대전시청 이풍우	N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 음	Y	총건축비의 50%
대전시동구 정윤희	N			예산문제	Y	무응답
대전시서구 이기승	N			사업비	Y	총건축비의 50%
대전시유성구 박현규	N			사업비, 공간비효율	Y	총건축비의 50%
대전시중구 김동수	N			주변경관과 안어울림	N	
울산시청 박규영	N			공사비용문제	Y	총건축비의 40%
울산시남구	Y	노인정, 어린이집	표준품셈			

송복순						
울산시동구 김강호	N			토지확보가 힘들, 층수가 너무 낮음	N	
서울시광진구 조기래	N			예산부족	N	
서울시구로구 김미선	N			이미 새로 건축물을 신축	N	
대전시중구 김동수	N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음	N	
울산시북구 최유미	N			검토안함	Y	총건축비의 50%
울산시중구 김경주	N			공간비효율	N	총건축비의 50%
경기도가평군 이상렬	Y	체험관	필요없음			
경기도고양시 박인성	N			예산부족	Y	전액
고양시일산동 박광호	Y	박물관	건축관련절차, 행정지원			
경기도과천시 이희철	N			예산부족	Y	총건축비의 70%
경기도군포시 서승식	N			예산부족	Y	총건축비의 50%
경기도김포시 유정수	N			고려 해본적이 없음	Y	총 건축비의 30~40%
경기도남양주시	Y	주민센터, 도서관	디자인, 내부구조			

신영호						
경기도동두천 시 최원석	N			주변경관과 안어울림	N	
부천시소사구 김광용	N			선례없음	Y	총건축비의 80%
부천시원미구 김동현	N			수요없음	Y	총건축비의 50%
경기도성남시 현지희	N			한옥비선호	Y	총건축비의 50%
성남시분당구 강완형	N			관리어려움	Y	추가비용
성남시수정구 장세희	Y	주민센터	디자인과 품질 체크리스트			
성남시중원구 이용직	N			예산부족	N	
수원시권선구 배희섭	N			주변경관과부조화	Y	총건축비의 50%
수원시영통구 김강현	N			관련정보 부족	Y	총건축비의 50%
수원시장안구 손주연	N			이용의 불편	N	
경기도안양시 한경희	N			사업비	Y	총 건축 비 의 20~30%
안양시만안구 장은주	N			지을만한 토지가 없다	Y	총건축비의 50%

경기도양주시 이현수	N			실용성이 없고 자금이 많이들	Y	총건축비의 70%
경기도양주시 박준경	N			검토계획이 없음	Y	총 건축 비 의 60~70%
경기도양평군 허문희	N			디자인이 촌스럽고 공 간활용에 불편함	Y	총건축비의 80%
경기도연천군 배영민	Y	주민센터	디자인에 대한 지침요구			
경기도오산시 이하늘	Y	공연장	디자인에관한 사항 요구			
경기도용인시 김영민	N			정보부족	N	
용인시기흥구 윤진	Y	박물관	표준품셈 요구			
용인시수지구 이준영	N			시공에 편의성 부족	Y	총건축비의 50%
용인시처인구 백승진	Y	박물관	디자인 지침 요구			
경기도의왕시 김규원	N			건축할만한 장소 부재	Y	총 건축 비 의 70~80%
경기도의왕시 인문식	N			자금문제	N	
경기도의정부 시 송수	N			한옥이 필요없음	Y	총건축비의 80%
경기도하남시 박수조	N			공간사용의 비효율성	Y	총건축비의 60%

경기도화성시 이정아	N			시공방법을모름, 정보 부족, 예산문제	Y	총건축비의30%
강원도청 이준호	Y	주민센터	현대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건 축형태의 제시			
강원도강릉시 이진균	Y	박물관	화재방지대책			
강원도고성군 이정구	N			예산문제, 여건부족	Y	20억
강원도삼척시 홍훈정	Y	박물관	표준품셈			
강원도영월군 홍은중	Y	주민센터	표준품셈			
강원도원주시 최인석	Y	노인정	건축구조와 시공방법			
강원도인제군 박광진	N			선례없음	Y	평당 1500만원
강원도정선군 정성호	N			한옥관련정보부족, 설 계비상승	Y	총건축비의 50%
강원도철원군 최인기	Y	박물관	표준품셈			
강원도춘천시 김지훈	N			자금부족	Y	10억
강원도태백시 권우혁	N			이미건축된 한옥건물 이 있음	N	
강원도평창군 신승호	Y	노인정, 전시관	장소에 알맞은 형태의 한옥제 시			

강원도홍천군 홍성갑	Y	박물관, 어린이집	한옥건설에 대한 표준메뉴얼 제시			
강원도화천군 이병호	N			필요성이 없음	N	
강원도횡성군 신광섭	N			공간비효율성	N	
충북도청	Y	주민센터	표준품셈			
충북괴산군 김태연	N			건축단가 비쌈	Y	총건축비의 50%
충북음성군 하주형	N			검토해본적 없음	Y	총건축비의 80%
충북제천시 김경희	Y	청사	한옥의 특징보여주기(디자인)			
충북증평군 박주현	N			예산문제	Y	10억
충북청원군 박미영	N			예산이없음, 공간상문 제, 인식이안좋음	Y	총건축비의 50%
충북청주시 권창식	Y	전시관	디자인과 품질 체크리스트			
청주시상당구 최지혜	Y	주민센터	외관, 디자인 제공			
청주시흥덕구 한은진	N			불편해서	Y	총건축비의 50%
충청남도 홍연숙	N			재원문제	Y	총건축비의 80%
충남계룡시 김태진	N			지역의특성과 안맞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듦,	Y	총건축비의 50%

				주변지역에 한옥이 없음		
충남금산군 김선영	N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감	Y	총건축비의 50%
충남당진군 김창민	Y	어린이집, 박물관	표준품셈			
충남보은시 오은석	Y	주민센터	표준품셈			
충남부여군 김영규	Y	박물관, 노인정	디자인과 품질 체크리스트			
충남서산시 김영문	N			예산부족	Y	총건축비의 50%
충남아산시 이아람	N			주변환경과 부조화	N	
충남연기군 김기후	Y	주민센터, 박물관	표준품셈			
충남예산군 임동빈	Y	박물관, 전시관	디자인과 표준 설계 지침			
충남천안시 김주성	N			도시화 된지역과 어울리지 않음	N	
천안시동남구 전재현	N			지역 특색과 맞지않음	N	
천안시서북구 안일학	Y	주민센터, 박물관	표준품셈			
충남시태안군 박승태	Y	주민센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제시			
충남시홍성군	N			예산부족	Y	20억

구재호						
전라북도 조성규	Y	면사무소	가격을 낮출수 있는 정보			
전북고창군 유성진	N			사업선정되기가 어렵다, 예산부족, 관심도가 낮다	Y	총건축비의 50%
전북군산시 진방택	Y	주민센터	디자인표준설계도제공			
전북김제시 김우성	Y	마을회관	표준품셈			
전북남원시 김창주	N			예산부족	Y	10억
전북무주군 김지영	N			예산부족, 공간비효율	N	
전북부안군 김천중	Y	박물관, 노인정	디자인관련 지침			
전북순창군 정영호	Y	박물관, 전시관	표준품셈			
전북완주군 이성호	Y	주민센터, 노인정	디자인, 품질 체크리스트			
전북완주군 신국섭	Y	주민센터, 노인정, 박물관	표준품셈			
전북완주군 송기철	N			실용성이 떨어짐	N	
전북임실군 신현정	Y	마을회관, 홍보관	프로그램별 한옥수용여부			

전북익산시 배수문	Y	마을회관, 주민센터	디자인, 품질 체크리스트			
전북전주시 김천환						
전북전주시 이용민	Y	주민센터	한옥건축기준필요(구조와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예산 지원필요			
전북전주시 박용근	Y	주민센터	프로그램별 한옥수용여부			
전북전주시 김철수	Y	주민센터, 마을회관	건축설계 지침 관련 내용			
전북정읍시 이재훈	Y	마을회관, 박물관	표준품셈			
전주시완산구 박하영	N			관련지시가 없다	Y	전액
전북진안군 김양수	N			예산부족	Y	20억
전라남도 심동섭	Y	마을회관, 주민센터	표준품셈			
전남강진군 박상함	N			예산부족문제	Y	총건축비의 60%
전남강진군 이송하	Y	주민센터	디자인, 품질 체크리스트			
전남고흥군 장성은	N			예산부족	Y	총건축비의 80%
전남곡성군 임수연	N			예산부족	Y	총건축비의 90%

전남광양시 이승희	N			예산부족	Y	총건축비의 80%
전남구례군 진성호	Y	주민센터, 마을회관	표준품셈			
전남나주시 김을희	N			여건부족	Y	15억
전남담양군 김영빈	Y	박물관, 전시관	한옥 디자인이나 내부 구성 요소			
전남목포시 조용선	N			관련사업의 부재 예산 부족	N	
전남무안군 한성도	N			자금상황이 안좋음	N	
전남보성군 박선영	Y	도서관, 박물관, 노인정	디자인, 외관이 주변과 어울리게 지침 제시			
전남보성군 조소영	Y	주민센터	표준품셈			
전남순천시 양동석	N			검토안해봄, 예산부족	Y	총건축비의 50%
전남신안군 문혁	N			환경조성의 어려움, 예산부족	Y	총건축비의 80%
전남여수시 정학근	N			활용도미미, 사용에따른 불편	N	
전남여수시 조동주	Y	박람회	설계재료 등에 관한 매뉴얼			
전남여수시 송호기	Y	전시장	디자인, 품질 체크리스트			
전남여수시	Y	마을회관	표준품셈			

임경아						
전남영광군 윤상근	N			예산부족	Y	총건축비의 90%
전남영광군 임원섭	N			한옥에 관심 부족, 예산부족	Y	총건축비의 80%
전남영암군 김소연	Y	박물관, 보건소	디자인, 품질 체크리스트			
전남완도군 김광호	Y	박물관, 노인정	표준품셈			
전남장성군 조홍석	N			예산부족	Y	30억
전남장흥군 정병권	N			군비의 부족	Y	총건축비의 50%
전남장흥군 임희춘	N			예산부족	Y	총건축비의 80%
고령군	Y	박물관	- 있으면 좋겠다고 답변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 이미 고령군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음			
		한옥체험시설				
		한옥집성촌 (완료사업들)				
		이미지 여건(주변환경과)이 맞는다면 만들겠다.				
구미시		실무자가 아니라 답변 못하겠다고 함				
군위군						
김천시	Y	박물관, 문학과	표준품셈			

문경시	N	현재 한옥건축물은 문경 세제 한옥 건축물, 옆에 박물관 있다고 답변함		- 돈이 많이 든다.	Y	- 한옥 건축비가 평당 1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반 건축물 600정도와의 차이
				- 주민들과의 협조가 어려움	돈 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우선시 생각 되어 한다고 답변	-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다. 70%까지 언급
				- 주변환경, 경관과의 부조화(빌딩사이에 한옥 한채만 있는건 이상하다고 답변)		
봉화군						
상주시	Y	한옥단지가 필요 하다고 함.	표준설계도			
			우수사례 조사 자료 등을 주면			
		현재 계획은 없지만 시의 이미지 제고, 관광 산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 함	진행하는데 좋겠다고 답변 함.			
		상주시의 관광물이나 특산물과 연계해서 하고 싶다고 답변 함.				
성주군	Y	- 문화체육과 관광산업	문화재청에 가이드라인이 있고			

		손승모				
		현재 역사전시관(성산리 소재)				
		역사 신화공원전시관(백운리)	현재 문화재청에 국비를 지원 받아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계획중임			
		에 계획중이라고 답변				
			건물 외관 에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가스통 가리개 등)			
		-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이강준				
		민속마을 한계마을 담당자				
		현재 체험관 유물전시관 마을회관				
영양군	Y	계획이 있음				
		- 마을회과, 전통주 복원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	한옥건축 관련 전통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함.			
			현대식 건물이 그다지 보기 좋지 않다고 답변함(개인적인 생각이 좀 반영 된거 같음)			
영주시		- 마을회관은 돈이 많이 든다고 답변함.				
		담당부서 없다는 말만				
영천시	N	민원과 이강홍		평면계획이 어렵다	Y	50%이상

				실용성이 떨어진다		
예천군		재무과 재산과리계(6138) 출장중				
울릉군		모든부서가 관리하기에 답변하기 힘들다. 일단은 계획은 없다.				
울진군	N	민원실 건축 황성욱		건축비가 높고 실용성 이 떨어진다.	특정부분에서는 가능	일반적인 건축물 대 비 추가적으로 더 드는 비용
포항시	N	-새마을담당 / 이상철 / 054-270-2453		-공사비용	-아직 한옥사업이 보 존측면에서는 이루어 지고 있지만 개발쪽에 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면적에 비해 활용공 간이 적다	따라서 국비지원을 말 할 단계가 아니다.	
				슬라브구조가 아닌 목 재구조라서 활용이 비 효율적이다.		
	Y	-문화예술과 / 박주현 / 054-270-2265	현재 전통체험관 지붕을 한옥 형태로 짓고 있음	-행정직이라 시공관련 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행정부분에 서는 우수사례가 있었 으면 좋겠다고 함		
		전통문화체험관				
				-과장 급 이상으로 물 어보라고 답변함		

	N	-건축과 / 김병규 / 건축 허가		-현재 포항시에서는 한옥관련 건축물 계획이 없다고 함 -검토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함	-만일 국비가 들어온다면 의향이 있다고 함	-현재 일반적인 공모로는 평당 5~600이 드는데 한옥같은 경우는 평당 천만원정도 생각하기에 초과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답변함
포항시 남구	N	-새마을담당 / 김성현 / 054-270-6024		-현재 주민회관 같은 경우는 2층을 창고로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슬라브로 지음	Y	현재 구에서 7~9천 정도를 30평 건설에 사용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관한 업무, 새마을시설물 및 공동재산 관리		-따라서 주민들이 한옥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함		이외 추가분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답변함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자료 보충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문화관련 과가 없고 전부 하는 말이 시청에다가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함)				
포항시 북구		-새마을담당 / 이상훈 / 054-240-7024		-현재 구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시에서도 계획이 없다면 구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없을거라고		
		전부 하는 말이 시청에다				

		가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함		답변함		
경상남도	N	- 문화예술과/문화정책담당/조승환		-사업비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고려해 볼수는 있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다고 답변함
				-경주, 전주는 모르겠지만 경남쪽 이미지와 한옥의 이미지는 잘 맞지 않음		
		현재 도차원에서는 문화 계획이 없음		-도 차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힘들		
	N	-도시건설국 건축과 / 문덕섭		-수요가 없기 때문에 힘들것이라 생각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음	
				- 사업비가 많이 듦		
		현재 계획이 없음		-도차원의 공공시설은 규모가 크기때문에 한옥이 적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비용, 공간활용)		
거제시	N	-문화공보과 / 김석규 / 055-639-3097		-현재 구에서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의향이 없다고 함.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거제시와의 사업성격이 맞아야 진행 할 수 있다고 답변 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없음				
	N	-회계과 / 김사모아 / 055-639-3175		-시공관련해서 현대 건축과 전통 건축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공 회사를 찾기가 힘들	Y(개인의견)	50~70%정도

						현재 짓는 일반 건축물의 초과비용에 대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답변하였고 그 %지가 50~70이라고 생각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없음		-전국을 대상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힘들		
거창군		문화 관련 6번을 전화했지만				
		전부 돌리기만 합니다..... TT TT				
	Y	-도시건축과 / 김춘곤 / 055-940-3601 노인정, 마을회관 수준일 것이다.	건축비 관련해서 많은 자료가 내려왔으면 좋겠다.			
고성군	N	-도시주택과 / 남말순 / 055-670-2683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음	Y	70%
				-수요가 없음(리모델링이 불필요함)		(현대 건축물과 조화된 개량한옥 스타일이니깐 70%정도가 괜찮을 것이라고 답변)
				-공사비가 많이 듦		

남해군	N	-생태도시과 건축 / 강우선 / 055-860-3095		-단층이라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Y	50%
		(계획중인 거 없음)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 국비보조가 많은 80에서 적게는 50까지 이루어 지는데 이에 봤을 때 50%가 적당하다고 생각
사천시	Y	-건축과 / 하신히 / 055-831-3219		-예산지원, 유지.보수 까지 책임 져 줬으면 좋겠다.		-국비 50%
						도비 30%
		-고가마을에 마을회관정도		-현재 개량한옥을 지을 수 있는 건축가만 허가가 되어 있지만 전통한옥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허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비 10~20%
		-현재 한옥 건축 계획은 없음				
						해줬으면 좋겠다.
의령군	N	-건축담당 / 윤준필 / 055-570-2164		-시공이 까다로움	Y	50%
				-공사비가 많이 듦	군 단위 마을이라 시골풍경이 많이 남아있어 한옥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함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
						목조건물의 전통한

						옥인지 개량식 한옥 인지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지원 할 때 힘들 것 같다 고 답변함
진주시	N	-회계과 공공시설계 / 박 경민 / 055-749-2139		-공사비가 많이 듦	N	100%
		익명을 요구하였음		-목재->유지,보수 어 렵다	현재 규모가 큰 사업 들은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지만 국비 를 받으면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 진다.	
		계획중인 사업 없음				
창원시	Y	-주택정책과 공공건축 / 강구호 / 055-255-4205	-사례 보급			
			한옥 도입시 상당한 단점이 있 기때문에(2층 활용 못하고, 단 열 등..)이를 극복한 사례를 보 급해 주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 다.			
		웅천 도요지 창원역사민속전시관				
	N	-주민생활과 / 이영우 / 055-225-3843		-사업비	Y	50%
				문화과에서 있을 시절 한옥건축물 도입을 추 진하였지만 현재 나라		

				에서 지원해주는 국비 사업은 일년에 몇 개 안 뽑기에 추진 하지 못하였다		
		현재 노인정 마을회관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적어도 월 단위로 년 단위로 도 단위씩으로 라도 지원대상을 선정 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거 같고함		
		예전에 문화과에서 한옥을 추진한 적이 있다고 하였음		재료도 한국산으로 다 사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에 사업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답변함.		
창원시 마산합포구	N	-건축과 / 김주엽 / 055-220-4722		-공사비가 가장 크다	Y	50%
		현재 계획이 없다.			대형건물은 어렵고 소 규모 동사무소가 잘 어울릴 것이라고 답변함	
창원시 마산회원구	N	-행정과 / 이재열 / 055-225-3843		-공사비	Y	일반 건축비와 한옥 건축비와의 차이 정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답변함
		현재 계획이 없다.		-불편하다 (활용도 측면)		
				-대형건물에 한옥을 매치 하기가 어렵다.		
창원시 성산구		-건축과/구선희				

		관련 부서가 없으므로 시에 문의하라는 말 밖에...				
창원시 진해구	N	-건축과 / 이승만		-공사비	Y	-개량 한옥일 시 20~30%
		현재 구에서는 동청사를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데 알기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실용성		-전통 한옥일 시
						50%
통영시	N	-건축과 / 윤성훈 055-650-5726		-공사비	Y	최하 50%에서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에 대해서 답변 해줌		-한옥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이 아직 부족 하다.		70%
		현재 계획이 없다고 함.				
하동군	Y	-문화관광과 / 이충열 / 055-880-2382	표준단면도			
		현재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 부대설서에 대해서 계 획이나 지어진 사항이 있 다고 답변함	표준품셈			
			한옥의 지식에 대한 사항들			
	N	-주민복지실 / 김향화 / 055-880-2332		-한옥을 꺼리는 건 아 니지만 현재 한옥에 대한 관련 지식이나 인식이 전혀 없는 상	Y	시범적으로 사업이 실시 될 경우 최소 50%이상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경로당, 주민회관 등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함.		태라고 함		고 답변함.
함안군	N	-주민복지실 / 하종수 / 055-580-2365		-현재 대부분 노인정을 많이 짓는데 엘리베이터나 기계실 혹은 물탱크 등을 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Y	단층 30평 기준으로 20~30%정도 지원을 바란다고 답변함.
		경로당, 주민회관 등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함.				
함양군	N	-문화관광과 / 이희대 / 055-580-2321		-건축비	Y	사업에 따라 검토해 봐야 %를 알 것 같다고 답변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없음		-유지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든다.		
	Y	-문화관광과 / 박지숙 / 055-960-4223	-우수 사례가 왔으면 좋겠다고 함.			
		-전시관 등에 대해서 한옥 건축물이 필요한 곳에 지을 계획이 있다				
합천군	N	-도시건축디자인과 / 어장수 / 055-930-3432		-건축비	Y	많이 주면 좋겠다고 대답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없음		-건축활용의 문제점		